

韓國漢文教育學會

2020年度 夏季學術大會

한문교과를 통한 융합교육의 구현

일시: 2020년 7월 4일(토)

장소: 대학로 토즈

주최 및 주관: 한국한문교육학회

후원: (재)국제교류진흥회

韓國漢文教育學會

2020年度 夏季學術大會

한문교과를 통한 융합교육의 구현

일시: 2020년 7월 4일(토)

장소: 대학로 토즈

주최 및 주관: 한국한문교육학회

후원: (재)국제교류진흥회

韓國漢文教育學會 2020年度 夏季 學術大會

가. 주제 : 한문 교과를 통한 융합교육의 구현

나. 일시 : 2020년 7월 4일(토)

다. 장소 : 대학로 토즈

라. 방법 : 자료집 제작 배부

마. 발표 및 토론 세부 내용

일정	발 표 및 내 용
1부 한문과에서의 다학제간 융합교육을 위한 제재 모색 및 구현	■ 기초강연: 漢文科 基盤 融合教育의 方向과 經路 ■ 발표자: 김왕규(한국한문교육학회 회장)
	■ 발표주제: 한문교육과 생태교육 ■ 발표자: 김우정(단국대) / ■ 토론자: 안세현(강원대)
	■ 발표주제: 이규보의 자연관 ■ 발표자: 이군선(원광대) / ■ 토론자: 김성중(계명대)
	■ 발표주제: 「최척전」에 나타난 동아시아와 다문화 ■ 발표자: 최지녀(홍익대) / ■ 토론자: 김은정(홍익대)
	■ 발표주제: 『우념재시문초』 소재 일본사행시 창작 배경 연구 - 필담창화집 소재 이봉환 작품과 비교를 통하여 ■ 발표자: 이경근(서울대) / ■ 토론자: 이효원(東京大)
	■ 발표주제: 「李生窺牆傳」과 「그 여자네 집」 함께 읽기를 통한 한문소설 수업 방안 모색 ■ 발표자: 김하라(전주대) / ■ 토론자: 김수영(서울시립대)
	■ 발표주제: 「은애전」을 통해 본 조선후기 법의식 - 복수를 권하는 사회 ■ 발표자: 김유진(서울대) / ■ 토론자: 백승호(한남대)
2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한문과 융합교육의 실천	■ 발표주제: 한문과에서 다문화 학생 문화 교육 ■ 발표자: 배희정(원곡고) / ■ 토론자: 장재익(수완고)
	■ 발표주제: 자율 동아리 활동을 통한 다문화교육과 한자어휘교육 ■ 발표자: 나해진(시화중) / ■ 토론자: 정효영(등촌중)
	■ 발표주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한문교육 ■ 발표자: 공민정(두루중) / ■ 토론자: 이동일(청명고)
	■ 발표주제: 고등학교에서 교실 밖 '한문'하기 ■ 발표자: 윤세훈(상무고) / ■ 토론자: 김은경(성사고)
	연구윤리 교육
	총회 및 폐회식

목 차

기 조 강 연

漢文科 基盤 融合教育의 方向과 經路 / 김왕규(교원대) 1

1부 한문과에서의 다학제간 융합교육을 위한 제재 모색 및 구현

한문교육과 생태교육

발표자: 김우정(단국대) / 토론자: 안세현(강원대)

11

이규보의 자연관 발표자: 이군선(원광대) / 토론자: 김성중(계명대) 21

「최척전」에 나타난 동아시아와 다문화 발표자: 최지녀(홍익대) / 토론자: 김은정(홍익대) 29

『우념재신문초』 소재 일본사행시 창작 배경 연구 - 필담창화집 소재 이봉환 작품
과 비교를 통하여 발표자: 이경근(서울대) / 토론자: 이효원(東京大) 39

「李生窺牆傳」과 「그 여자네 집」 함께 읽기를 통한 한문소설 수업 방안 모색
발표자: 김하라(전주대) / 토론자: 김수영(서울시립대)

「은애전」을 통해 본 조선후기 법의식 - 복수를 권하는 사회 | 71
 발표자: 김유진(서울대) / 토론자: 백승호(한남대)

2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한문과 융합교육의 실천

한문과에서 다문화 학생 문화 교육

발표자: 배희정(원곡고) / 토론자: 장재익(수완고)

89

자율 동아리 활동을 통한 다문화교육과 한자어휘교육 | 101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한문교육 발표자: 공민정(두루중) / 토론자: 이동일(청명고) 109

고등학교에서 교실 밖 '한문'하기 발표자: 윤세훈(상무고) / 토론자: 김은경(성사고) 119

투표권 | 137

기조강연

漢文科 基盤 融合教育의 方向과 經路

/ 김왕규(교원대)

<기조 강연>

漢文科 基盤 融合教育의 方向과 經路

金王奎(한국교원대)

目 次

- I. 緒言
- II. 한문과 기반 융합교육의 方向
 - 1. 한문과 기반
 - 2. 한문과 교과 역량 기반
 - 3. 교과교육 및 범교과 학습 주제 기반
- III. 한문과 기반 융합교육의 몇 가지 經路
- IV. 餘言 : 향후 과제

I. 緒言

오늘, 우리는 ‘한문교과를 통한 융합교육’을 具顯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이 시점에서 융합 교육을 거론하는 것은 국가 교육과정 총론¹⁾이 지향하는 목표를 교과 내적으로 收斂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점과 한문과의 外延을 확장하여 작금의 한문과의 低落된 교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方便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런데 교과의 位相은 무엇으로 정해지는 것인가? 필자의 생각으론, 교과의 위상을 결정짓는 몇 가지 요인이 作動한다고 보는 데, 우선 교과의 가치를 들 수 있고 다음으로 교과에 대한 시대적·사회적 요구를 들 수 있다. 교과가 保持한 내적 가치와 특정 교과에 대한 시대, 사회적 요구가 일치하는 경우, 그 교과는 학교 교육에서 優位的으로 그 위상을 확보할 수 있지만, 한문과의 경우, 교과의 가치와 달리, 그 위상이 低落되어 급기야 枯死 직전에 놓여 있다. 설상가상으로 한글 전용 및 국어기본법 등 국가 어문 정책과 맞물려 한문과는 그야말로 ‘存廢’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²⁾

저락된 교과 위상을 提高하는 방편은 무엇인가? 교육과정 총론의 ‘편제와 시단[단위] 배당 기준’에서 필수 교과로, 일정한 시간[단위]를 확보하는 것이 그 지름길이지만,

1) 교육부(2015a). 참조.

2) 김왕규(2013). 참조.

우리의 바람과 달리, 그 길은 멀고 아득하다. 이것과 무관하지 않지만, 다른 방편으로 ‘한문과의 현재적 가치, 고전의 현재적 가치, 한문 고전의 교육적 토픽’을 찾아내어, 한문교육의 현재적 가치를 제고하며, 고전 문화의 전통을 계승함과 동시에 미래를 지향하는 한문교육 고유의 지향과 의미 ‘를 명확하게 하는 작업이 그것인데, 오늘 한문교과를 활용한 융합교육 구현 작업 또한 그 一環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필자의 논의 대상은 일차적으로 학교 교육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과 교육이다. 곧, 한문과 기반 융합교육의 범위와 대상은 우선 국가 수준 총론 교육과정과 개별 교과 교육을 일차적 대상으로 하는데, 예컨대, 인권, 인성, 환경, 통일, 정치, 경제, 문화·예술, 과학 교육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국가 수준 교육과정 총론에서 지향하는 ‘범교과 학습 주제’가³⁾ 이에 해당한다. 한문 고전 자료를 활용한 학제간 융합의 사례와 한문과를 통한 융합교육의 교실 수업 사례는 동학들의 연구⁴⁾를 공부하기로 하고, 필자는 이 글에서 학교 교육, 교과교육, 융합교육, 범교과 학습 주제 등을 염두하고, ‘한문과 기반 융합교육의 방향과 경로’를 試論하기로 한다.

II. 한문과 기반 융합교육의 방향

1. 한문과 기반

한문과 기반 융합교육은 일차적으로 한문과를 기반으로 한다. 다시 말해, 한문과 기반 융합교육은 무엇보다 한문과 基盤, 곧 한문과의 성격, 목표, 내용에 근거하는 한편, 한문과의 정체성 강조와 위상 제고에 그 지향점을 설정한다. 교과 간, 학제 간 융합에서, 한문과에 기반하여 타 교과와 학문 영역을 포함하는 것인데, 여기서 한문과 기반이란, 예컨대

한문과는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와 언어생활에 활용하며, 한문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심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과이다. 또한 한문과는 선인들의 삶과 지혜, 사상과 감정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고,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며,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교과이다.⁵⁾

라는 한문과의 성격, 목표, 내용에 근거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한문과 기반 융합교육은 한문과의 학문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한문과의 교과 위상을 제고하는데 그 지향점을 둔다. 타 교과나 타 학문 영역과 융합하되, 타 교과의 내용에 陷沒되거나 타 학문 영역의 補助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을 止揚한다.

3) 교육부(2015a), 8면. 참조.

4) 2020년 7월 4일 한문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한문 고전 자료를 활용한 융합교육 사례는 김우정(한문교육과 생태교육), 이군선(이규보의 자연관), 최지녀(「최척전」에 나타난 동아시아와 다문화), 이경근(「우념제시문초」 소재 일본사행시 창작 배경 연구-필답창화집 소재 이봉환 작품과 비교를 통하여), 김하라(「이생규장전」과 「그 여자네 집」 함께 읽기를 통한 한문소설 수업 방안 모색), 김유진(「은애전」을 통해 본 조선 후기 법의식 : 복수를 권하는 사회)이 발표하고, 한문과를 활용한 융합교육의 교실 수업 사례는 배희정(다문화교육과 한문과에서의 문화교육), 나해진(자율 동아리 활동을 통한 다문화교육과 한자어휘교육), 공민정(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한문교육), 윤세훈(고등학교에서 교실 밖 ‘한문하기’)이 발표한다.

5) 교육부(2015b), 3면. 참조.

다음으로, 한문과 기반 융합교육은 일차적으로 한문 고전 자료[한문 텍스트]에 근거하는데, 한문 고전 자료의 독해 곧, 한문 고전 자료를 읽고, 풀이하고,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교수·학습 활동에 기초한다. 한문과 교육과정에 기술된 한문 고전 자료로 한자, 한자 어휘[일상용어, 학습 용어, 성어], 단문[문장], 산문, 한시, 한문 기록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혹은 수월한 교수·학습을 위해 한문 원전 번역 자료[직역 자료, 가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한문과 기반 융합교육은 한문 고전 자료에 대한 독해 교수·학습 활동이 그 중심인데,

[9한02-05] 글을 바르게 풀이하기 위해서는 단문, 산문, 한시 등에 사용된 단어나 구절의 뜻, 문장이나 문단의 의미, 글의 구조나 전개 방식, 그리고 문체와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풀이할 수 있도록 한다. 글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을 구성하는 단어, 구절, 문장, 그리고 시구의 의미를 먼저 알도록 한다. 글의 주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문, 산문, 한시 등 글의 내용 가운데 중심이 되는 내용이나 핵심이 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⁶⁾

라는 성취기준이 준거로 작동한다.

2. 한문과 교과 역량 기반

한문과 기반 융합교육은 한문과 교과 역량에 기반 한다. 주지하듯이, 교과역량의 교과 역량은 총론의 핵심 역량의 교과 수용인데, 한문과의 경우, “미래 사회에서 자기 삶의 주체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창의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의사소통 능력, 정보처리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 인성 역량, 심미적 감성 등을 교과의 중요한 역량”⁷⁾으로 설정했다. 한문과 기반 융합교육에서 특히 다음 자료가 주목되는데,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⁸⁾

창의적 사고 능력은 한자와 한문 자료에 담겨 있는 다양한 영역의 폭넓은 지식과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소양을 바탕으로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해 내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⁹⁾

라는 총론의 ‘창의적 사고 역량’과 한문과의 ‘창의적 사고 능력’이다. 특히 한문과 창의적 사고 능력은 한문과 기반 융합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매우 요긴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6) 교육부(2015b), 11면. 참조.

7) 교육부(2015b), 3면. 참조.

8) 교육부(2015a), 2면. 참조.

9) 교육부(2015b), 4면. 참조.

〈표 1〉 한문과 기반 융합교육의 방향

한문과 기반	한문과 기반 융합교육의 지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자와 한문 자료에 담겨 있는 다양한 영역의 폭넓은 지식 ·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소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창적 아이디어 산출 · 다양한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

〈표 1〉은 우리에게 교과와 융합교육에서 한문과 기반 융합교육의 지향점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한문과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바탕으로 타 교과와 타 학문 영역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하여 독창적 아이디어를 산출한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3. 교과교육 및 범교과 학습 주제 기반

한문과 기반 융합교육은 일차적으로 한문과를 포함한 교과교육 및 범교과 학습 주제를 그 범위로 한다. 주지하듯이, 교과에 대한 교육을 교과교육이라고 하는데, 교과의 하나인 한문과 교육은 학교 교과 교육의 하나로, 타 교과와 구별된다.¹⁰⁾ 한문과 기반 융합교육은 학교 교과 교육의 한 교과인 한문과를 기반으로 하고, 타 교과교육, 그리고 범교과 학습 주제를 융합의 일차적 대상 및 범위로 설정한다. 범교과 학습 주제란

범교과 학습 주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한다.¹¹⁾

안전·건강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 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등을 가리키는데, 학교 교과 교육의 공통 교육 지표 내지 교수·학습 주제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이 번 학술대회 발표 논문의 경우, 한문 고전 자료에 나타난 생태 교육, 인성 교육, 다문화 교육, 인권 교육 등이 바로 범교과 학습 주제와 연계된다. 이렇게 본다면, 범교과 학습 주제를 지향하는 융합교육은 주제 차원의 융합으로 볼 수 있고, 이와 달리, 주제를 공유하지 않지만, 한문과와 타 교과, 한문과와 보다 확장된 타 학문 영역과의 통합 또한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 한문과의 융합 교육 차원을 벗어나 한문교육 차원에서 융합 교육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Ⅲ. 한문과 기반 융합교육의 몇 가지 경로

‘融合’은 다른 종류, 둘 이상, 이질적인 지식과 경험을 前提한다. 교과 간, 학제 간 융합이 그러한데, 융합교육의 한 경로로 가능하다.¹²⁾ 다른 하나의 경로로, 한문 고전 자료의

10) 김왕규(2018), 32면. 참조.

11) 교육부(2015a), 8면. 참조.

12) 최근 백광호(2019)의 논의를 교과 간 융합 교육의 사례로 들 수 있다.

독해를 기반으로 하되, 교과교육과 범교과 학습 주제를 연계, 융합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후자에 우선한다. 한문과 기반 융합교육의 방향에서 공부하였듯이, 이 글의 주제인 한문과 기반 융합교육은 무엇보다 한문과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바탕으로 타 교과와 타 학문 영역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하여 독창적 아이디어를 산출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문과 기반 융합교육의 경로를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한다.

[자료 1]¹³⁾

君者舟也, 庶人者水也. 水則載舟, 水則覆舟. -〈荀子〉

[자료 2]¹⁴⁾

임금은 배요, 백성은 물이다. 물은 곧 배를 띄우기도 하고, 물은 곧 배를 뒤엎기도 한다.

[자료 3]¹⁵⁾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대중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과 그들의 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명석합니다. 이 말에 대하여 아마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타자의 시각이 정곡을 찌르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보지요. 강의를 할 때 敎壇에 서 있는 내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매우 유리한 위치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일입니다. 나도 학생 때에는 교단 아래에서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었지요. 그때 느낀 것입니다만 학생이란 위치 즉 교단 아래에 턱 끼고 앉아 있는 바로 그 자리는 선생의 일거수일투족이 너무나 잘 보이는 자리입니다. 강의 내용을 이해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강의 내용에 대한 선생 자신의 이해 정도가 너무나 원하게 들여다보이는 자리입니다. 마치 맨홀에서 작업하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靴部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모든 타인은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集團的 타자인 대중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중은 현명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대중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강의〉에서

‘백성은 바다요, 권세는 그 위에 뜬 일엽편주다.’

저 당나라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명언입니다. 따라서 백성을 굽주리게 하면 그 바다는 노도를 일으키며 뒤집히고, 무수한 왕조는 그 성난 바다 위에서 명멸했음을 인류의 긴 역사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 〈황홀한 글감옥〉에서

한문과 기반 융합교육은 [자료 1] 한문 고전 자료를 기반 한다. [자료 2]와 같이, 한문 단문을 읽고, 풀이하는 것이 우선이다. 다음으로 내용과 주제를 파악한다. “이 문장은 ‘백성은 임금을 임금의 자리에 세울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존재’ 라는 뜻”¹⁶⁾이라고 문장의 내용과 주제를 설명했다. 한문 고전 자료에 대한 풀이와 내용 파악을 바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대중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과 그들의 힘’이며, ‘백성은 바다요, 권세는 그 위에 뜬 일엽편주다.’ 라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산출할 수

13) 신표섭 외(2012), 43면. 참조.

14) 신표섭 외(2012), 44면. 참조.

15) 신표섭 외(2012), 45면. 참조.

16) 신표섭 외(2012), 44면. 참조.

있도록 안내하였다. 한문 고전 자료의 해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民本意識’을 융합했는데, 한문과 기반 융합교육의 사례의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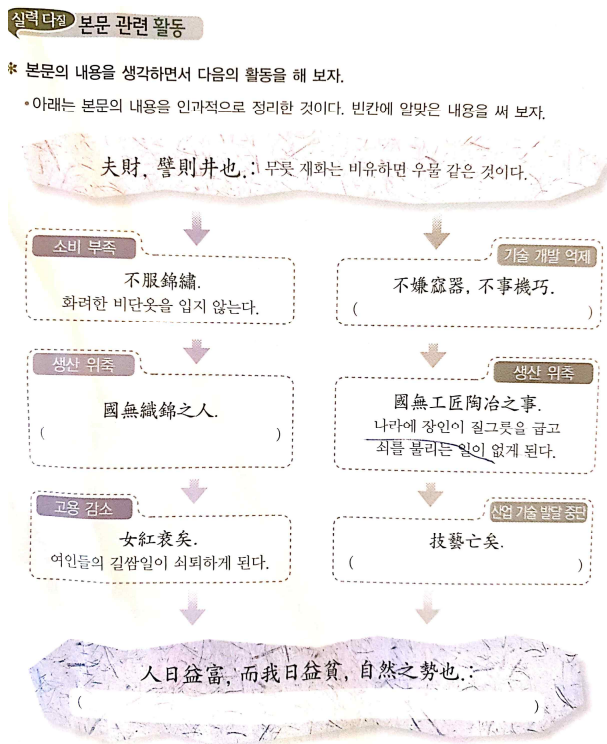
[자료 3]¹⁷⁾

夫財譬則井也，汲則滿，廢則竭，故不服錦繡，而國無織錦之人，則女紅衰矣，不嫌窳器，不事機巧，而國無工匠陶冶之事，則技藝亡矣，以至農荒而失其法，商薄而失其業，四民俱困，不能相濟，國中之寶，不能容於域中，而入於異國，人日益富而我日益貧，自然之勢也，-《북학의》

[자료 4]¹⁸⁾

무릇 재화는 비유하면 우물 같은 것이다. 길어 쓰게 되면 차고, 버려두면 마르게 된다. 그러므로 화려한 비단옷을 입지 않아서 나라에 비단 짜는 사람이 없게 되면 여인들의 길쌈일이 쇠퇴하게 된다. 조잡한 그릇을 싫어하지 않고 교묘한 재주를 일삼지 않아서 나라에 장인이 질그릇을 굽고 석를 불리는 일이 없게 되면 기예가 쇠망하게 된다. 심지어 농사가 황폐해져서 그 바른 법을 잃고 장사기 이익이 박해져서 그 일을 잃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사민이 모두 곤궁하여 서로 돕지를 못하고, 나라 안의 보배가 역내에서 수용되지 못하여 다른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 남들은 날마다 더욱 부유해지지만 우리는 날마다 더욱 가난해지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형세인 것이다.

[자료 5]



<그림 1> 북학의 ‘시정’ 교수·학습 활동¹⁹⁾

박제가의 <<북학의>>를 원 자료로 활용했고, 한글 번역문도 제시했다. 실력 쌓고 다지기에서 한자, 어구를 학습했고, 수사법을 중심으로 한문 독해 지식을 공부했다. 저자들은 한문

17) 박성규 외(2014), 137면. 참조.

18) 박성규 외(2014), 138면. 참조

19) 박성규 외(2014), 139면. 참조

고전 자료의 일차적 풀이와 문법 지식 공부를 바탕으로 확장된 교수·학습 활동을 시도했다. <그림 1>에서 소비 부족, 생산 위축, 고용 감소라는 연쇄 반응과 기술 개발 억제, 생산 위축, 산업 기술 발달 중단이라는 연구 및 기술 개발의 순환 작용 원리를 분석하고 추출했다. 한문 고전 자료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경제, 경영, 소비 등의 지식, 경험을 융합했는데, 바로 한문과 기반 융합교육의 사례이다.


[자료 5]²⁰⁾

高麗不修渤海史 °知高麗之不振也 °昔者高氏居于北曰高句麗 °扶餘氏居于西南曰百濟 °朴昔金氏居于東南曰新羅 °是謂三國 °宜其有三國史 °而高麗修之是矣 °扶餘氏亡高氏亡 °金氏有其南 °大氏有其北曰渤海 °是謂南北國 °宜其有南北國史 °而高麗不修之非矣 °夫大氏何人也 °乃高句麗之人也 °其所有之地何地也 °乃高句麗之地也 °

[자료 6]²¹⁾

고려가 발해사를 편찬하지 않았으니 고려가 떨치지 못했음을 알겠다. 옛날, 고 씨가 북쪽에 터를 잡아서 ‘고구려’라 했고, 부여 씨가 남쪽에 터를 잡아서 ‘백제’라고 했으며, 박·석·김 씨가 동남쪽을 차지하여 신라라 하였으니 이를 삼국이라 한다. 마땅히 그 삼국의 역사가 있어서, 고려가 이것을 편찬하였으니 옳다. 부여 씨가 망하고 고 씨가 망하여 김 씨가 그 남쪽을 소유하고, 대 씨가 그 북쪽을 소유하여 발해라 하였으니 이를 일러 남북국이라 한다. 마땅히 그 남북국의 역사가 있었으나 고려가 이를 편찬하지 않았으니 잘못이다. 무릇 대 씨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곧 고구려 사람이다. 그 소유한 땅은 어느 땅인가? 곧 고구려의 땅이다.

[자료 7]²²⁾




중국의 동북공정

2002년 이후 중국은 국무원 산하 사회과학원의 지시로 '민감사지 연구 중점'을 꾸려 '동북 공정'이라는 국가적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현재 중국의 동북 공정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輸入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통해 중국은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는 물론, 고조신의 역사까지도 자신들의 역사에 포함하려고 한다. 이미 중국은 2004년 중국 동북 지방에 산재하여 있는 고구려 유적 43건을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켰다. 이는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 정부에 불과하며 중국사의 일부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이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의도인 것이다. 발해사 또한 唐나라와의 문화적 연관을 거론하면서 발해를 발해족이 세운 당나라의 변방 封建 국가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유독공의 <발해고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발해고서'에서 유독공이 주장한 것처럼 우리 역사학에서는 발해를 철저히 외면하였던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고려는 물론이거니와, 고려의 문벌 귀족들에 비해 세계관이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었던 조선 건국의 주체 신진 사대부들도 고구려와 발해에 대한 인식은 고려의 수준을 넘지 못했다. 유독공이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 기록되지 못하여 인식할 수 없는 역사는 마침내 망각되어 잊어버리게 된다. 중국의 '동북 공정'이 추진되는 21세기 현실의 상황에서, 발해사는 어떻게 남의 것으로 둔갑될 지경에 이르렀다. 어쩌면 유독공은 이와 같은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발해사를 포함한 우리 민족의 모든 역사에 대해 더욱 진지한 자세와 따뜻한 애정을 가져야 한다. 다만, 여기에서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 민족사에 대한 애정이 타민족에 대한 배타성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중국의 '동북 공정'은 과거 역사적 영토까지도 현재의 영토 안에서 해석하려는 패권주의적 태도이지만 이에 대한 대응 방식은 지극히 이성적이어야 한다. 우리 민족에 대한 지나친 우월 의식과 민족주의를 과도하게 분출한 '고구려·발해의 황조 회복' 등과 같은 주장이나, 이를 소재로 誇大包裝되어 제작되는 虎軀 마위는 중국인들을 자극할 뿐이다. 과거 역사적 영토에 대한 蔑然한 미련은 현재나 안타까움으로 연결되기는 하지만, 그 잊어버린 현실을 만회하기 위해 다른 민족을 排斥하고 잠시하는 것은 패권주의의 또 다른 얼굴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살아 가야 할 동북아의 미래는 평화와 공존·상생이지, 침략과 전쟁·지배가 아니기 때문이다.



발해 장백산주 요에서 출토된 돌사자상

20) 신표섭 외(2012), 102~103면. 참조. 원문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에서 인용함.

21) 신표섭 외(2012), 262면. 참조.

22) 신표섭 외(2012), 105면. 참조.

한문 고전 자료는 문학, 사학, 철학 등 고전 인문학 영역을 포괄하는데, [자료 5]는 한국사 자료 가운데, 유득공의 <발해고서>이다. 원문 자료와 한글 번역문을 제시했다. 한자, 어휘를 학습했고, 해석의 길잡이를 통해 문장의 풀이를 수행했다.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에 활용했는데, 한문과 교과 목표를 일차적으로 달성했다. 한문과 교과 지식과 소양을 바탕으로, ‘중국의 동북 공정’이라는 새로운 토픽을 융합하였고, 유득공의 <발해고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생각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한문과에 기반하되, 창의적 토픽을 생산하고, 학습자가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활동을 구안했는데, 결과는 역사과와 교과 간 융합이지만²³⁾, 한문 고전 자료에 대한 교과 지식을 기반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한문과 기반 융합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IV. 餘言 : 향후 과제

한문과를 통한 융합 교육이 왜 필요한지, 그 방향은 무엇인지, 그 경로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연구자의 관점과 공부 역량에 따라 다르다. 필자는 여기서 총론의 교과 내적 수렴과 한문과의 위상 제고라는 관점에서, 한문과 기반, 한문과 교과 역량 기반, 교과교육 및 범교과 학습 주제 기반을 중심으로, 그리고 교과서 소재 교수·학습 활동 자료를 바탕으로 경로를 제시했다.

한문과 기반 융합 교육의 방향을 구현하는 융합 교육의 사례를 모형으로 제시하는 작업이 후속 과제이다. 한문 고전 자료의 선정, 독해 활동, 창의적 아이디어 생산, 그리고 아이디어의 내재화에 이르는 교수·학습 활동 절차를 구현하는 바로 그것이다. 필자의 공부가 긴요하다.

[참고문헌]

- 교육부(2015a),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1]
 교육부(2015b), 『한문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17].
 교육부(2015c), 『사회과 교육과정』
 김왕규(2013), 「한문, 국가 어문 정책에 길을 묻다」, 『동양한문학연구』 50, 한국한문교육학회, 27~56면.
 김왕규(2018), 「한문교육학의 탐구 영역과 그 실제」, 『漢文教育研究』 37, 동양한문학회, 33~48면.
 김용진 외(2017), 『STEAM 프로그램 활용 가이드북』, 한국과학창의재단.
 박성규·윤재민·‘백광호·이승현·이현주(2015), 『고등학교 한문』, 동아출판.
 백광호(2019), 「국어 교과와 한문 교과의 ‘독서’ 교육 연계 방안」, 『漢文教育研究』, 한국한문교육학회.
 신표섭·이훈찬·성진우·김준영·홍인기(2012), 『고등학교 한문』, 대학서림.

23) 교육부(2015c), 『사회과 교육과정』, 참조. 참고로 한국사 교육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0한사03-03] 조선 후기의 정치적 변동 상황을 살펴보고, 근대 사회를 향한 새로운 움직임을 사회·경제적 변동과 관련하여 파악한다. [10한사04-04] 새로운 사상과 종교의 등장을 사회 변동 상황과 관련지어 파악하고, 국학과 과학 기술 및 서민 문화의 발달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성취 기준 해설> [10한사04-03] (전략) 조선 후기에 농촌 경제의 변화,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 신분제의 동요 등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근대 지향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음을 이해한다.

1부

한문과에서의 다학제간 융합교육을 위한 제재 모색 및 구현

한문교육과 생태교육

발표자: 김우정(단국대) / 토론자: 안세현(강원대)

이규보의 자연관

발표자: 이군선(원광대) / 토론자: 김성중(계명대)

「최척전」에 나타난 동아시아와 다문화

발표자: 최지녀(홍익대) / 토론자: 김은정(홍익대)

『우념재시문초』 소재 일본사행시 창작 배경 연구 - 필담창화집 소재 이봉환 작품과 비교를 통하여 -

발표자: 이경근(서울대) / 토론자: 이효원(東京大)

「李生窺牆傳」과 「그 여자네 집」 함께 읽기를 통한 한문소설 수업 방안 모색

발표자: 김하라(전주대) / 토론자: 김수영(서울시립대)

「은애전」을 통해 본 조선후기 법의식 - 복수를 원하는 사회

발표자: 김유진(서울대) / 토론자: 백승호(한남대)

한문교육과 생태교육

김우정(단국대)

目次

1. 생태주의
2. 생태교육
3. 생태리터러시
4. 한문교육에서의 생태교육 실천 방안

1. 생태주의

○ 생태교육 : 지속가능한 인간 사회를 건설하는 방법을 이해하고자 생태계 조직의 원리를 적용하는데 초점을 둔 교육사조, 1970년대에 출현한 생태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음.

○ 막연한 위험이 도처에 산재한 시대에 교육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교육철학적 탐색 중에도 특히 생태주의에 기댄 논의들은 가장 근본적인 입장에서 교육의 근대성을 반성.

○ 생태주의는 전환적 인식에서 출발한 사상이자 실천 운동 : 근대 문명으로부터 발병한 생태적 위험을 개량적으로 관리하려는 환경주의와는 달리, 인간중심적이고 위계적인 사고에 근거하는 근대성 그 자체를 성찰하고자 하는 특징을 지님. 또한 주체와 타자의 이분법적 구분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탈근대적이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전일적(holistic)이고 관계중심적인 세계관을 제안하는 하나의 패러다임¹⁾ → 단순히 생태환경을 보호하자는 표피적인 강령이 아니라, 세계 내 모든 존재가 관계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새로운 인식론을 촉구.

○ 환경주의와의 차이점 : 환경주의는 환경(environment)은 en-(에워싸다, 둘러싸다)과 viron(원, 고리)의 합성어로서 중심부의 인간과 주변으로서 배경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근대적 인식이 반영된 개념. 정치적으로는 산업화된 근대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며, 철학적으로는 근대의 인간중심주의와 계몽주의, 과학기술 등 인간 진보를 확산하는 사상

1) 문순홍(2006)

들을 전제함. 자연파괴를 행정·과학·공학 등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환경개량주의, 환경관리주의 등으로 불리기도 함. → 환경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면서 기존의 관리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반성 제기. 생태주의는 현재의 생산과 소비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환경주의에 반대하여, 근원적인 차원에서 좋은 삶에 대한 인식 자체를 전환하고자 함.²⁾

*Dobson은 환경주의와의 개념적 혼동이 생태주의의 가치를 심각하게 평가절하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생태주의가 지니는 고유한 특성을 설명. 환경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하려하는 운동이라도 녹색(green)이라는 용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전환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음. 국제 환경보호 단체인 그린피스(Greenpeace)나 지구의 친구들(Friends of the Earth)도 실질적으로 근본적 전환을 촉구하지 않는 한 생태적이라 볼 수 없다고 단언. → Dobson의 구분은 생태주의의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성격을 잘 드러냄. 이러한 생태주의의 특성을 Merchant는 ‘상호연결성’, ‘인간과 자연의 통합성’, ‘부분의 합을 넘어서는 전체의 관념’, ‘과정적 질서’, ‘지식의 맥락의존성’으로 설명.

○ Naess의 근본생태주의(Deep Ecology) : 1970년대에 Naess는 생태위기에 즉각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인간중심적인 생태운동을 피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항하는 급진적인 관점으로 근본생태주의를 제안. 근대 사회를 지배하는 인간중심주의를 해체하고 일원론적이고 관계중심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인간의 사고, 일상생활, 문화 등 세계 전반을 재구성하고자 한 것. 자연과 자신을 동일하게 파악하는 인간의 영적인 자기인식을 협소한 의미의 자아(ego)와 구분하여 생태적 자기(ecological self)라 규정. 이 같은 입장에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특수한 책임이라기 보다는 궁극적인 자기실현과 직접 연결되는 필연적 사명이라고 함.

○ 사회생태주의(Social Ecology) : 생태주의의 두드러진 특성 중 하나로, 인식론적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연대와 운동(movement)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실천적 힘을 지니고 있음. 역사적으로 생태주의를 주창한 인물들은 학문 분과를 막론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실천운동에 관여. **사회생태주의의 등장으로 인해 생태주의의 관심을 자연에서 인간 문화로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근본생태주의자들은 인간을 자연에 귀속시킴으로서 인간문명 자체를 비판했지만 사회생태주의는 오히려 인간의 문제에 주목.

*Bookchin은 생물학적인 자연을 일차 자연(first nature), 인간이 만들어 낸 사회를 이차 자연(second nature)으로 구분하고 두 자연이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통해 진화해왔음을 강조. 인류는 역사적으로 사회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나이, 성별, 계급 등에 따라 위계를 나누고 타인을 지배하는 문화를 발전시켰으며, 이러한 인간사회의 속성이 자연에 대한 지배로 왜곡 및 전이되었다고 봄. 따라서 생태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와 문화에 내재한 지배적 속성을 상보성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국가권력, 자본, 젠더, 인종의 문제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 요컨대 사회생태주의는 자연과 사회의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인간문명에 대한 전적인 거부로 흐를 수 있는 근본생태주의의 전근대성을 보완하고자 한 것.

2) 박지원·김희용(2016)

○ 생태여성주의(Eco-feminism) : 인간과 사회에 주목한 사회생태주의는 생태환경의 문제를 인간 간의 위계와 불평등의 문제로 변주하면서 생태주의 운동의 폭을 넓혔음.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생태여성주의로, 근대 사회에서 남성의 여성 지배와 인간의 자연 지배를 동일선상에서 파악하여 대대적인 연대 시도.

* 여성주의와 생태주의의 연관성에 대한 Warren의 논증 : “여성주의는 성차별을 없애려는 운동이다.” → “성차별은 지배의 논리에 의해 규정되는 억압적인 개념 틀을 통해 개념적으로 자연주의(naturism)와 연결된다.” → “그러므로 여성주의는 또한 자연주의를 없애기 위한 운동이다.”

생태여성주의자들은 여성주의운동과 생태주의운동이 필연적으로 결합될 수밖에 없다고 인식.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비이성적이고 따라서 열등하다는 자연주의적 전제가, 인간은 위대하고 자연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반생태적 정신과 사실상 동일한 문제점이라는 것. → 생태 문제를 여성으로 상징되는 억압된 존재의 해방과 직접 연결시킴으로써 생태주의의 지평을 넓힘. 이는 환경보호담론을 넘어 보다 구체적인 인간의 문제로 변주될 수 있는 생태주의 사상의 실천적 유연성을 보여주는 것.

2. 생태교육

○ 현대적 위기, 특히 생태적 위험이 확산됨에 따라 20세기 후반 이후 교육학 연구에서 생태주의를 하나의 교육 원리, 즉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이어짐.

○ 교육과 생태주의의 관계를 엄밀하게 탐구한 미국의 정치학자 Orr는 생태 위기가 수많은 교육 문제 중 하나가 아닌 교육 그 자체의 문제를 환기한다고 보았음.

○ Smith · Williams(1999)는 환경교육의 의미를 확장하여, 보편적 시각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와 책임을 강조하는 생태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 생태교육은 과학교과와 한 분과인 환경교육과 구분됨은 물론 생태주의(학)를 내용으로 삼는 생태주의(학) 교육(ecology education)과도 구분. 확장된 개념으로서 생태교육은 생태주의 철학에 기반을 둔 교육으로, 내용뿐 아니라 방법, 과정, 그 속에서의 관계 등을 성찰하고 생태적 시각에서 재구성하려는 하나의 지향점. → **생태교육은 교과교육의 영역을 넘어서는 그 무엇(교육사상/철학)이라고 할 수 있음.**

○ 오인택(2006)은 ‘생태적 연구 논리’는 **상생의 철학, 관계중심적 사고, 인본주의적 기초, 생태 윤리를 토대로 하여 평등적, 상호보완적, 자율적, 공동체적 사고를 중시하고, 생태리터러시(ecological literacy; 생태소양이라고도 함)의 함양에 초점을 둔다고 하였으며,**

○ 노상우(2007)는 교육철학의 측면에서 **탈인간중심주의적 세계관, 전체론적(holistic) 교과관, 생태주의적 윤리관**을 제시하며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교육에 대한 체제적 접근

을 시도하였고,

- 노상우·김관수(2007)는 과학적/객관주의적인 교과에서 상생을 중시하는 생태적 지식을 중심으로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의 대대적 전환을 모색하였으며,

- 정영희(2006: 179)는 생태주의 교육패러다임 연구를 교육생태학이라 지칭하고 “지속가능한 생태적 문해력을 함양하는 교육, 전일적이고 유기체적이며 상관적인 교육”으로 정의하며, 탈근대적 속성과 근대 계승의 측면을 동시에 가지는 양가적인 위치에 있음에 주목하였고,

- 오만석(2011)은 근대 교육의 대안으로 제시된 포스트모던 철학의 한계를 지적하며 그 대안으로 생태주의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담론의 재구성을 제안하였고,

- 주재홍(2012)은 실천적인 입장에서 생태주의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원리를 재탐색. 생태주의의 핵심 원리인 **상호의존성, 다양성, 순환성, 생태윤리**를 중심으로 하여 생태적 교육과정의 탐구 영역을 새롭게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학교교육의 목표로서 **생태학적 문해력, 통합적 지식관, 자연의 일부로서의 학습자/인간, 민주적/탈권위적 학교교육의 문화**를 포함시킴.

- 이처럼 생태적 교육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근대교육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비판하고 이를 성찰하기 위해 생태주의 철학의 원리에 주목하며, 생태주의를 자연에 대한 윤리에 가두지 않고 교육 일반을 바라보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파악. → 체제 범위에서의 접근은 생태주의 사상이 근대의 상식에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급진성을 지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필연의 결과라 할 것임.

- 생태주의를 바탕으로 한 교육패러다임은 대체로 포스트모던 교육의 한 지류로 인식됨. 포스트모더니즘은 명실상부한 하나의 패러다임으로서 근대의 산물인 합리적 사유주체, 진리, 본질, 총체성(totality) 등을 근본적으로 해체하려는 흐름을 통칭. 이에 영향을 받은 포스트모던 교육은 근대 교육의 전제가 되는 진리나 정전으로서 교육 내용을 비판하고 교육을 하나의 과정적 질서로 파악. → 생태주의는 포스트모던 담론의 가치기반과 상당히 유사한 관점에서 근대에 대항하는 세계관, 인간상, 지식관 등을 제시하면서도 동시에 독특한 결을 지니고 있음.

- * 생태주의는 근대성을 비판하면서도 근대에서 강조한 객관적 지식이나 합리적 이성을 부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성찰적으로 계승하고자 하며, 전근대적 초월성과 근대의 과학성을 변증법적으로 통합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해체적 포스트모더니즘과 구별됨.

- * 포스트모더니즘과 생태주의는 모두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형이하학적 전제에 출발했지만 간주관성과 간객관성이라는 차이로 인해 나뉨. 둘은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고 세계를 역동을 파악하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간주관성에 기대는 포스트모더니즘은 물리적인 객관세계와 주관적인 인간 정신을 분리하여 인간의 주관적 ‘해석’을 중시하는 반면에 간객관성을 띄는 생태주의는 인간을 객관의 총체에 ‘참여’하는 존재. 간객관성은 모든 주체를 하나의 객관으로 파악하며, 세계를 이러한 객관들의 유기적이고 상호적

인 관계에 의해 성립하는 것. 따라서 간객관적인 교육은 주체의 외부에 존재하는 독립적 진리는 물론 철저히 개별 존재의 주관에 의해 구성되는 지식 또한 인정하지 않음. **간객관적인 교육에서 지식생성과 학습은 객체들의 관계맺음을 통해 창발되는 것.** 참여자들의 윤리성을 강조하는 특징을 지님.

3. 생태리터러시

○ 생태적 패러다임에서 ‘교육받은 인간(educated person)’의 이미지는 생태리터러시를 갖춘 인간으로 묘사됨(Orr, 1992; Cafra, 1996; 정영희, 2006; 주재홍, 2012 등). 생태리터러시는 생태주의 교육패러다임에서의 교육받음과 교육받지 않음을 구분함으로써 그 실천적 토대를 마련하는 기본 개념. 단순히 환경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해결능력을 갖추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음. 세계를 인지하는 방식의 변화, 생태적 방식으로 삶을 디자인하는 행동 양식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교육적 용어로서 생태리터러시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사람은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환경학자인 Orr로, 생명의 구조를 생태적 관점에서 밝히고자 했던 Cafra는 『생명의 그물(The Web of Life)』(1996)의 후기에서 Orr를 인용하며 **유지 가능한 생태적 사회 건설을 위해 생태리터러시가 필요함을 강조.** Cafra는 생태리터러시를 “생태적 공동체(생태계)의 조직 원리를 이해하고, 유지 가능한 인간 공동체들(교육 공동체, 기업 공동체, 정치 공동체 등)을 소생시켜서 생태학의 원리가 교육, 경영, 정치의 기본원리로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정의. 정치적이고 교육적인 노력에 해당하는 생태리터러시를 제언함으로써 자신이 논의한 생태적 세계관의 실천을 모색. Cafra의 용법에 따르면 **생태리터러시는 생태적 세계관의 구체적인 실천 전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 생태리터러시의 범주(Orr)

* 지적인 차원 : 정확하고 풍부한 지식과 추론 능력, 나아가 새로운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생태리터러시를 갖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들의 원인이 되는 “사회 구조, 종교, 과학, 정치, 기술, 가부장제, 문화, 농업, 인간의 이기심”을 폭넓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정서적 차원 : 평등과 상생의 가치에 공감할 수 있는 정서적 역량을 중시. 일반적인 리터러시가 지식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생태리터러시는 경이감, 아름답고 신비로운 세상에 사는 기쁨 등을 반드시 포함. 이러한 정서에는 자연의 순환에 대한 신비감, 경외감, 배려와 보살핌 등이 있으며, 나아가서는 상호 대립, 억압, 폭력에 반대하는 정서적 공감 능력과 생명평등을 지향하는 태도도 포함.

* 실천적 차원 : 관계를 사유하고, 실제로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설계하는 역량. 생태적 디자인은 무언가를 생태적 맥락을 통해 볼 수 있는 연결성의 패턴을 이해하는 능력을 요구.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잘못된 지점을 적극적으로 성찰하고, 대안적 삶을 기획하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를 실천해나가는 힘. 생태리터러시는 삶과 느낌이 구체적인 삶과 유리되는 것을 철저히 경계.

이 세 가지 범주는 각각 외파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의 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남. 요컨대, 생태리터러시는 ‘자기 존재와 세계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그 관계망에 의미 있는 존재자로 참여하게끔 하는 지적, 정서적, 실천적인 인간의 총체적 역량’이라 할 수 있음.

○ Orr(2004)는 생태에 관한 교육이 단지 생명체의 역할을 탐구하는 과학 교육의 한 갈래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며, 생명피폐의 깊은 원인과 그 원인들을 촉발시키는 정치적 행동, 기관의 설립, 철학의 재구성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

○ ‘느린 지식’ : Orr(1992)는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이 성장주의자와 생태주의자의 경계를 넘어 무분별하게 소비되고 있다고 보고, 기술적 지속가능성과 생태적 지속가능성으로 구분. 기술적 지속가능성은 번성과 발전을 인간의 본성으로 파악하고, 인간에 의한 자연 관리를 정당화하며, 경제 성장을 인류의 필수적인 과업으로 봄. 기술적 지속가능성은 주류 환경 담론의 입장으로 문명의 성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모순을 지님. Orr는 빠른 지식을 중시하는 근대의 문화가 “측정 가능한 것이 진정한 지식이라는 믿음, 많이 가질수록 더 나아진다는 믿음, 성찰적인 지식보다 유용한 지식이 낫다는 믿음, 정보와 지식 사이에는 특별한 차이가 없다는 믿음, 지혜(wisdom)는 막연하며 중요하지 않다는 믿음” 등을 고착화시킴으로써 기술적 지속가능성을 지지한다고 비판함.

○ 참여와 대화로서의 교수·학습 : 인간과 세계를 매개하는 활동으로서의 교육은 ‘무엇을 내용으로 삼는가?’ 뿐만 아니라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는가?’에 의해서도 그 성격이 결정됨. Orr는 학습이란 학습자의 실제 삶과 관련될 때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이며, 이는 일방적인 교수가 아닌 참여와 체험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음. 이처럼 생태주의 담론은 개인과 사회, 문화, 생물권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세계 속에 개인이 “마음을 다해 참여(mindful participation)” 하는 태도를 중시한다. 참여는 교사와 학생의 역동적인 관계에 의해 형성되며 그 사이를 관통하는 흐름을 나타냄. Davis는 생태주의 교육 패러다임에서 교수행위는 대화행위로 대표될 수 있다고 주장. 대화는 사고를 전달하는 단순한 매개 행위가 아니라, 인간이 “세계를 이룸 짓기 위해 만나는 행위”로서 창조적인 가능성을 지니는 행위임. 참여와 대화로서의 교수·학습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은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대신, 역동적인 관계를 통해 함께 비판과 성찰에 도달. 이 같은 교육에서 교사는 권위자가 아닌 학생들과 공동의 성장 과정을 경험하는 ‘공동연구자’며, 대화와 참여의 과정에서 교사와 학습자의 존재는 평등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됨.

○ 생태적 공간과 생태적 공공성 : 교육 공간은 교육이 벌어지는 물리적 시설이나 환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방향성을 드러내는 일종의 교육미디어. Orr는 건물로서의 학교는 교육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결정(結晶)이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교육활동 못지않게 숨은 교육과정을 지닌다고 함. 교육 공간의 문제를 성찰하려는 시도는 인간과 세계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생태주의 철학의 전제를 실현하려는

노력. 노상우(2015)는 학교시설과 건축의 생태적 전환을 위해 계획, 건축, 유지관리, 폐기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을 절약하고 자연환경과 인간을 최대한 연결하는 디자인을 통해 학교구성원의 건강과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 교육 장면에서 교사와 학생의 물리적 위치와 배치는 암묵적으로 위계와 억압의 관계를 드러냄. 전통적인 교육에서 교사는 교실의 맨 앞에 위치하고 학생들은 교사를 일방적으로 마주본 채 일렬로 배치되는데, 이는 교수중심의 교육을 전형적으로 드러내는 배치방식. ㄷ자형 자리 배치, 원형 탁상 등을 활용해 학습자와 교사의 자리 배치를 다양화하려는 시도도 생태리터시의 함양에 기여. 생태적인 공간의 조성에는 구성원들의 관계와 문화적 환경이 포함되며 이는 공공성의 문제와 연결됨. 생태적 공공성은 전통적인 공공성에서 추구했던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에 필수적인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포함함. 주재홍(2012)은 생태적인 교육과정에는 필수적으로 민주적이고 탈권위적인 학교 문화가 포함된다고 보았음.

- 다양성과 차별화 : 화학적 평형이 지속적으로 깨지기 때문에 생명의 유지가 가능하듯이 인간도 타인과 상호교환하고 상호교류하면서 살아가지만 한편으로는 남들의 경계를 통하여 고유 세계를 수립하면서 살아감. 결국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학생들은 모두 제각각 다양한 생각에 다양한 재능, 다양한 자질과 능력, 다양한 개성을 가진 존재. 따라서 다양성을 촉진시켜 주는 이른바 ‘개성 중심 교육’ 또는 ‘차별화의 교육’ 역시 생태교육의 일부라 할 수 있음.

4. 한문교육에서의 생태교육 실천 방안

- 이와 같은 생태주의 교육론은 동아시아 인문고전에서 줄곧 강조해온 세계관과 상통하는바, 한문 교과에 적용하기에 적합.

- 다만, 인간/자연, 주체/객체, 지배/종속, 중심/주변이라는 이분법적 도식은 위기의 최종 근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무조건적 비판이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는 실제적 대안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함.

- 이런 점에서 동양의 생태사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동양의 이미지를 작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자아 오리엔탈리즘(auto-orientalism)’의 굴레에 빠질 우려가 있음. 즉, 심정적으로는 동양 전통 사상이 생태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적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서구적 방식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동양의 전통문화 중에는 생태적 의의를 갖고 있는 사상적 내용이 적지 않게 들어있으나 현대 사회에서 그것이 얼마만큼의 활력과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말하기는 쉽지 않다는 뜻.

- 동양의 생태사상은 윤리와 심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그 목표는 사회의 안정과 마음의 평안에 있음. 인간을 소우주로 파악하고 자연과 인간의 유비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天人合一, 主客統一의 상태를 이상적인 경지로 생각하는 것은 현대 과학기술에 대한 메타비평으로는 기능할 수 있지만 실천적 측면에서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함.³⁾

*가라타니 고진의 표현을 빌린다면 천인합일은 ‘내재-초월’의 인간중심적 사고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불과. (대화의 상대방과 자신을 동질적인 존재라고 전제한 채로 커뮤니케이션을 시작, 타자를 자기의식을 덧씌운 개체로 파악하여 타자의 타자성을 상실케 하기 때문)

○ 따라서 한문교육에서의 생태교육은 생태주의적 관점이 드러난 학습 자료를 정답으로 간주하는 것을 경계해야 함(실천이 무시된 환원주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 → 비판적이고 맥락적으로 파악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함. 학습 내용(무엇을 내용으로 삼는가) 못지않게 교수학습 방법(어떻게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가 중요. → 수평적 토의/토론, 반성적 사고 학습모형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 토의/토론수업을 적용한 생태교육

#1. 탈인본적, 전일적 사고

爾誠人也. 五倫五事, 人之禮義也; 羣行啁哺, 禽獸之禮義也; 叢苞條暢, 草木之禮義也. 以人視物, 人貴而物賤; 以物視人, 物貴而人賤. 自天而視之, 人與物均也. 夫無慧故無詐, 無覺故無爲, 然則物貴於人, 亦遠矣. 且鳳翔千仞, 龍飛在天, 蓍鬯通神, 松柏需材, 比之人類, 何貴何賤? (洪大容, 『湛軒書·內集』)

[1단계] 학습 자료를 기반으로 한 논제

- ① 만물은 평등한가? 귀천의 기준은 무엇인가? 귀천은 누가 판단하는가?
- ② 모든 인간은 평등한가? 평등의 조건은 무엇인가?
- ③ 평등한 사회는 이상적인 사회인가? 평등한 사회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

[2단계] 실천적 논제

- ① 조화로운 사회란 무엇인가? 조화로운 사회를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 ② 조화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실천이 필요한가?

[3단계] 반성적 사고

- ① 우리는 이 토의/토론을 평등하게/조화롭게 진행하였는가?
- ② 우리는 토의/토론의 결과를 실천에 옮길 준비가 되었는가?

#2. 생태적 자연관

夫天地者, 萬物之逆旅; 光陰者, 百代之過客. 而浮生若夢, 爲歡幾何? 古人秉燭夜遊, 良有以也. 況陽春召我以煙景, 大塊假我以文章. (李白, 「春夜宴桃李園序」)

蘇子曰: “客亦知夫水與月乎? 逝者如斯, 而未嘗往也; 盈虛者如彼, 而卒莫消長也. 蓋將自其變者而觀之, 則天地曾不能以一瞬; 自其不變者而觀之, 則物與我皆無盡也, 而又何羨乎. 且夫天地之間, 物各有主, 苟非吾之所有, 雖一毫而莫取, 惟江上之清風, 與山間之明月, 耳得之而爲聲, 目寓之而成色, 取之無禁, 用之不竭, 是造物者之無盡藏也, 而吾與子之所共樂.” (蘇軾, 「赤壁賦」)

3) 한성구·지준호(2013)

山僧貪月色，并汲一瓶中。到寺方應覺，瓶傾月亦空。(李奎報, 「山夕詠井中月」)

[1단계] 학습 자료를 기반으로 한 논제

① 자연과 인간은 어떤 관계인가?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는 태도는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갖는가?

② 인간이 자연을 소유할 수 있는가? 소유의 권리는 어디에서 비롯하는가?

③ 인간은 자연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

[2단계] 실천적 논제

① 인간은 자연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까?

② 인간의 관점에서 자연을 잘못 이해한 사례는 없을까?

<보충자료> 王達言 “鷄鴨，家畜，不能飛，其他野禽，皆能飛。” 余見，家鴨放之野水，久則能遠飛。蓋家畜不能飛者，以飲啄不潔故也。(李睟光, 『芝峯類說』)

[3단계] 학습 자료를 기반으로 한 논제

① 지은이는 왜 ‘가축이 날지 못하는 이유가 불결한 것을 먹기 때문’이라고 했을까?

[4단계] 반성적 사고

① 우리는 이 토의/토론을 평등하게/조화롭게 진행하였는가?

②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실천이 필요한가?

[5단계] 반성적 사고

① 우리는 이 토의/토론을 평등하게/조화롭게 진행하였는가?

② 우리는 토의/토론의 결과를 실천에 옮길 준비가 되었는가?

#3. 관계의 윤리

ㄱ. 帶雨鋤禾伏畝中，形容醜黑豈人容。王孫公子休輕侮，富貴豪奢出自儂。(李奎報, 「代農夫吟」)

ㄴ. 春種一粒粟，秋收萬顆子。四海無閑田，農夫猶餓死。(李紳, 「憫農」)

ㄷ. 昨日入城市，歸來淚滿巾。遍身羅綺者，不是養蠶人。(張俞, 「蠶婦」)

[1단계] 공통 주제 찾기

[2단계] 학습 자료를 기반으로 한 논제

① ㄱ의 제목에는 왜 ‘대신하다’는 말이 있을까? → 하위주체는 말할 수 있는가? (「代農夫吟」)

② 불평등의 원인은 무엇인가? 인간 사회에서 불평등은 필연인가?

③ ㄱ~ㄷ의 지은이는 불평등을 특수한 인간/계층의 문제로 인식했을까 보편적 문제로 인식했을까?

[3단계] 실천적 논제

① 우리 주변에는 어떤 불평등이 존재하는가?

②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보충자료> 子貢問曰：“有一言而可以終身行之者乎?” 子曰：“其恕乎。己所不欲，勿施於人。”(『論語』)

[4단계] 반성적 사고

- ① 우리는 이 토의/토론을 평등하게/조화롭게 진행하였는가?
- ②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실천이 필요한가?

■ 참고문헌 ■

- 김기대(2015), 「생태교육의 내용과 전망」, 한국홀리스틱교육학회, 『홀리스틱교육연구』 제 19권 제1호, 1~19면.
- 노상우(2015), 『인간과 자연의 상생을 위한 생태교육학』, 서울: 교육과학사.
- 문순홍(2006). 생태학의 담론. 서울: 아르케.
- 박지원·김희용(2016), 「생태리터러시의 개념과 교육적 의미」, 교육종합연구소, 『교육종합연구』 제14권 제2호, 105~125면.
- 이상헌(2011), 『생태주의』, 서울: 책세상.
- 이성희(2010), 「한국 학교 환경교육사 연구: 시기 구분 및 시기별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성구·지준호(2013), 「동양 전통 생태사상의 현대적 전환을 위한 비판적 고찰」, 『한국철학논집』 36집, 235-258면.
- David W. Orr. 1992. *Ecological literacy: Education and the transition to a postmodern world*, SUNY Press ; 김기대, 이효진, 이성희 역(2013), 『생태소양』, 서울: 교육과학사.
- Fritjof Capra. 1995. *The web of life*, Harper Collins.
- Fritjof Capra. 2008. The new facts of life, https://web.archive.org/web/20090814051039/http://www.ecoliteracy.org/publications/fritjof_capra_facts.html.
- Stephen Sterling. 2003. *Whole systems thinking as a basis for paradigm change in education*, Ph D paper, University of Bath.
- Michael K. Stone/Center for Ecoliteracy, 2009. *Smart by nature: Schooling for sustainability*, Watershed Media.
- Michael K. Stone and Zenobia Barlow. 2005. *Ecological literacy: Educating our children for a sustainable world*, Sierra Club Books.

이규보의 자연관

이군선(원광대)

目次

1. 서론
2. 생명에 대한 존중
3. 자연의 포용성 긍정
4. 순응적 자연관
5. 결론 - 생각해 볼 문제

1. 서론

자연관의 사전적 정의는 ‘인위적인 것에 대비해 자연에 대한 견해를 체계적으로 갖춘 세계관’이다. 그러나 인위적인 것에 대비해 자연에 대한 견해를 체계적으로 갖춘 세계관이라 하더라도 이는 인간의 관점에서 파악한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객관적이라 하더라도 다분히 인간 중심의 사고가 배제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자연관 혹은 생태의식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축적되었다고 본다. 이규보의 자연관 역시 마찬가지이다. 먼저 이들 연구에 대하여 일별해 보기로 한다.

자연관 전반에 대한 논의는 조기영(1999)에 의해 이루어 졌다. 조기영은 자연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에 따라 ‘외경적 자연관과 친화적 자연관’ ‘순응적 자연관과 조형적 자연관’ ‘감흥적 자연관과 탐구적 자연관’ ‘유교적 자연관과 불도적 자연관’ ‘현실적 자연관과 이상적 자연관’ ‘직접적 자연관과 간접적 자연관’으로 유형화 하여 살펴보았다.¹⁾ 자연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자연관의 범주와 세부 내용은 좀 더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규보의 자연관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박성규는 이규보 시에 나타난 자연관²⁾에서 ‘자연에 대한 애착’ ‘자연미의 발현’ ‘귀거래 양상’ 등에 대하여 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그는 이를 통해 이규보가 자연에 깊이 침잠할 수 있었던 이유를 심미적인 관찰력과 자연에 대한 애착으로 보았고 자아에서 나오는 갈등이나 한계성 없이 자발적으로 그의 내적 즐거움으로 시에 반영하였으며 자연에 은거해 있으면서도 현실세계를 동경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밝혔다.

강동석은 고려 후기 자연관의 변모 양상을 논하며 이규보의 자연관에 대하여 ‘인간은 자연

1) 조기영(1999).

2) 박성규(1982).

을 반드시 순응해야 한다는 것'과 '자연의 운행은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³⁾

김창경⁴⁾은 이규보와 도연명의 자연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여 '이규보는 도연명이 지닌 사유방식과 소박한 언어의 사용으로 꾸밈없는 자연스러움을 드러낸 시풍과 평담한 풍격을 본받고자 하였지만 그 본질을 얻지 못한 것을 한탄하였는데 이는 자연과 현실에 대한 거리를 좁히지 못한 이규보 자신의 고뇌를 표출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권혜정은 이규보 문학작품에 나타난 생태의식을 '自生自化하는 생성과 소멸의 원리' '만물의 존재가치에 대한 수평적 인식' '자연물과 주변 사물로부터 배우는 삶의 지혜와 교훈'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삶의 태도' '자연친화적인 관찰자의 태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⁵⁾

기존의 자연관에 대한 논의는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며 자연에 대하여 얼마나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자연 중심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면 인간이 자연에 어떻게 적응하였는지 자연 속의 인간을 파악해 보는 것도 중요하며 한문 고전이 도덕적이고 염퇴적인 성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연에 대한 인식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위에서 열거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규보의 산문을 제재로 이규보의 자연관에 대하여 살펴보고 고전 속에 나타나는 자연관을 교육적으로 현재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생각해보기로 한다.

2. 생명에 대한 존중

먼저 살펴볼 작품은 「呪鼠文 并序」이다.

우리 집에는 평소에 고양이를 기르지 않으므로 쥐 떼들이 마구 날뛰다. 그래서 그것이 미워서 저주한다.

생각하건대, 사람의 집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른이 되고, 곁에서 이를 돕는 데에는 각각 맡은 바가 있다. 음식 만드는 일을 맡은 자는 계집종이고, 마소 치는 일을 맡은 자는 사내종이며, 아래로 六畜에 이르기까지 직책에 각기 구분이 있다. 맡은 수고를 대신하여 사람이나 짐을 싣고 달리며, 소는 무거운 짐을 끌거나 밭을 갈며, 닭은 울어서 새벽을 알리며, 개는 짖어서 문을 지키는 등 모두 맡은 바 직책으로 주인집을 돕고 있다.⁶⁾

이규보는 먼저 이 글을 지은 이유에 대하여 서술하고 모든 사물에는 직분이 있고 각자의 직분에 충실하며 직분대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는 모두 인간 그중에서도 지배층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다. 그러나 이어지는 부분에서 모든 것에 직분이 있는데 쥐가 맡은 직분은 무엇인지 의문을 표하였다. 이는 쥐를 인간 생활에 해를 끼치는 존재로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3) 강동석(2009).

4) 김창경(2009).

5) 권혜정(2013).

6) 이규보, 『동국이상국집』권20, 「呪鼠文 并序」. 予家素不蓄猫, 故群鼠横恣, 於是疾而呪之. 惟人之宅, 翁媼作尊, 挾而輔之, 各有司存. 司烹飪者赤脚, 司廐牧者崑崙, 下至六畜, 職各區分. 馬司代勞, 載驅載馳, 牛司引重, 或耕于菑, 鷄以鳴司晨, 犬以吠司門, 咸以所職, 惟主家是裨.

못 쥐들에게 묻는다. 너희는 맡은 일이 무엇이고 누가 길렀으며 어디서 생겨나서 번성하는가?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것은 오직 너희만이 아는 바다. 대개 도둑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거늘 너희는 어찌 안에 살면서 도리어 주인의 집에 해를 끼치는가? 구멍을 많이 만들어 이리저리 들락날락하며, 어둠을 틈타 마구 쏘다녀 밤새도록 시끄럽게 하며, 잠이 들면 더욱 방자하고 대낮에도 뿔뿔이 다니며, 방에서 부엌으로 가고 마루에서 방으로 가며, 부처에게 드리는 음식과 신령을 섬기는 물품을 너희가 먼저 맛보니, 이는 신령을 능멸하고 부처를 무시하는 것이다. 단단한 것을 구멍 뚫어 상자나 껍데기 속에 잘 들어가며 굴뚝을 뚫어 구석에서 연기가 나게 하면서 음식을 먹으니 이는 도둑이다. 너희도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일진대, 어찌하여 옷감을 씹어서 옷을 이루지 못하게 하며, 실을 씹어서 명주를 짜지 못하게 하는가?⁷⁾

이규보는 쥐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늘어놓았다. 인간의 입장에서 파악했을 때 쥐는 인간 생활에 해악을 끼치는 동물이다. 하지만 이렇게 쥐의 실상에 대하여 자세하게 늘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이면에 이규보의 미물인 쥐에 대한 관심 그리고 관찰력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를 제어할 것은 고양이이지만 내가 기르지 않는 것은, 성품이 본래 인자하여 차마 악독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나의 덕성을 알아주지 않고 날뛰어 저촉되는 것을 하게 된다면 너희를 웅징하여 후회하게 할 것이니, 빨리 나의 집을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사나운 고양이를 풀어 서하루에 너희 족속을 도륙하게 하여, 고양이의 입술에 너희 기름을 칠하게 하고, 고양이의 뱃속에 너희 살을 장사지내게 할 것이다. 그때에는 비록 復活하려 하여도 생명이 다시 이어질 수 없을 것이니 속히 가거라. 속히 가거라. 律令과 같이 급급히 하여라.⁸⁾

이규보는 쥐들의 행태는 미워하지만 자신이 직접 쥐를 잡는 태도를 취하지는 않는다. 이는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생명체는 모두 동등하다는 인식이 저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으론 기본적으로 아무리 미물이라도 쉽게 죽이지 않는 생명에 대한 존중 사상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성품이 본래 인자하여 차마 악독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쥐를 잡지 않는다고 점잖게 말하고 있지만 이는 미물이라도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긍정에서 온 말이라고 하겠다.

다음은 「風犬說」이다. 권혜정은 이 작품을 만물의 존재 가치에 대한 수평적 인식의 측면에서 살폈다.⁹⁾

어떤 손이 나에게 “어제 저녁에 어떤 불량자가 큰 몽둥이로 돌아다니는 개를 쳐 죽이는 것을 보았는데, 그 광경이 너무 비참하여 아픈 마음을 금할 수 없었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맹세코 개나 돼지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네.” 라고 하였다. 내가 “어제 어떤 사람이 불이 이글이글한 화로를 끼고 이[風]를 잡아 태워 죽이는 것을 보고 나는 아픈 마음을 금할 수 없었네. 그래서 맹세코 다시는 이를 잡지 않을 것이네.” 라고 대응하자 손은 실망한 태도로 “이는 미물이 아닌가? 내가 큰 물건이 죽는 것을 보고 비참한 생각이 들기에 말한 것인데, 그대가 이런 것으로 대응하니 이는 나를 놀리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였다.¹⁰⁾

7)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권20, 「呪鼠文 并序」. 問之衆鼠, 爾有何司? 孰以汝爲畜? 從何產而滋? 穿窬盜竊, 獨爾攸知. 凡曰寇盜, 自外來思, 汝何處于內, 反害主家爲? 多作戶竇, 側入旁出, 伺暗狂蹂, 終夜窺窬, 寢益橫恣, 公行白日, 自房歸廚, 自堂徂室, 凡獻佛之具, 與事神之物, 汝輒先嘗, 蔑神無佛. 以能穴堅, 善入函櫃, 以常穿突, 煙生隈曲, 飲食之是盜, 汝亦營口腹, 何故噬衣裳, 片段不成服? 何故齧絲頭, 使不就羅縠?

8)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권20, 「呪鼠文 并序」. 制爾者貓, 我豈不畜, 性本于慈, 不忍加毒. 略不德我, 奔突抵觸, 喻爾懲且悔, 疾走避我屋. 不然放獐貓, 一日屠爾族, 貓吻塗爾膏, 貓腹葬爾肉. 雖欲復活, 命不可贖, 速去速去, 急急如律令.

9) 권혜정(2013), 54쪽.

10)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권21, 「蝨犬說」. 客有謂予曰: “昨晚見一不逞男子以大棒子椎遊犬而殺者, 勢甚可哀,

「술견설」 역시 자연의 관점에서 보면 큰 물건이거나 미물이거나 다 같은 생명체라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다. 객이 개를 잡는 것을 보고 비참하게 느꼈다는 것에 대한 이규보의 대답은 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개는 큰 짐승이고 이는 해악을 끼치는 미물이기에 죽임에 거리낌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어찌 보면 사람의 관점에서는 개를 잡는 것을 보고 개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것은 측은지심의 발로로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규보는 살아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큰 사물이나 작은 사물이나 같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나는 “무릇 혈기가 있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소·말·돼지·양·곤충·개미에 이르기까지 삶을 원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은 동일한 것이네. 어찌 큰 것만 죽음을 싫어하고 작은 것은 그렇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개와 이의 죽음은 동일한 것이네. 그래서 그것을 들어 적절한 대응으로 삼은 것이지, 어찌 놀리는 말이겠는가? 그대가 나의 말을 믿지 못하거든 그대의 열 손가락을 깨물어 보게나. 엄지손가락만 아프고 그 나머지는 아프지 않겠는가? 한 몸에 있는 것은 대소 支節을 막론하고 모두 혈육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이 동일한 것일세. 더구나 각기 氣息을 稟受한 것인데, 어찌 저것은 죽음을 싫어하고 이것은 죽음을 좋아할 리 있겠는가? 그대는 물러가서 눈을 감고 고요히 생각해 보게나. 그리하여 달팽이 뿔을 쇠뿔과 같이 보고, 메추리를 큰 봉새처럼 동일하게 보게나. 그런 뒤에야 내가 그대와 더불어 道를 말하겠네.” 라고 하였다.¹¹⁾

자연의 관점에서 보면 혈기가 있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 그리고 미물에 이르기까지 모두 삶을 원하고 죽음을 싫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미루면 개와 이가 서로 같은 입장이라는 것이다. 이는 잔인한 살생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피력한 것으로 자연의 관점에서 보면 다 같은 생물이라고 하여 자연 앞에서 모든 생명체가 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3. 자연의 포용성 긍정

다음은 「土靈問」이다. 이 글은 대지가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이유에 대하여 토신에게 물음의 형식을 빌려 자신의 관점을 피력한 것이다.

劉夢得이 “하늘은 獨陽이라 물을 수 없기에 大鈞에게 묻는다.” 고 하였다. 그렇다면 天尊을 짝한 자는 后皇[地神]이니, 후황에게는 물을 수 없기에 후황이 통솔한 토신에게 이렇게 묻는다.

“너는 천지 사이의 덩그런 한 물건이다. 너는 특히 금·옥·돌·쇠·기와조각·쓰레기 따위의 무정한 물건만을 묻을 뿐 아니라, 또한 사람을 묻는구나. 성인으로는 孔丘 같은 이, 현인으로는 顏氏 같은 이, 청렴으로는 伯夷 같은 이, 효자로는 曾子 같은 이, 剛腸者로는 郭子儀 같은 이, 담력이 강한 이로는 李愬, 글이 웅장한 韓愈와 柳宗元, 시의 호걸 李白과 杜甫 같은 이들은 그 높은 지식과 넓은 도량, 영특한 정기와 출중한 형상이 하늘과 그 웅장함을 겨루는 이들이거늘, 너는 어찌 차마 이들을 묻었느냐? 아침으로는 江充 같은 자, 모질기로는 梁冀 같은 자와 그리고 임금을 속인 李斯와 趙高며, 남의 나라를 도둑질한 安祿山과 史思明 같은 자들의 그 간사함과 독함에서

不能無痛心. 自是誓不食犬豕之肉矣.” 予應之曰: “昨見有人擁熾爐捫蝨而烘者, 予不能無痛心, 自誓不復捫蝨矣.” 客撫然曰: “蝨微物也. 吾見龐然大物之死, 有可哀者故言之. 子以此爲對, 豈欺我耶?”

- 11)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권21, 「蝨犬說」. 予曰: “凡有血氣者, 自黔首至于牛馬猪羊昆蟲螻蟻, 其貪生惡死之心, 未始不同, 豈大者獨惡死, 而小則不爾耶? 然則犬與蝨之死一也, 故舉以爲的對, 豈故相欺耶? 子不信之, 盍齧爾之十指乎? 獨捫指痛, 而餘則否乎? 在一體之中, 無大小支節, 均有血肉, 故其痛則同. 況各受氣息者, 安有彼之惡死而此之樂乎? 子退焉, 冥心靜慮. 視蝸角如牛角, 齊斥鴳爲大鵬, 然後吾方與之語道矣.”

풍기는 비린 냄새는 능히 감당하여 받지 못할 것 같은데 너는 또한 그를 받아 물었느냐?”¹²⁾

이규보는 대지가 선악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이의를 제기한다. 왜 선악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를 품어주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분별이 있다면 적어도 선악은 구별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옳다. 여기에서의 괄자의는 당 현종부터 덕종까지 4대를 섬겼으며 성당에서 중당시기를 대표하는 명장으로 안사의 난에서 공을 세운 인물이다. 李愬는 당 현종 때 蔡州刺史 吳元濟가 반란을 일으키자 節度使로 오원제를 사로잡아 난을 평정한 인물이다. 江充은 한 무제 때 중용되었으나 태자와 사이가 나빠 태자를 무고하다가 태자에게 죽었으며 梁冀는 후한 때 질제를 세웠는데 질제가 양기의 교만과 횡행을 알고서 그를 跋扈將軍이라 부르자 이를 듣고 미워하여 질제를 짐독으로 죽인 인물이다.

이규보는 공자, 안연, 백이, 증자, 괄자의, 이소, 한유, 유종원, 이백, 두보 등은 훌륭한 사람으로 인간의 역사에 길이 빛날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고 강충, 양기, 이사, 조고, 안록산, 사사명 같은 자들은 용서받지 못할 자인데도 선악의 구분 없이 함께 포용한 대지에 대하여 그 이유를 묻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기한 선악은 인간이 구분한 것이다.

토신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심하도다. 그대의 잘못 얹이여. 만물이 그 근본을 흙에 돌림은 자연의 운수인데, 어떻게 가려서 묻겠는가? 나는 본래 하늘의 명을 받고 땅의 主神이 되었으니, 물건의 대소와 선악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묻는다. 그러나 사람에게서는 뼈와 精魄을 모두 묻을 자가 있고, 뼈는 묻어도 정백은 묻지 못할 자가 있다. 너는 들어 보겠느냐? 聖者·賢者·廉者·孝者·忠者·烈者와 재주가 특출한 사람은 그 정백이 하늘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다시 세상에 태어나 順子나 純臣이 되기도 하고, 烈士나 英人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그 뼈는 묻을 수 있어도 그 정백은 묻을 수 없다. 반면에 佞者·賊者·欺罔者·回慝者 따위는 내가 능히 그 정백을 가두어 나의 깊은 구덩이에 그를 빠뜨리고, 나의 두터운 흙으로 그를 덮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나의 큰 돌로 짓누르고, 나의 뿔어진 세찬 물로 가라앉힌다. 그러므로 그 뼈만을 묻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정백마저 묻는 것이다.” 나는 ‘좋은 말이라도.’ 하고 드디어 그의 대답을 적는다.¹³⁾

토신의 대답은 간단하다. 대지 자연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토신의 입을 빌려 말하였지만 이는 이규보가 인간이 인위적으로 가른 선과 악의 구분을 두지 않는 자연의 포용성을 긍정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 앞에서 만물이 동등하다는 인식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정신 작용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사람이 살아가며 필요한 정신 작용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뛰어난 사람은 뼈는 묻을 수 있어도 정신은 묻을 수 없고 악한 사람은 정신과 뼈를 모두 묻는 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인간이 남긴 정신 작용은 자연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 이는 사람의 것이기 때문이다. 충과 효가 인류의 발전을 위해 공헌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람의 관점에서 그러한 것이지 자연의 입장에서는 모두 포용의 대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12) 이규보, 『동국이상국집』권20, 「土靈問」. 劉夢得曰: “天獨陽, 不可問, 問於大鈞.” 然則配天尊者后皇, 后皇不可問, 問於后皇所統五土之靈曰: “汝特天地間一物也. 非特埋金玉鐵瓦礫朽帑無情之物, 亦能埋人矣. 聖若孔丘, 賢若顏氏, 清如伯夷, 孝如曾子, 剛腸者子儀, 烈膽者李愬, 文之雄者韓柳, 詩之豪者李杜, 其鴻識巨量, 英精逸狀, 與天角壯, 汝忍埋之乎? 佞若江充, 惡如梁冀, 罔君者斯高, 盜國者安史, 其姦腥毒臭, 似不堪受, 汝亦容埋乎?”

13) 이규보, 『동국이상국집』권20, 「土靈問」. 對曰: “甚矣. 子之誤也! 萬物歸根於土, 自然之數也. 何擇而不埋乎? 我本爲天所命, 爲地所尸, 物無巨細善惡, 皆得埋之. 雖然, 於其人也, 有埋骨埋精魄者, 有埋骨不能埋精魄者. 汝得聞乎? 若聖若賢, 若廉孝忠烈, 若才之豪逸者, 其精也歸天, 否則復生於人間, 或爲順子純臣, 或爲烈士英人. 故其骨可埋, 其精魄不可埋也. 若佞若賊若欺罔回慝者, 則吾能錮其精囚其魄, 以我之坎陷之, 以我之厚掩之, 猶以爲慊以吾所藏巨石以檻之, 以吾所出湧水以墊之. 故非特埋其骨, 亦能埋其精魄矣.” 予曰: “善乎!” 遂書其對.

4. 순응적 자연관

다음 글은 「壤土室說」로 자연의 섭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글이다. 권혜정은 이를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삶의 태도로 다루었다.¹⁴⁾

10월 초하루에 李子가 밖에서 돌아오니, 아이들이 흙을 파서 집을 만들었는데, 그 모양이 무덤과 같았다. 이자는 어리석은 체하며 “무엇 때문에 집안에다 무덤을 만들었느냐?” 라고 하자 아이들이 “이것은 무덤이 아니라 土室입니다.” 라고 하였다.

“어찌 이런 것을 만들었느냐?” 라고 하자 “겨울에 화초나 과일을 저장하기에 좋고, 또 길쌈하는 부인들에게 편리하니, 아무리 추울 때라도 온화한 봄날씨와 같아서 손이 얼어터지지 않으므로 참 좋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자는 더욱 화를 내며 “여름은 덥고 겨울이 추운 것은 사시의 정상적인 이치이니, 만일 이와 반대가 된다면 곧 괴이한 것이다. 옛적 성인이, 겨울에는 털옷을 입고 여름에는 베옷을 입도록 마련하였으니, 그만한 준비가 있으면 죽할 것인데, 다시 토실을 만들어서 추위를 더위로 바꿔 놓는다면 이는 하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사람은 뱀이나 두꺼비가 아닌데, 겨울에 굴 속에 엎드려 있는 것은 너무 상스럽지 못한 일이다. 길쌈이란 할 시기가 있는 것인데, 하필 겨울에 할 것이냐? 또 봄에 꽃이 피었다가 겨울에 시드는 것은 초목의 정상적인 성질인데, 만일 이와 반대가 된다면 이것은 괴이한 물건이다. 괴이한 물건을 길러서 때 아닌 구경거리를 삼는다는 것은 하늘의 권한을 빼앗는 것이니, 이것은 모두 내가 하고 싶은 뜻이 아니다. 빨리 털어버리지 않는다면 너희를 용서 없이 때리겠다.”

라고 하였더니, 아이들이 두려워하여 재빨리 그것을 철거하여 그 재목으로 뿔나무를 마련했다. 그러고 나니 나의 마음이 비로소 편안하였다.¹⁵⁾

이규보는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는 토실을 만든 아이들을 꾸짖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토실이 있으면 겨울을 나기에 유용하기 때문에 이를 만든 것이다. 이것도 인간이 자연에 적응해 나가는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규보는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운 것이 자연의 섭리이고 정상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자연의 질서를 어기는 것은 하늘의 권한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뜻과는 어긋나는 일이라고 하였다.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규보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인간의 인위적인 힘으로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은 생태 질서에 반하는 일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¹⁶⁾

이러한 자세는 운명에 대한 긍정으로 이어진다.

다음은 「夢說」이다. 이 글은 미리 정해진 운명예의 순응에 대하여 말 한 것으로 억지로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다는 순응적인 자연관을 보여주는 글이다.

내가 3품~4품의 벼슬에 있을 때부터 늘 꿈을 꾸면 큰 누각 위에 앉아 있었고, 그 아래는 큰 바다였으며 물이 누각 위까지 올라와서 잠자리를 적시는데, 나는 그 속에 누워 있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기를 6~7년 동안이나 계속하였는데 겔 적마다 이상스럽게 여겼으며, 혹은 『周公夢書』로써 징험

14) 권혜정(2013), 69~70쪽.

15)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권21, 「壤土室說」. 十月初吉, 李子自外還, 兒子輩鑿土作廬, 其形如墳. 李子佯愚曰: “何故作墳於家?” 兒子輩曰: “此不是墳, 乃土室也.” 曰: “奚爲是耶?” 曰: “冬月, 宜藏花草瓜蓏, 又宜婦女紡績者, 雖盛寒之月, 溫然若春氣, 手不凍裂, 是可快也.” 李子益怒曰: “夏熱冬寒, 四時之常數也, 苟反是則爲怪異. 古聖人所制, 寒而裘, 暑而褐, 其備亦足矣. 又更營土室, 反寒爲燠, 是謂逆天令也. 人非蛇蟄, 冬伏窟穴, 不祥莫大焉. 紡績自有時, 何必於冬歟? 又春榮冬悴, 草木之常性, 苟反是, 亦乖物也. 養乖物爲不時之翫, 是奪天權也, 此皆非予之志. 汝不速壞, 吾答汝不赦也.” 兒子等懼, 亟撤之, 以其材備炊薪, 然後心方安也.

16) 권혜정(2013), 69쪽.

해 보고서 마음속으로 瑞夢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경인년(1230, 고종 17)에 와서 내가 아무 죄도 없이 獮島로 귀양 가서 나이 많은 어떤 司戶의 집에 寓居하게 되었다. 그 집에는 높은 누각이 큰 바다를 정면으로 내려다보고 있어 마치 훨훨 날아갈 듯한 기상이었고, 물이 軒窓에까지 치밀어 올랐으니, 꼭 꿈에 보던 그 누각과 같았다. 나는 그제야 비로소 전일의 꿈을 징험하였다. 그렇다면 사람의 출세와 은퇴, 잘되고 못되는 것이 어찌 우연한 일이겠는가? 모두가 모르는 가운데 미리 정해지는 일일 것이다. 당시에는 꼭 그 땅에서 죽으려니 하고 생각했었는데 얼마 안 가서 서울에 돌아와 지위가 정승에까지 올랐으니, 이도 역시 하늘의 운명이 아니겠는가? 갑오년(1234, 고종 21) 월 일에 쓴다.¹⁷⁾

이 글은 이규보의 나이 67세에 지은 것이다. 이규보는 이 전에 꾸었던 꿈을 부안현의 위도로 귀양을 가서 징험하게 되었다. 이를 두고 사람의 출세와 은거, 영예와 치욕이 미리 정해진 운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음을 토로하였다. 순응적인 인생관이자 자연관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괴토실설」에서 자연의 섭리를 따를 것을 주장한 것이나 「몽설」에서 사람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생각은 순응적인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에 순응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나온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 생각해 볼 문제

이상으로 이규보 자연관의 일단을 살펴보았다.

여전히 남는 문제는 자연에 대한 인식과 인간의 본성인 잘살고자 하는 욕망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이다. 자연이 지닌 아름다움 또는 자연의 공평성, 자연의 섭리 등은 자연관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관에 대한 긍정은 일면 현대를 살아가기에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위의 「괴토실설」에서 이규보는 자연의 섭리를 따를 것을 말하였다. 잘 살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고 이를 억제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를 거역하는 것이다. 크게 보면 인간의 본성도 자연적인 것인데 자연과 대치된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면 이 역시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은 아닐까?

한문이 퇴영적인 모습을 지니는 것은 진취적이지 못한 부분에 있다고 생각한다. 위정자로서의 엄정한 도덕성에 대한 요구는 그것으로 받아 들여야 하겠지만 부와 명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현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꼭 긍정적인 것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부와 귀에 대한 욕구는 어찌 보면 인류가 이만큼 발전한 동력이 되었을 수도 있다. 자연관을 살펴보는 차제에 인간의 본성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양자간의 조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생각하며 「주퇴설」을 살펴보기로 한다.

李子が 남쪽으로 어떤 강을 건너는데, 때마침 배를 나란히 해서 건너는 사람이 있었다. 두 배의 크기도 같고 사공의 수도 같으며, 배에 탄 사람과 말의 수도 거의 비슷하였다. 그런데 조금 후에 보니, 그 배는 나는 듯이 달려서 벌써 저쪽 언덕에 닿았지만, 내가 탄 배는 오히려 머뭇거리고 전

17) 이규보, 『동국이상국집』권21, 「夢說」. 予自四三品時, 常夢坐一大樓上, 其下皆大海也, 水到樓上, 霑濕寢席, 予臥其中, 如是者六七年, 每寤輒怪之, 或以周公夢書驗之, 心以爲瑞夢也. 及庚寅歲, 以非罪流于獮島, 請寄一老司戶之家, 則有高樓正臨大海, 翼翼羣飛, 水亦將拍于軒窓, 眞若夢所見者. 予然後方驗前夢矣. 然則人之行藏榮辱, 豈徒然哉? 皆預定於冥然者歟? 當時擬必死於其地, 未幾復京師, 至登相位, 是亦非天命歟? 甲午月日書.

진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까닭을 물었더니,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저 배는 사공에게 술을 먹여서 사공이 힘을 다하여 노를 저었기 때문이오.” 라고 하였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없었고 “아, 이 조그마한 배가 가는 데도 오히려 뇌물의 있고 없음에 따라 遲速·先後가 있거늘, 하물며 벼슬을 경쟁하는 마당에 있어서랴? 나의 수중에 돈이 없는 것을 생각하매, 오늘날까지 하급 관직 하나도 얻지 못한 것이 당연하구나.” 라고 탄식하였다. 이것을 기록하여 후일의 참고로 삼으려 한다.¹⁸⁾

여기에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 있다. 보통의 경우 뇌물을 써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 비난을 하는 경우가 많다. 위의 자연관과는 대치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익을 추구하는 것 또한 사람의 본성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한문은 부와 귀, 명예, 이익 추구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러한 것들이 세상을 발전시켜 온 원동력이기도 하다. 이를 인간이 세상을 발전시켜온 힘으로 이에 대한 긍정은 사람의 자연성에 대한 긍정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규보의 태도는 차치하고 달리 생각해 보면 사람이 생각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따라서 자연의 섭리를 따르고 자연에만 의미를 부여하는 전통적인 자연 인식 태도는 현대를 살아가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사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대로 할 것이다. 나무의 경우에도 조금이라도 더 햇빛을 많이 받기 위해 욕심을 부리며 경쟁하는 것을 보면 욕심을 부린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규보의 자연관이 지니는 의미는 의미대로 인정해야 하지만 배우는 학생들에게 인간의 자연성에 대한 생각도 일깨워주어야 한다. 다만 인간의 자연성에 대한 긍정은 그것이 정당한 방법일 때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 선인들의 자연관을 이야기하며 받아들이는 것은 받아들이되 자연미 혹은 자연관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자연관을 잘못 파악하는 것은 아닐까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다.

참고문헌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한국문집총간1, 민족문화추진회, 1991.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강동석 『고려 후기 자연관의 변모 양상에 관한 연구』, 『한문교육연구』33, 한국한문교육학회, 2009.

권혜정, 「생태의식 고양을 위한 고전문학 교육 방안 연구 :이규보 문학에 나타난 생태의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김창경, 「중국 문인의 자연관 비교 연구 - 이규보와 도연명을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총』, 중국어문연구회, 2009.

박성규, 「이규보 시에 나타난 자연관」, 『한국학논집』9,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982.

조기영, 「전통적 자연관의 유형과 현대적 수용성 : 자연에 대한 기본적 태도에 따른 유형」, 『동양고전연구』12, 동양고전학회, 1999.

18) 이규보, 『동국이상국집』권21, 「舟路說」. 李子南渡一江, 有與方舟而濟者. 兩舟之大小同, 榜人之多少均, 人馬之衆寡幾相類, 而俄見其舟離去如飛, 已泊彼岸, 予舟猶迴不進. 問其所以, 則舟中人曰: “彼有酒以飲榜人, 榜人極力蕩槳故爾.” 予不能無愧色, 因歎息曰: “嗟乎! 此區區一葦所如之間, 猶以賂之之有無, 其進也有疾徐先後, 況宦海競渡中! 顧吾手無金, 宜乎至今未霑一命也.” 書以爲異日觀.

<최척전>에 나타난 동아시아와 다문화

최지녀(홍익대)

目次

1. 서론
2. <최척전>에 나타난 동아시아와 다문화의 양상
 - 1) 동아시아인의 교류 양상
 - 2) 동아시아의 언어와 의복
3. <최척전>에 나타난 다문화의 교육 방안
4. 결론

1. 서론

<최척전>은 17세기 한문소설의 명편(名篇)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작품으로서, 특히 동아시아를 무대로 펼쳐진 가족의 서사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¹⁾ 이에 의하면 <최척전>은 동아시아의 전란을 배경으로 한 가족의 고난과 이산·재회를 다룬 작품으로서 동아시아인들의 인간애와 연대를 표출하고 있다. 작품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최근에 급격히 다문화 다인종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변화와 맞물려 ‘다문화 시대’ 혹은 ‘통일 시대’를 예비하는 관점을 취한 연구로 발전하고 있기도 하다.²⁾

그런데 지금까지 <최척전>의 ‘다문화’는 국적이 다른 나라 사람들 간의 혼인을 포함한 교류, 해외로의 이동과 거주 등의 범주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다. 달리 말하면 <최척전>이라는 작품의 ‘역동적 서사구조’³⁾ 자체를 다문화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여 왔다고 할

1) 박희병, 김진세 편, 『최척전』,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김현양, 「최척전, ‘회망’과 ‘연대’의 서사」, 『열상고전연구』 24, 열상고전연구회, 2006; 최원오, 「17세기 서사문학에 나타난 越境의 양상과 초국적 공간의 출현」, 『고전문학연구』 36, 한국고전문학회, 2009; 정환국, 「전근대 동아시아와 전란, 그리고 변경인」, 『민족문화사연구』, 2010; 진재교, 「越境과 敍事-동아시아의 서사 체험과 ‘이웃’의 기억-최척전 독법의 한 사례」, 『한국한문학회연구』 46, 한국한문학회, 2010; 김경미, 「동아시아적 시각에서 다시 읽는 <최척전>」, 『고전문학연구』 43, 한국고전문학회, 2013 등을 주요한 연구로 들 수 있다.

2) 김경희, 『고전 소설의 다문화적 독법과 활용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논문, 2014; 김용기, 「17세기 동아시아 전란 체험과 다문화 양상 비교 : <최척전>과 <김영철전>을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22,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6; 이동일, 「통일 시대 통합고전문학 교육 방향과 텍스트 선정-17세기 전란 소재 소설 <최척전>을 중심으로」, 『고전과 해석』 30, 고전문학한문학회, 2020 등을 들 수 있다.

3) “<최척전>은 조선, 중국,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의 네 나라를 작품의 무대로 삼고 있는 매우 이채로운 작품이다. 이 작품은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한 가족이 두 차례의 전란을 겪으며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다가 천신만고 끝에 재회하는 과정을 대단히 흥미롭게 그려 내고 있다.”는 <최척전>에 대한 요약적 평가의 내용이 이 말의 의미에 해당한다. (박희병·정길수,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돌베개, 2007, 169면) 이하 본고에서

수 있다. 물론 조선, 일본, 중국의 사람들이 만나서 교류하고, 그들이 각자의 모국이 아닌 곳에서 생활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다문화적’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 다문화의 양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동아시아인들의 만남이 가지는 내적 속성과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겪는 다양한 문화적 경험의 양상이 드러나야만 ‘다문화’라는 단어의 내실을 갖추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척전>의 작품 실상에 맞추어 동아시아 다문화의 양상을 인적 교류와 언어·의복을 중심으로 한 문화적 교류의 두 가지 측면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최척전>은 작품 속의 시공간이 대장편을 방불케 하지만 실상 작품의 편폭은 중편 정도에 불과해 상기한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묘사가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본론에서는 각국 문화의 다양한 요소를 단편적인 부분이라 할지라도 최대한 의미화하는 방향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의 결과는 <최척전>이 다문화 교육의 텍스트로 활용될 수 있는 풍부한 배경이 될 것인바, 이를 바탕으로 <최척전>을 다문화 교육의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때 <최척전>이 한문 텍스트라는 점에 특히 유의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 가운데 한문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 교수·학습 방법 등에 작품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방안의 도출을 시도할 것이다.

2. <최척전>에 나타난 동아시아와 다문화의 양상

1) 동아시아인의 교류 양상

<최척전>에는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최척 부부 외에도 이름이 적시되고 언행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인물이 여럿 등장한다. 이들은 주로 조선인, 중국인, 일본인인데 <최척전>은 이러한 매개적 인물의 다양함과 형상화의 수준에서 탁월한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⁴⁾ 최척 부부와 이들의 만남은 도움, 우정, 혼인 등의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새로운 삶의 공간을 구축하는 데 긍정적이며, 국적이 다른 이들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적다는 점이다. 다음은 정유재란 당시 조선에 왔다가 최척을 자신의 진영으로 데리고 가서 훗날 중국으로 데리고 간 여유문의 말이다.

“(…)인생은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하니, 먼 곳이건 가까운 곳이건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노닐고 머물 따름이지 하필 구석진 땅에 머물며 웅색하게 살 이유가 무어 있겠소?”

여유문은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삶의 공간을 이동하는 삶을 옹호하며, 중요한 것은 제가 태어난 나라가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의 존재임을 강조한다. 그는 의탁할 곳이 없어진 최척을 측은해하며 받아들이고 자질이 뛰어난 그를 아껴 “한 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잘 정도” 였는데, 곧 최척을 마음을 알아주는 벗으로 여겼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최척이 그만큼 뛰어나고 매력 있는 인물이라는 의미도 동시에 여유문이 타국인에 대한 경계와 의심이 없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후금의 포로로 잡혀 재회한 최척과 아들 몽석의 사연을 궁금해 한 오랑캐 노인 또한 고국

<최척전>의 원문은 박희병, 『한국한문소설 교합구해』, 소명출판, 2005를, 번역문은 박희병·정길수,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돌베개, 2007을 따른다.

4) 박희병, 앞의 글, 99면.

에서의 삶을 고집하지 않고 적합한 삶의 터전을 찾아 떠나는 일을 긍정하였다. 그는 “와 보니 이곳 사람들은 성품이 정직하고 가렴주구도 일삼지 않더라. 인생이란 아침 이슬처럼 덧없는 것인데, 벼슬아치들의 매질에 시달리며 움츠리고 살 이유가 뭐 있겠나?” 라고 하면서 조국인 조선을 부정하고 만주를 긍정하는 발언을 한다. 이에 따르면 조선의 관리들은 정직하지 못하고, 가렴주구를 일삼으며 백성들을 학대한다는 것이다.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라면 태어난 나라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이 노인의 생각이다. 두 사람 모두 국경 혹은 모국을 뛰어넘는 가치가 존재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최척 또한 비록 자의에 의한 것은 아니나 외국을 두루 다니며 여러 사람과 교류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성품 및 태도와도 일정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는 어려서부터 친구 사귀기를 좋아하고 자잘한 예의범절에 구애받지 않는 인물이었다.⁵⁾ 이를 통해 각국의 문화에 따른 크고 작은 차이들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외국인들과 기꺼이 사귀었으리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최척이 여류문과 의형제를 맺었고, 지기(知己)로 사귀던 송우(宋佑)라는 중국인 벗까지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벗 사귀에 있어 남다른 개방성의 소유자였음을 확인시켜 준다.⁶⁾

한편, 최척이 국가보다 개인을 우선시하는 유형의 인물이라는 점은 변사정의 의병대에 속해있던 최척이 옥영과의 혼인을 앞두고 근심하고 휴가를 요청하는 장면에서 잘 드러난다.⁷⁾ “지금 이 어느 때인데 혼례식을 올리고 오겠다는 게냐? 임금께서 피난 생활을 하시며 풀섶에서 주무시고 계시니, 신하 된 자로서 창검을 베고 잘 겨를도 없는 게 옳다 할 것이다.” 라는 변사정의 말이 당대 사족의 대의를 대변한다면, 혼례일의 휴가를 허락받지 못하고 병이 깊어가는 최척의 모습은 개인적인 삶의 가치에 대한 지향을 상징한다. 요컨대 최척은 군주의 신민(臣民)으로서의 자의식이 강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최척과 몽석이 포로수용소에서 벗어나 도피하던 중 만나는 중국인이 있다. 이 사람 또한 왜군과 싸우기 위하여 명나라에서 조선으로 파병되었다가 군법을 위반하여 도피 중이었는데, 그는 침술로 최척의 종기를 치료하여 그 목숨을 구해준다. 이 사람은 기실 최척의 사돈이라고 할 수 있는 진위경이었는데 진위경은 대구에서 박씨 성을 가진 사람의 집에 머물다가 한 노파에게 침술을 배워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다. 박씨와 노파 두 조선인에게 도움을 얻은 중국인 진위경이 다시 조선인 최척에게 은혜를 배운 것이다. 그리고 최척의 가족은 그를 자신들의 집으로 옮겨와 살게 한다. 두 사람의 도피는 단면만 보면 불의한 일탈이지만 실상은 전쟁으로 인해 강요된 징집에서 벗어나고자 한 생존의 의지이자 자유의 의지라고 할 수 있다. 국가 권력이 전쟁에 골몰해 있을 때 거기에 강제로 포섭된 개인들은 탈출하고 연대한 것이다.

최척과 옥영 가족의 이산이 동아시아의 전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최척전>에 화해와 우정 이전에 국가 간의 적대와 공격이 배경이 되고 있음을 뜻한다. 최척 가족을 이산시킨 1592년의 임진왜란과 1597년의 정유재란은 일본의 조

5) “自少倜儻，喜交遊，重然諾，不拘齷齪小節.”

6) 옥영의 경우는 이와 매우 다르다. 옥영은 전란의 와중에 자신을 남성으로 가장하였고, 중국인들과 비교적 대등한 관계를 맺었던 최척과 달리 일본인 돈우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최대한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7) 김경미, 위의 논문, 178면에서 이러한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최척이나 옥영이 만나는 인물들은 국가를 중심에 놓는 가치관과는 거리가 있는 인물들이다. 최척, 옥영과 명의 여유문, 송우, 일본의 돈우, 삭주 출신의 오랑캐 노인과 최척, 옥영이 맺는 관계가 우호적인 데에는 국가를 중심에 놓는 삶보다는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선에 대한 공격이며, 여기에 명나라가 조선과 합세하여 일본에 대적하게 된다. 1619년의 요양 공격은 후금의 명에 대한 공격으로, 명은 후금을 토벌하기 위하여 나섰고 조선은 강홍립 휘하의 원군(援軍)을 파견한다.

<최척전>의 동아시아인들은 대체로 선량하고 고결한 인품을 지닌 인물로 그려져 있으며, 악인(惡人)이라 할 만한 사람은 없다.⁸⁾ 이들은 측은지심(惻隱之心)을 가지고 있으며, 국적을 가리지 않고 약자를 도울 만한 관대함을 지닌 인물들이다. 명나라 장수 여유문은 홀로 된 처지를 비관하여 중국에 따라 들어가 은둔하고 싶다는 최척을 측은하고 가련하게 여겼으며 [唐將聞之惕然, 且憐其志] 일본 상인 돈우 역시 옥영을 가련히 여기며 자신의 이름자와 같은 글자를 써서 ‘사우’ (沙于)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다.[頓于尤憐之, 名之曰沙于] 최척과 옥영이 외국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각기 중국인과 일본인의 도움이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홀로 분투하며 외국에서의 삶을 영위한 것이 아니며, 이들의 도움이나 호의에 힘입어 조금이나마 용이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작품의 원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여유문과 돈우가 베푼 호의는 이들의 개인적인 성품에 기인한 것으로 동등하지 않은 상대에 대한 연민의 감정의 발로이다. 다시 말해 동아시아인의 화해적인 관계 이면에는 국가 간의 적대적 관계 혹은 그로 인한 상해 관계가 엄연히 존재한다.

돈우와 옥영의 관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옥영은 돈우라는 인물에 의해 일본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한다. 돈우는 항해에 능숙한 장사꾼으로 배를 타고 장사하러 나갈 때마다 옥영에게 화장(火長) 일을 맡겼다. 이는 옥영이 자신은 왜소하고 약골이라 바느질이나 밥 짓는 일밖에 하지 못한다고 한 때문이다. 화장은 배에서 밥 짓는 일을 담당하는 이로, 주로 나이 어린 소년이 이 일을 맡아서 했다. 돈우는 불교 신자로 살생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옥영의 총명함을 사랑했다. 그러나 선량한 일본인 주인이라고는 하나 돈우와 옥영의 관계는 주인과 노예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포로로 잡혀가 일본 상인의 종노릇을 하면서 동남아 무역에 종사한 예가 옥영 이외에도 없지 않아⁹⁾ 옥영이 전쟁 포로로서 개인의 노예가 된 경우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돈우가 옥영이 달아날까 걱정하여 옷과 음식으로 안심시키려 한 점,¹⁰⁾ 훗날 옥영과 최척이 재회했을 때 최척과 동행했던 송우가 백금 3정으로 옥영의 몸값을 치르고 데려가려 했다는 점¹¹⁾ 등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돈우와 옥영의 관계의 본질은 주종(主從) 관계였으며, 옥영은 원치 않는 노동과 해상(海上)의 유랑으로 속박된 삶을 살았음이 명백하다. 비록 최척과 재회한 옥영이 여자라는 사실을 안 돈우가 돈을 받기는커녕 되레 은 10냥을 주며 옥영을 떠나보내는 호의를 보이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옥영이 괴로이 남자 행세를 하며 타국에서 뺏사람의 시종 노릇을 한 4년간의 고통의 세월이라고 할 수 있다. 돈우는 옥영의 “단정한 모습과 성실한 성품을 좋아해 친형제”처럼 지냈노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 두 사람 사이에 우정이나 평등한 교류가 성립하기는 어려웠다. 이 불가능성은 전쟁이라는 폭력에 기인한 것으로, <최척전>에 국가 간의 적대 관계와 개인 간의 우호 관계가 공존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최척전>에 나타난 연대와 인간애 또한 전면적이기보다는 선택적이고 부분적이라는 점은

8) 옥영 일행이 조선으로 가는 해상에서 만난, 아마도 중국어의 방언을 사용한 듯한 해적의 무리가 옥영 일행을 구타하며 배를 빼앗는 악역을 하지만, 이들도 옥영 일행을 죽이거나 극심한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

9) 박희병, 앞의 글, 89면에서 그러한 사례로 「조완벽전」을 소개하였고, 권혁래, 「<조완벽전>과 <최척전>에 그려진 민간인 포로 형상과 해양체험」, 『한문고전연구』38, 한국한문고전학회, 2019에서는 두 작품에 나타난 포로의 형상을 비교 검토하였다.

10) “惟恐見逋, 給以善衣美食, 慰安其心”

11) “鶴川請於頓于, 欲以白金三錠買婦”

이미 선행 연구에서 지적되었다.¹²⁾ 그런데 최척이 후금과 명의 관계를 “그까짓 오랑캐 무리가 감히 대국의 상대가 될 수 있겠소?” 라는 말로 표현한 것이나 옥영이 후금의 세력을 “누르하치의 소굴” 이라고 표현한 데서 화이(華夷)를 구분하는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음은 분명하지만 이는 후금과 명의 대립이 최척 부부가 이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추상적인 명분론에만 견인된 반응이기보다는 자신들의 삶을 파괴하는 현실에 대한 적대감의 표현으로 읽히는 것이다. 아들 몽선이 “누르하치가 중국 병사는 모조리 죽였지만 조선 사람은 모두 살려 주었다고 합니다.” 라고 말한 데서는 분명 이와 다른 관점이 보인다. 조선인을 살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하는 몽선에게서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대상에 대한 한결 누그러진 반응을 읽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최척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선한 품성을 바탕으로 상대의 어려움을 보살피고 돕는 동아시아의 ‘이웃’ 임에는 분명하나,¹³⁾ 여기에는 침략과 방어, 중화와 오랑캐, 남성과 여성이라는 모순항이 지배하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여 이 ‘이웃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도 분명한 사실이다.

2) 동아시아의 언어와 의복

‘문화’의 요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언어와 의식주를 들 수 있다. 작품 가운데 나오는 ‘어음의복’(語音衣服)이라는 말이 이에 해당하는데, 특히 언어의 문제는 동아시아인들이 다양한 양상으로 접촉하는 이 작품에서 직간접적인 문제로 제기된다. 전란 이전 최척과 옥영의 사랑과 혼인에 서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때는 ‘조선어’만이 존재하고 소통의 도구로서의 언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최척이 의병에 차출되면서 일본인 혹은 중국인과의 접촉이 발생하고 작품의 표면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언어의 문제가 개재하기 시작한다.

변사정의 의병으로 있으면서 명나라 군대와 접하게 된 최척은 중국어를 약간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稍解華語] 왜적이 남원을 함락한 후 가족과 헤어져 절망에 빠진 최척은 명나라 장수 여유문에게 자신의 신세를 하소연하며 중국에 따라가고 싶다고 말하는데, 이는 문맥으로 볼 때 중국어로 말한 것이다. 이후 최척은 소흥과 항주 일대에서 20년이 넘는 중국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중국어에 숙련되었을 것이며, 심지어 오랜 중국 생활로 인해 조선말이 약간 어눌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누르하치를 토벌하는 군대에 징집된 최척은 포로로 사로잡히게 되는데 이때 공교롭게도 조선에서 강홍립 휘하에 출전한 아들 몽석도 함께 포로가 된다. 몽석은 함께 포로가 되어 만난 최척을 보고 부친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어설픈 조선말[言語硬澁]을 듣고는 명나라 병사가 목숨을 구하고자 조선인 행세를 한다고 여긴다. 이는 오랜 중국 생활과 중국어를 사용한 언어생활로 인해 희석된 최척의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옥영은 최척을 찾아 조선으로 가는 항해를 떠나기 전 아들과 며느리에게 조선과 일

12) 김경미, 앞의 글, 180~181면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두고 보편적인 인간애, 타자들의 연대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최척전>에 나타난 연대는 오히려 명나라 사람(여유문, 송우)과 조선 사람, 조선 사람(오랑캐 노인)과 조선 사람의 연대라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 최척은 누르하치의 군대를 ‘보잘 것 없는 오랑캐 두목(蕞爾小酋)’이라 하고 옥영도 ‘누르하치의 소굴(奴酋窟穴)’이라고 비하해서 부르는 것도 이들이 어느 편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33) “而重逢配耦於萬死之餘，此人世所無之事。我若隘之，天必殛之。”

13) 진재교, 앞의 글, 131~138면.

본 두 나라의 말을 가르친다. 조선어를 가르친 것은 조선인과의 만남 혹은 조선에서의 생활을 대비한 것이며, 일본어를 가르친 것은 일본으로 표류하거나 일본인과 접촉했을 때를 대비한 것이었을 것이다. 옥영 자신이 삼국의 언어를 잘 구사했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행여 이들이 이산하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 생존을 위해서는 동아시아의 언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임에 분명하다.

제2언어(second language)란 화자의 모국어 혹은 제1언어가 공용어가 아닌 환경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언어를 말한다.¹⁴⁾ 최척이 사용한 중국어, 옥영이 사용한 일본어와 중국어, 그리고 진위경이 사용한 우리말, 곧 조선어는 오늘날의 ‘제2언어’에 해당할 것이다. 옥영의 며느리인 홍도에게 있어 모국어는 중국어이지만 제2언어는 조선어가 되었을 것이다. 중국에서 태어난 몽선은 어릴 적부터 부모의 조선어를 접했을 것이므로 홍도의 경우와는 조금 다르겠지만, 더 익숙하게 구사하여 제1언어에 가까운 것은 당시로서는 중국어였을 듯하다. 몽선을 태생적인 이중언어자에 가깝다. 여하간 이들은 모두 중국어를 능숙히 구사했을 것이므로 옥영은 중국어를 사용하여 이들에게 조선어와 일본어를 가르친 것이다.

옥영은 나고야와 일본의 상선에서 일본어를 익혔을 것이다. 이후 항해에서 옥영은 명나라의 경비선을 만났을 때는 항주의 차 상인으로 가장하여 중국어로 응대하고, 일본 배를 만났을 때는 길을 잃은 일본 고기잡이인 척하며 일본어로 응대한다. 해적에게 붙잡혔다가 구사일생으로 조선 배를 만났을 때야 비로소 뱃사람들과 조선말로 대화한다. 이렇게 옥영을 통해 동아시아 3국의 언어는 생존을 위한 소통의 도구로 활용된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점 한 가지는 조선 배를 발견한 옥영이 조선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것이다. 중국 배와 일본 배를 만났을 때의 상황은 분명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출발 당시 옥영이 조선과 일본의 옷을 미리 만들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배의 국적을 확인하는 대로 그 나라의 옷을 갈아입고 중국인과 일본인을 응대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야만 중국인이거나 일본인이거나 하는 말을 상대가 쉽사리 받아들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조선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던 셈이다. 옥영 일행이 자신들의 정체를 중국인과 일본인에게만 숨긴 것도 아니다. 이들은 조선인을 만났을 때도 자신들의 사정을 차마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서울의 사족(士族)이며 나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 겨우 살아났다고 둘러댄다. 이는 옥영이 서울 송례문 밖 청파리에 거주하다가 나주를 거쳐 남원까지 왔던 일을 생각하면 영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조선인을 대함에 있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음을 말했고 있기도 하다. 여기서 최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옥영 역시 조선인로서의 정체성만을 가진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옥영이 배의 모양만으로 조선 배를 알아보는 모습에서는 문화적 경험의 차이가 감지된다. 아들 몽선은 조선 배를 보고 ‘처음 보는 모양의 배’ [曾所未觀之船]라고 했지만 옥영은 기뻐하며 조선 옷으로 갈아입는다. 다문화란 말 그대로 서로 다른 문화의 조우와 공존, 타협, 갈등, 혼효를 의미한다. <최척전>에는 조선인과 중국인, 일본인이 각기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며 이웃을 만나는 장면이 자주 보이지만 이른바 문화적 교류라고 할 만한 것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옥영이 만들고 입었던 조선 옷과 중국 옷, 일본 옷은 각기 동아시아 3국의 문화에 대한 상징으로 볼 수 있다. 세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고 세 나라의 옷을 입고 이를 활용하는 옥영의 모습은 <최척전>의 다문화상을 보여주는 함축적 장면이라고 여겨진다.

아쉽게도 <최척전>에서는 음식[食]과 주거[住]의 다양성에 대한 묘사나 언급은 찾아보기

14) 최미숙 외, 『국어 교육의 이해』, 사회평론아카데미, 2016, 493면.

어렵다. 최척의 벗 송우가 “비단이나 차를 매매하며 남은 생을 즐기는 게 세상에 통달한 사람의 할 일 아니겠나?” 라고 한 말이라든지, 옥영이 조선을 향한 항해에서 중국 배와 일본 배를 만나자 각각 “산동으로 차를 팔러 갑니다”, “고기잡이하러 바다로 나왔으나(…)” 라고 둘러대는 말에서 각국의 문화적 배경을 띄 막연하게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주인공들이 환란을 피하여 거주한 외국의 공간은 독자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남기게 된다. 최척이 여유문을 만나 2년 여를 보낸 소흥을 고독한 망명자 최척에게 우정과 호의를 베푼 ‘피신의 장소’로, 최척과 옥영 부부가 재회하여 18년을 머문 항주를 ‘안식의 장소’로 ‘장소 정체성’을 부여한 선행 연구가 있거니와¹⁵⁾ 이들 장소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하나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옥영이 머무른 나고야의 돈우의 집에서 옥영을 남성으로 여긴 돈우가 “아내와 딸이 있는 내실에는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는 대목에서 일본의 가옥 구조에 대한 막연한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다. 이러한 문화 정보의 부족은 <최척전>이 동아시아라는 광대한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행’이나 ‘문화 체험’으로서의 성격이 희박하고 유량과 그 속에서의 인간관계에 주로 관심을 둔 작품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한다.¹⁶⁾ ‘다문화’에 관심을 둔 오늘날의 독자는 이 여백을 상상과 새로운 정보로 채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최척전>에 나타난 다문화의 교육 방안

이상에서 <최척전>에서 국가 간의 적대적 관계 속에서도 화해와 공존을 모색하는 개인들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점, 언어나 의복과 같은 구체적인 문화 요소의 공유·확산·활용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최척전>은 <김영철전>, <강로전> 등과 같이 동아시아를 무대로 한 소수의 한문소설 가운데서도 수작(秀作)으로 평가받는 작품인바 이제 <최척전>에 나타나는 다문화 양상을 어떻게 다문화 교육에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자.

한문이 고전 문언문(文言文)으로서 한자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던 국제적 표기 수단이었다¹⁷⁾는 사실은 세삼스러운 재론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한문교육의 대전제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한자문화권 국가로는 한국을 포함하여 중화권 국가,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를 들 수 있는데, 이들 국가는 과거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문명권에 속해 있었으며 오늘날에도 상호 교류가 활발하여 이들 나라는 대부분 한국 내 국제결혼 배우자의 국적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¹⁸⁾ 따라서 다문화교육에서 한문 텍스트를 활용하는 것은 다문화 학습자의 자료 접근성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현재 한자문화권 국가들의 한자 및 한문 활용도가 상이하고, 한자와 한문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어휘와 문법이 나라마다 많이 이화(異化)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문화가정의 정

15) 권혁래, 「<최척전> 소흥·항주 공간의 문학지리와 스토리텔링」, 『고소설연구』39, 한국고소설학회, 2015.

16) ‘여행’과 관련된 내용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최척은 여유문이 죽은 후 중국 각지를 유람하는데, 이때 양자강, 회수, 용문, 우혈, 동정호, 악양루, 고소대 등의 명승지를 방문하고, 신선의 술법을 배워 은거하려는 마음까지 먹는다. 별다른 묘사 없이 나열되어 있는 명승지들은 글을 통해서만 접한 중국의 자연과 풍물에 대한 관심 및 탈속적인 지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 부분은 대체로 <최척전>의 전체적인 서사에서 상당히 이질적인 부분으로 여겨진다.

17) 교육부,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17] 한문과 교육과정』, 3면.

18) 국가지표체계(e-나라지표)의 국제결혼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중국-베트남-필리핀-일본 순으로, 외국인 남편의 국적은 일본-중국-미국-캐나다의 순으로 많다.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30)

신·문화적 배경을 고려할 때 번역을 동반한 한문 텍스트를 활용한 교육은 바람직한 선택지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척전>은 한국, 일본, 중국, 만주, 베트남을 공간적 배경으로, 동아시아 공통의 전란의 역사를 시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 학습자들의 공감을 유도하기에 매우 적절한 텍스트이다.¹⁹⁾ 이는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도 한문 학습을 강화해야 한다는 한문교육의 목표와도 상통한다. 2015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 의거하면 <최척전>은 다음의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내용체계>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한문의 활용	한문과 문화	한자문화권에 속한 여러 나라들의 언어와 문화에는 공통적 요소가 있다.	한자문화권의 언어와 문화

<성취기준>

[9한05-02]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가) 학습 요소

- 한자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

(나)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 한자문화권 언어·문화사전 만들기 : 사전, 서적,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한자문화권 국가의 언어와 문화에 대하여 조사한 후,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한 한자문화권 언어·문화사전을 만든다. 모둠별 또는 학급별 협동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을 활용하여 장기적 수행과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제 수행의 목표와 개인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 효율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며 교사는 정기적으로 활동을 관찰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한다.
- 한자문화권의 상호 교류 사례 찾아보기 :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한자문화권 내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방식의 교류 사례를 찾아보고 이를 정리하여 발표해보도록 한다. 일회성 활동으로도 가능하나 중장기 수행과제로 활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며 개인 또는 모둠별로 진행할 수도 있다. 과제 수행의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여 과도하게 흥미 위주로 흘러가지 않도록 유의한다.

<최척전>에 나타난 다문화의 양상은 ‘한자문화권의 언어와 문화’라는 내용 요소와 연관해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자문화권 내 국가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는 것이 해당 영역에서 성취해야 할 기준이다. 이제 <최척전>을 통해 동아시아의 인적·문화적 교류 양상을 살펴보는 작업을 수행해야 할 차례이다. 제시된 성취기준에 따르는 교수·학습 방법 가운데 <최척전>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는 ‘한자문

19) <최척전>은 2009 개정교육과정 시기에 1종의 한문 교과서(미래엔)에 수록되었으나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한문소설이 수록되지 않은 교과서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한문 교과서에는 수록되지 않았고 1종의 국어 교과서(신사고)에만 수록되어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한문 교과서 수록 소설 작품에 대해서는 류준경, 「2015 개정 교육과정 한문 교과서의 소설 관련 교수-학습방법 구현양상 및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의 모색」, 『한자한문교육』45,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8 참조.

화권의 상호 교류 사례 찾아보기’, ‘한자문화권 언어·문화사전 만들기’를 들 수 있다.

<최척전>에는 다양한 층위의 교류 사례가 나타난다. 이를 편의상 개인-집단-국가로 구분해본다고 했을 때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타나는 것은 우정, 도움, 혼인 등이다. 집단의 차원에서 나타나는 것은 상업 혹은 무역이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타나는 것은 외교와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과 집단 차원에서의 교류는 대체로 호혜적인 것으로 긍정적인 면이 강하지만 국가 차원에서의 교류는 부정적인 면이 강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이 전란은 개인의 우호적인 교류가 성립 가능하게 하는 부득이한 배경으로 이 작품에서 기능하고 있다. <최척전>의 배경이 되는 16~17세기의 전란은 동아시아인의 공통적인 역사적 경험이다.

<최척전>을 통해 적대적이거나 부정적인 관계까지 포함한 교류의 역사를 이해하고 감상한다면 오늘날 현실에서 존재하는 국가 간의 갈등, 다문화에 대한 거부와 충돌을 포함한 갈등의 양상까지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안목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임진왜란, 정유재란, 후금정벌 등의 전란은 비록 폭력적이고 부정적이지만 작품에 드러나는 교류의 한 양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컨대 이에서 파생된 상하관계로서 돈우와 옥영의 관계 또한 주종이라는 부정적 속성을 가지지만 연민과 이해라는 보완적 요소를 지니고 있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최척이 여유문·송우와 맺은 우정, 오랑캐 노인이나 진위경이 보여준 조력 등이 교류의 한 중요한 양상이 될 수 있으며, 홍도와 몽선이 맺은 혼인 관계는 가장 구체적이면서도 강력한 교류의 모습이 될 것이다. <최척전>을 포함한 고전을 활용한 교류 사례의 조사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한자문화권 내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방식의 교류 사례를 찾아보”는 것과 병행이 가능하며 학습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동시에 사례를 더욱 풍부하게 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자문화권 언어·문화사전 만들기’ 가운데 ‘언어사전 만들기’에 대해 살펴보자. 앞서 모국어인 조선어 외에 최척은 중국어를, 옥영은 일본어와 중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였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또 홍도와 몽선에게는 중국어가 모국어 혹은 제1언어이며 조선어가 제2언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사전, 서적,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한자문화권 국가의 언어와 문화에 대하여 조사한 후,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한 한자문화권 언어·문화사전을 만드는 장기 프로젝트”의 일부로 <최척전>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여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우선 서로 다른 국적 혹은 태생의 여러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 어떤 언어를 사용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최초에 조선에 있을 때 최척의 가족은 조선어를 사용했으리라. 그러나 최척과 여유문, 혹은 최척과 송우는 중국어를 사용했을 것이며, 돈우와 옥영은 일본어를 사용했을 것이다. 몽선과 홍도는 중국어를 사용했을 것이며, 진위경과 최척은 아마도 조선어를 사용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대화 상황을 상상하며 이들의 대화를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로 구성해본다면 한자문화권 국가의 언어에 대한 훌륭한 예시가 될 것이다. ‘문화사전 만들기’ 또한 작품에 의거하여 시도해볼 수 있다. 이는 의식주(衣食住)의 세 가지 범주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데 <최척전>에 의식주의 구체적인 양상은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다. 옥영이 배를 타고 중국에서 조선으로 떠나기 전에 한중일 삼국의 의복을 만든 사실 정도만이 나타나는데, 이때 뱃사람을 자처한 옥영이 만든 의복이 어떤 것이었는지 조사해 볼 수 있다. 또 음식과 주거에 대한 정보가 전무하긴 하지만 최초에 옥영 부부가 조선의 남원에 살았고, 옥영이 일본의 나고야에, 최척이 중국의 소흥과 항주에 거주했다는 점을 고려하며 이들이 무엇을 먹으며 어떤 집에서 살았을지 상상하고 조사해보는 것 또한 흥미로운 과제가 될 것이다.

4. 결론

지금까지 <최척전>에 나타난 다문화의 양상을 인적 교류와 문화적 요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 결과를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의거하여 다문화 교육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탐색해 보았다. <최척전>은 중세공동문명권으로 명명할 수 있었던 동아시아의 17세기를 일국적 관점에서 벗어나 조망할 수 있는 작품이다. 더불어 <최척전>은 한국 전기소설의 전통과 미학을 확인할 수 있는 한국 문학의 학습 자료로서의 가치 또한 풍부하다. 결혼, 이주 등으로 인해 한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 및 이들과 함께 공부하는 한국의 학습자들에게 <최척전>은 한국 한문 고전의 가치를 일깨워주면서 국가적인 갈등 속에서도 동아시아의 개인이 협력하고 화해할 수 있다는 것, 나아가 새로운 다문화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줄 것이다.

『우념재시문초』 소재 일본사행시 창작 배경 연구

- 필담창화집 소재 이봉환 작품과 비교를 통하여 -

이경근(서울대)

目次

1. 서론
2. 관련 필담창화집 개략
3. 이봉환 일본사행시의 창작 배경 검토
4. 결론

1. 서론

이봉환(李鳳煥, 1710-1770)은 조선후기의 서얼 시인이다. 그는 1747~48년 이른바 무진통신사(戊辰通信使)의 서기(書記)로서 일본 사행에 참여하게 되는데,¹⁾ 이때 쓴 시가 시문집 『우념재시문초』(雨念齋詩文鈔)의 권2에 수록되어 있다.

한편, 『우념재시문초』 권수(卷首)에 실려 있는 「우념재시문초총목」(雨念齋詩文鈔總目)에는 권1부터 권10까지의 작품수가 순서대로 적혀 있고,²⁾ 아래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공(公)의 일호(一號)는 서정(西汀)이고 또 제암(濟庵)이라고 호를 한다. 중조인(中朝人)의 시화(詩話) 속에서는 공을 언급할 때 서정이라고 하고, 일본에서 간행한 『선린집』(善隣集)에서는 제암이라고 칭하였다. 아들 숭오(崇五)가 삼가 쓰다.³⁾

이봉환의 둘째 아들 이승오(李崇五, 1753-1830)가 남긴 기록인데, 부친의 호를 일본에서 간행한 『선린집』에서는 ‘제암’ (濟庵)이라고 하여, 중국인의 시화에서 언급한 ‘서정’ (西汀)이나⁴⁾ 문집 이름에 들어간 ‘우념재’ (雨念齋)와는 다른 호를 쓰고 있음을 특별히 기록

- 1) 무진통신사행과 관련된 대표적 사행기록으로 종사관 조명채(曹命采)가 쓴 『봉사일본시문견록』(奉使日本時聞見錄)과 정사 홍계희(洪啓禧)의 아들 홍경해(洪景海)가 쓴 『수사일록』(隨槎日錄)이 전한다. 무진통신사행원이 일본 문사들과 가진 학술적, 문화적 교류양상은 이경근, 「무진통신사의 학술·문화 교류 연구-홍경해의 『수사일록』을 중심으로」(『고전문학과 교육』29,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5) 참조.
- 2) 내용을 옮겨보면 아래와 같다: 권1 시(詩)157수, 권2 시129수, 권3 시298수, 권4 시125수, 권5 시125수, 권6 시 105수, 권7 문(文)12편, 권8 문30편, 권9 문11편, 권10 차기(筭記)54조(條)
- 3) 公一號西汀又號濟庵. 中朝人詩話中語及公稱西汀. 日本刊行善隣集以濟庵稱之. 男 崇五謹識.(『雨念齋詩文鈔總目』)
- 4) 중국인의 시화(詩話)에서 이봉환의 호를 ‘서정’이라고 부른 예는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만, 『우념재시문초』 권3에 실린 「익재 홍판서를 모시고 운을 뽑다」(陪翼齋洪判書拈韻)라는 시에 “依舊西汀窮上舍, 謗隨非是坐名高”라는 시구가 있어 스스로 서정(西汀)이라고 칭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노궁(盧兢)의 『한원유고』(漢源遺稿)에 수록된 「성장 및 여러 사람들과 함께 밤에 짓다」(與聖章諸人夜賦)라는 시의 “詩成每乞煩繩削, 記取西

하고 있다. 통신사행 때 바다를 건너갔기 때문에 ‘제암’(濟庵)이라는 호를 붙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여기서 이승오가 거론하고 있는 『선린집』은 어떤 책인가? 일본에서 간행했다고 하니, 필담창화집의 일종임을 알 수 있다.⁵⁾ 특히 이봉환이 수행한 무진사행 때 조일 양국 문사의 필담과 시를 묶어 간행된 『선린풍아』(善隣風雅)와 『선린풍아후편』(善隣風雅後編)에 ‘선린’이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들어 있어, 『선린집』이 이 두 책을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 당시 일본에서 간행된 필담창화집을 총칭하여 『선린집』이라고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승오는 부친의 호와 관련하여 『선린집』을 언급하였지만, 필자는 『우념재시문초』의 시를 검토할 때 『선린풍아』, 『선린풍아후편』을 포함한 필담창화집에 실린 시들을 함께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이 기록을 통하여 새삼 확인하였다. 본고에서는 『우념재시문초』에 실린 이봉환의 일본사행 관련 시를 수록하고 있는 몇 종의 필담창화집을 소개하고, 『우념재시문초』의 시와 필담창화집에 수록된 시를 합간(合看)하고자 한다. 이 작업을 통하여 『우념재시문초』에 실린 작품의 창작 맥락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그 배경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이봉환의 시를 보다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2. 관련 필담창화집 개략

이 부분에서는 『우념재시문초』 소재 일본사행시의 해석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필담창화집 4종을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1) 『선린풍아』(善隣風雅)

1748년 6월에 교토(京都)의 케이분칸(奎文館)에서 발행한 필담창화집으로 총2권(卷一, 卷二)이다. 권수제(卷首題) 아래 ‘小徒周省錄’이라는 기록을 통해 스이간(翠巖)의 제자 추우세이가 편찬했음을 알 수 있다. 주로 일본 승려 스이간과 제술관 박경행, 서기 이봉환, 유후, 이명계 등이 주고받은 필담과 시가 수록되어 있다. 스이간은 에도시대 중기의 임제종(臨濟宗) 승려로 이름은 쇼오켄(承堅)이다. 시린(芝林)이라는 호를 쓰기도 했으며, 당시 통신사 접반장로(接伴長老)의 임무를 띠고 있었다.⁶⁾ 접반장로는 에도(江戸)에서 교토의 오산(五山)에 파견을 요청하여 츠시마(對馬島)의 절 이테이안(以酤菴)에 주재시켜 외교사무를 보게 하였고, 조선에서 통신사를 파견할 경우 츠시마에서부터 동행하게 하였다. 『봉사일본시문견록』에 따르면, 스이간은 츠시마의 이테이안에 있을 때에 이미 임기가 다하였으나, 사행일이 임박하여 그대로 수행하였고, 에도에서의 전명(傳命)을 마치고 오오사카까지 호송한 후, 삼수원으로 돌아갔다.⁷⁾ 그는 문자를 잘 아는 승려였기 때문에, 통신사 제술관 및 서기와 주고 받은

汀印可時”라는 구절에서 노궁이 이봉환을 ‘서정’이라고 칭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무진통신사행 관련 필담창화집에 대해서는 구지현, 「1748년 조선의 통신사와 동아시아의 지식 유통 양상」(『열상고전연구』53, 열상고전연구회, 2016)의 2장 참조.

6) 『선린풍아』에 실려 있는 필담창수자 명단에는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沙門承堅號翠巖別稱洪崖又曰芝林, 現住龜山天龍子院三秀.”

7) 『봉사일본시문견록』 1748년 5월 28일 자, 7월 4일 자 참조. 이 두 기사를 참조해 보면, 조명채는 접반장로 스이간이 전명을 마치고 오오사카까지 수행한 후, 三秀院이 있는 에도로 돌아간다고 하였다. ‘歸於江戸之三秀

시와 필담이 다수 전한다. 필담 가운데 자신의 문집에 대한 서문을 제술관 박경행에게 청하여 허락을 얻은 내용이 보이며,⁸⁾ 제술관 박경행과 별인 당송시에 관한 논쟁 역시 수록되어 있다. 여기서 스이간은 당시를 박경행은 송시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를 통해 조일 양국 문인들의 시적 지향의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다.⁹⁾

2) 『선린풍아후편』(善隣風雅後編)

『선린풍아』와 마찬가지로 ‘卷之上’, ‘卷之下’의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권에는 본편, 습유(拾遺), 한인척육(韓人尺牘)이 차례대로 실려 있고, 하권은 부록에 해당된다. 스이간이 주요인물이며, 그 제자 추우세이가 편찬하였다. 봉면(封面)에 ‘平安書肆 弘書軒梓行’이라는 기록이 있어서, 교토회의 弘書軒에서 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요도가와(淀川), 후지산(富士山), 하코네(箱根) 등을 지나면서 스이간이 사문사(四文士)¹⁰⁾와 수창한 시가 실려 있고, 『선린풍아』와 달리 통신사 삼사, 즉 정사 홍계희, 부사 남태기, 종사관 조명채와 주고 받은 시가 수록되어 있다. 상권의 후반부에는 박경행이 스이간에게 보낸 편지가 수록되어 있는데,¹¹⁾ 오오사카 문인들이 조선문사와 수창한 내용을 간행하고자 하는데, 상당수가 일본인들의 위작(僞作)이며, 일본인 창수자 역시 시를 주고 받는 자리에서 보지 못한 인물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위작 8수의 제목을 밝히고 있다. 조선문사의 시가 위작할 만큼 인기와 수요가 있었다는 점, 사행의 끝나기도 전에 조일 문사의 창수시를 출간할 만큼의 인프라가 일본에 구비되어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3) 『장문무진문사』(長門戊辰問槎)

제목의 ‘장문’은 나가토노쿠니(長門國, 지금의 시모노세키下關)를 의미한다. 오오사카의 稱觥堂에서 간행한 것으로, 유학자 오규우 소라이(荻生徂徠, 1666-1728)의 제자 야마카타 슈우난(山縣周南, 1687-1752)이 쓴 서문이 실려 있다. 총3권(卷一, 卷二, 卷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쿠사바 인분(草場允文), 오다무라 로쿠잔(小田村廊山), 山縣洙川(야마가타 슈센) 등 소라이 학파에 속하는 일본 문사들이 이 필담창화집에 등장하는데, 이들은 조선문사들에게 익숙한 성리학(性理學)과는 다른 학술적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일 문사들 사이에 긴장감이 빚어지기도 한다. 1719년 통신사행의 제술관으로 일본을 다녀간 신유한(申維翰)을 인용하면서 성리학자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의 후손이 건재한지를 묻는 박경행의 질문에 오다무라 로쿠잔은 오규우 소라이와 그 제자 즉 핫토리 난가쿠(服部南郭), 다자이 순다이(太宰春臺), 야마가타 슈우난(山縣周南)의 학문적 역량을 칭송하며 아라이 하쿠세키를 그저 시 분야에서만 뛰어났을 뿐이라고 폄하하였는데,¹²⁾ 이 같은 모습에서 양국간의 서로 다른 학문·문화관의 충돌을 감지할 수 있다.¹³⁾

院’(5월 28일 자) ‘蓋堅僧至此落後, 還歸江戶之故也.’(7월 4일 자)

8) 『선린풍아』 권2, 9-10면.

9) 위의 책, 10-12면.

10) 필담 교류와 창수시 수창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제술관과 삼서기를 의미하는 말로, 제술관 박경행, 정사 서기 이봉환, 부사 서기 이명계, 종사관 서기 유후가 무진사행단의 사문사였다.

11) 「奉呈芝林道案下」, <韓人尺牘>, 『선린풍아후편』 권1

12) 『장문무진문사』 권상, 23-24면.

4) 『화한필담훈풍편』(和韓筆談薰風編)

에도의 文昌閣에서 편찬한 필담창화집으로 총3권(卷之上, 卷之中, 卷之下)으로 구성되어 있다. 에도의 유학자 야마미야 세츠로오(山宮雪樓)가 무진통신사가 에도에 머물던 기간 네 차례 숙소를 찾아가 필담, 창화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¹⁴⁾ 세츠로오는 무로 큐우소오(室鳩巢), 미야케 쇼오사이(三宅尙齋)에게 수학하였고, 주희(朱熹), 설선(薛瑄), 이황(李滉)의 책을 익힌 성리학자이다.¹⁵⁾

세츠로오는 이명계에게 1719년 기해통신사 서기 성몽량(成夢良)이 가져간 이토오 진사이(伊藤仁齋)의 저술 『동자문』(童子問)을 읽었는지 물었고, 이명계는 이에 대해 한 번 보았으나 경전의 참뜻에 맞지 않는 것이 많아서 볼 만하지 않다고 대답하였는데,¹⁶⁾ 이 부분은 이토오 진사이의 조선 수입과 그것에 대한 조선의 초기적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흥미할 만하다.

또한, 이봉환은 세츠로오에게 나가사키(長崎)에 중국책이 수입된다는 사실에 관심을 보이며, 청나라 문사인 서건학(徐乾學)과 이광지(李光地)가 지은 책을 혹시 보았는지 물었고, 이에 대해 세츠로오는 나가사키에 없는 중국 책이 없어서 서건학, 이광지의 책 또한 유통되고 있을 터이나, 자신은 보지 못했다는 답을 하였는데,¹⁷⁾ 당시 유행하고 있던 청조 학술에 대한 이봉환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세츠로오는 조선의 사자관(寫字官) 김천수(金天壽)가 일본어를 할 수 있고 일본 노래를 하며, 제술관 박경행의 하인 박수부(朴壽夫)가 학식은 없으나 필담을 하는 것을 보고, 조선이 비록 서쪽 변방에 있으나 문교(文教)를 입었다고 하면서, 조선의 풍속이 한 번 변하면 신주(神州: 여기서는 일본을 가리킴-필자)의 풍속으로 바뀔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¹⁸⁾ 조선을 교화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본중심적 화夷觀(華夷觀)의 일면을 간취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3. 이봉환 일본사행시의 창작배경 검토

이제 다시 『우념재시문초』 소개 일본사행시를 살펴보기로 한다. 사행의 과정에서 이국의 문사와 주고 받는 시는 한편으로는 양국 문사의 교류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강조되어 오기도 했으나, 또 한편으로는 의례적이고 천편일률적인 면이 있다고 하여 적절한 주목을 받지 못한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여겨진다.

본고에서는 이 시들을 2장에서 소개한 네 종의 필담창화집의 연관 부분과 합간(合看)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하겠다. 이런 방법을 택하였을 때 작품을 좀 더 생동감 있게 독해하여 어

13) 나가토 지역에서 만난 소라이 학파와 성리학을 신봉하는 조선 문사들의 대립은 1763~64년의 계미통신사행 때 더욱 심화되며, 『장문계갑문사』(長門癸甲問槎)에 수록된 원중거(元重擧)와 타키 카쿠다이(瀧鶴臺)의 논쟁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경근, 「계미통신사 필담집에 나타난 ‘완고한 조선’과 ‘유연한 일본’」(고일홍 외, 『문명의 교류와 충돌』, 한길사, 187~208면) 참조.

14) 구체적인 날짜는 1748년 6월 4일, 5일, 7일, 9일이다.

15) 『화한필담훈풍편』 卷之上 3면.

16) 위의책 17면.

17) 위의책 28면.

18) 『화한필담훈풍편』 卷之下 21-22면.

는 정도는 천편일률적인 독법에서 탈출할 여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 둘을 함께 읽으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아래에 보이도록 한다.

1) 원운시를 확인할 수 있는 차운시의 경우

이봉환의 『우념재시문초』에 실린 「하코네 산, 스이간에게 차운하다」(箱根嶺次翠巖), 「芝林에게 차운하다」(次芝林), 「스이간 장로에게 차운하다」(次翠巖長老)와 같은 시들은 모두 스이간이 보낸 시에 이봉환이 차운한 시이다.

이 중 우선 「시린(芝林)에게 차운하다」를 살펴보기로 한다.

비단 휘장 속 금빛 가사 입고서
갈대 꺾어든 채 은산을 건너네.
동원에서 향 사르던 남은 제자들이
흰 구름 깊은 곳서 절집문 닫아 거네.
黃錦袈裟綵帳間, 折蘆行色度銀山. 東院燒香留弟子, 白雲深處掩禪關.

안개 자욱한 파도를 북을 치며 건너가니
하늘 끝에 산이 걸리니 갈 길은 얼마인고.
복사꽃 언덕 위 종려나무 두른 집 속에서
또 며칠째 봄밤을 등불 아래서 보내야 할꼬.
煙波打鼓畫船行, 天際山橫不計程. 靑棕粉屋桃花岸, 又作春燈幾夜情. (「次芝林」¹⁹⁾)

첫째 수는 전반부는 보리달마(菩提達磨)가 처음 중국에 들어와 양무제(梁武帝)를 만난 후, 갈댓잎을 엮어 배를 만들어 양자강(揚子江)을 건너가 숭산(嵩山) 소림사에서 면벽정진했다는 고사를 빌려서, 이테이안의 주지 스이간이 접반승이 되어 통신사와 동행하는 모습을 읊고 있고, 후반부는 이테이안에 남게 된 다른 승려들 역시 스승의 출장과 상관없이 수행에 정진하고 있다는 모습을 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수는 망망대해를 떠나가며 끝없는 여정에 아득함을 느끼면서, 봄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이국적 경물을 감상하며 낯선 곳에서 밤을 보내야 하는 막막한 심정을 읊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시는 『선린풍아』에도 실려 있다. 「시린 장로께서 내려주신 시에 삼가 화답하다」(奉和芝林長老俯贈韻)라는 7수의 시 가운데 첫째수와 둘째수가 바로 이 시이고,²⁰⁾ 나머지 다섯 수는 『우념재시문초』에 실려 있지 않다.

한편, 『선린풍아』에는 이 시의 원운시도 실려 있다. 스이간의 「이키노시마의 배 위에서 다섯 수를 써서 학사와 삼서기에게 바친다」(壹岐舟中五首, 贈呈學士三記室僉榻下)라는 시의 제4수와 제5수가 바로 이봉환이 쓴 이 시의 원운시이다. 이를 차례대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바다에 휩쓸려 가는 부평초 신세로
신(神)들린 듯 달리면 고향집은 아득하겠지.

19) 『우념재시문초』 권2.

20) 『선린풍아』 권1, 24-25면.

알지 못쾌라 어느날 바람의 힘으로
물결 가르며 아카마가세키를 지나갈는지.
萍跡飄然碧海間, 神馳迢遞舊家山. 不知何日風帆力, 破浪行過赤馬關.

대한의 사객이 여기에 머물거늘,
서쪽 고향 바라보면 아마득하겠지.
봄의 일도 무르익어 꽃비가 내리니
官遊하는 마음을 가누기 어려우시겠지.
大韓槎客此留行, 西顧鄉關隔杳程. 春事闌珊落花雨, 想應不耐官遊情. (「壹岐舟中五首, 贈呈學士三記室僉榻下」²¹⁾)

제목을 통해 우리는 이 시가 ‘이키노시마의 배 위에서’ 쓴 시임을 알 수 있다. 첫째 수에서 스이간은 자신의 신세를 바닷물 위에 떠 있게 된 부평초에 비유하면서 금세 여정을 따라 떠나갈 것을 암시하지만, 뒷부분에서는 바람이 불지 않아 아직 여정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읊고 있다. 앞서 살핀바 이 시에 차운한 이봉환의 시에서 스이간을 달마대사에 비유한 것은 원운시에서 자신을 바다에 떠 있게 된 부평초와 같은 신세에 비유한 스이간을 격려하기 위해서인 듯하다. 보리달마가 중국에 처음 건너와 양무제를 만나고, 송산의 소림사에 들어가 수년의 정진 끝에 깨달음을 얻었다는 고사를 통하여, 스이간의 접반장로서의 동행 역시 중요한 것이니 자신을 너무 비하하지 말 것을 넌지시 암시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한편, 둘째 수에서 스이간은 통신사원들이 머물게 된 이키노시마와 고향인 조선과의 거리감을 새삼 부각하여 시를 시작하고, 꽃비가 내리는 봄날의 상황을 강조하여 공무를 수행하면서도 느낄 수밖에 없는 상춘(傷春)의 정서를 환기하면서, 이 같은 마음이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선 문사들의 마음을 동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시를 끝맺고 있다. 공간적 격절감에 따른 객수(客愁)와 계절 때문에 겪어야 하는 소멸감 내지 무상감과 같은 감정이 공무수행을 하고 있는 조선의 문사들에게도 생겨날 수 있고, 이 같은 감정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하며 자신도 얼마간은 공감한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듯하다.

이봉환은 이 시를 차운한 시에서 앞에 놓인 여정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남았음을 말하고, 복사꽃 언덕에 피어있는 종려나무를 언급하면서, 봄밤을 어떻게 보내야할지 난감해하고 있었다. 고향을 떠나온 길이 멀었음을 객수와 연결시킨 스이간과 달리, 이봉환은 여정이 많이 남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그가 여전히 통신사를 수행한 서기로서, 관유(官遊)에 나선 공인(公人)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이봉환은 복사꽃 언덕의 종려나무라는 이국적 소재를 빌려온 후, 봄밤을 어찌 보낼지에 대한 나그네로서의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이 시상은 원운시에서 관유정(官遊情)을 이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스이간의 발상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즉 이봉환 역시 관유에 나선 공인으로서의 면모를 견지하면서 동시에, 복사꽃, 종려, 봄밤의 등불 등이 자아내는 이국적 정취와 봄날의 애상감 속에서 쉽게 밤잠을 이루지 못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봉환의 이 작품이 스이간의 원운시와 같은 상황, 즉 이키노시마에서 제대로 된 바람이 불지 않아 예정대로 항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어진 것이라고 간주한다면, 이 시에서도 행정(行程)이 순간적으로 막혀 있는 상황에 대한 갑갑함, 또는 빨리 항로의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조바심 등의 정서 역시 읽어낼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 『우념재시문초』에 실린 「시린에게 차운하다」 2수는 『선린풍아』에 수

21) 위의 책, 22-23면.

록된 「시린 장로께서 내려주신 시에 삼가 화답하다」 총7수 중의 2수이고, 이 시의 원운시는 「이키노시마의 배 위에서 다섯 수를 써서 학사와 삼서기에게 바치다」이다. 이 같이 『우념재시문초』와 『선린풍아』의 작품을 합간하면 시의 창작 배경을 상세히 알 수 있고, 작품을 더 정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우념재시문초』에 실린 「스이간 장로에게 차운하다」(次翠巖長老)는 총10수로, 제목에서 볼 수 있듯 스이간의 시에 차운한 작품이다. 그런데 이 10수의 시 중 9수의 시가 『선린풍아』에 실려 있고, 『선린풍아』에는 스이간이 쓴 원운시 역시 수록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次翠巖長老 (총10수, 『우념재시문초』 권2)			
우념재시문초	형식	선린풍아	翠巖의 원운시
제1수	7언 율시	「奉和芝林長老惠韻」(58면)	「贈呈矩軒學士三記室各榻下」(57면)
제2수	7언 절구	없음	없음
제3수	7언 고시	「奉和芝林長老惠贈韻」(55면)	「古體一首, 贈呈矩軒學士三記室僉床下」 (54면)
제4수	7언 절구	「奉和芝林長老再疊韻」의 제1수 (48면)	「再用原韻酬矩軒學士及三記室僉床下」 (46면)中 제1수
제5수	7언 절구	「奉和芝林長老再疊韻」의 제2수	「再用原韻酬矩軒學士及三記室僉床下」 의 제2수
제6수	7언 절구	「奉和芝林長老再疊韻」의 제3수	「再用原韻酬矩軒學士及三記室僉床下」 의 제6수
제7수	5언 절구	「奉和芝林長老再疊韻」의 제6수	「再用原韻酬矩軒學士及三記室僉床下」 의 제3수
제8수	5언 절구	「奉和芝林長老再疊韻」의 제7수	「再用原韻酬矩軒學士及三記室僉床下」 의 제4수
제9수	5언 절구	「奉和芝林長老再疊韻」의 제5수	「再用原韻酬矩軒學士及三記室僉床下」 의 제5수
제10수	5언 절구	「奉和芝林長老再疊韻」의 제4수	「再用原韻酬矩軒學士及三記室僉床下」 의 제7수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 『우념재시문초』의 「스이간 장로에게 차운하다」 총10수 중 9수가 『선린풍아』에 그대로 실려 있다. 이 9수는 서로 다른 3제(題)의 시에서 시를 가려 뽑았음을 알 수 있으며, 제4수부터 10수까지 총7수의 시는 『선린풍아』에는 동일한 제목 아래 묶여 있는 시(「再用原韻酬矩軒學士及三記室僉床下」)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하코네 산, 스이간에게 차운하다」(箱根嶺次翠巖), 「후지산」(富士山)이 『선린풍아 후편』에 원운시와 함께 실려 있다. 이 중 「후지산」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념재시문초』에는 ‘후지산’ (富士山)이라는 제목으로 총5수의 시가 실려 있는데,²²⁾ 이 중 제2수, 3수, 5수가 『선린풍아후편』에 수록되어 있다. 이 중 제3수는 다음과 같다.

동쪽으로 바닷물 헤치고 뿌리를 쌓으며 와서,
제좌(帝座)와 통하니 홀로 장쾌하다.
산꼭대기의 용은 은하수를 붙어서 떨어뜨리고,
온몸엔 서리를 쌓으니 연꽃이 핀 듯하네.
무지개는 기운을 머금고 산중턱에서 비를 내리고,

22) 「후지산」(富士山), 『우념재시문초』, 권2.

해와 달은 빛을 내며 높은 지주(砥柱)를 홀겨보네.
 어찌하면 높은 하늘로 날개 달고 올라가,
 가슴을 씻고 눈 크게 뜬 채 홍얼거리며 돌아올꼬.
 東排滄海積根來，帝座相通獨壯哉。絕頂龍吹銀漢倒，渾身霜滿白蓮開。
 雲霓蓄氣憑臍泄，日月跳光睨柱嵬。安得層霄飛插翅，盪胃決眦朗吟回。

이봉환의 이 시는 후지산의 거대한 모습을 관찰하고, 산에서 느낄 수 있는 방대한 기상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하는 심정이 드러난 시라고 생각된다.

우선 이봉환은 수련에서 후지산의 크기와 높이의 웅장함에 대해 읊고 있고, 함련에서는 눈 속에 쌓여 있는 후지산의 모습에 대해, 용이 은하수를 붙어서 떨어뜨렸다거나 온몸에 서리를 쌓아서 흰 연꽃이 피었다고 하여 신비감을 부각시키고 있다. 경련에서는 엄청나게 큰 후지산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을 묘사하고 있고, 미련에서는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 온몸을 다하여 후지산의 기상을 본받으려고 한다는 작가의 바람과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이 시는 『선린풍아후편』에도 수록되어 있다. 「시린 화상의 후지산 시에 삼가 차운하다」(奉次芝林和尚富嶽韻)가 그것이다. 즉 「후지산」 제3수는 스이간이 쓴 시에 대한 차운시임을 알 수 있다. 『선린풍아후편』에 함께 실려 있는 스이간의 원운시는 다음과 같다.

금오(金鰲)가 지고 나왔으리라.
 해동의 명산이 저리도 웅장하네.
 천년의 눈빛이 아침햇살에 빛나고
 여덟 잎 연꽃은 안개 걷히자 드러나네.
 산의 빼어남을 다시 비교해도
 무엇이 저 은하수 끝의 높은 꼭대기를 능가하리오.
 서불이 신령한 풀을 찾는다고 했거늘
 여기서 해마다가 끝내 못 돌아갔지.
 莫是金鰲擎出來，海東名嶽勢雄哉。千秋雪色朝陽耀，八葉蓮華晴靄開。
 更指何山論秀絕，誰凌彼漢極層嵬。曾言徐福求靈草，到此長年終不回。(「富士山詩贈矩軒學士及三記室詞榻」²³⁾)

이 시는 스이간이 후지산에 대해 품고 있는 자부심을 확인할 수 있는 시라고 생각된다. 수련에서 금오(金鰲)가 지고 나온 ‘해동명악’ (海東名嶽)이라고 후지산을 칭한 후, 경련에서는 후지산이 다른 산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빼어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으며, 미련에서는 진시황 때 동쪽에 와서 선약(仙藥)을 구하려 한 서불이 미처 돌아가지 못한 이유를 후지산에 와서 오랫동안 머물러서라고 말함으로써 후지산의 빼어난 절경을 역사적 상상력을 결부시켜 칭송하고 있다.

이중 특히 후지산이 다른 산과 비교할 수 없을만큼 빼어나다는 경련의 내용은 조선통신사와 일본 문사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논쟁의 주제가 되었던 ‘금강산-후지산의 우열 논쟁’을 떠올리게 한다.²⁴⁾ 이 시가 통신사 수행원인 이봉환에게 주는 시임을 감안해 보았을 때, 스이간이 후지산의 빼어남을 칭송하는 시에서 조선의 금강산을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은 몹시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23) 『선린풍아후편』 권지상, 11면.

24) 이에 대해서는 이혜순, 『조선통신사의 문학』(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262-280면이 참조가 된다.

한편, 이봉환의 차운시는 후지산의 빼어남을 읊고 있는 원운시의 시상을 계승하지만, 설화적이고 역사적 상상력을 결합하여 후지산을 칭송하고 있는 스이간의 원운시와는 달리, 후지산의 웅장함과 설경이 불러일으키는 신비로움, 기상 현상의 기이함을 차례대로 읊은 후, 날개를 달고 후지산이 있는 하늘에 올라가 기운을 한 번 떨치고 돌아오겠다고 다짐하면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즉 빼어난 기운을 가진 산 앞에서 자신도 산과 같은 기운을 발휘하는 모습을 그림으로써, 스이간처럼 후지산의 빼어남을 칭송하는 단계를 벗어나, 빼어난 기상의 체득이라는 문제를 시에서 거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는 『우념재시문초』의 시를 필담창화집과 함께 검토하면 차운시의 경우, 원운시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이봉환의 시를 더 정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원운시에 따라서 차운시가 작성될 때, 차운시는 원운시의 의미와 형식의 제한을 받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차운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원운시를 확인하는 것은 시의 의미 파악을 위해서 몹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사행시 작성된 이봉환의 시가 차운시일 경우, 그 원운시를 확인할 수 있으면 해석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 제목만으로는 그것이 차운시임을 알 수 없었던 이봉환의 「후지산」 제3수처럼 필담창화집에 있는 제목(여기서는 「芝林和尚의 후지산 시에 삼가 차운하다」)을 통해 원래 이 시가 차운시라는 정보를 얻은 후, 다시 이 시를 자신의 원운시와의 연관 하에 해석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

2) 작시 배경의 확인 및 차운시에 대한 정보 습득

그런데 『우념재시문초』에 실린 이봉환의 시작품을 필담창화집과 함께 읽을 경우, 장점은 꼭 이런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념재시문초』만을 읽을 때와는 달리, 이봉환의 시가 필담창화집에 실려 있을 경우, 시가 지어진 전체적 맥락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다. 『우념재시문초』에 실려 있는 「비파호의 겨울」이라는 작품을 살펴보기로 한다.

만물은 소멸하고 얼음은 단단한데
매화향과 소나무 빛깔은 끝없이 아득하네.
이따금 눈보라가 물가에 휘날리니
달빛 속 이 사람은 잠에 못 드네.
萬物歸根水骨²⁵⁾堅, 梅香松翠潏無邊.
有時風雪翻洲渚, 人在冰壺夜不眠. (「琵琶湖四時冬詞分景」)²⁶⁾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이 시는 비파호의 겨울 풍경을 읊고 있다. 『우념재시문초』에는 이 한 수만 단독으로 실려 있기 때문에, 제목과 시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단편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선린풍아후편』에도 실려 있는 이 시의 제목과 체제를 살펴보면, 창작배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비파호의 겨울」의 『선린풍아후편』에서의 원제는 「호숫가의 네 계절」(湖上四時) 중 「겨울 노래」(冬詞)이다. 『선린풍아후편』에 실린 「호숫가의 네 계절」(湖上四時)이라는 시는 봄노래

25) 水骨: 얼음. 氷.

26) 『우념재시문초』 권2.

(春詞), 여름노래(夏詞), 가을노래(秋詞), 겨울노래(冬詞)로 구성되어 있고, 이 각각의 시는 조선의 사문사 중의 한 명이 쓴 시와 그에 대한 스이간의 차운시로 구성되어 있다.

즉 「호숫가의 네 계절」의 봄노래는 유후와 스이간, 여름노래는 박경행과 스이간, 가을노래는 이명계와 스이간, 겨울노래는 이봉환과 스이간의 원운시-화운시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중 이봉환의 시인 「호숫가의 네 계절」의 「겨울노래」가 『우념재시문초』에 「비파호의 겨울」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湖上四時」의 ‘冬詞’와 「琵琶湖四時冬詞分景」은 사실 같은 뜻이다. 그러나 『선린풍아후편』을 함께 읽지 않고, 『우념재시문초』의 시만을 읽었을 경우, 이 시가 일본 중 스이간과 주고받은 창수시 중 원운시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알 수 없고, 봄시, 여름시, 가을시를 제술관과 다른 서기들이 지었다는 사실은 알 수 없다. 또 이 시에 차운한 스이간의 시를 확인할 수 없다.

『선린풍아후편』에는 이봉환의 겨울시에 화답한 스이간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시는 다음과 같다.

호숫가 그늘에 얼음이 단단한데
새벽녘 찬바람에 갈대는 시들었네.
서리 내린 어느 산엔 종소리 울려
한가히 자고 있는 해오라기를 놀래켜 깨우는가?
平湖陰處結氷堅, 殘曉風寒枯葦邊. 霜後何山鐘發響, 等閑驚起宿鷺眠. (「湖上四時-冬詞」 ‘和’)²⁷⁾

이봉환의 「비파호의 겨울」은 만상이 모두 소멸하는 겨울의 모습을 제시하고, 매화, 소나무를 그 뒤에 배치하여 이것들을 소멸의 시간을 견디고 있는 사물로 해석할 여지를 열어주고 있다. 그리고, 겨울의 눈바람 속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달빛 속에’ (원문은 ‘在氷壺’이다-필자) 있다고 하여, 사뭇 몽환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스이간은 전반부에서는 이봉환이 제시한 단단히 굳은 얼음이라는 시상을 이어 받아 시를 시작하여 시든 갈대의 모습을 통해 자연물들의 소멸을 읊고 있으며, 후반부에서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종소리가 해오라기의 잠을 깨운다는 말로, 한적하고 정적인 느낌이 들던 가운데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움직임의 찰나를 숨쉴 있게 포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 이봉환의 「비파호의 겨울」은 원제가 「호숫가의 네 계절」 중 「겨울노래」로, 유후의 「봄노래」, 박경행의 「여름노래」, 이명계의 「가을노래」와 동일한 위상을 갖는 시이고, 이들 네 편의 시에는 각각 스이간의 차운시가 덧붙여 있음을 『선린풍아후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검토한 이봉환의 경우를 주목해보면, 『우념재시문초』에 실린 시 한 수가 고립적이고 단일한 작품이 아니라, 원래 스이간의 계획에 따라 고안된, 다른 조선의 문사들도 함께 참여한 시 모임의 일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또 『우념재시문초』에는 실려 있지 않은 이 시에 대한 차운시 역시 수록되어 있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알 수 있다.

3) 작시 배경의 확인을 통한 의미의 구체화

필담창화집의 합간을 통해, 작시배경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하나 더 소개하기로 한다.

27) 『선린풍아후편』 권지상, 57면.

이봉환의 「눈」(雪)이라는 시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무와 돌이 연달아 묻혀 물고기와 새가 걱정하고
구름과 온통 한빛이 되어 찬 물가에 흩어져 있네.
벼랑의 매화는 찾는 이 없거늘
새벽에 일어난 어부는 배 한가득 흰 눈 실었네.
木石埋連魚鳥愁, 同雲一色散寒洲.
梅花絕岸無尋處, 曉起漁人白滿舟. (「雪」²⁸⁾)

이 시는 어느 물가의 설경(雪景)을 읊고 있다. 『우념재시문초』에서 일본 사행시를 모아 놓은 권2에 함께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²⁹⁾ 이곳은 일본의 어느 마을의 설경임을 알 수 있다. 이봉환은 이 시에서 주거공간이 없어져 근심하는 물고기와 새를 등장시켜 눈이 몹시 많이 내렸음을 드러내고, 물가가 온통 구름빛처럼 하얀 은세계(銀世界)로 변하였음을 노래하고 있다. 또 이곳이 매화꽃이 피어도 인적이 없을 만큼 궁벽한 곳임을 말함과 동시에 자신만이 이 매화를 보고 있다는 것을 던지시 드러내고 있으며, 새벽에 일어난 어부의 배에 눈이 가득하다는 말을 통해 눈이 내린 것이 하룻밤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일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선린풍아후편』에도 이 시가 실려 있다. 『선린풍아후편』에는 「비파호 8경, 학사 및 세 서기와 함께 짓다」(湖州八景同學士三書記賦)라는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시는 「辛崎夜雨」, 「石山秋月」, 「矢橋歸帆」, 「栗津晴嵐」, 「堅田落雁」, 「三井晚鐘」, 「勢田夕照」, 「比良暮雪」이라는 8제의 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8제의 시는 다시 각각 스이간의 시 1수와 조선인 4문사가 쓴 시 1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비파호 8경, 학사 및 세 서기와 함께 짓다(湖州八景同學士三書記賦)				
번호	제목	시인	비고	『우념재시문초』
1	辛崎夜雨	스이간(翠岩)		해당사항 없음
	同	이명계		
2	石山秋月	스이간		
	同	유후		
3	矢橋歸帆	스이간		
	同	박경행		
4	栗津晴嵐	스이간		晴嵐
	同	이봉환	『우념재시문초』 수록	
5	堅田落雁	스이간		해당사항 없음
	同	이명계		
6	三井晚鐘	스이간		
	同	박경행		
7	勢田夕照	스이간		
	同	유후		
8	比良暮雪	스이간		雪
	同	이봉환	『우념재시문초』 수록	

「비파호 8경, 학사 및 세 서기와 함께 짓다」라는 제목 아래 수록된 여덟 개의 제목은 본

28) 『우념재시문초』 권2.

29) 이 시의 앞에 실린 시의 제목 두 개와 뒤에 실린 시의 제목 두 개는 다음과 같다. 「次翠巖長老」, 「琵琶湖四時冬詞分景」, 「晴嵐」, 「赤間關席上次韻」. 모두 『우념재시문초』 권2에 실려 있다.

래 ‘오오미 핫케이’ (近江八景)라고 하는데, 일본의 오오미쿠니(近江國: 지금의 시가현滋賀縣)에서 볼 수 있는 빼어난 경승지 여덟 개를 이르는 말이다. 여덟 개의 명소에 대한 시를 네 문사와 함께 지었다는 말이 제목에 있는 것으로 보아, 스이간은 ‘비파호 8경’ (湖州八景)을 소재로 하여 여덟 편의 시를 짓고, 이 소재에 따라 시를 지을 것을 사문사에게 청한 듯하다. 사문사는 이에 따라 각자 2편씩 시를 썼다. 그런데, 스이간의 시와 이들 문사의 시를 검토해보면, 이 둘 사이의 시는 원운시와 차운시의 관계에 있지는 않다. 네 문사가 스이간이 제시한 소재에 따라 시를 짓기는 하였으며, 그의 시에 보운(步韻)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살핀 이봉환의 「눈」은 이 같은 상황 아래에서 지어진 시이다.

「눈」의 원제는 「히라 산의 저녁 눈」(比良暮雪)이다. 『선린풍아후편』에서 원제를 확인하고 나면, 이봉환의 이 시 역시 일본의 특정한 장소를 염두에 두고 시를 썼다는 것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된다. 즉 이 시는 『우념재시문초』의 제목처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눈’을 읊은 것이 아니라 ‘히라 산’이라는 공간과 ‘저녁’이라는 시간의 구체성이 그대로 살아 있는 곳의 ‘눈’에 대해서 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독자가 이 점을 알게 된다면, 이 시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역시 한층 구체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선린풍아후편』에는 이 시의 바로 앞에 같은 제목의 스이간의 시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 또한 함께 살펴봐야 한다. 스이간의 시를 아래에 제시한다.

추운 날 해질녘에 구름이 산 정상에 휘감았거늘,
 날 개자 눈빛이 쌓인 것임을 알았네.
 옥이 서서 하늘 향해 천 길을 찌를 기세이니
 태호(太湖)를 거울로 삼으니 그림자가 아른거리네.
 寒雲薄暮遶崔嵬, 晴後初看雪色堆. 玉立凌空千仞勢, 太湖爲鏡影徘徊. (「比良暮雪」³⁰⁾)

스이간의 이 시는 ‘히라 산의 저물녘 설경’을 그대로 보는 듯이 묘사하고 있다. 기구와 승구에서 흐릴 때에는 보이지 않던 눈이 날이 개니까 그제서야 보인다고 하였으며, 하늘을 향해 치솟은 옥과 같은 산의 모습을 읊고 나서 그 모습이 거울처럼 맑은 비와호에 그대로 비친다고 하여 시상을 마무리 짓고 있다. 이봉환의 「눈」에 비하여, 이 시는 ‘히라 산의 저물녘 설경’이라는 원래의 제목에 더 충실한 듯한 인상을 준다.

이에 비해, 이봉환의 「눈」은 ‘저물녘 설경’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점이 있다. 기구와 승구에서 보이는 물고기와 새의 근심이나, 물가가 온통 흰빛으로 덮여있다는 내용을 꼭 저녁과 연결시킬 근거가 없으며, 절구에서는 새벽에 일어난 어부가 등장함으로써 이 시의 시간적 배경을 저녁이 아닌 새벽으로 보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봉환이 어떻게 하여 이처럼 원래의 제목과 잘 어울리지 않는 시를 썼는지는 알 수 없으나, 「히라 산의 저녁 눈」이라는 원래의 제목이 『우념재시문초』에는 그저 「눈」이라는 제목으로 실리게 된 것도 어쩌면 이 같은 점에서 기인한 것이 아닐까 추정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스이간과 이봉환의 이 두 시가 원운시-차운시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은 전술한 바이고, 특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린풍아후편』에 「비파호 8경, 학사 및 세 서기와 함께 짓다」라는 시가 수록되었는지는 필답집에도 설명이 실려 있지 않아서 알 수 없다. 그러나 일본인인 스이간이 ‘비파호 8경’과 ‘히라 산의 저물녘 설경’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이에 비해 이봉환은 이처럼 일본인에게 익숙한 경물에 대한 충분한 정보

30) 『선린풍아후편』 권상, 65-66면.

나 식견이 없는 상태에서 시를 썼기 때문에, 원제와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시를 쓴 것은 아닐까 의심된다.³¹⁾

4) 필담창화집 미수록 작품의 확보

『우념재시문초』에 실린 일본사행시를 필담창화집과 함께 읽을 경우, 필담창화집에 누락되어 있다고 기록된 시를 찾을 수 있다. 필담창화집을 편집한 일본인이 미처 확보하지 못한 시가 『우념재시문초』에 편입된 경우이다. 이봉환의 「츄우잔」(中山)이란 시를 살펴보도록 한다.

바다 빛이 천지를 흐리우니,
돌아가는 배는 구름처럼 외롭구나.
눈녹은 진땅에 기러기 발도장 찍은 듯하나,
쟁반 가득한 눈물은 교인(蛟人)의 구슬로 보답받으리.
영곡(郢曲)을 누가 화답하겠나
임고정에서 즐거움을 묻노라.
단구(丹邱)에는 여전히 우인(羽人)이 있으니
그대 가는 곳이 곧 남호(南壺)이리라.
海色迷天地, 歸帆雲與孤. 雪泥印鴻爪, 盤淚報蛟珠.
郢曲³²⁾誰賡者, 臨臯問樂³³⁾乎. 丹邱³⁴⁾仍羽客, 隨處汝南壺. (「中山」³⁵⁾)

제목의 ‘츄우잔’은 일본의 나가토(長門) 지역의 선비 쿠사바 인분(草場允文, 1715-1753)의 호이다. 수련의 돌아가는 배는 조선통신사를 태우고 귀국하는 배를 가리킨다. 보통 에도에서 국서를 전달하는 전명식(傳命式)을 마치고 돌아가는 통신사의 배를 묘사할 경우,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느낄 법한, 일을 끝냈다는 홀가분함과 귀국하여 친지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어울려 흥겨운 분위기가 많이 표출된다. 그러나 이 시에서는 그런 점이 잘 느껴지지 않으며, 오히려 홀로 떠가는 구름과 같은 소재에서 느낄 수 있는 외로움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색적이다.

함련의 ‘눈녹은 진땅에 기러기 발도장’은 소식(蘇軾)의 「자유(子由)가 쓴 「민지에서 옛날을 그리워하며」시에 화답하다」(和子由澠池懷舊)에서 전고를 취한 것이다. 기러기가 땅을

-
- 31) 한편, 「비파호 8경, 학사 및 세 서기와 함께 짓다」시 중 「눈」 이외의 작품으로, 이봉환이 지은 것이 하나 더 있다. 『우념재시문초』에 「안개」(晴嵐)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는 시가 바로 그것이다. (『우념재시문초』 권2.) 이 작품은 위의 표에서 보듯 스이간의 「아와즈의 안개」(粟津晴嵐, 아와즈노세이란)와 나란히 수록되어 있다. 아와즈(粟津)는 아와즈가하라(粟津原)로 오오즈 시(大津市)에 있으며, 비파호 근처 소나무 숲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봉환의 「안개」라는 시 속의 ‘안개’는 곧 일본의 ‘아와즈의 안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역시 히라산의 저물녘 풍경을 읊은 두 시처럼 원운시-화운시와의 관계에 놓여 있지 않으나, 스이간과 이봉환이 같은 소재에 대해 읊은 시이고, 따라서 의미상 충분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봉환과 스이간의 시를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일단 이 두 시에 대한 분석은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 32) 郢曲(영곡): 전국 시대 초(楚)나라 서쪽 언영(鄢郢)에서 누군가 불렀다는 「양춘백설곡」(陽春白雪曲)으로, 수준 높은 시가(詩歌)를 의미한다.
- 33) 臨臯問樂: 임고정(臨臯亭)에서 즐거움을 묻다. 임고정은 소식(蘇軾)이 유배한 황주(黃州)에 있는 정자이다. 소식은 「임고한제」(臨臯閑題)에서 “강과 산, 바람과 달은 본래 주인이 없으며, 한가하게 감상하는 사람이 곧 주인” (江山風月本無常主, 閑者便是主人)이라고 하였다.
- 34) 丹邱: 丹丘라고도 한다. 『楚辭』「遠遊」에 “仍羽人於丹丘兮, 留不死之舊鄉”이라는 말이 있다.
- 35) 『우념재시문초』 권2.

걸을 때 남긴 발자국은 그의 행방을 추정할 수 있는 유력한 단서가 되지만, 기러기가 날아가게 되면 발자국을 기러기의 행방을 추정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따라서 ‘눈녹은 땅의 기러기 발자국’은 대단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별 게 아니라는 뜻으로, 자신의 일본 사행의 성과를 겸손하게 표현하거나, 다소 자조(自嘲)하는 말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행정(行程)에서 겪은 고생과 슬픔은 보답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도 표출하고 있다.

경련에서는 수준이 높은 문사들을 일본에서 만났으며, 이들과 예술적 교류를 나누었음을 드러내고 있고, 미련에서는 일본을 단구(丹邱)로, 일본 문사를 우객(羽客, 즉 仙人)에 빗대어 표현하면서, 신선과도 같은 일본 문사가 있는 곳이 바로 남호(南壺)임을 밝히고 있다. 남호는 남쪽의 봉호(蓬壺, 즉 봉래산)라는 뜻으로, 일본을 신선의 세계로 빗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봉환은 아카마가세키(赤間關: 시모노세키下關)에서 추우잔을 처음 만났고, 추우잔을 비롯한 나가토 지역의 일본 선비들과 조선인 문사들과의 필담 및 창수시가 『장문무진문사』(長門戊辰問槎)라는 필담창화집에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봉환의 이 시는 『장문무진문사』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추우잔은 통신사절이 에도로 향하는 왕로(往路)에서 조선문사들을 만났으나, 에도에서 돌아오는 복로(復路)에서는 이들을 만나지 못하였다. 추우잔은 이때 조선 문사들을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편지를 써서 전달하였는데,³⁶⁾ 이때 이봉환에게도 시를 하나 써서 보냈다. 그 시는 다음과 같다.

의기가 높은 곳에 바람이 일고
사방의 연석에 홍취가 외롭지 않네.
가인은 백설가를 부르고
시인은 명주를 희롱하네.
왕사에 바쁘시거늘
풍류는 사신을 청송하게 하는구나.
한스러운 건 그대들 선골이 있으시니
바다 위에서 봉래산을 그리워하시는 것.
意氣雄風起, 四筵興不孤. 佳人歌白雪, 詞客弄明珠.
鞅掌從王事, 風流嘆使乎. 恨君有仙骨, 海上憶蓬壺. (『奉呈濟庵李公』³⁷⁾)

추우잔의 이 시는 이봉환의 의기와 풍류를 동시에 칭찬하고 있으며, 사신으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홍취도 잘 즐기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봉환이 신선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봉래산을 그리워한다고 읊으면서, 복로(復路)에서 만나보지 못한 아쉬움을 표출하고 있다. 여기서 봉래산은 신선의 거처를 말하는 곳으로 구체적으로는 이봉환, 또는 조선 문사들이 그리워하는 조선을 가리킨다. 따라서 시의 마지막 부분은 신선이 봉래산을 그리워하듯 조선의 문사들 역시 고향인 조선을 그리워했기에 추우잔을 만나지 않고 떠나 버렸다는 말로 읽을 수 있다.

『장문무진문사』에 실린 이 시의 앞뒤에는 「구헌 박공에게 바치다」(奉呈矩軒朴公), 「해고 이공에게 바치다」(奉呈海臯李公), 「취설 유공에게 바치다」(奉呈醉雪柳公)가 나란히 실려 있고, 그 뒤에 ‘윗시의 화답은 받지 못하였다.’ [右和答未至]³⁸⁾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귀국을

36) 「上朝鮮製述官三記室案下書」, 『長門戊辰問槎』 卷下.

37) 『長門戊辰問槎』 卷下.

38) 『長門戊辰問槎』 卷下.

서두르던 조선 문사를 만나지 못한 추우잔은 이들을 향한 그리움을 시로 써서 편지와 함께 발송하였으나, 조선의 문사들은 이 시에 대한 답장을 추우잔에게 보낼 수 없었던 듯하다.

그런데, 앞서 거론한 이봉환의 「추우잔」(中山)이라는 시를 살펴보면, 이 시가 추우잔이 편지와 함께 이봉환에게 발송한 시 「제암 이공에게 바치다」를 차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내용상의 유사성 역시 강하게 감지된다. 쌍방의 문학적 실력을 칭찬하는 모습이 시의 전면에 걸쳐 드러나 있으며, 두 시 모두 상대방을 신선에 비기면서 상대방이 가는 곳을 신선의 거처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점에서 이봉환의 시 「추우잔」은 추우잔의 「제암 이공에게 바치다」(奉呈濟庵李公)의 차운시라고 파악된다.

추우잔은 『장문무진문사』에서 「제암 이공에게 바치다」의 화답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화답시가 『우념재시문초』에 실려 있는 것이다. 복로에서 추우잔을 만나지 못한 이봉환은 나가토 지역을 지난 이후에 이 시를 편지와 함께 받았을 것이고, 추우잔의 시에 화답한 차운시는 어떤 경위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추우잔에게 미처 전달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 미처 전달되지 못한 이봉환의 「추우잔」은 훗날 『우념재시문초』에 수록되었을 것이다.

필담집 『장문무진문사』에 실려 있지 않다고 편집자가 밝힌 이봉환의 차운시가 『우념재시문초』에 실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과, 『우념재시문초』에 실린 「추우잔」이라는 시의 제목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이 시가 추우잔이 쓴 시에 대한 차운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우념재시문초』를 필담창화집의 시와 합간했기 때문에 얻게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5) 『우념재시문초』 시의 제목 오류 수정

이봉환이 일본에서 쓴 시가 『우념재시문초』에 잘못된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는 사례가 있다. 필담창화집을 함께 읽을 경우, 이 사실을 인지하고, 적절한 제목을 찾을 수 있다. 『우념재시문초』에 실린 「후지산을 읊어 영장로에게 차운하다」(富士山次英長老)라는 시를 살펴보면 하자.

제포(帝圃)의 옥돌은 맑은 기운 뿜어내거늘
북쪽의 현무도 막을 수 없네.
창해에 춤추는 그림자만 삼천리거늘
호겁의 시간을 한 떨기 꽃이 높이 걸려있네.
帝圃珣玕淑氣餘, 北躔玄武不勝遮. 滄溟舞影三千里, 浩劫高懸一朵花.
(「富士山次英長老」³⁹⁾)

기구에 등장한 제포(帝圃)의 옥돌은 눈이 덮여 있는 후지산을 가리켜서 한 말이다. 후지산은 계절과 상관없이 언제나 눈이 덮여 있어 신비감을 자아내는데, 이봉환 역시 이 점에 주목한 것이다. 제포(帝圃)는 현포(玄圃)라고도 하며, 곤륜산과 통하는 신선의 거처를 가리키는 데, 후지산의 신비스러운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동원되었다. 승구의 ‘북쪽의 현무’는 별자리 28수(宿) 중 두(斗)·우(牛)·여(女)·허(虛)·위(危)·실(室)·벽(壁)의 북방 7수를 담당하는 전설의 동물이다. 현무를 막을 수 없다는 말은 하늘까지 육박하는 후지산의 기세를 별들

39) 『우념재시문초』 권2.

도 감당할 수 없다는 뜻으로, 산이 뿜어내는 강렬한 기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전구와 결구는 모두 후지산의 모습을 읊고 있다. 전구는 후지산이 그 아래 바다에 자신의 거대한 모습을 비치고 있음을 읊은 것이고, 결구는 후지산이 한 떨기 꽃과 같은 모습으로 장구한 세월을 버텨왔음을 읊은 것이다. 거대한 크기와 장구한 역사를 통해, 후지산 전체의 크기와 거기서 느껴지는 깊이감마저 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념재시문초』의 제목을 보면, 이 시는 영장로(英長老)에게 차운한 시이다. 영장로는 스이에 장로(守英長老)를 이른다. 무진통신사행의 접반장로는 스이간인데, 앞에서 설명한 대로 통신사가 사행을 떠났을 때에는 스이간의 임기는 거의 다 되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스이간은 접반을 하기로 하였고, 에도까지 가서 전명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오오사카까지 와서 다시 에도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접반장로의 역할을 맡은 이가 스이에 장로인데, 교토의 혜일산(慧日山) 석이암(石二庵)의 주지였다.⁴⁰⁾

그런데, 필담창화집 『화한필담훈풍편』을 살펴보면, 이봉환의 이 시가 다른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화한필담훈풍편』에 실려 있는 이 시의 제목은 「부사산에 대해 읊고, 세츠로오의 부채에 제하다」(詠富士山題于雪樓便面)이다.

『화한필담훈풍편』은 1748년 6월 통신사 일행이 에도의 히가시혼간지(東本願寺)에 머물렀을 때, 그곳의 문인들과 조선인 문사들이 나눈 필담과 창화시를 수록한 책이다. 이 책의 주요한 일본인 필담자는 성리학자 야마미야 세츠로오이다. 6월 4일의 필담 기록에서 그는 자신을 “오직 주부자(朱夫子)와 설문청(薛文淸) 그리고 귀국의 이퇴계(李退溪) 선생의 책을 읽을 것을 알며, 야마자키 선생과 쇼오사이 선생께서 남기신 가르침을 따를 줄 압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⁴¹⁾

이날 세츠로오가 부채를 가지고 와서, 이봉환과 이명계에게 시를 써줄 것을 청하게 되는데,⁴²⁾ 이봉환이 이 청을 듣고 지어준 시가 바로 「부사산에 대해 읊고, 세츠로오의 부채에 제하다」이고, 이명계는 하코네 산을 소재로 시를 써주었다.⁴³⁾

그런데, 이봉환의 이 시에 대한 세츠로오의 차운시가 윗시가 수록된 이튿날 기록에 남아 있다. 아래에 그 시를 소개한다.

아득히 빛깔 구름은 멀리까지 펼치고
그림자는 푸른 바다에 잠겨 가릴 수가 없네.
만년 동안 우뚝 서서 진기를 모았으니,
유월의 하늘에도 눈꽃이 걸려 있네.

縹緲彩雲五色賒, 影涵滄海不容遮. 萬年特地鍾眞氣, 六月中天懸雪花. (「次富士山韻」⁴⁴⁾)

이 시 역시 이봉환의 원운시의 시상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구에 서후지산이 우뚝 서 진기를 모았다고 한 것은 호겁(浩劫)의 세월 동안 숙기(淑氣)를 뿜어내고 있다는 이봉환의 시의 내용과 거의 같으며, 유월 하늘에 눈꽃이 걸려 있다는 결구의 표현 역시 한 떨기 꽃이 높이 걸려 있다는 이봉환 시의 결구와 일치한다. 즉 이 시는 시

40) 조명채, 『봉사일본시문건록』 4월 28일자, 5월 28일자, 7월 1일자, 7월 4일자 참조.

41) “唯知讀朱夫子薛文淸及貴國退溪李氏之書, 知遵山崎先生尙齋先生之遺訓而已.”(「稟, 六月四日」, 『和韓筆談薰風編』 卷上)

42) “번거로우시겠지만 부채에 제공께서 쓰신 시를 써주시길 원합니다.”(扇面, 願煩諸公揮寫所作之詩, 賜之, 「稟, 六月四日」, 『和韓筆談薰風編』 卷上)

43) 「箱根嶺詩, 書于雪樓便面」(「稟, 六月四日」, 『和韓筆談薰風編』 卷上)

44) 『和韓筆談薰風編』 卷中.

의 제목을 차치하더라도, 원운시를 보운(步韻)하고 있다는 점과, 시상을 그대로 물려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봉환 시의 차운시임에 틀림없다고 여겨진다.

이 같은 정황을 고려해보면, 『우념재시문초』의 ‘후지산을 읊어 영장로에게 차운하다’라는 제목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제대로 된 제목은 ‘후지산을 읊어 세츠로오에게 차운하다’가 되어야 적당할 것이다. 이 시는 영장로에게 준 시가 아니며, 에도의 문사 야마미야 세츠로오에게 준 시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시가 『우념재시문초』에 실릴 때 어떤 연유로 제목에 오류가 생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화한필담훈풍편』에 실린 필담과 시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념재시문초』에서 생긴 제목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게 되었다. 필담창화집에 실린 필담과 시의 내용을 잘 살펴가면서 『우념재시문초』의 시를 읽을 경우, 『우념재시문초』에 제목이 잘못 부여된 시를 찾아낼 수 있고, 이 시가 지어진 구체적 정황을 참조하고, 원운시를 제목을 수정할 수도 있다.

4. 결론

사행의 과정에서 이국의 문사와 주고 받는 시는 한편으로는 양국 문사의 교류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강조되어 오기도 했으나, 또 한편으로는 의례적이고 천편일률적인 면이 있다고 하여 적절한 주목을 받지 못한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여겨진다.

본고에서는 『우념재시문초』에 수록된 이봉환의 일본사행시를 필담창화집의 사행시와 합간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우념재시문초』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원운시의 존재를 필담창화집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필담의 내용이나 『우념재시문초』와는 다른 식으로 구성된 체제 덕분에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며, 작시의 배경을 보다 분명히 파악할 수 있었다. 또 이렇게 얻은 정보를 통하여 필담창화집에 누락되었다고 한 이봉환의 시를 확보할 수 있었고, 『우념재시문초』를 편집할 때 잘못 붙은 제목을 수정할 여지를 마련할 수도 있었다.

이처럼 낱낱의 작품들을 보다 면밀하고 꼼꼼히 독해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본격적인 이봉환 문학 연구를 향한 작은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참고문헌

1. 자료

盧兢, 『漢源遺稿』, 개인소장본 사본.

李鳳煥, 『雨念齋詩文鈔』,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曹命采, 『奉使日本時間見錄』, 국역 『해행총재』 10, 민족문화추진회 고전국역총서 87.

『善隣風雅』,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善隣風雅後編』,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長門戊辰問槎』,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和韓筆談薰風編』, 國立公文書館 內閣文庫 소장본.

2. 논저

구지현, 「1748년 조선의 통신사와 동아시아의 지식 유통 양상」, 『열상고전연구』53, 열상고전연구회, 2016

김경숙, 「18세기 지식인의 일본과 중국 사행 인식 비교」, 『한국문화연구』28,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15

이경근, 「계미통신사 필담집에 나타난 ‘완고한 조선’과 ‘유연한 일본’」, 고일홍 외, 『문명의 교류와 충돌』, 한길사, 2013.

_____, 「무진통신사의 학술·문화 교류 연구-홍경해의 『수사일록』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29,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5.

이혜순, 『조선통신사의 문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李生窺牆傳』과 『그 여자네 집』 함께 읽기를 통한 한문소설 수업 방안 모색

김하라(전주대)

目次

1. 한문소설 『李生窺牆傳』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2. 『이생규장전』과 『그 여자네 집』이 공유한 것들
3. 결론

1. 한문소설 『李生窺牆傳』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우리나라 대학의 학부 과정에 설치된 한문 관련 학과로는 한문교육과와 한문학과가 있다. 현재 전국 17군데 대학 18개 학과에서 한문이 학부의 전공 과정으로 유지되는 중이며, 이들 학과에서는 대학 상황이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두기는 하지만 대체로 유사한 교육과정을 공유한다. 그 가운데 한국의 한문소설은 한문교육과와 한문학과와 교과 과정에 반드시 포함되는 내용 중 하나다. 조선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경북대학교 등에 설치된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 편람에서 한문소설 관련 과목을 전공선택으로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필자가 재직한 전주대학교 한문교육과에도 ‘한문소설선독’이라는 과목이 설치되어 있다. 3학년 2학기 전공필수로 운영되는 이 과목은, 4학년으로 진급을 앞둔 학과 학생들이 졸업을 위해 반드시 수강해야 하기 때문에 수강인원이 늘 30명에 근접한다. 학과의 교육과정 편람에 따르면, 金時習(1435~1493)과 朴趾源(1737~1805) 등 대표성을 갖는 우리나라 작가의 한문소설을 원전으로 강독하는 것을 수업 내용으로 삼는다.

이 글은 2018년 2학기, 필자가 처음 ‘한문소설선독’을 담당하게 되었을 때 마주친 어려움에서 출발한다. 김시습의 『李生窺牆傳』은 한국 한문소설 중 뽑아 읽어야 할 이유가 충분한 명편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한 학기 강독 수업의 텍스트로 삼기에는 분량이 많고, 한문 문장이 읽기에 쉽지 않으며, 삽입시가 많아 부담스럽다. 게다가 이 소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대개 다루기 때문에 학생들이 줄거리를 알고 있으므로, 번역본 중심으로 수업을 하거나 축약해서 강독했을 때 흥미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필자는 이와 같은 고민을 바탕으로 하여, 학생들이 『이생규장전』 읽기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참신하면서 도전적인 과제를 구안해 그들에게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적용해 본 수업 방법이 상호텍스트성에 기반한 ‘비교 독서’이다. 주요 소재와 주제, 미학적 특징 면에서 상호 참조가 될 만한 한국소설을 함께 읽고 서로 비교함으로써 난도 높은 한문 텍스트 읽기의 심리적 장벽의 높이를 낮추고, 내용 면에서 다소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는 고전 문

학에 창조적 감상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비교 독서의 대상으로 선택한 작품은 박완서(1931~2011)의 「그 여자네 집」이다. 두 작품을 견주어 읽으면서 두 한국소설이 서사 구조와 미학적 특징 면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한문 원전의 발췌 강독을 진행하되 수강생들에게 「그 여자네 집」과 「이생규장전」을 함께 읽고 공통점을 발견하도록 하는 학습활동을 병행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생규장전」과 같은 한국 한문소설을 좀 더 친근하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다. 본고는 그 수업의 경험을 재구성한 것으로, 「이생규장전」과 같이 아름답고 재미있으며 문학사적 가치가 충분하지만 원문을 읽기에는 어려운 한국 한문소설을, 한문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에게 가르치려는 방법론적 시도 중 하나다.

2. 「이생규장전」과 「그 여자네 집」이 공유한 것들

2018년 2학기 전주대학교 한문교육과 한문소설선독 수업에는 모두 28명의 수강생이 참여했고, 그 대부분은 16학번 재학생이었다.

필자는 수업계획을 짜면서 본 강좌의 줄기를 ‘한국 傳奇小說의 형성과 발전’으로 삼고자 했다. 「虎願」, 「調信傳」, 「崔致遠」, 그리고 김시습의 「李生窺牆傳」과 「萬福寺楞蒲記」 등을 차례로 강독하며 나말여초에서 조선전기까지 이어지는 소설사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본 강좌의 목표로 설정되었다. 수업을 실제로 진행하며 「호원」이나 「조신전」처럼 길이가 짧고 문장이 평이한 소설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이생규장전」으로 넘어가며 여러 어려움이 불거졌다. 먼저 「호원」과 같은 방식으로 꼼꼼히 강독을 하자면, 「이생규장전」은 이 한 편으로 한 학기 내내 하더라도 마치지 못할 만큼 분량이 많았다. 또한 전기소설 특유의 섬려한 문어체는 일반적인 한문교육과 3학년 학생들이 순탄히 따라가기에는 지나치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마지막으로 삽입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도 문제였다. 이는 전기소설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산문보다 어려운 한시를 원문으로 강독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였다. 분량이나 난이도 등의 문제는 발췌독 방식을 선택하되 미리 번역문을 제시하여 해결하기로 계획했지만 수강생들이 원전으로부터 멀어지고 그에 따라 본령에서 이탈하는 수업이 되지는 않을까 여전히 걱정스러웠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이생규장전」과 「그 여자네 집」을 함께 읽고 공통점을 찾아 발표하는 활동을 시도했다. 두 한국소설의 공통점을 찾는 과제는 「이생규장전」의 강독이 시작될 때 고지되었고, 이 때 「이생규장전」의 번역본¹⁾과 ‘KBS 라디오 독서실’ 프로그램에서 제작한 「그 여자네 집」의 입체낭독 음성파일이 수강생들에게 함께 제공됐다.

「이생규장전」의 발췌 강독은 대략 2주차 4차시에 걸쳐 진행되었고, 과제 수행은 이 강독이 끝난 직후 같은 교실에서 조별 활동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 방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5~6명이 한 조가 되어, 15분간 토의를 하고 각 조마다 10개 이상의 ‘공통점’을 수합하도록 한다. 이 때 교수자는 칠판을 조의 수대로 구획해 놓은 후 토의와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1) 박희병·정길수 편역, 『끝나지 않은 사랑』(돌베개, 2010)에 수록된 「이생규장전」의 번역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이하 인용한 「이생규장전」의 번역문은 모두 이 책을 참조했다.

어지는지 점검한다. 15분이 지나면 각 조마다 한 사람씩 나와 해당 조의 토의 결과를 동시에 판서하도록 한다. 판서가 끝나면 조의 대표는 일단 자리로 돌아가고, 교수자는 판서 내용 중 중복된 것을 추출하여 먼저 언급함으로써 학생들의 성과를 1차적으로 정리한다. 그 이후 조별 대표자들이 차례대로 나와 각 조에서 발견한 특수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발표를 한다. 교수자는 필요한 경우 추가 설명을 하고 정리한다.

수강생들은 ‘남녀 주인공이 선남선녀다’, ‘사랑 이야기이다’, ‘결말이 비극적이다’, ‘전쟁이 일어난다’, ‘여성이 희생된다’ 등 여러 가지 내용을 발견했다. 그 중에는 ‘여 주인공이 수를 잘 놓는다’ 처럼 세부사항을 눈여겨본 대답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교수자는 이와 같은 수강생들의 다양한 발표 내용을 분류하여 정돈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소설 구성의 3요소를 기준으로 삼았더니 효율적이었다. 이에 본 절에서는 같은 기준으로 학생들이 발견한 내용을 분류하되, 당시 교수자가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항까지 포함해 「이생규장전」과 「그 여자네 집」의 공통점을 상술하여 이후의 자료로 삼고자 한다.

(1) 인물

가. 개천의 용 이생과 만득, 요조숙녀 최씨와 곱단

수강생들이 발견한 두 소설의 공통점 중 가장 두드러지는 비중을 차지한 것이 바로 주인공 캐릭터와 관련된 언급이다. 그것은 각 소설의 남자 주인공인 李生과 만득, 여자 주인공인 崔氏와 곱단이 모두 선남선녀로서 비슷하다는 점으로 수렴된다.

「이생규장전」의 남자 주인공 이생은 나이가 18세로서, 신선처럼 맑은 생김새에 빼어난 자질을 타고난 소년으로 소개된다. 그는 國學에 다니는 학생으로 등곳길에 『詩經』을 읽는 낭만적인 모범생이기도 하다.²⁾ 시를 잘 쓰고 학문에 정통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으로 평가되며, 이후 별 어려움 없이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좋은 벼슬자리를 얻고 조정에서도 명성이 널리 퍼지게 된다.

이생은 기본적으로는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안존한 성격이지만, 갑자기 나타난 사랑 앞에 높은 담장을 뛰어넘고 사흘간의 외박도 불사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그의 성격에서 일관되는 점은 信義다. 그는 처음 본 최씨에게 강렬한 호감을 느끼면서도 부모의 허락을 얻지 못한 남녀관계에 대해 걱정스러워하고, 최씨와의 사랑에 빠져 있으면서도 부모를 걱정하여 애써 귀가한다. 이후 부친의 질책을 받아 울산의 田莊으로 쫓겨가게 되었을 때에도 군소리 없이 그 지시를 따른다. 이런 모습은 백면서생이 항용 보이는 소심함으로 설명될 여지도 있지만, 결국 그가 사회적 책임감을 중시하는 인간임을 보여주는 징후로 판단된다. 이생은 사랑과 같은 개인적 욕구만큼이나 사회적 관계에서의 신의를 중시하는 인간형인 것이다. 이런 그가 가장 신의를 지키고 싶어 했던 대상은 당연히 최씨였다. 이러한 점은 최씨가 죽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돌아온 아내를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이생의 태도에서 먼저 확인된다. 또한 죽어서도 자신에게 와 도리를 다한 최씨에게 하나하나 고마워하면서, 그런 아내와의 永訣을 앞두고 “나도 당신과 함께 구원으로 가겠소. 당신 없이 나 혼자 살아 무엇하겠소?”³⁾라고 호소하는 그의 목소리라든가, 장례를 치른 지 두어 달 만에 기어

2) 年十八, 風韻清邁, 天資英秀. 常詣國學, 讀『詩』路傍.(115면) 이하 인용한 「李生窺牆傳」의 원문은 박희병 표점·교석, 『한국한문소설 교합구해』(소명출판, 2005)를 저본으로 삼았다.

‘아내를 그리워하다 병이 들어 죽고 만’⁴⁾ 마지막은 이생의 타고난 성격을 잘 보여준다. 이는 맹목적인 사랑을 넘어선 신의의 귀결로 이해된다.

한편 「그 여자네 집」의 남자 주인공인 장만득은 마을의 유일한 읍내 중학생으로⁵⁾ ‘총명하여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았고 생긴 것 또한 관옥 같았다’고 일컬어졌다.⁶⁾ 소년 시절의 장만득은 ‘개천에서 난 용’에 비유되는데,⁷⁾ 이는 최씨와 혼인하기 전의 이생에 대한 평판과 겹치는 점이 있다.⁸⁾ 또한 만득은 중학교 상급반에 오르면서 문학에 눈을 뜨게 된 것으로 그려진다. 『懊惱의 舞蹈』라는 시집을 굳이 옆구리에 끼고 다니며 임화의 시를 비장한 어조로 낭송하는 그의 모습에서는 일말의 치기가 느껴지지만,⁹⁾ ‘흔해빠진 파리 중 곱단이네 파리만을 초롱에 불 켜든 꼬마 파수꾼’으로 특별하게 만들었던¹⁰⁾ 만득의 詩心은 그가 칠순 노인이 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었다.¹¹⁾

그런데 그에게 시심이란 곱단에 대한 신의의 다른 이름이며, 이런 점에서 만득은 이생과 마찬가지로 끝까지 신의를 간직한 인간형이다. 그가 곱단에게 지키고자 한 사랑은 역설적으로 혼사 거부라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만득이 사년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징병으로 끌려가게 되자, 그와 곱단의 가족은 입영을 앞둔 며칠 동안 혼사를 추진하고자 했으며 곱단은 누구보다 이 혼인을 원했다. 그러나 死地로 간다는 것을 자각한 만득은 연인을 과부로 만들지 않으려는 깊은 마음에서 한사코 혼사를 거부한 것이다.¹²⁾ 이후 만득과 곱단의 인연이 비참하게 어긋난 탓에, 만득이 버리지 못한 신의는 그의 아내인 순애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다. 그러나 그가 주변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간직한 신의는 곱단의 불행을 기억하는 것으로 표현되면서 깊은 울림과 역사적 무게를 갖게 된다. “비록 곱단이의 얼굴은 생각나지 않지만 나는 지금도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곱단이가 딴 데로 시집가면서 느꼈을 분하고 억울하고 절망적인 심정을요. 나는 정신대 할머니처럼 직접 당한 사람들의 원망에다 그걸 면한 사람들의 한까지 보태고 싶었어요. (...) 그 천인공노할 범죄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사람도 아니죠. 당한 자의 한에다가 면한 자의 분노까지 보태고 싶은 내 마음 알겠어요?”¹³⁾라는 만득의 마지막 말에 그 깊이가 잘 나타나 있다.

「이생규장전」의 여자 주인공 최씨는 나이가 열대여섯 가량으로, 名門大家의 외동딸이다. 자태가 아리뭇고 자수를 잘 했으며 특히 시 짓는 데에 뛰어난 처녀였다.¹⁴⁾ 최씨는 자신의 집 앞을 지나가는 국학생 이생을 두고, “길 가는 멀쭉한 선비, 뉘 댁 분이신지 / 파란 옷깃 넓은 띠 버들 사이로 어른거리네. / 내가 제비가 될 수 있다면 / 구슬발 헤치고 나가 담장을 넘으리.”¹⁵⁾라며 그에게 달려가는 자신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고백하는 시를 읊는다. 이 시에 나타난 최씨의 직선적인 성격은 이후 그의 언행에 일관되는 모습을 보인다. 최씨의 주도로

3) “寧與娘子同入九泉，豈可無聊獨保殘生?”(129면)

4) 既葬，生亦以追念之故，得病數月而卒。(130면)

5) 박완서, 「그 여자네 집」, 『그 여자네 집』, 문학동네, 2006. 192면.

6) 박완서, 위의 글. 194면.

7) 박완서, 위의 글. 194면.

8) 최량의 부친은 가난한 학생 처지의 이생에 대해 “今雖蟠屈，豈是池中之物?”(125면)이라고 평가하는데, 이 말은 이생에게 潛龍의 이미지를 부여한다.

9) 박완서, 앞의 글. 198~200면.

10) 박완서, 위의 글. 200~201면.

11) 박완서, 위의 글. 191면.

12) 박완서, 위의 글. 202~203면.

13) 박완서, 위의 글. 213~214면.

14) 善竹里有巨室處子崔氏，年可十五六，態度艷麗，工於刺繡，而長於詩賦。(115면)

15) 路上誰家白面郎，青衿大帶映垂楊。何妨可化堂中燕，低掠珠簾斜度牆?(116면)

만남이 성사되었으나, 이생은 특유의 조심스러움으로 “훗날 우리의 사랑 누설되어서 / 무정한 비바람 맞으리니 가련도 하지.”¹⁶⁾라는 시를 써 부모의 허락을 얻지 못한 데 대해 걱정하는 소극성을 보인다. 이에 최씨는 여자인 자신도 이렇게 태연한데 대장부가 그렇게 굴어서야 되겠느냐고 이생을 격려하고, 들켜서 부모의 질책을 받게 되어도 자신이 다 감당하겠다는 말로 소심한 이생을 안심시키는데,¹⁷⁾ 이와 같은 최씨의 씩씩하고 적극적인 모습은 꽤 인상적이다. 그리고 자신을 겁탈하려는 흥건적을 향해 이승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짐승만도 못한 놈! 나를 죽여라! 죽어서 승냥이의 밥이 될지언정 내 어찌 개돼지의 아내가 될 수 있겠느냐?”¹⁸⁾라는 말을 보건대, 최씨는 끝까지 최씨다웠다.

이번에는 「그 여자네 집」의 곱단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서 수강생들이 발견한 두 소설의 공통점 가운데 ‘여주인공이 수를 잘 놓는다’는 사항이 있음을 언급했다. 기실 「그 여자네 집」에 곱단이 수를 놓는 장면은 없다. 다만 첫머리에 인용된 김용택의 시 「그 여자네 집」에 “그 불빛 아래 앉아 수를 놓으며 앉아 있을 / 그 여자의 까만 머릿결과 어깨를 생각만 해도”¹⁹⁾라는 구절이 있을 뿐이다. 그렇긴 하나 이 시에 제시된 ‘그 여자’의 모습은 곱단의 이미지와 무리 없이 연결되며, 작중 화자가 곱단의 긴 속눈썹을 표현하기 위해 ‘함박눈이 내려앉아 쉴 만큼’이라며 김용택의 시를 인용하는 지점에서²⁰⁾ ‘그 여자’는 곱단과 고스란히 겹쳐진다. 요컨대 「그 여자네 집」의 곱단과 「이생규장전」의 최씨는 모두 수를 잘 놓는 처녀들이며, 이 점은 전통적 의미에서의 이상적 여성상에 다가간 것이라고 보인다.

또한 곱단은 아들을 내리 넷이나 둔 집의 막내딸이자 고명딸로서²¹⁾ “시골 아이답지 않게 살갗이 희고, 맑은 눈에 속눈썹이 길었다.”²²⁾ 곱단의 작은오빠가 만득과 친구이니,²³⁾ 만득보다 두어 살 아래였을 터이다. “곱단이는 이름처럼 마음씨도 비단결 같은 처녀였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걸 굵힐 만큼 호락호락하진 않았”다.²⁴⁾ 이처럼 곱단은 자수를 잘 한다는 것 외에도, 귀한 딸에다 용모가 아름다우며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 강단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이생규장전」의 최씨와 비슷하다. 그렇지만 「그 여자네 집」에 여자 주인공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이생규장전」에 비해 현저히 적다. 곱단의 목소리는, 시심으로 가득한 만득의 연애편지를 작중 화자에게 보여주며 ‘혼자 보기 아까워서……’라고 계면쩍어하거나,²⁵⁾ 혼사를 굳이 거부하고 입영하려는 연인에게 ‘그럴 것이면 왜 혼사를 치르고 나서 떠나면 안 되냐’고 반발하는 대목에서²⁶⁾ 자유간접화법으로 제시된 것이 전부다. 이에 곱단의 태도는 최씨에 비해 조용하고 은근한 것으로 그려지게 된다. 그럼에도 그 말에 함축된 바, 만득의 시심을 이해하고 자랑스러워하며 자신의 사랑을 지키고자 하는 곱단의 마음은, 시를 매개로 이생과 마음을 주고받았고 자신의 사랑을 굳게 지켰던 최씨의 마음과 닮은 점이 없지 않다.

16) 他時漏洩春消息，風雨無情亦可憐。(117면)

17) 女變色而言曰：“本欲與君終奉箕箒，永結歡娛，郎何言之若是遽也？妾雖女類，心意泰然，丈夫意氣，肯作此語乎？他日閨中事洩，親庭見責，妾身以當之。”(117~118면)

18) 女爲賊所虜。欲逼之，女大罵曰：“虎鬼！殺咱我！寧死葬於豺狼之腹中，安能作狗彘之匹乎？”(127면)

19) 박완서, 앞의 글. 189면.

20) 박완서, 위의 글. 193~194면.

21) 박완서, 위의 글. 191면.

22) 박완서, 위의 글. 193면.

23) 박완서, 위의 글. 192면.

24) 박완서, 위의 글. 203면.

25) 박완서, 위의 글. 200면.

26) 박완서, 위의 글. 203면.

나. 부모와 공동체의 지지

「이생규장전」에서는 남녀 주인공 외 주변 인물들도 뚜렷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그 중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최씨의 부모다. 이생이 부친의 질책을 받아 울산으로 쫓겨 간 뒤 최씨는 말없이 앓아누웠다. 그리고 딸의 발병 원인을 알아내고자 여러 모로 노력하다가 이생이 보낸 戀詩를 발견한 최씨 부모는 깜짝 놀라 “하마터면 우리 딸아이를 잃을 뻔했구나!” 라고 내뱉고는 곧바로 딸에게 “대체 이생이 누구니?” 하고 묻는다.²⁷⁾

이와 같은 부모의 반응에, 몰래 연애를 한 딸을 꾸짖는 기미가 전혀 없음은 이채롭다. 부모에게 외동딸 최씨는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이므로 그 딸을 잃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상황이 된다는 점이 드러나 있을 뿐이다. 이 점은 앞서 부모의 견책을 걱정하는 이생을 태연히 안심시키던 최씨의 당당한 태도를 이해하도록 돕는바, 최씨의 개성이 부모의 특별한 사랑에서 온 것임을 알게 하기 때문이다. ‘딸을 잃을 뻔 했다’는 안도의 한숨에 가까운 탄성과 그에 이어진 질문은 딸을 귀히 여기는 최씨 부모의 태도. 그리고 딸의 사랑을 지지함으로써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는 방향성까지 보여 준다.

그렇다고 하여 이생의 부모가 그 사돈보다 아들을 덜 사랑하는 것은 아니었다. 명문가 처녀를 만나느라 외박을 일삼는 아들을 꾸짖어 엄히 교육하고, 상대 가문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고 혼인을 탐탁해하지 않는 언행을 보건대, 이생의 부친은 가난하지만 경우 바르고 자존심 강한 인물로 여겨진다. 그러던 그가 자기를 내려놓고 어려운 형편을 솔직히 털어놓으며 아들의 혼인을 받아들이는 과정에는 역시 아들의 행복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크게 작용했을 터이다.

이처럼 「이생규장전」에는 최씨와 이생이 저마다 귀한 자녀이고 둘의 사랑이 가족의 지지를 받은 점이 그 부모의 언행을 통해 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는데, 이 점은 「그 여자네 집」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만득이는 위로 누나들만 있고, 곱단이는 오빠들만 있어서, 기다리던 귀한 아들 딸이었다”²⁸⁾라는 구절이 참조되거나, 곱단의 집 이영을 이는 날 아들이 넷이나 있는 그 집 지붕에 굳이 제일 먼저 뛰어올라 깃발처럼 으스대는 만득의 모습을 묘사한 이 소설의 첫 장면부터가,²⁹⁾ 두 사람을 호뭇한 한쌍으로 받아들이는 양가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이렇게 양가의 부모들은 “사뭇감 며느릿감으로 점찍어준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눈여겨보며 아릅답고 늠름하게 자라는 걸 서로 기특해하며 귀여워하였다.”

그러나 「그 여자네 집」의 경우 “제집에서 귀히 여기는 자식은 남들도 한 번 볼 거 두 번 보면서 덕담을 아끼지 않는 법이다. 그들 또한 그러하였다”³⁰⁾라 하여, 남녀 주인공이 공동체의 귀애를 받고, 나아가 그들의 사랑이 공동체의 지지를 받았다는 점을 더 강조하고 있다. 즉 마을 사람들에게도 만득과 곱단은 어울리는 한 쌍이었다. 만득은 개천에서 난 용으로, 곱단은 진흙탕에 핀 연꽃으로 여겨졌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둘이 장차 신랑 각시가 되면 얼마나 어여쁜 한 쌍이 될까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왔” 으며, “이구동성으로 두 사람의 천생연분을 점” 쳤다. 곱단과 만득은 그 “마을의 화초이자 꿈”에 비유되었고, “마을의 마스크트”로 여겨졌다. 마을 사람들은 이 한 쌍이 “행복해지지 않으면 재앙이라도 내릴 것처럼 그들을 지켜주고 싶어했다.”³¹⁾

27) 女聞之，臥疾在床，輾轉不起，水漿不入於口，言語支離，肌膚憔悴。父母恠之，問其病狀，喑喑不言。搜其箱篋，得李生前日唱和詩，擊節驚訝曰：“幾乎失我女子矣。”問曰：“李生誰耶？”(124면)

28) 박완서, 앞의 글. 193면.

29) 박완서, 위의 글. 191~192면.

30) 박완서, 위의 글. 193면.

그런데 「그 여자네 집」에 나타난 공동체의 이런 모습은 「이생규장전」의 서두에 등장한 삼입시 한 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風流李氏子, 풍류남아 이씨 집 아들
窈窕崔家娘. 요조숙녀 최씨 집 딸.
才色若可餐, 재주와 미모가 만일 먹는 것이라면
可以療飢腸.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겠네.³²⁾

「이생규장전」의 첫머리에서는 이생과 최씨를 소개하고 곧바로 “사람들은 이생과 최씨를 두고 이런 노래를 부르곤 했다”³³⁾며 위의 시를 제시했다. 여기서 ‘사람들’이란 이생과 최씨가 사는 고장인 松都의 이웃들을 가리키는바, 이 노래는 재주와 미모가 빛나는 젊은이들을 보는 공동체의 호뭇한 시선을 반영하게 된다. 송도를 대표할 만한 이 청춘남녀의 아름다움이란,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를 정도의 것이었다. 아직 서로를 알기 전인 풍류남아 이생과 요조숙녀 최씨의 결연은 그렇게 송도 사람들의 노래에까지 등장하는 ‘꿈’이 되었고, 이 한 쌍은 만득과 곱단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고장 사람들의 ‘꿈’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생규장전」의 결말부에서, 이생이 아내를 그리워하다 병이 들어 죽고 말았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안타까워 한숨지으며 이 부부의 절개와 의리를 높이 기렸다.³⁴⁾ 이 ‘사람들’이란, 서두에서 이생과 최씨를 어여뻐하는 노래를 불렀던 바로 그 송도 사람들이었을 터이다.

지금까지 「이생규장전」과 「그 여자네 집」 두 작품의 공통점을 주인공의 사랑을 대하는 주변 인물의 태도 면에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교수자와 학습자는 두 작품을 비교하여 공통점을 발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공통점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생성해 낼 필요가 있다. 작품 읽기의 중심은 문제해결 역량보다 문제발견 역량에 있고, 학습자들과 함께 질문을 만드는 과정은 학습자의 문제발견 역량을 양성하는 유익한 활동이 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사랑이 모두에게 축복 받기 바라는 것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바일 테지만 현실의 삶에서는 그 꿈의 성취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두 작품에서 가족과 이웃 공동체가 남녀 주인공의 사랑에 보여주는 적극적인 공감과 지지는 냉소적인 독자들에게 비현실적인 것으로 비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예나 지금이나 ‘온 세상의 공감과 지지, 축복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이라는 생각이 문학 세계에서 유효한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로부터 교수자와 학습자는 문학에 투영된 인간 욕망의 보편성, 삶의 아름다움과 가치, 행복의 조건 등에 대해 탐구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탐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심미적 감성 역량을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아울러 교직을 목표로 공부하는 한문교육과 학생들이라면 한문을 매개로 한 독서 교육을 통해 학습자의 심미적 감성 역량을 길러 주는 교육 방법을 익힐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심미적 감성 역량은 2015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6대 핵심역량 중 하나이다.

(2) 사건

31) 박완서, 위의 글. 203~204면.

32) 박희병·정길수 역, 앞의 책. 127면. 원문은 박희병 표점·교석, 앞의 책 115면.

33) 원문에는 “世稱” 두 글자로 되어 있는데, 박희병·정길수 역, 앞의 책, 127면의 의역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따른다.

34) 生亦以追念之故, 得病數月而卒. 聞者莫不傷歎, 而慕其義焉.

가. 통학길에서의 연애

그 여자 곱단의 집은 행촌리 윗말 첫 번째 살구나무집이었다. 뒷동산에서 흘러내린 개울물이 곱단이네를 휘돌아 아랫말로 흐르며 만득이네 문앞을 지나갔다.³⁵⁾ 이렇게 만득과 곱단은 한 마을에 살았고 물길이 둘을 이어 주었다.

한편 만득이 읍내 중학교에 진학하자 곱단은 아버지를 졸라 그 근처 소학교에 입학했다. 이에 둘은 날마다 고개를 넘고 시냇물을 건너는 등하굣길을 같이 했다. 그 중 긴내골의 시냇물은 주변 풍경이 썩 아름다웠고, 골이 깊어 유독 흠다리가 놓여 있었다. 이 위태한 흠다리를 지날 때마다 만득이 곱단을 얼싸안다시피 하며 건네 준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자자하여 그 다리에 연애다리라는 별명까지 붙었지만 구닥다리 노인들조차도 그런 이야기를 망신스러워하지 않고 예쁘게만 여겼다.³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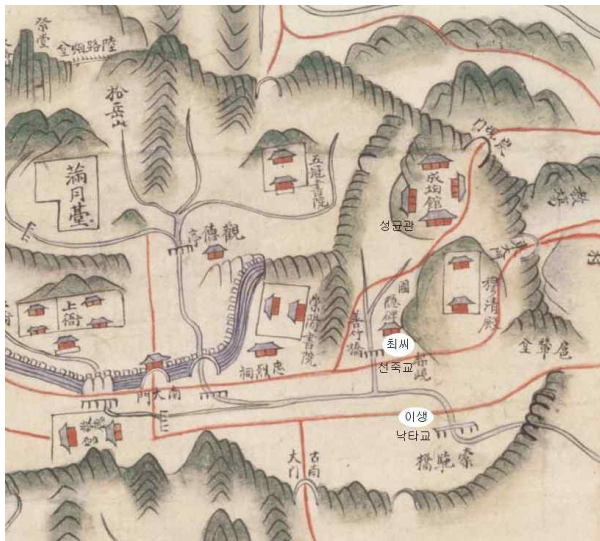


그림 1 팔도지도 개성부(부분)

한편 이생의 집은 낙타교 곁에, 최씨의 집은 선죽리에 있었다.³⁷⁾ 두 집 사이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았으며 위의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물길로 이어져 있었다. 이생은 날마다 국학인 성균관을 향할 때 아마도 이 물길을 따라 선죽리를 지나갔을 터이다. 등하굣길의 그는 버드나무가 아름답게 드리워진 최씨 집 담장 아래 걸음을 멈추곤 했으며, 어느 날 그 담장 안 화원을 넘겨보다가 어여쁜 소녀인 최씨가 시 읊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이 ‘국학생의 교복을 입고 지나가는 당신을 향해 새가 되어 날아가고 싶다’는 고백임을 알아들은 그는 들뜬 마음을 간신히 억누르고 등교를 한다. 그리고 하굣길에 화답시 쓴 것을 곧장 담장 안으로 던져 넣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본격적인 연애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처럼 시간과 공간은 전혀 다르지만, 두 소설에서 학생 신분의 주인공이 한 마을에 가까이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등하굣길이 연애의 무대가 된다는 것 등 비슷한 설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소설적 상황은 실제로 있을 법한 일이면서, 또 풋풋한 청춘남녀의 사랑을 환하고 아름답게 그려내기에 효과적인 설정이라고 보인다.



그림 2 남안동과 남산일동 사이의 등하굣길에 낙타교가 있었다.

35) 박완서, 앞의 글, 202면.

36) 박완서, 위의 글. 196~198면.

37) 松都有李生者, 居駱施橋之側, (...) 善竹里有巨室處子崔氏.(115면)

나. 외침, 그리고 최씨와 곱단의 희생

양가 부모의 지지를 받았을 뿐 아니라 마을 이웃들에게 화초처럼 소중히 다루어졌던 두 쌍의 사랑은, 그 모두의 바람을 저버리고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된다.³⁸⁾ 이 또한 「이생규장전」과 「그 여자네 집」의 중요한 공통점이다.

「이생규장전」의 비극은 1361년에 일어났다. 홍건적이 침입하여 고려의 수도 개성을 점령한 것이다. 공민왕은 복주(=안동)로 피난했고 홍건적은 가옥을 불태우고 사람과 가축을 닥치는 대로 죽였다. 최씨는 그 와중에 홍건적에게 사로잡혔고, 겁탈에 저항하다가 처참히 난자당해 목숨을 잃었다.³⁹⁾

「그 여자네 집」의 비극은 1945년 봄에 만득이 징병으로 끌려가며 시작됐다. 그리고 곧 과년한 처녀들을 이른바 ‘정신대’로 다짜고짜 끌어간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 마을의 처녀 하나가 끌려가는 것을 피해 쪼단 속에 숨어 있다가 순사의 창에 찔리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이 피 묻은 소문에 놀란 곱단의 가족은 고명딸을 신의주에 산다는 중년 남자의 재취로 보내버렸다. 고작 열아홉살에 고향과 만득을 영영 떠나게 된 곱단의 마지막 모습은 ‘死者를 분단장해놓은 것처럼 섬뜩하니 표정이라곤 없는’ 얼굴이었다.⁴⁰⁾

이처럼 최씨와 곱단은,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귀히 여겼던 빛나는 아름다움이 무색하게, 문자 그대로 혹은 상징적 의미에서 죽음을 맞았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의지에 반해 이런 비참한 죽음으로 다가간 이유가, 전쟁에 항용 수반되는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3) 배경

가. 박완서와 행촌리

이생과 최씨의 결연을 지켜보고 그들의 절의를 기렸던 이들은 바로 송도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만득과 곱단의 사랑을 어여뻐 여기고 스스로 증인이 되었으나, 곱단을 일본군인에 내주지 않는 일 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어⁴¹⁾ 비통해했던 이들이 살던 마을은 어디였을까?

「그 여자네 집」의 공간적 배경이 된 장소는 ‘杏村里’로 밝혀져 있다. 살구나무가 많은 데서 기인한 이 지명은 전국 각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마을 이름이기는 하지만, 고증이 되는 실제 지명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 여자네 집」에는 신의주와 서울, 압록강, 단둥, 미국 등의 실제 지명이 여럿 나온다. 그러나 소설의 공간적 배경이 된 장소는 자연부락 명칭인 ‘행촌리’를 일컬은 외에는, ‘우리 고장’, ‘우리 마을’, ‘우리 군’이라 하여 구체적 행정구역 명칭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만득이와 곱단’이라는 조선시대 분위기를 내는 명명법과 맞물려 설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정서적 보편성을 불러오고 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이 소설이 특유의 주제의식을 구현하는 데에는 비록 가상의 공간이기는 하나 행촌리가 갖는 지리적이고도 역사적인 특수성이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

38) 「이생규장전」의 서사적 전개 방식에 대해서는 박희병, 『『금오신화』의 소설미학』, 『한국 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이 참조된다.

39) 辛丑年, 紅賊據京城, 王移福州. 賊焚蕩室廬, 擄炙人畜. 夫婦親戚, 不能相保, 東奔西竄, 各自逃生. 生挈家隱匿窮崖, 有一賊, 拔劍而逐, 生奔走得脫, 女爲賊所虜, 欲逼之, 女大罵曰: “虎鬼! 殺啗我! 寧死葬於豺狼之腹中, 安能作狗彘之匹乎?” 賊怒殺而副之.(127면)

40) 박완서, 앞의 글. 204~206면.

41) 박완서, 위의 글. 206면.



그림 1 개풍군. 38선과 휴전선 사이에 있다.

그런데 잘 알려진 것처럼 박완서는 개성 사람이다. 조금 자세히 말하자면 개풍군 청교면 묵송리 박적골, 지도의 ‘박적동’이 그의 고향 마을이다. 지도를 보면 박적동이 개성과 인접한 마을로, 같은 생활·문화권에 속한다는 점을 수긍할 수 있다. 이처럼 ‘행촌리’가 ‘박적골’을 모델로 하고 있다는 것은 「이생규장전」과 「그 여자네 집」이 공간적 배경을 공유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생과 최씨, 만득과 곱단, 이 선남선녀 두 쌍의 이야기가 깃든 공간은 서로 10km 인근에 있었던 셈이다.⁴⁴⁾ 박완서의 다음 회고가 두 공간을 연결하고 이생과 최씨의 송도를 상상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우리 시골에서 개성까지 가려면 네 개의 고개를 넘어야 한다. 마지막 고개 말고는 다 우리 마을 동산과 다름없는 산을 넘는 거였다. 그러나 마지막 고개인 농바위고개는 경사가 급한 높은 고개였다. (...) 그 산은 뒷동산이라는 보통명사로 부르던 산이 아니라 용수산이라는 이름 붙은 산이었고 그 고개는 농바위고개였다. 농바위고개를 오르며 계곡을 흐르는 상쾌한 물소리를 들었고, 정상에 오르자 발아래 **은빛 나는 아름다운 도시**가 펼쳐졌다. 아아, 사람이 이렇게도 살 수 있는 거로구나! (...) 내리막길엔 이름난 약수터가 있어서 거기서 목을 축이고 지친 다리도 쉬었다. 육면체의 장롱만한 바위들이 샘터 근처에 흩어져 있어 농바위고개라는 말도 거기서 연유했다고 한다. 그 샘터에선 봉우리가 더 우람하고 잘생긴 산을 마주 바라볼 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송악산이었다. 송악산 용수산이 두 팔을 벌린 듯한 연봉에 둘러싸인 곳이 **송도라는 정갈하고도 풍요한 도시**였다.⁴⁵⁾

42) 박완서, 앞의 글. 206면.

43) 박완서, 위의 글. 207면.

44) 박완서는 “내가 살던 고향은 개성에서 이십 리가량 남쪽의 박적골이란 시골이다”라고 술회했다(박완서, 「내가 잃은 동산」, 『한 길 사람 속』, 문학동네, 2018. 324면).

45) 박완서, 앞의 글. 336~337면.

곳이 생생한 공간으로 재현될 수 있었던 까닭은, 이 마을이 작중 화자인 ‘나’의 고향으로 그가 실제로 살았던 장소이기 때문이다. 이 소설의 화자인 ‘나’는 1940년대 행촌리에서 소녀 시절을 보낸 인물로 곱단과 같은 세대의 여성이라고 설정되어 있다. 또한 이 작중 화자가 현재 원로 측에 드는 작가이며 서울에 살고 있다는 등의 세부 사항이 소설가 박완서 자신과 상당 부분 겹친다. 소설에 제시된 지리적 정황을 참조하자면 이 고장은 1945년에 “아슬아슬하게 삼팔선 이남이 되어 북조선의 신의주와는 길이 막히고 말았”⁴²⁾다. 그리고 “육이오 동란 후 삼팔선 대신 그어진 휴전선은 행촌리를 휴전선 이북 땅으로 만들어놓았다.”⁴³⁾ 이 때문에 작중 화자와 만득은 영영 고향을 잃게 되었던 것인데, 이에 삼팔선과 휴전선 사이에 끼어 있다는 행촌리의 지리적 위치가 이 소설의 서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정황상 이 마을은, 지도에서 확인되듯, 개풍군 말고 다른 곳에 있기가 어렵다.

나. 김시습과 개성

1931년생 개성 사람 박완서는 자신이 절실하게 경험한 시공간을 바탕으로, 개성 인근 가상의 마을 행촌리를 실감나게 재현했다. 김시습 역시 이와 유사하게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생규장전」의 공간적 배경을 창조했다고 보인다.

1453년생인 김시습은 24세이던 1458년에 개성을 포함한 관서 지역을 유람하고 紀行 詩篇 『遊關西錄』을 남겼다.⁴⁶⁾ 그가 개성을 배경으로 삼아 소설을 쓴 데에는 이 여행체험이 일정하게 작용했다고 보이며, 그 紀行 詩篇을 살펴보는 것은 개성에 머물던 김시습의 마음을 미루어보는 데 도움이 된다.

대체로는 “오백 년 功業을 이미 그르쳐 / 석양에 봄풀 향기로운데 시름 어찌할거냐”,⁴⁷⁾ “홍망을 물으려다 아무 말 없이 / 저문 해에 붉은 노을 머금었노라”⁴⁸⁾라는 시구에서 나타나듯 斜陽에 전조의 폐허를 보는 쓸쓸함이 소설적 상상력의 출발점이 되었으리라 여겨지지만, 「故市」나 「途中」과 같은 시편에는 사람살이의 모습이나 산천의 풍경이 재현되어 있어 회고적 감상에 그치지 않는 구체적 공간 인식을 엿보게 한다.

市井蕭條似亥虛, 시정이 쓸쓸하여 빈 장터 같은데
空餘臺笠滿閭閻. 도롱이에 삿갓 쓴 이만 괜히 여염에 가득하네.
衣冠盡屬昇平日, 의관은 모두 태평성대인데
城郭猶存征戰餘. 성곽에는 아직도 전쟁의 흔적 남았네.
鬱鬱松栢皆佛宇, 울창한 소나무와 녹나무는 모두 절집이고
依依槐柳是人居. 한들거리는 회화나무와 버드나무에 사람이 사네.

「故市」의 일부이다. 저자와 우물가에 그다지 활기가 없는 모습이라든가, 절집과 인가에 보이는 樹種 등 개성의 실제 모습을 묘사한 가운데 성곽에 전란의 흔적이 남았다는 구절이 눈에 띈다. 「이생규장전」의 시간적 배경이 되는 신축년의 홍건적 침입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1361년은 홍건적의 2차 침입 시기로, 수도 개경이 2개월간 함락된 상태에 있었다. 당시 홍건적은 백성들을 살육하고 심지어 식인까지 자행했다고 전해진다.⁴⁹⁾ 그가 개성을 방문한 시점은 그로부터 거의 한 세기가 지난 뒤였지만 전쟁의 상흔이 눈에 보이게 남아 있었던 것이고, 김시습은 故老들로부터 그 참상을 전해 들었을 수도 있다.

日暖泥融芹吐芽, 따스운 햇빛에 진흙 녹아 미나리 싹 튀우니
此行占得一年華. 좋은 한 시절 차지한 이번 여행길.
東風二月關西道, 2월 관서 길에 봄바람 불어
喜見春畦蓼蘼花. 봄 밭두둑 꽃다지를 호뭇이 보네.

46) 심경호, 『김시습 평전』, 돌베개, 2003. 143~150면; 임형택, 「『매월당시사유록』에 관한 고찰」, 『한국한문학 연구』 26권, 한국한문학회, 2000. 59~85면. 임형택 선생의 논문에서는 『유관서록』을 포함한 紀行 詩篇 『四遊錄』에 대해, 김시습의 20, 30대 시절 방황하던 역경을 생생하게 표출한, 그의 고독한 자아의 독백이라 평가했다.

47) 五百年功事已訛, 夕陽芳草奈愁何?(김시습, 「松都」, 『매월당집』 권9)

48) 興亡欲問渾無語, 銜却斜陽一抹紅.(김시습, 「扶蘇山」, 『매월당집』 권9) 부소산은 송악산의 다른 이름이다.

49) 이정란, 「1361년 홍건적의 침입과 공민왕의 충청지역 피난정치」,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21권, 2018. 33~64면; 김정, 「홍건적의 침입에 관한 고찰」, 『군사지』 17, 1988. 155면.

발두렁에 핀 노란 꽃다지 같은 것은 지금도 한반도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른 봄의 들꽃이다. 「途中」이라는 위 시는 김시습이 개성을 여행한 시기가 봄이었음을 알려 주고, 아울러 그가 눈에 담았던 작은 들꽃 무더기까지 섬세하게 재현하고 있어 그의 여행 체험에 구체성을 부여한다. 이런 것은 인간사와 상관없이 지속되는 풍경에 해당된다.

그런데 무엇보다 『유관서록』에는 개성 성군관을 방문한 경험을 담은 「遊古國學」, 오관산을 노닌 것을 읊은 「遊五冠山洞」 등 「이생규장전」에 등장한 바로 그 장소를 읊은 시편이 포함되어 있어, 이 소설의 공간적 구체성을 짐작케 한다.

「이생규장전」은 ‘송도’라는 지명으로 시작되며, 낙타교와 선죽리, 국학(=성군관), 오관산 등 개성의 여러 장소 이름은 물론 울주(=울산)와 북주(=안동) 같은 한반도의 지명을 다양하게 포괄하고 있다. 이는 김시습이 경험한 조선의 지리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감각을 반영한 결과로서, 소설 구성에 상당한 개연성을 확보하는 효과와 연결된다. 개성에서 멀리 떨어지는 울주에 이생 집안의 전장이 있다는 설정은, 그의 가문이 영남 지역에 근거를 둔 이른바 신진사대부 계급에 속하지 않나 하는 추측의 단서로 삼을 수 있어 이생이라는 존재를 더 개연성 있게 그려낼 여지를 준다. 그리고 북주는 실제로 1361년 홍건적 2차 침입 때 공민왕이 몽진한 고장이므로, 이 지명을 언급함으로써 소설적 상황에 역사적 구체성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위 도판은 조선 후기의 개성부를 그린 지도이다. 흰 점으로 표시된 곳이 「이생규장전」에 등장하는 실제 장소에 해당된다. 아래로부터 ‘橐駝橋’라 적힌 낙타교는 이생의 집이 있던 곳이고, ‘善竹橋’가 위치한 선죽리는 최씨의 저택이 있던 곳이다. 지도상으로 멀지 않아 보이는데 실제로도 약 1km에 불과하다.

셋째로 ‘成均館’이 바로 이생이 다니던 국학이다. 원래는 도성 남쪽 奉恩寺 근방에 있었으나 홍건적의 침입 때 파괴된 것을 1367년(공민왕16) 탄현문 안쪽의 숭문관 옛터에 새로 지은 것이 현재까지 전한다.⁵⁰⁾ 이생은 홍건적 침입 이전에 국학을 다녔으므로, 소설에 기술

된 바 낙타교-선죽리-성균관으로 이어지는 그의 통학길은 고증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1458년에 개성을 방문한 김시습은 성균관의 연혁까지는 듣지 못하고 자신이 방문했을 때의 상황을 소설 속 공간에 반영했던 듯하다. 이에 「이생규장전」에 대해, 고려말의 개성을 배경으로 삼고 있으나 한 세기 뒤인 조선초기의 실정을 재현한 점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도 상단 중앙에 있는 ‘五冠山’은 「이생규장전」의 결말과 관련된 장소다. 흥건적이 물러간 후 죽은 최씨가 돌아와 부부가 두 번째 인연을 잇게 되자마자 했던 일 중 하나가 돌아가신 양가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었는데, 그 장지가 바로 오관산이었다.⁵¹⁾ 이후 최씨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하여 부부가 다시 이별하게 되자 이생은 아내의 유해를 수습하여 부모 곁에 장사지내 주었다.⁵²⁾ 그러니 최씨가 묻힌 곳 역시 오관산이다. 그런데 김시습의 『유관서록』에 수록된 「遊五冠山洞」 시가 이 장소에 대한 약간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五冠山色碧如鬢, 오관산 갈매빛 질푸르고
洞在松杉倉翠間. 골짜기는 비취빛 소나무와 삼나무 사이에.
歌有木鷄人已逝, 「木鷄歌」 부르던 사람은 이미 떠났으나
芳名岫色兩難刪. 꽃다운 이름과 산빛은 둘 다 깎이우지 않으리라.

‘「목계가」 부르던 사람’이란 고려시대의 효자 文忠이다. 그는 나무로 만든 닭을 비유로 들어, 어머니가 늙어가심을 한탄하는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⁵³⁾ 정작 그 노래의 곡조나 가사는 전하지 않지만, 그의 이름과 사연은 또렷이 남아 있다. 「목계가」의 다른 제목이 「五冠山曲」인데, 이는 문충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곳이 오관산 기슭이었기 때문이다. 인용한 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김시습은 착한 사람의 꽃다운 이름과 아름다운 푸른 산빛이 변함없이 간직된 곳으로 오관산을 기억했다. 그리고 여기서 개성의 오관산을 「이생규장전」의 마지막 장소로 선택한 김시습의 작가적 의도에 다가갈 수도 있을 듯하다. 이 작품의 주제가 사람들 사이의 사랑과 신의로 수렴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김시습이 답사하고 시로 읊은 개성의 오관산은, 그러한 인간의 마음에 간직된 아름다움과 아주 잘 어울리는 장소로 보인다.

3. 결론

이상과 같이 김시습의 「이생규장전」과 박완서의 「그 여자네 집」을 함께 읽으며 두 작품이 공유한 바를 검토해 보았다.

각각 14세기와 20세기를 시간적 배경으로 삼은 이 두 작품의 남녀 주인공, 즉 이생과 최씨

50) 한국역사연구회, 『고려의 황도 개경』, 창비, 2002. 214면.

51) 明日, 與生俱往尋瘞處, 果得金銀數錠及財物若干. 又得收拾兩家父母骸骨. 賃金賣財, 各合葬於五冠山之麓, 封樹祭獻, 皆盡其禮.(128면)

52) 言訖漸滅, 了無踪跡. 生拾骨, 附葬于親墓傍.

53) 실전하는 고려가요 「목계가」의 한역시가 李齊賢의 『益齋亂藁』 권4 「小樂府」의 제7수로 전한다: “木頭雕作小唐鷄, 筋子拈來壁上棲. 此鳥膠膠報時節, 慈顏始似日平西”(나무 끝에 작은 닭 새기어 / 젓가락으로 집어 벽 위에 살게 했네. / 이 새가 꼬꼬오 시간을 알리거든 / 어머니 얼굴 비로소 지는 해 같으시리)

그리고 장만득과 곱단은 저마다 용모가 준수하고 총명한 데다 문예 취향이 있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같은 마을에 살며 그 마을을 대표할 만한 아름답고도 이상적인 청춘남녀로 귀하게 여겨졌으며, 가족과 마을 사람들의 지지와 축복 속에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다.

학생 신분의 두 남자 주인공이 옆구리에 책을 끼고 오가던 낮익은 통학길은 그들이 저마다 연인을 만나고 사랑을 가꾸어가는 장소가 되어 주었다. 그 장소는, 각각의 소설이 창작된 시간의 간극 500년을 뛰어넘어, 지금 북한의 황해북도 개성이라는 공간적 일치점을 갖는다. 요컨대 두 쌍의 청춘남녀, 그리고 그들을 사랑한 가족과 공동체는 모두 개성 사람인 것이다.

이 두 쌍의 청춘남녀의 행복한 사랑은 오직 짧은 시간 동안만 환하게 빛났을 뿐, 그 뒤에는 곧 길고 어두운 이별이 영원히 이어졌다. 이생과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최씨는 1361년 홍건적의 침입 때 外賊의 겁탈에 저항하다 목숨을 잃었다. 만득과의 혼인을 기다리던 곱단은 1945년 ‘정신대’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중년 남자의 재취가 되어 고향 마을을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두 주인공 여성은 전쟁과 외침에 수반되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피하는 과정에서 처참한 죽음, 혹은 죽음과 다름없는 희생을 당했다. 그리고 두 주인공 남성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영영 잃은 채 세상에 남겨졌으나 끝내 그 사람을 마음에 간직했다. 이처럼 주인공 남녀가 ‘짧은 만남과 긴 이별’을 겪었다는 점, 그리고 이들의 인연을 관통하는 가치가 사랑을 넘어선 信義라는 점이 또한 「이생규장전」과 「그 여자네 집」이 공유한 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작시기 면에서 500년이 넘는 간극에도 불구하고, 이 두 한국소설은 이처럼 상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점에서 학습자는 「그 여자네 집」을 디딤돌로 삼아 한문소설인 「이생규장전」 등장인물의 성격과 내면심리의 이해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다. 그리고 교수자와 학습자는 두 작품이 공유한 바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사례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된다.

참고문헌

- 김시습, 『매월당집』(한국고전번역원 DB)
박희병 표점·교감, 『한국한문소설 교합구해』, 소명출판, 2005.
박희병·정길수 편역, 『끝나지 않은 사랑』, 돌베개, 2010.
박완서, 『그 여자네 집』, 문학동네, 2006.
박완서, 『한 길 사람 속』, 문학동네, 2018.
한국역사연구회, 『고려의 황도 개경』, 창비, 2002.
박희병, 『한국 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심경호, 『김시습 평전』, 돌베개, 2003.
김정의, 「홍건적의 침입에 관한 고찰」, 『군사지』 17, 1988.
신상필, 「『剪燈新話』를 통해 본 「李生窺牆傳」의 서사적 공간 구성」, 『동방한문학』 77호, 2018
임형택, 「『매월당시사유록』에 관한 고찰」, 『한국한문학연구』 26권, 한국한문학회, 2000.
이정란, 「1361년 홍건적의 침입과 공민왕의 충청지역 피난정치」,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21권, 2018.

「은애전」을 통해 본 조선후기 법의식

- 복수를 원하는 사회 -

김유진(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

目次

1. 서론
2. 〈김은애 옥사〉 관련 기록
3. 조선후기 정조시대의 사회윤리와 법의식
4. 결론

1. 서론

정조(1752-1800)는 김은애(金銀愛)와 신여척(申汝倬)의 사건을 심리하여 이들을 면죄하였는데, 이덕무에게 명하여 이들에 대한 전을 지어 『내각일력』(內閣日曆)에 실도록 했다.¹⁾ 이것이 널리 알려진 이덕무의 「은애전」이다. 일반적으로 「은애전」이라 되어 있어 김은애 이야기만 알려져 있으나 「은애전」은 서로 다른 사건과 인물이 등장하는 김은애와 신여척의 합전(合傳) 형태를 띠고 있다. 신여척 사건은 김은애 사건에 앞서 일어났던 일이다. 정조는 전국에서 올라온 사죄옥안(死罪獄案)을 직접 심리하였는데 그 결과는 1799년 간행된 32권 16책의 『심리록』(審理錄)으로 정리된 바 있는데 『심리록』에는 이와 유사한 사건이 다수 있다. 이 가운데 김계손 사건이 있다. 김계손 형제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김수리봉을 살해하였다. 김은애, 신여척, 김계손. 이상의 세 가지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은애전」이나 『심리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조의 법의식은 정절, 우애, 효도 등 사회윤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초법적인 복수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심리록』의 판결문, 『내각일력』의 기록, 「은애전」을 비롯한 인물전, 야담과 한문단편에 이르기까지 정조와 정조시대의 법의식은 조선후기 사회의 법의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의 세 인물의 사건을 통해 보이는 조선후기 정조시대 사회윤리와 법의식의 일면은 윤리적 복수를 원하는 사회라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표는 김은애, 신여척, 김계손 사건을 통해 본 정조대 살인범 처벌과 사회윤리의 향방을 살피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아울러 그 동안 「은애전」이라는 표제에 가려져 그 존재도 잊혔던 신여척이라는 인물을 다시 조명하는 한편, 이들과 비슷한 인물을 더

1) 『內閣日曆』 〈정조 14년(1790) 9월 1일〉.

발굴하여 조명하는 데 일차적 의의가 있을 것이다. 살인을 저지른 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사형에 처하는 것이 국법이였다. 그러나 김은애와 신여척 그리고 김계손과 같은 사형수들은 정조의 심리를 거치며 무죄 방면되었으며 그들의 사정이 고을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통치 방법을 통해 유교적 가치인 정절, 우애, 효도 등의 윤리적 가치가 평민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실례를 밝힌 것 또한 본 발표의 가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김은애 옥사〉 관련 기록

1789년 전라도 강진에서 발생한 〈안노파 살인사건〉의 사건 용의자 김은애에 대해 최종 판결은 1790년 〈김은애 옥사〉(金銀愛獄事)에서 이루어진다. 이를 둘러싸고 여러 기록들이 존재한다. 공식 기록으로는 『정조실록』 권31에 실린 〈정조 14년(1790) 8월 10일 무오〉 두번째 기사이다. 〈안노파 살인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실록에 대략의 사건 개요가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김은애 옥사〉는 여러차례 언급된다. 1790년 이덕무가 『내각일력』에 신도록 전을 지으라는 정조의 명을 받아 창작한 「은애전」(1790)이 최초의 작품이 되고, 1781년 초간되어 1782년 증보된 91년 중보 『추관지』, 『심리록』, 성해옹의 문집, 정약용의 『흙흙신서』 등에 기록되었고 나아가 현대소설가인 박종화까지 「은애전」을 창작하기에 이른 것이다. 먼저 널리 알려진 이덕무의 「은애전」을 기준으로 하여 〈김은애 옥사〉를 복합적으로 파악해보도록 한다.

1) 이덕무의 「은애전」(1790)

이덕무 「은애전」은 〈김은애 옥사〉에 대해 가장 빠르고 자세한 기록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정조의 판결문이 이덕무의 「은애전」에 우선하지만, 〈안노파 살인사건〉의 전말이 서사적으로 가장 잘 서사화된 것은 이덕무의 전이라 할 수 있다. 이덕무의 「은애전」 서사의 전말은 선행연구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다.²⁾ 기실 이덕무의 「은애전」에는 〈김은애 옥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김은애 옥사〉에 이어 곧 〈신여척 옥사〉(申汝倜獄事)가 덧붙여 있는 것이다. 일종의 합전(合傳)이라 할 수 있다. 합전은 기계적으로 두 인물을 합하여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교훈을 보이는 인물을 함께 엮어서 주제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덕무의 「은애전」에서 〈김은애 옥사〉만 따로 떼어내어 읽다보니 신여척이란 인물의 존재가 잊히는 경우가 많다. 신여척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한다. 따라서 이덕무의 「은애전」은 은애라는 인물의 소개로 시작하여 정조의 판결로 끝나고 〈신여척 옥사〉가 이어진 이후 김은애와 신여척에 대한 이덕무의 찬(贊)으로 종합 마무리되는 구성을 지니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은애전」의 〈김은애 옥사〉부분만 우선 정리한다. 「은애전」에 보이는 〈김은애 옥사〉의 서사 구성을 최대한 간략하

2) 「은애전」을 주제로 삼은 논문은 조도현(2011), 「〈은애전〉의 문학적 특징과 교육적 효용성」, 『어문연구』 70, 어문연구학회, 243-263쪽; 정인혁(2014), 「『銀愛傳』의 서사화 방식과 그 의미 연구」, 『동악어문학』 62, 동악어문학회, 227-262쪽; 최천집(2016), 「은애전의 창작 의도 고찰」, 『語文學』 131, 한국어문학회, 157-188쪽; 홍성남(2018), 「은애전 연구」, 『시민인문학』 35, 경기대 인문학연구소, 137-163쪽 등이 있다. 이상의 논문에서 모두 「은애전」의 줄거리를 나름의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게 보이면 다음과 같다.

- ① 인물 제시
- ② 안노파와 최정련의 공모
- ③ 안노파의 소문
- ④ 은애의 복수
- ⑤ 살인사건의 조사
- ⑥ 정조의 판결

① 인물제시

은애의 성은 김씨니 강진현(康津縣) 탑동리(塔洞里) 양가(良家)의 딸이다. 마을에 안노파라는 자가 있었는데 예전 창기였다. 성질이 험피(險陂)하고 황당하며 말이 많은데다가 온몸이 개창이어서 마음대로 가려운 곳을 긁지 못하기 때문에 심질(心疾)이 일어나면 더욱 말을 삼가지 못하였다.³⁾

① 인물제시에서는 대립적 인물 설정이 돋보인다. 양가의 딸 은애와 창기 출신의 안노파가 선명한 선악의 대비를 이루는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안노파에 대한 설명이 더 자세한 것은 악인(惡人)을 보다 분명히 설정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다. 안노파는 성격이 간악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데다, 온몸에 옴이 옮겨 끔찍한 외양을 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물질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자이기도 하다. 이덕무는 은애의 모친이 곡식을 쉬이 빌려주지 않자 안노파가 보복할 마음을 먹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설정은 다른 기록에는 없는 사실이다.

② 안노파와 최정련의 공모

노파가 말하기를, “네가 이미 은애와 사통하였다고 말만 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성사하여 주겠다.” 하였다. 이에 정련이 그리하겠다고 하니, 노파가 다시 말하기를, “내가 개창을 앓고 있는데 의원의 말이 ‘개창의 약값이 대단히 비싸다.’ 하니, 일이 만일 성공하게 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약값을 담당하라.” 하였다.⁴⁾

인물제시 부분에서 설정한 것처럼 안노파는 물질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자이다.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상황이라 약값을 제대로 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최정련(崔正連)은 안노파와 인척 관계로 14-5세의 예쁘장한 청년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안노파와 결탁하여 은애를 모함하는데 동조한다. 최정련도 은애가 마음에 들었는지 은애가 자신과 사통했다는 안노파의 모함에 동참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안노파는 최정련에게 약값을 받기로 한다.

③ 안노파의 소문

기유년(1789) 윤 5월 25일 안 노파가 떠들기를, “처음에 정련과 약속하기를, 중매를 해

3) 銀愛金姓 康津縣塔洞里之良家女也 里有安嫗者 故娼也 陂險荒唐 多口說 疥癩遍體 不任搔癢 發心蠅 益不愼言 (이덕무, 「은애전」)

4) 嫗曰 第倡言 若業已私銀愛者 吾爲若成之 正連日諾 嫗曰 吾患疥癩 而醫言瘍科藥料直最高 事苟成 若爲我當之 (이덕무, 「은애전」)

주면 내 약값을 갚아주겠다고 하였는데 은애가 홀연히 배반하고 다른 남편에게로 시집갔으므로 정련이 약속대로 하지 않아서 내 병은 이때부터 심하여졌으니 은애는 참으로 나의 원수다.” 하였다. 마을 안의 늙은이 젊은이가 서로 돌아보며 깜짝 놀라서 눈을 깜빡이고 손을 내둘러 감히 말을 내지 못하였다.⁵⁾

안노파가 퍼뜨린 소문이 퍼져서 은애가 결혼하기 힘들게 되었다. 하지만 김양준(金養俊)이란 자가 은애의 무고를 알아보아 은애가 마침내 결혼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미 퍼져버린 소문은 수습되기 어려웠다.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노파는 은애를 험담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안노파가 제대로 중매를 썼다는 기록은 없다. 다만 정약용의 기록에 의하면 강진 마을에 결혼하기 전 은애가 정련과 사통했었다는 소문이 실제로 돌기는 했던 것으로 보인다. 안노파가 퍼뜨린 소문은 은애의 결혼에도 불구하고 잦아들지 않고 오히려 안노파가 앙심을 품고 원수로 여기니 마을 사람들도 은애의 결백을 반신반의하게 되었던 듯하다.

④ 은애의 복수

몸을 비키며 번개같이 목구멍 좌측을 찔렀으나 노파가 오히려 살아서 급히 칼 가진 팔뚝을 잡으니 은애가 핵 뿌리치며 또 목구멍 우측을 찔렀다. 노파가 비로소 우편으로 쓰러지므로 드디어 옆에 쭈그러 앉아서 어깨 위의 좌편을 찌르고 또 견갑(肩胛)·겨드랑·팔·목·젖을 찔렀으니 모두 좌편이다. 끝으로 우편 척추 등을 찔렀는데 혹 두 번, 세 번 찌르고 소리를 지르며 날치니, 한 번 찌르고 한 번 꾸짖기를 무릇 열여덟 번이나 하였다. 칼의 피를 씻을 겨를도 없이 당에 내려와 문을 나와서 급히 정련의 집으로 향하여 남은 분을 고자 하였으나, 길이 멀고 그 어머니가 울며 말리어 돌아왔다. 은애의 그때 나이 18세다.⁷⁾

이덕무는 은애의 성품이 본래 강하고 독하다[素剛]고 하였다. 이미 2년 동안 안노파에게 모욕을 당했는데 결혼한 후에도 이것이 그치지 않자 안노파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밤을 틈타 부엌칼을 들고 안노파를 찾아갔는데 안노파는 은애를 섬약(纖弱)하게만 보아 오히려 도발하였다. 이에 은애는 안노파에게 잔인한 복수를 감행한다. 『심리록』에 시신에 대한 검안(檢案) 결과가 간략히 적혀 있는데 안노파의 상처는 목구멍, 쇄골, 어깨에 찔린 흔적이 있다고 하였다. 아마도 이덕무는 공초(供招)와 검안서(檢案書)를 보고 은애의 복수 장면을 재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부분은 이덕무의 창안이라고 할 수 있을텐데 다른 어떤 기록에도 이덕무만큼 자세하게 장면을 극대화하여 묘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사실에 기반한 허구로서 이덕무의 숨씨가 드러난 곳이라 할 수 있다. 이덕무의 「은애전」이 다른 기록에 비해 돋보일 수 있었던 것은 〈김은애 옥사〉에 대한 개략적인 서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노파 살인사건〉의 시말을 사실과 허구를 교직하여 꾸며냈기 때문이었다.

5) 己酉閏五月二十五日 安嫗大言曰 初與正連約行媒 報我藥直 銀愛忽畔而嫁他夫 則正連不如約 我病自此飢 銀愛眞我仇 里中老少 相顧駭愕 瞬目搖手 不敢出言 (이덕무, 「은애전」)

6) 소문이 확산되어 도리어 사실이 되는 메커니즘은 정인혁(2017), 「‘소문’과 배제의 윤리-〈은애전(恩愛傳)〉을 대상으로」, 『고소설연구』 44, 한국고소설학회, 127-156쪽 참조.

7) 側身條刺其喉左 嫗猶活 急把其持刀之腕 銀愛瞥然抽掣 又刺喉右 嫗始右仆 遂蹲踞于旁 刺缺盆之左 又刺肩胛 腋脇胎膊頸及乳皆左也 末迺刺右脊背 或二刺三刺 揮霍飛騰 一刺卽一罵 凡十有八刺 未暇拭刀血 下堂出門 急向正連之家 聊以洩餘憤焉 路遠其母泣挽而歸 銀愛時年十八 (이덕무, 「은애전」)

⑤ 살인사건의 조사

“아! 관장은 우리 부모이시니 죄수의 말을 좀 들어 보시오. 처녀가 무욕을 당하면 더럽히지 않아도 더럽힌 것 같습니다. 노파는 본래 창가(娼家)인데 감히 처녀를 무욕하니 고금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죄수가 노파를 찢은 것은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수가 비록 어리고 어리석기는 하오나 일찍이 들으니, 사람을 죽이면 몸을 베이게 된다 하매, 어제 노파를 죽였으니 오늘 배임을 당할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노파는 이미 죄수가 찢어 죽였지만 사람을 무욕한 죄에 대해서 관가에서 배운 것이 없으니, 원컨대 관가에서 정련을 때려 죽여주소서. 또 생각하여 보십시오. 죄수가 혼자서 무욕을 받았으니 어떤 사람이 죄수를 도와 함께 계획하여 이 흉한 일을 행하였겠습니까?”⁸⁾

〈안노파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현감(縣監) 박재순(朴載淳)이 은애를 불러 심문을 한다. 현감은 은애에게 살인의 이유를 묻고 공범의 존재를 따진다. 이에 은애는 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신의 살인이 안노파의 무욕 때문이며 모함당하는 자에게 공범이 있을 수 없다고 답한다. 나아가 “殺人者死”의 법조항을 언급하며 자신을 사형에 처하는 대신 도리어 최정련을 죽여 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한다. 이덕무가 「은애전」에서 발휘한 솜씨는 은애의 복수 장면 뿐만 아니라 김은애라는 인물을 재현해낸 부분에서도 드러난다. 살인범으로 잡혀왔음에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는 기색을 내비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은 살인범이니 처벌하되 자신을 살인하게 만든 안노파의 공범 최정련을 죽여달라 요청하는 은애의 모습에서 기백(氣魄)이 풍겨나게 만들었다.

⑥ 정조의 판결

은애는 억지로 원통한 것을 참고 있다가 출가한 뒤에 그제야 원한을 갚았으니 더욱 어려운 일이다. 은애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풍교(風敎)를 세우겠는가? 특별히 사형을 용서한다. 지난날에 장흥(長興)의 신여척(申汝僛)을 석방한 것은 대개 윤상(倫常)을 돈독하게 하고 기절(氣節)을 중하게 여기는 데에서 나왔는데 지금 은애를 용서하는 것이 또 이와 같다. 은애·여척의 두 옥안(獄案)의 그 대략을 호남(湖南)에 반포하여 사람마다 알지 못하는 이가 없게 하라.” 하였다.⁹⁾

정조가 은애를 특별히 방면하게 한 것은 〈안노파 살인사건〉을 널리 알리고자 함이 아니다. 〈안노파 살인사건〉보다 〈김은애 옥사〉를 널리 알림으로써 풍교(風敎), 즉 세교(世敎)를 다스리기 위함이었다. 잔인한 살인 사건을 일으킨 범인을 특별 방면함으로써 여성의 열절(烈節)을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통해 사회윤리가 올바르게 수립되고 이를 지키려는 의식 역시 고양될 것이라 기대했던 것이다. 이는 정조가 수많은 사형 사건을 직접 심리하면서 얻고자 한 통치에서의 효과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부당한 소문으로 발생한 살인에 대해 보상하는 의미를 덧붙여 옥안을 지역에 배포하도록 하여 은애를 비방하는 소문이 더이상 퍼지지 않도록 하였다.

2) 『추관지』(1791 重補)

8) ”欸官我父母 試聽囚言 室女受誣 不汚猶汚 嫗本娼家 敢誣室女 古今天下 寧有是哉 囚之刺嫗 豈可得已 囚雖蒙誣 嘗聞我殺人 官誅身固知 昨日殺嫗 今日當伏誅 雖然 嫗既囚刺誣人之律 官無所施 但願官家打殺正連 且念囚獨受誣 更何人助囚 共刺行此凶事 (이덕무, 「은애전」)

9) 然銀愛兇勉含冤 至適人 方報怨 則尤難矣 不有銀愛 何以樹風敎 特貸其死 向者長興申汝僛之放 盖出於敦倫常重氣節 今有銀愛 亦類是爾 銀愛, 汝僛兩獄案 頒其大略于湖以南 俾人人無不知也 (이덕무, 「은애전」)

『추관지』(秋官志)는 1781년 박일원(朴一源)이 형조의 사례를 모아 편찬한 관서지(官署志)이다. 애초에 사찬(私撰)의 성격을 띤 문헌이었으나, 정조의 명으로 1872년 의금부의 사례가 첨가되어 증보(增補)되고 1791년에 중보(重補)되었다. 초간본은 〈김은애 옥사〉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마땅히 김은애와 관련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중보된 기사들은 광곽의 바깥에 “重補”라고 표시하여 후에 추가된 것임이 밝혀져 있다. 〈김은애 옥사〉가 『추관지』에 추가된 것은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이기에 상대적으로 원자료가 많이 남아있다 볼 수 있다. 실제로 『추관지』에 중보된 〈김은애 옥사〉에는 ‘날것’으로 보이는 기록들이 보인다.

제가 시집가기 전에, 이웃에 사는 안노파가 그 시누이의 손자인 최정련을 위해 저에게 중매를 들었으나 저의 부모가 허락지 아니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련이와 함께 남몰래 간통했다는 이야기를 꾸며내어 억지로 혼인을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지난겨울 정련이는 저의 오라비를 보고서 “이미 간통했다”고 크게 말했으므로 제가 칼을 들고 싸우러 갔었으나 그 할미가 만류한 일이 있었습니다. 금년 봄에 제가 김양준에게 시집을 갔더니 안노파와 정련이는 말을 꾸며내어 전보다 더 심하게 퍼뜨렸습니다.¹⁰⁾

이덕무의 「은애전」에서는 안노파가 김은애와 최정련을 중매하였다는 내용이 언급되지 않는다. 반면 위에 인용한 『추관지』의 기록은 김은애의 공초 사실의 기록으로 이두문(吏讀文)으로 기록되어 있어 김은애의 진술서라 볼 수 있다. 이덕무는 은애의 모친이 곡식을 빌려주지 않아 안노파가 앙심을 품었다고 하였지만, 『추관지』의 기록에 따르면 안노파가 김은애와 최정련을 중매했던 것은 사실이나 김은애의 부모의 반대로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던 것임이 확인된다. 김은애의 공초에서 은애의 오빠와 최정련은 같은 서당을 다니는 사이로 전혀 모르는 관계는 아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노파의 말대로 최정련이 직접 은애의 오빠에게 ‘은애와 사통했다’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미 관계가 험악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이미 은애는 칼을 들고 최정련을 죽일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정련의 조모가 만류하여 그만두었지만, 안노파와 최정련은 이미 시집 간 은애에 대한 모함을 더욱 극심하게 한다.

저는 의관지인(衣冠之人)의 딸로서 백지에 이처럼 더러운 모함을 받았으니 이 어찌 뼈에 사무쳐서 씻을 길 없는 원한이 아니겠습니까! 안노파가 치사된 뒤 정련이의 어미와 할미가 찾아와서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즉 “정련이는 나이 어린 아이고 안여인은 실성한 사람이니 그들이 말을 만들어 퍼뜨린다 하더라도 누가 믿겠는가! 안여인은 이미 사망했으니 모함받은 것은 씻어졌을 것이다. 만약 다시 관가에 고하면 두 집안의 자녀가 용서받을 수 없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죽은 자는 그만이니 다시 이야기를 끄집어 낼 것 없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미처 자수하지 못한 것입니다.¹¹⁾

10) 矣身未笄時，隣居安召史爲，其媳妹之孫崔正蓮，居媒於矣身，而矣父母不許，則遂與正蓮，做出潛奸之說，欲以勒成婚姻。前冬，正蓮見矣甥大言已奸，故矣身按劍往鬪，爲其祖母挽解。及今春，矣身出嫁于金養俊，則安女與正蓮，做言播說，有倍前日。(『秋官志』 卷5 詳覆部 審理下 「銀愛獄案」)

11) 矣身以衣冠人之女兒，白地遭此醜誣，豈非刻骨難洗之冤乎! 安女致死之後，正蓮之母與祖母來，懇曰：“正蓮年少之兒，安女喪性之人，雖或造言傳播，人孰信之。安女今已殺，身足雪被誣，若復告官，兩家子女，難免罔赦之律。死者已矣，不必提說云。”故矣身聽其言，未及自首云。(『秋官志』 卷5 詳覆部 審理下 「銀愛獄案」)

정약용의 『흙흙신서』에서도 〈김은애 옥사〉를 다루었는데 그곳에서 최정련은 곧 강진의 아전 최종열(崔宗烈)의 아들이고, 김양준도 강진현의 아전이라 하였다. 김은애 역시 스스로 말한 바 의관지인, 즉 중인 이상의 신분임이 확인된다. 이 때문인지 마을에서는 살인 사건을 그냥 묻어두고자 하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정련의 모친과 조모가 일을 덮기 위해 은애를 설득한다. 이들은 은애가 최정련도 죽이는 것이 두려웠을 것이고 이 일이 관가에 알려져서 은애와 더불어 최정련이 관가에 끌려가는 일을 꺼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살인 사건은 현감에게서 관찰사로 다시 왕에게까지 이첩된다.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의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안노파가 무근한 말을 꾸며대었으니 은애가 통분히 여겨 앙갚음하려는 마음에는 못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안여인이 홀로 앉아 있을 때를 틈타서 손길을 맹렬하게 가했다는 것은 사정을 참작컨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러하기는 하지만, 약법삼장(約法三章)에서는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라고만 말했지 그 마음이나 정상을 참작한다는 것은 언급치 아니하고 있으며 또 안여인이 남을 모함한 죄는 법률로 보아 사형까지는 되는 것이 아닌데 은애가 복수한 것은 사람을 살해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상재(上裁)하십시오.”¹²⁾

이덕무의 「은애전」에서 채제공은 “은애가 원한을 갚은 것이 비록 지극히 원통한 데서 나왔으나 살인죄를 범하였으니, 신은 감히 용서하는 의론할 수 없습니다.”¹³⁾라고 하여 간략히 제시되었지만, 『추관지』에는 비교적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여기서 좌의정 채제공은 ‘살인자사’라는 법률에 따라 은애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속대전』을 비롯한 법률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하는 것이 상률이며 여기에 감정이 개입되어서는 안되며 또한 안노파의 모함이 잘못된 것은 맞으나 그렇다고 그녀의 목숨을 빼앗을 정도로 중한 죄는 아니라는 이유였다. 정조가 은애를 석방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언급한 세교나 기백의 근거보다 훨씬 객관적인 태도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조가 내린 판결이 엄격한 법률주의에서 벗어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정조는 법적 판단을 내림에 있어서 ‘그 마음이나 정상을 참작’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정서적인 것이 아니라 목적의식적인 통치행위로서 법보다 사회윤리를 중시하는 그의 통치 원리가 드러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은애는 18세 되는 여자에 불과하다. 그녀는 깨끗하게 정절을 지키는 몸가짐을 가졌으나 갑자기 음란하다는 허물을 뒤집어씌우는 모욕을 당하였다. 안노파는 ‘꽃을 꺾었다’는 소문을 거짓으로 지어내고 날름거리는 헛바닥을 마구 놀렸다. 시집가기 전에 이러한 모함을 당하였더라도 오히려 목숨을 끊어 그 진위(眞僞)를 가려 깨끗한 몸을 만들려고 하는 법이다. 하물며 새로운 남자를 만나 막 혼인하여 살려고 하는데 사람을 해치는 귀신처럼 다시 마구 모질게 모함을 받았으니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노파의 말 한마디에 여러 사람이 떠들어대었으니 이른바 ‘사면초가’가 된 것이다. 그리하여 원한과 분통을 이기지 못하여 한번 죽어서 결판을 내려고도 했겠지만 공연한 죽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

12) 左議政蔡濟恭以爲, 安女做出無根之言, 則銀愛之憤通欲報, 宜無所不至. 乘安女獨坐之時, 猛加手勢, 參以事情, 固應爾也. 雖然約法之章, 只言殺人者死, 初不以其心其情參錯言之. 安女誣人, 律不至死, 銀愛報毒, 罪在殺人, 上裁.(『秋官志』 卷5 詳覆部 審理下 「銀愛獄案」)

13) 銀愛報怨 雖出至冤 罪犯殺人 臣不敢爲參恕之論.(이덕무, 「은애전」)

고 생각하였을 것이니 그것은 알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¹⁴⁾

정조의 〈김은애 옥사〉에 대한 판결문은 이덕무의 「은애전」, 『정조실록』, 『홍재전서』, 성해응의 「김은애전」, 정약용의 『흠휼신서』에 그대로 혹은 거의 비슷하게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추관지』에서의 판결문은 다른 것들에 비해 훨씬 표현이 직설적이고 강하다. 안노파의 행동에 대해 특히 ‘꽃을 꺾었다’, ‘헛바닥을 마구 놀렸다’, ‘사람을 해치는 귀신’, ‘여러 사람이 떠들어대다’ 등의 표현은 판결문의 정제된 표현이라기보다는 날것 그대로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성해응의 「김은애전」에도 언급되지만 판결을 내린 것은 정조 자신이지만 판결문을 초한 것은 성해응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은애의 사건은 기백이 뛰어나기에 특별히 석방하도록 명한 것이다. 그런데 원통함을 풀려고 사납게 설쳤지만 처음에 하수(下手)하려던 목적은 이루지 못하였으니 최정련이 다시 은애의 독수(毒手)를 당할염려가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 그러니 은애를 살리려다가 도리어 죄가 높을 죽이게 된다면 인명(人命)을 중히 여기는 뜻이 어디에 있겠는가!¹⁵⁾

이상의 내용은 이덕무의 「은애전」이나 『심리록』에는 생략된 것이다. 정조가 추가로 내린 하교인데 이 내용은 『정조실록』, 『홍재전서』 등에는 보이는 내용이다. 정조 스스로도 ‘공연한 염려’라 말하기는 했지만 은애의 성격을 미루어 볼 때, 최정련이 살아있다면 다시 복수를 감행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다. 정조의 치밀한 성격이 드러난 것이기도 한데, 은애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살인사건에 대한 처벌은 곧 인명을 중히 여기기 때문인데 은애를 석방함으로써 그녀가 최정련을 죽여버린다면 정조의 입장이 훨씬 난처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조는 은애를 공정에 불러들여 ‘정련이에게 다시 범행하지 아니하겠다’는 다짐을 받도록 하교한 것이다.

3) 『심리록』(1799)

『심리록』 제21권에는 전라도 강진 〈김은애 옥사〉가 실려 있다. 『심리록』에는 옥사 사건에 대한 간략한 요약문, 사망자의 상처와 실제 사망 원인, 그리고 본도 및 형조의 계사(啓辭)와 판부(判付)가 간략히 요약되어 있다.¹⁶⁾

침상의 칼을 꺼내 들고 원수의 집으로 달려가 통쾌하게 설명하고 꾸짖은 뒤 마침내는 백주(白晝) 대낮에 한 무죄한 여인을 찔러 죽여 온 마을과 고을이 자신은 허물이 없고 저 원수는 보복을 받을 만하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였다. 그리고 일반 부녀들이 이미 살인을 범하고서는 도리어 사건을 뒤집어 말을 바꾸어 실날같은 요행을 구걸하는 부류를 본받지 않았으니 이는 진실로 열혈(熱血) 남성으로서도 하기 어려운 행위이고, 또 소견

14) 銀愛者渠不過十八歲女子耳，渠以江漢守紅之跡，忽遭溱洧玷白之辱，而所謂安女，粧出掠花之虛影，閃弄哆箕之饒舌，雖在未結縭之前，尙且決性命辨眞僞，要作分明之身，況新緣纔觀於旭鴈，毒射復肆於沙蜮，一言脫口，百喙吠聲，垓城之歌，四面皆楚，則冤切憤徹，將判了一死，但恐徒死傷勇，人無知者。(『秋官志』 卷5 詳覆部 審理下 「銀愛獄案」)

15) 銀愛事，氣魄之卓然，有特放之命，而以若強悍，雪若冤憤，則初欲下手而未果之，崔正連安知無更遭銀愛毒手之慮乎？然則欲活銀愛，反殺崔漢，烏在其重人命之意乎？(『秋官志』 卷5 詳覆部 審理下 「銀愛獄案」)

16) 심재우(2015), 「『심리록』와 조선시대 판례 읽기」, 『장서각』 34, 한국학중앙연구원, 326-340쪽 참조.

좁은 연약한 여인이 울분을 숨기고서 스스로 목매거나 물에 빠져 죽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열국(列國) 시대에 있었다면 그 생사를 초월하여 기절(氣節)을 숭상한 점이 섭정(攝政)의 자씨(姊氏)와 비교하여 자취는 차이가 있지만 이름은 가지런하여 태사공(太史公)도 당연히 가져다 유흥전(游俠傳) 말미에 써넣었을 것이다.¹⁷⁾

이상의 판결문은 거개의 〈김은애 옥사〉를 다룬 기록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심리록』은 결국 판결문을 모아 놓은 문헌이기에 다양한 사건이 포괄되어 있기는 하지만 각각의 사건이 지닌 전말을 파악하기에 쉽지는 않다. 판결문에서 은애가 안노파에게 자신의 무고함을 ‘통쾌하게’ 꾸짖고 원수에게 ‘보복’ 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열녀들이 흔하게 보여준 행동인 목을 매거나, 물에 빠져 죽는 ‘자살’에 비해 낫다고 평가하고 있다. 섭정(攝政)은 자신을 알아준 엄증자(嚴仲子)의 복수를 대신 완수하고는 얼굴을 상하게 하여 자신을 못 알아보게 한 후 자결한다. 그의 누이 섭영(聶榮)은 동생의 시신을 찾아 그 옆에서 시신의 주인이 섭영임을 밝히고 나란히 자살한다. 정조는 사마천의 「자객열전」(刺客列傳)에 등장하는 섭영에 버금가는 인물로 은애를 높이준다. 은애가 분통을 터뜨린 대상은 잘못된 소문이었다. 세상이 자신을 잘못 알아주는 것에 대해 통분한 것이다. 세상이나에 대한 오해를 갖지 않도록 소문의 근원을 죽여 없애는 일이나 자신을 알아주는 자를 위해 죽는 일[爲知己者死]을 동일시하는 평가를 내린 것이다.

4) 성해옹의 「김은애전」(1819)

성해옹은 〈김은애 옥사〉가 이루어진지 29년이 지난 1819년(순조 19)에 「김은애전」을 지었다. 성해옹이 스스로 밝히고 있는바 이덕무의 「은애전」을 참조하여 지었기에 서사적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성해옹의 김은애에 대한 기록은 이덕무의 「은애전」보다 훨씬 요약적이다.

정조 경술년(1790, 정조 14) 나라에 큰 경사(慶事)가 있어 심리(審理)중인 전국의 사형수들 대다수가 용서를 받아 석방되었다. 주상께서 내게 그 판결문을 쓰도록 하시고, “이것이 바로 ‘왕이 덕을 베풀어 천명이 영원하기를 빈다’ [祈天永命]는 『시경』의 뜻이니 그대가 이 일에 참여할 수 있어 다행이로다.” 라고 하셨다. 호남 김은애의 판결문을 쓰기에 이르자 주상께서 나를 앞으로 나오라 하시며 “이 사건은 매우 기이하다. 내가 자못 자세하게 판결하였으니 그대는 잘 써보라.” 라고 하셨다. 이제 29년이 흘렀지만 주상의 말씀이 귀에 역력히 들리는 듯하다. 또 『아정집』에 〈김은애전〉이 있는데 이 또한 주상의 명으로 지은 것이었다. 옛일을 떠올리며 다시 본받아 전(傳)을 지었다.¹⁸⁾

위의 인용을 통해 정조의 판결문을 작성한 주체가 성해옹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만큼 성해옹의 김은애에 대한 평가 역시 이덕무, 정조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17) 提出床刀, 走到仇家, 說得痛快, 罵得痛快, 畢竟白白晝. 刺殺一箇潑婦, 使鄉黨州閭, 曉然知自己之無累. 彼仇之可報, 而不効巾幗髻婦, 既犯殺越, 反事變幻, 以丐其僥倖一縷者流. 此誠熱血漢子所難辦, 而又非編性弱女. 匿冤憤而自經溝瀆之比也. 若使茲事, 在於列國之時, 則其外死生尚氣節, 可與聶政姊, 跡舛而名齊. 太史公亦當取而書之於游俠傳末.(『審理錄』 권21 庚戌年(1790) 1 全羅道 〈康津金召史獄〉)

18) 正宗庚戌, 國有大慶 審理中外死囚 多從宥釋 上命臣海應書其判曰 此祈天永命之意也 爾得與役幸矣 至湖南金銀愛之判 上命臣至前曰此事甚奇 予頗費辭而爲判爾 宜善書 于今二十九年 天語歷歷在耳 又見雅亭集中有金銀愛傳亦因上命而製也 感念舊事 復傲而爲之傳 (성해옹, 『연경재전집』 권17, 「김은애전」)

『연경재전집』 상에서 김은애의 서사화는 2차례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김은애전」이고 다른 하나는 『초사담헌』(草榭談獻)이다. 성해옹은 「김은애전」과 「강상효녀전」(江上孝女傳)을 각각 지었는데, 『초사담헌』에는 「강상열효녀와 김은애」(江上烈孝女金銀愛)로 합전의 형태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덕무가 김은애와 신여적을 연결시켰다면, 성해옹은 강상열효녀와 김은애를 연결시킨 것이다. 성해옹의 전과 『초사담헌』의 필기 기록은 내용에 있어서 거의 차이가 없다. 다만 「김은애전」과 「강상효녀전」이 합전의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결국 성해옹이 효열(孝烈)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관통하는 덕목으로 의(義)를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덕무는 「은애전」에서 장면의 극대화 양상을 보인 반면, 성해옹은 사건의 여운을 남기는 서사 방식을 취하고 있다. 〈김은애 옥사〉의 서사라는 차원에서 복수살인사건은 두 개의 흐름으로 서사화된다. 이덕무의 「은애전」은 신여적의 사실과 결합되면서 부분적 허구화와 대부분의 사실로 귀결된 반면, 성해옹의 「김은애전」은 「강상효녀전」과 결합되면서 허구에 한층 다가가게 된다. 아직은 사실과 허구 사이에 존재하지만, 〈강상효녀담〉 모티프는 임매에게는 「여협」(女俠), 안석경에게는 「검녀」(劍女)로 재현되기 때문이다. 김은애와 강상효녀에 보이는 복수살인사건은 한문단편으로 재현되면서 강한 소설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성해옹의 「김은애전」은 사실에서 허구로 나아가는 소설화 단계의 바로 이전의 모습을 보여준다.

5) 『흙흙신서』(1822)

정약용은 1822년 『흙흙신서』에서 여러 살인 사건 판례를 분석하면서 〈김은애 옥사〉에 대한 기록을 남긴 바 있다. 정약용은 이덕무의 「은애전」을 그대로 인용한 후, 본인이 강진에 유배가서 들은 이야기를 첨언하였다.

가경 신유년(1801) 겨울에 신이 강진현에 유배되어 민간에서 어렵게 살고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읍내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김은애가 시집가기 전부터 벌써 최정련과 사사로이 간통을 했는데, 안노파가 중매쟁이 노릇을 하여 항상 그 노파의 집에서 간음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이익이 적어지자 안노파가 그러한 사실을 널리 퍼뜨렸는데, 김은애가 마침내 그 노파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사는 곳의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간음과 관련한 소송은 한 차례 휘말리기만 하면 사람들도 덩달아 그대로 믿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도둑질했다는 누명은 결국 벗어나지만, 간음했다는 모함은 씻기가 어렵다.’ 하였으니, 이것을 말합니다. 만약 실제로 간음을 저질렀다면 이치상 위축되는 것이 당연하지 이처럼 시원하게 죽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¹⁹⁾

1801년에 정약용은 유배지인 강진현에서 김은애와 관련한 소문을 직접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1790년 김은애가 방면되고 정조의 명으로 호남에 〈김은애 옥사〉가 공개되었지만 이후 10여 년이 지난 1801년에도 소문은 여전히 위력을 떨치고 있었다. 최정련과 통정하던 김은애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갔다는 풍문은 10년이 지났음에도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었던 것

19) 嘉慶辛酉冬, 臣謫配康津縣, 窮居民間, 聽邑人之言曰: ‘銀愛自未笄時, 已與崔正連私奸, 安嫗爲作媒婆, 每於安嫗之家行奸. 其後利少, 安嫗播之, 銀愛遂殺之.’ 然中韓之事, 有誰知之? 凡奸淫之訟, 一被指目, 衆人從而實之. 故諺曰: ‘盜冤終脫, 淫誣難雪’ 此之謂也. 如有實犯, 理當沮蹙, 不能若是之快殺也.(丁若鏞, 『欽欽新書』 권8 祥刑追議 11 「情理之怨」 8)

이다. 정약용은 이처럼 소문의 강력한 힘에 대해 이야기한다. 하지만 상식적인 추론을 통해 위축되지 않고 노파를 살해한 김은애의 무고함을 믿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정조의 판결에 대한 믿음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법률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서는 보다 엄정한 모습을 보인다. 앞서 채제공이 보여 주었던 입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요즘 복수와 관련된 사건은 본래의 사건 정황을 따지지도 않고 절의(節義)가 있는 행위로 인정해 주기만 하고 형사 사건을 성립시키지 않으니, 이것이 큰 폐단이다. 심지어 죽임을 당한 것이 분명하지 않은데 사사로이 원수라 지목하고서는 공공연히 복수하는 자가 있기도 하니, 어찌 작은 걱정이겠는가!²⁰⁾

정약용의 우려는 〈김은애 옥사〉가 이루어졌던 1790년대보다 30여 년이 지난 때의 것이다. 사사로운 복수 행위가 일종의 절의있는 행동으로 인식되어 조장되고 있다는 비판을 확인할 수 있다. 『대명률』과 『속대전』의 법률 조항을 검토하면서 위와 같이 말한 정약용은 결국 법률의 적용이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790년대와 1820년대는 대략 1세대의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하게 판단할 수는 없겠으나 정조와 정약용, 즉 제왕과 관료의 법률에 대한 시각의 차이와 복수살인에 대한 태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조는 제왕이자 개인이다. 개인적으로는 아버지 사도세자와 관련하여 아픔이 있다. 그에게 효의 문제, 나아가 복수의 문제는 자신과 직접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였을 것이다. 비록 아버지에게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끔찍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것은 아니다. 더구나 아버지의 죽음에 할아버지인 영조가 관련되어 있으므로 윤리적 딜레마는 훨씬 치명적인 것이었으리라. 결과적으로 정조가 법을 초월하여 복수에 관대한 모습을 보인 것은 이러한 개인적 사정과 전혀 무관한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공적으로는 풍속을 교화하려는 제왕의 태도를 보인 것이지만 정약용의 시대에 와서는 오히려 사사로운 복수가 정당화되는 풍속의 후퇴, 법의식의 후퇴를 가져온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다.

3. 조선후기 정조시대의 사회윤리와 법의식

앞서 살펴본 〈김은애 옥사〉은 개별 사건이라 할 수 없다. 이덕무가 입전하면서 신여척을 함께 다룰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러하다. 『심리록』에는 정조가 심리한 옥사의 기록이 방대하게 남아 있다. 이 가운데 세 가지 대표적인 사건은 상호 호명(呼名)을 통해 정조시대 사회윤리와 법의식의 관계를 보여준다. 시간 순서로 보자면 〈신여척 옥사〉, 〈김은애 옥사〉, 〈김계손 옥사〉의 순서가 되지만 사회윤리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충청도의 김계손 형제는 아버지를 죽인 김수리봉이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자 그를 끝까지 추적하여 형이 찢르고 동생이 베어 죽인다. 저간의 사정은 『심리록』 제23권 신해년(1791)에 실린 이성(尼城) 〈김계손의 옥사〉(金啓孫獄事)에 자세하다. 이들의 복수 살인에 대한 정조의 판결은 이들이 천하의 인재라는 상찬으로 끝맺음된다.

20) 近世凡復讎之獄, 不問本事, 唯以節烈許之, 槩不成獄, 此大蔽也. 甚至被殺不明, 而私指爲讎, 公然復讎者有之, 豈細憂哉!(丁若鏞, 『欽欽新書』 권1 經史要義 1 「仇讎擅殺之義」)

대체로 광경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몸을 빼어 피했다가 자기 한 사람의 생사는 돌아보지 않고 반드시 보복하고야 마는 자가 더러 있다. 김계손 등은 날카로운 칼을 만들어 각기 몸 속에 감추고 허다한 세월을 소비하고 수많은 계획을 세웠다. 그 원수가 죄를 받고 출옥할 때가 되자, 가까이 있을 때는 가까이서 지키고 멀리 가면 멀리까지 따라다니다가 마침내 형제가 함께 원수를 갚았는데, 먼저 칼로 벤 자는 형이고 다음에 찢은 자는 동생이었다. 원수를 살해하고 나서 형제가 또 머리를 나란히 하여 관부(官府)에 자수하여 법에 따라 죽기를 청했으나, 옛사람이 이른바 “비분강개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일은 쉽지만 조용히 죽음으로 나아가기는 어렵다.” 고 한 것은 바로 김계손 형제를 두고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들의 사적은 비록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에 수록한다고 해도 지나치다는 혐의는 없을 것이다. 충청 감사에게 분부하여 김계손 등을 즉시 방면하게 하고, 감영 뜰에 불러다 놓고 판부를 배겨 내려 주라. 이어 즉시 원적(原籍) 고을인 전주목(全州牧)에도 교부하고, 또 도백으로 하여금 그의 처지를 보아서 특별히 거두어 녹용(錄用)하게 하라.

해당 옥사는 『추관지』에도 중보되어 포함되어 있다. 『추관지』에는 아예 “아버지의 원수를 갚다”(復父讎)라는 항목이 따로 설정되어 있다. 정조는 이들 형제가 살인을 저지르고 스스로 관아에 나아가 죄를 자백한 일을 두고 격하게 칭찬하면서 이들을 방면하는 것에서 나아가 도백에게 이들을 인재로 쓰라고 한다. 아버지를 죽인 자에 대한 복수, 즉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인다는 사적 복수를 조장하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원래 『대명률』이나 『속대전』에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자에 대해 죽음의 형벌은 감해주지만 장 60대 등의 엄한 형벌을 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법조항을 넘어서 효의 열렬한 실천으로 복수 살인을 칭찬하고 있으니 이는 정조시대의 사회윤리가 법의식에 앞서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확인되는 의식은 부모에 대한 효의 실천을 위해 부모를 ‘죽인 자는 죽는다’로 정리될 수 있다.

한편 정조는 부녀자들이 살인을 저지르고는 사건을 뒤집어 말을 바꾸어 요행을 바라거나 삶을 구걸하는 행위를 듣고 김은애가 이들과 달리 죽음을 자청하는 모습에 기백을 보았다 하였다. 이러한 김은애의 행동이 남성도 하기 어려운 행동이라며 칭찬하며 여성들이 울분을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 목을 매거나 물에 빠져 죽는 일을 비판적으로 서술하였다.

지금 김은애가 이미 출가한 뒤에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어찌 월등히 뛰어나지 않은가. 김은애를 특별히 방면하라. 일전에 장흥(長興)의 신여척(申汝儻)을 살려 준 것은 인륜과 기절을 중하게 여겨서였는데, 지금 김은애를 특별히 방면하는 것 역시 이러한 이유이다. 두 옥안의 개략 및 내린 판부 내용을 등사하여 도내에 널리 퍼서 인간으로서 윤리와 기절이 없는 자는 금수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한다면 반드시 풍속 교화에 일조가 될 것이다.²¹⁾

『심리록』에는 〈김은애 옥사〉와 유사한 사건들이 종종 보인다. 김은애 만큼 장려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정조의 판결 역시 상당한 감형의 내용이 보인다. 정조는 열절의 의심에 스스로 죽음으로써 결백을 밝히기 보다 ‘통쾌’하게 자신의 결백을 밝혀 세상

21) 『審理錄』 권21 庚戌年(1790) 1 全羅道 〈康津金召史獄〉.

사람들이 알게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앞서 김은애 사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해 확인된 의식은 열절을 위해 ‘죽지 말고 싸워라’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여척 옥사〉(申汝倜獄事)는 앞서 보았던 김계손이나 김은애와는 달리 특이한 사건을 일으킨다. 『심리록』 제21권 경술년(1790) 〈신여척 옥사〉에 보이는 사건은 독특하다.

속언(俗諺)에 ‘중로 거리의 가게에서 소사(小史)나 패설(稗說) 읽는 것을 듣다가 영웅이 실의한 대목에 이르자 눈꼬리가 치켜 올라가고 입에는 거품을 물고서 풀 베는 칼을 들고 곧바로 앞으로 나아가 낭독하는 사람을 쳐서 그 자리에서 죽게 하였다.’ 고 하는 말이 있다. 대체로 보아 가끔 맹랑한 죽음과 가소로운 살인이 있으니 주도추(朱桃椎)와 양각애(羊角哀) 같은 부류로서 고금을 통해 그러한 무리들이 있는데, 신여척이란 자가 주도추와 양각애 같은 무리이다. 눈을 부릅뜨고 남의 형제 사이의 싸움을 보다가 난폭한 자가 갑작스럽게 불같이 성을 내었다. 전일에 아무런 은혜도 없었고 그렇다고 지금 어떤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별안간 발끈하는 사이에 싸움에 뛰어 들어가 상투를 잡고 발로 차면서 말하기를 “동기간에 싸우는 것은 인륜과 강상(綱常)의 변이다. 너의 집 울타리를 헐고 온 동리 사람들이 보도록 하겠다.” 라고 하고, 네가 무슨 상관이나고 책망하자 “내가 옳는데 네가 도리어 성을 내고, 네가 발길질하니 나도 하겠다.” 라고 하였다. 아, 신여척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재판관이 아니면서 형제간에 공경하지 않은 죄를 다스린 자는 신여척을 말함이 아니겠는가. 사형수를 녹안(錄案)한 것이 무수하지만 뜻이 크고 기개가 있어 기록하지 않음을 신여척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 까닭이 있다. 여척(汝倜)이란 이름을 헛되이 얻은 것이 아니다. 신여척을 방면하라.²²⁾

이덕무가 은애전을 짓게 된 것은 왕명 때문이었다. 정조는 경술년(1790) 6월에 김은애(金銀愛)·신여척(申汝倜)의 전을 지어 내각 일력(內閣日曆)에 실으라고 명하였다. 시간적으로는 신여척이 앞선다. 장흥(長興)의 신여척(申汝倜)을 석방한 것이다. 정조는 윤상(倫常)과 기절(氣節)의 근거를 들어 은애와 여척의 옥안(獄案)을 호남(湖南)에 반포하여 사람들이 알게 하라고 명한다. 김은애와 신여척은 표리관계에 있는 것이다. 김은애와 신여척을 함께 보는 것이 정조와 이덕무의 의도이다. 형 김순창(金順昌), 동생 김순남(金順南). 김순창과 아내가 발에 갔다 와보니 보리 두 되가 부족하였다. 형이 동생을 의심하자 동생은 억울해하였고 형이 동생을 절구로 폭행하였다. 동네 사람 전후담(田厚淡)이 중재에 나섰지만 김순창은 수긍하지 않고 계속 동생을 구타하였다. 이에 전후담이 신여척에게 가서 사정을 알리고 구원을 청한다.

“뒤틀보리는 아까울 것이 없고, 형제간에는 싸울 수 없는 것이다. 슬프다! 너의 부모가 너의 두 사람을 낳아서 다만 서로 사랑하기만 원하고 서로 다투는 것을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 절구로 병든 아우를 때리니 너는 짐승이라, 짐승과는 친할 수 없다. 내가 장차 네 집을 헐어 우리와 함께 이웃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²³⁾

서로 싸운 결과 김순창이 사망하게 된다. 주변에서는 유야무야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22) 이덕무, 「은애전」

23) 이덕무, 「은애전」

한 달 후 관가에서 알게 되어 신여척이 살인죄로 옥에 갇히게 된다. 정조는 신여척 사건과 ‘담배가게 살인사건’ 즉, 종로 거리의 담배 가게에서 소설책 읽는 것을 듣다가, 영웅이 크게 실의하는 곳에 이르자 홀연히 눈이 찢어질 듯이 거품을 복적거리며 담배 썬 칼을 들어 소설책 읽는 사람을 쳐서 그 자리에서 죽였다는 소문과의 유사성을 들어 신여척을 주도 퇴(朱桃椎)나 양각애(羊角哀)의 무리라 칭찬한다. 결론적으로 이들을 함께 칭찬하며 결론을 내린다.

김은애·신여척 같은 사람은 모두 능히 의리로 살인하여 살리는 데에 붙여진 사람들이다. 슬프다! 만일 은애·여척이 밝은 임금의 평변(平反)하는 것을 만나지 못하고 문득 죽임을 당하였다면, 필부(匹夫)·필부(匹婦)가 원통한 것을 씻지 못하고 의리가 펴지 못할 뿐 아니라 장차 참소하는 사람이 두려워할 것이 없고 우애하지 못하는 자가 잇달아서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은애가 석방되면서 인신(人臣)은 충성으로 권하였고, 여척이 석방되면서 인자(人子)가 효도를 힘쓰게 되었다. 왜 그런가? 오직 충신만이 그 몸을 깨끗이 하고 오직 효자만이 그 아우를 우애하나니, 충효가 흥기되면 밝은 임금의 교화는 넓어지는 것이다.²⁴⁾

앞서 살펴본 『심리록』 소재 독특한 사건 3가지인 〈김계손 옥사〉, 〈김은애 옥사〉, 〈신여척 옥사〉는 상호 호명하는 사건으로서 하나에만 집중하여 다루어질 수 없다. 〈김은애 옥사〉는 이덕무의 「은애전」에서 〈신여척 옥사〉와 함께 다루어진 바 있고, 그 뒤의 사건인 〈김계손 옥사〉에서는 이전에 내려진 〈김은애 옥사〉와 〈신여척 옥사〉가 함께 언급되며 판결 사례로 재인용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들 사건은 각각 효, 열, 의를 상징하는 사건으로서 조선후기 정조시대 윤리의식이 법의식에 앞서는 양상을 확연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사실에 기초한 사회적 사건으로서 허구화되고 소설화될 수 있는 여지를 다수 가지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의 기록들이 훗날 공안소설 혹은 송사소설을 탄생시킨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사를 소설로 재창작한 작품들은 사실과 허구의 긴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소설의 역사는 「유연전」, 「은애전」, 「박효랑전」 등 송사소설, 공안소설의 창작을 이끌어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법보다 윤리를 우선시 하는 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를 간단히 ‘복수를 권하는 사회’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한문교육 콘텐츠로서 「은애전」을 논함에 있어서는 〈김은애 옥사〉를 함께 다루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김계손 옥사〉와 〈신여척 옥사〉로 시야를 확장하는 것이 좋다. 「은애전」이 단순히 ‘정절을 모해당한 젊은 여인의 복수극’ 정도로 이해될 수는 없다. 본 발표 논문을 통해 「은애전」의 감상과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학습자가 당대의 윤리의식과 법의식 간의 긴장을 추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드라마 〈별순검〉 시리즈나 영화 〈조선 명탐정〉 시리즈 등을 문화 콘텐츠 자료로 활용한다면 보다 현장감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24) 이덕무, 「은애전」

○ 참고문헌

- 김현진(2012), 「『審理錄』을 통해 본 정조의 범죄판결 특성과 對民教化政策」, 『한국학연구』 28,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37쪽.
- _____(2012), 「朝鮮後期 儒敎倫理와 犯罪判決-正祖의 『審理錄』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백민정(2016), 「『欽欽新書』의 여성 관련 범죄 분석을 통해 본 정약용의 여성 인식과 시대적 의미」, 『동방학지』 17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61-200쪽.
- 심재우(2015), 「『심리록』와 조선시대 판례 읽기」, 『장서각』 34, 한국학중앙연구원, 326-340쪽.
- 이숙인(2011), 「소문과 권력-16세기 한 사족 부인의 음행 소문 재구성」, 『철학사상』 40,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67-107쪽.
- 정공식(2007), 「법서의 출판과 보급으로 본 조선사회의 법적 성격」, 『법학』 48-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88-123쪽.
- 정순옥(2003), 「정조의 법의식-『審理錄』 판부를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21, 전남사학회, 33-60쪽.
- _____(2005), 「조선시대 사죄심리제도와 심리록」,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인혁(2014), 「『銀愛傳』의 서사화 방식과 그 의미 연구」, 『동악어문학』 62, 동악어문학회, 227-262쪽.
- _____(2017), 「‘소문’과 배제의 윤리-〈은애전(恩愛傳)〉을 대상으로」, 『고소설연구』 44, 한국고소설학회, 127-156쪽.
- 정일영(2008), 「조선 후기 성별에 따른 자살의 해석-正祖代 《審理錄》의 자살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醫史學』 17-2, 大韓醫史學會, 155-175쪽.
- 조도현(2011), 「〈은애전〉의 문학적 특징과 교육적 효용성」, 『어문연구』 70, 어문연구학회, 243-263쪽.
- 조순희(2004), 「『심리록』을 통해 본 사죄사건의 심리와 정조의 형정관」,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진경(2016), 「정조시대(正祖時代) ‘복수살인(復讐殺人)’의 양상과 그 의미: 『추관지』 복수살인(復讐殺人) 판례를 중심으로」, 『漢文學報』 35, 우리한문학회, 45-72쪽.
- 최천집(2016), 「은애전의 창작 의도 고찰」, 『語文學』 131, 한국어문학회, 157-188쪽.
- 홍성남(2018), 「은애전 연구」, 『시민인문학』 35, 경기대 인문학연구소, 137-163쪽.



2부

한문과에서 다문화 학생 문화 교육

발표자: 배희정(원곡고) / 토론자: 장재익(수완고)

자율 동아리 활동을 통한 다문화교육과 한자어휘교육

발표자: 나해진(시화중) / 토론자: 정효영(등촌중)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한문교육

발표자: 공민정(두루중) / 토론자: 이동일(청명고)

고등학교에서 교실 밖 '한문'하기

발표자: 윤세훈(상무고) / 토론자: 김은경(성사고)

한문과에서 다문화 학생 문화 교육

배희정(원곡고)

目次

- I. 서론
- II. 한문과 다문화 교육 선행연구 분석
- III. 한문과 수업에 대한 다문화 학생의 요구
- IV. 결론

I. 서론

학교에서 우리나라의 특성으로 ‘단일민족’을 배우던 시기가 지나, 우리나라도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다문화 사회로 변화한 지 오래되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서울시에만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 인구가 1.14%로 1만여 명에 이르렀으며¹⁾, 2018년에는 서울에 한 초등학교의 신입생 72명 전원이 다문화로 구성된 사례도 있었다.²⁾ 이렇듯 지역에 따라서 다문화 학생의 수가 많은 학교가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학교에서 다문화 학생들에게 한문 수업을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하며, 이것은 변화하는 시대의 교육에 발맞추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문화 학생은 ‘다문화가족자녀’, ‘이주배경청소년’ 등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외국인주민자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³⁾⁴⁾ 다문화 학생들은 여러 유형이 있는데, ‘부모가 모두 출생 시부터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부모의 자녀’, ‘외국인-한국인 부모의 자녀’,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하였으나 부모 중 한 명이 출생 시부터 한국인이 아닌 자와 재혼한 경우’가 있다.⁵⁾ 따라서 다문화 학생이라고 해도 부모의 출생 국가 배경과 부모 중 누가 외국인인가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환경이 모두 다르다. 또 다문화 학생도 외국인 부모와 함께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입국했는지, 입국 시기는 언제인지, 아니면 한국에 와서 출생했는지 등에 따라 한국어 능력과 문화적 배경이 아주 다양하다.

본고에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문화 학생에게 한문과 문화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지금까지 한문과에서 이루어진 다문화 교육

1) 김수현(2015),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교육지원 방안』, 서울연구원(2015-PR-29), p.2.

2) 기사 ‘신입생 전원 ‘다문화 학생’인 대림동 초등학교...서울 첫 사례, 중앙일보(2018.10.2.).

3) 김수현(2015), 위와 동일 연구, p.2.

4) 행정자치부에서는 ‘외국인주민자녀’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다양한 표현을 각 기관과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다문화 학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5) 김수현(2015), 위와 동일 연구, p.2.

연구를 찾아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한문과에서 다문화 교육에 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짚어본다. 다음으로는 연구자가 근무하는 지역과 학교의 다문화 학생들의 특성 분석과 학생 면담을 통해서 한문 수업에 대한 요구를 간단하게 살펴본다.⁶⁾

II. 한문과 다문화 교육 선행연구 분석

이미 학회의 한문과 연구에서도 다문화 교육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가장 이른 시기의 연구는 2009년 연구로 이동재(2009)의 연구이다.⁷⁾ 한문과 교육에서 다문화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로 다문화 교육의 배경과 필요성을 논하고, 한문과의 교육 목표와 교육 제재를 통해 다문화 교육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논하였다. 이후 이동재(2011)⁸⁾에서는 앞선 연구를 세부적으로 발전시켜 2007개정 ‘한문 I’ 교과서 15종을 분석하여 교과서에서 어떻게 다문화를 수용하고 수록했는지를 연구하였다. 이후 이돈석(2012)⁹⁾은 교육과정 목표를 검토하고, 교과서의 제재 분석과 교육 내용 제시와 삽화 등을 분석하여, 한문 교육과정에서 다문화 교육에 관한 기술이 부족하며 교과서 제제가 한국과 중국 자료에 편중되어 있어 더 다양한 국가의 제재를 수록할 것을 제안했다.

학회의 연구 외에도 학위논문에서도 한문과의 다문화 교육 연구를 찾을 수 있었다. 주지영(2012)¹⁰⁾은 현대사회와 한문 교육에서의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논하고, 2007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서의 다문화 수용양상을 분석 후 ‘다문화 잡지 제작’과 1차시 잡지 제작 수업 후 활동으로 토론과 발표로 구성된 총 2차시의 다문화 교육 수업을 구성하고 현장에 투입하였다. 다문화 교육 연구는 아니지만,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한자 교육 연구도 있었다. 이수희(2011)¹¹⁾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의 한자 교육 현황을 기관의 교육과 한자 교재 4권, 한국어 교육용 한자 선정 사례를 분석하여 한자 교재의 개발 방향을 일곱 가지로 제시하고 교재의 단원을 개발, 구성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한문과에서 다문화 교육에 관한 연구는 약 10년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구 시기가 2010년 전후에 몰려있고 이후에는 다문화 교육에 관한 연구가 보이지 않는다. 또 연구의 수도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연구의 내용도 마지막의 한국어 교육에서의 한자 교육에 관한 논문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논문은 세부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인 학생들에게 ‘다문화’라는 현상을 한문과에서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논문에서 말하는 다문화 교육이란 다문화 교육의 유사 개념인

6) 학회에서 주제를 처음 의뢰받았을 때는 학생의 요구를 분석하고 간단하게라도 수업을 구성하여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고 원격수업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아쉽지만, 수업을 구성하여 투입하지는 못하고 연구의 시작 정도에서 원고가 마무리되었다.

7) 이동재(2009), 「한문과 교육에서의 다문화 교육 방안」, 『한문고전연구』 19, 한국한문고전학회, pp.227-247.

8) 이동재(2011),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한문 I 교과서의 다문화 수용 양상 연구」, 『한자한문교육』 26,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pp.529-558.

9) 이돈석(2012), 「한문 영역에서의 다문화 교육 현황 및 방향성 제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학술대회 논문집』,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pp. 49-64.

10) 주지영(2012), 『한문교과에서의 다문화 교수-학습 방법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 이수희(2011), 『다문화 시대 한국어 교육에서의 한자 교육 -교육용 한자 선정과 교재 개발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국제이해교육’과 ‘반편견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¹²⁾ ‘국제이해교육’은 국경 너머에 존재하는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고, ‘다문화 교육’은 한 사회 및 국가 내부에 존재하는 다른 집단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존으로 서로 일정 부분 겹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다. 위의 연구들에서는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거나 수업을 구성할 때, 주로 한자문화권인 한-중-일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 교육적 요소를 지니면서도 ‘국제이해교육’에 조금 더 비중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반편견교육’은 다문화 교육의 양상 중 편견 및 정체성의 문제에 주목한 것으로, 위의 논문들은 한문 시간에 학생들에게 한자문화권의 다문화적 내용을 교수하여 국가별 차이를 알고 편견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이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다문화적인 교육 내용을 이해시키는 것을 주로 한 연구라면 본고에서는 다문화적 가정 배경을 가진 다문화 학생들에게 한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다문화 학생의 이해를 중점으로 논하고자 한다.

III. 한문과 수업에 대한 다문화 학생의 요구

1. 연구자의 근무지와 다문화 학생 특성

연구자는 다문화 인구가 많은 안산에서도 다문화 특구가 있는 원곡동에 있는 고등학교에 근무 중이다. 앞선 선행 연구들과 같이 한문 수업 시간에 다문화라고 하면 보통 한자문화권 나라인 ‘한, 중, 일’의 문화나 한자에 대해서 많이 다룬다. 그러나 근무지에서 보았을 때, 다문화 가정에 속하는 학생들 중에는 본인 또는 부모님의 국적이 중국,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다양하다. 한자문화권과 관련된 나라는 중국과 베트남이 있지만, 현재 베트남은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 베트남 학생을 면담하지는 못해서 한자 학습이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또 부모님 국적은 외국이지만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한국에서 어렸을 때 와서 교육 받은 지 오래된 학생은 자국어(를) 거의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 중국이나 우즈베키스탄 배경의 학생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조선족이거나 고려인인 경우도 있는데, 이런 가정에서 부모님이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학생들이 한국어를 더 능숙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듯 다문화 학생들이라도 각자의 환경에 따라서 한국어 실력이 천차만별이며 이에 따라 한국과 학교 수업 이해도도 다양하다.

중국 학생들에 비해서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학생들은 한국에 온 기간과 상관없이 한국말을 잘못하거나 아예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부모들도 조선족이나 중국 국적일 경우 한국어를 더 잘 사용하지만, 우즈베키스탄 국적이거나 고려인인 경우는 한국어가 상대적으로 더 서툴거나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중국어보다 러시아어는 우리말과 관련이 전혀 없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되고,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영향이 있는 듯하다. 또 중국 국적의 학생들과 다르게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학생들은 같은 무리들끼리 더 모여있고 어울리는 경향이 있으며, 같은 국적의 무리 속에 있을 때는 주로 러시아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언어 실력이 쉽게 늘지 않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러한 단편적인 면만 보아도 중국 국적의 다문화 학생과 그 외 국적의 다문화 학

12) 김민호, 엄미경, 변중헌, 전영준, 권상철, 황석규, 오고운, 장승심, 홍주희, 류현중(2015), 『다문화 교육의 이론과 실제』, 박영story, pp. 47, 이하 개념 설명도 같은 출처.

생의 한국어 실력에 차이가 있다. 또 이러한 것은 아무래도 학교 수업의 전반과 한문 수업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다문화 학생들은 한문 수업에서 어떠한 문화적 요소를 배우고 싶어하는지 알아보려면 한자 문화권 외의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중국 국적의 학생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학생을 면담하여 각각의 요구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2. 면담을 통한 다문화 학생의 한문 수업 요구

면담 내용을 보기 전에 면담을 포함하여 본 논문의 내용 전반을 들어 아쉬움을 남기게 하는 원인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다. 새로운 질병의 유행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개학과 등교가 상당 기간 미루어졌는데, 특히 연구자가 가르치는 학년인 고등학교 1학년은 6월이 되어서 첫 등교 수업을 시작했다. 따라서 학생들을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담이나 연구를 진행하기도 어렵고, 등교를 해도 바로 지필평가 기간이고 원격 수업을 여전히 병행해 학생들을 대면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이렇게 잘 알지 못하고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의 다문화 학생에게 면담을 부탁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렵고 조심스러운 점이 있었다. 면담 기회를 가질 수 없을 것 같아 포기하더 중에 학생들의 흔쾌한 허락으로 갑자기 실시하게 되었다. 그래서 연구의 깊이가 깊지 못하고, 면담이 정교하지 못한 것이 큰 아쉬움이다.

면담의 내용도 길지는 않아, 면담의 초반과 마무리 부분을 제외하고 전체를 보면서 학생들의 생각을 살피고자 한다.¹³⁾

면담 초반에는 학생들의 국적과 한국에 온 내용을 파악했다. 이러한 내용과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면담을 한 학생은 총 3명으로 모두 현재 재학 중인 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같은 중학교를 졸업하였다. 해당 중학교는 안산시에서 다문화 학생이 가장 많은 학교로 본교를 포함한 관내의 대부분 학교의 다문화 학생들의 출신 중학교이다.

‘학생 A’는 국적은 중국[광저우 출신]으로 6년 전인 초등학교 4학년 때 한국으로 왔다. 한국어를 꽤 잘하는 편이고 한국에 온 지 오래 되었지만 중국어도 여전히 잘한다. 그러나 한문과 수행평가의 응답 내용을 보았을 때, 한자와 한문 실력이나 한국어 읽기 실력은 우수하나 그것을 한국어로 쓰는 것은 한국 학생처럼 완벽하지는 않고 약간의 부족함이 있었다. 중학교의 내신 성적은 170점대로 우수하며, 평소 수업태도가 바르고 학업에 매우 열중한 학생이다.

‘학생 B’도 국적은 중국[지린 출신]이다. 2년 전쯤에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부터 다녔다. 아직도 한국어가 아주 능숙하지 못하고 같은 국적의 친구들과는 주로 중국어로 대화를 하여, 평소 대화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다. 아무래도 한국어 실력이 낮다보니 중학교 내신 성적도 110점대로 아주 낮은 편이다.

‘학생 C’의 국적은 우즈베키스탄으로 4년 전에 한국에 왔으며, 중학교 1학년부터 교육을 받았다. 학교의 다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1학년 학생들이 한국어에 능숙하지

13) 면담의 처음과 마무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내용을 썼지만, 학생들이 한국어가 서툴러서 중간중간 갑자기 서로 설명하고 통역하느라 중국어랑 러시아어로 이야기한 부분은 생략한다. 그리고 B학생의 경우 다른 학생들보다 한국어가 많이 서툴러서 가끔 단답으로 대답하다 보니 반말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

않거나 거의 못하는 것에 비해 한국어가 아주 능숙하며, 중학교 내신 성적도 180점대로 아주 우수한 편이다.

면담에서 초반에는 한국어 실력이나 한국어를 배우는데 걸리는 시간 등을 위주로 물어봤다. 한문 수업이 한자를 사용한다고 해도,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수업이기 때문에 언어 독해 능력이 없으면 수업 내용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다.

교 : 각자 한국어를 배우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

A : 저는 중국에서도 한국어를 공부 했어서 한국에 와서는 글만 공부했어요.

B : 1년이에요.

교 : B는 중국에서 한국어 공부 한 적 없니?

B : 네. 안 했어요.

C :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는 한국말을 전혀 못 했어요. 6개월만에 기본 상식을 얻었고 그 후에 많이 늘었어요.

교 : 엄청 빨리 늘었다. 지금도 다른 우즈벡 친구들이랑 다르게 한국말을 너무 잘하고. 그런데 기본 상식을 얻었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얻었니?

C : OO중 예비학급에서요. 너도 알잖아 같이 했잖아

B : 맞아 맞아.

교 : 선생님이 처음 들어와서 그런데 OO중 예비 학급이 뭐니?

C : 한국에 와서 전학을 오면 바로 학급에 배정되는 게 아니고 예비 학급에서 한국어를 배워요.

교 : 한국어를 어떤 걸 배우니?

C : 음... 초등학교 처럼요. 하루종일 한국어만 배워요

교 : 하루 종일? 어느 정도?

C : 한 오전 10시쯤부터 3~4시까지요. 예비학급을 통과해야 일반 학급에 들어갈 수 있어요.

교 : 6개월동안 단어만 외우니?

C : 단어도 외우고 다른 것도 해요. 어느 정도 알아들어야 일반 학급으로 가서 수업을 들어요. 아 B는 한국어 선생님이 한국어 안다고 착각해서 일반학급으로 갔잖아 하하

A, B : 맞아 맞아.

교 : 아 한국어를 못하면 일반 학급으로 못 가니?

B, C : 네.

교 : 그럼 한국어 못하면 일반 학급으로 못 가?

B, C : 네.

교 : 그럼 1년이 넘도록 한국어를 못하면 나이를 먹어도 그냥 예비학급에 계속 있는거야?

C : 네. 어차피 일반 학급에 가도 의미가 없잖아요. 수업을 못 알아들으니까

교 : 그런 일반학급으로 가는 기준은 뭐야? B는 그냥 선생님이 착각하셔서 갔다며? 그리고, 우리 우즈벡 친구들은 한국말을 못하는 친구들도 많잖아?

C : 그 때는 이수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을 이수하면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험을 보

는 것 같아요.

교 : 너희가 생각할 때 중국이나 우즈베크에서 온 학생들이 한국말을 말하는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

A, B : 한 1~2년이에요.

C : 제대로 하면 2년?

교 : 그럼 글을 익히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 것 같아?

A : 한 2년 정도?

C : 쓰는 건 아직도 어려워요.

교 : C는 한국말을 엄청 잘 하잖아? 그런데 쓰는 건 어려워?

C : 네. 어려워요.

교 : C가 생각할 때 우즈베크에서 온 친구들이 한국말을 더 못하는 이유가 뭔 것 같아?

C : 음... 우선 우즈베크는 중국에 비해서 교육이 많이 발달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대학 입시가 한국이나 중국보다 까다롭지도 않고, 대학 졸업 후에도 직업 보장이 안되니까....음 열심히 안하는?

교 : 전반적인 국가 분위기가 학구적인 분위기는 아니니까?

C : 맞아요. 학구적이지 않아요.

교 : 그럼 우즈베크에서는 대학을 잘 안가?

C : 그건 아니요. 가는 사람들은 열심히 해서 가는데 러시아로 가요.

교 : 선생님이 생각할 때 우즈베크 친구들은 같은 나라에서 온 친구들끼리 모여만 있고, 중국 친구들에 비해서 많이 새로운 언어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때?

C :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하면 빨리 배우는데 같이 모여있고 제대로 안하고.

학생들의 응답을 통해서 졸업한 중학교에서는 ‘예비 학급’을 운영하고 여기에서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해당 학교의 홈페이지에서 ‘예비학급 운영 계획서’를 확인했을 때, 수업 내용은 초급 한국어 회화 정도에 해당했고 학생들의 말대로 이전에는 이수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운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면담을 한 학생들이 모두 고등학교 1학년인데 나이가 모두 다른 점과 답변 내용을 보면, 한국어 실력이 너무 부족한 경우는 예비 학급에서 더 공부를 한 것으로 보인다. 언어가 능숙해지는 시간에 있어서 글보다는 말이 먼저 능숙해졌고, 또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의 문화 차이와 언어적 특성 차이로 인해서 중국 학생이 글을 읽고 쓰는데 조금 더 빠르게 능숙해짐을 알 수 있다.

교 : 너희들은 중국에서 왔으니까 한자랑 한문은 이미 잘 하지?

A, B : 네.

교 : B는 한국말도 잘하니까 한문 수업 내용이 어렵지는 않지?

A : 네.

교 : 음... 한자랑 한문 공부가 한국어 공부할 때 도움이 되니?

A : 네, 엄청 많이 돼요.

B : 네, 단어가 대부분 한자어라서 (갑자기 중국어로 A한테 이야기를 함)

교 : A가 뭐라고 해?

A : 다른 이야기 하는데요? 대만이랑 중국이랑 한자가 다르다고

교 : 아 중국은 간체를 쓰고, 대만은 번체를 쓴다고?

B : 네,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교 : 아 그래? 그러면 간체랑 번체가 헷갈리지는 않니?

A : 가끔 헷갈려요.

B : 괜찮아요.

교 : 그러면 혹시 수업 시간에 학습지에 간체도 같이 적어주면 더 도움이 되니? 아니면 지금처럼 번체로만 적어도 상관없니?

A :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B : 상관없어

교 : C는 한문이랑 한자 배우는 게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되니?

C : 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단어라도 같은 한자를 사용하면 비슷한 뜻이구나 알아들어서

교 : 어떻게?

C : 예를 들어 ‘인생’, ‘생명’ ...이러면 ‘생’ 이 들어가니까 다 삶이랑 관련 되어 있구나 이렇게요.

교 : 그렇구나. 똑똑하네 그래서 한국말을 잘 하는구나.

C : 그런데 저는 한자 외우는 게 너무 어려워요.

교 : 그래? 선생님은 러시아어가 더 어렵던데? 철자 외우다가 포기했어. 하하

C : 한자가 쓰는 게 어려워서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한자를 그냥 한국말로 해요.

중국 국적의 학생들은 확실히 한문 수업의 난이도를 상대적으로 쉽게 느끼고 있었다. B학생의 경우는 한국어를 완벽하게 모르기 때문에 한문 수업을 어려워하는 것이지만 한자를 어려워하지는 않았다. 또 한자가 한국어를 익히는데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학생도 동일하게 말했다. 한자를 익힘으로써 외국인이 한국어를 익히고 단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자 어휘를 선정하고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 국어나 한국어과가 아닌 한문과에서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한자를 익히는데 있어서 우즈베키스탄 학생의 경우는 알파벳과 비슷한 러시아 철자를 사용하다보니 한자를 쓰고 외우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 점에서 다문화 학생에게 한자 쓰기 학습을 어떤 방법으로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지도 다문화 학생에게 한문 교육을 할 때 고민해야 할 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한자를 익히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는데 간체와 번체의 차이이다. A 학생의 경우 번체와 함께 간체도 적어주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글자의 차이는 한문 교과서에서 한, 중, 일 문화를 다룰 때도 가끔 나오는 내용이다. 한문 시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한자를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문화 학생의 한문 학습을 돕기 위해서 학습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나 필요한 부분에 간체자를 병기하는 점도 고민해볼 점이다. 간체자 병기의 경우는 중국어 학습을 하려는 한국 학생에게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연구자가 근무하는 학교처럼 1학년 때 한문을 배우고 2,3학년 때 제2외국어를 배우는 학교에서는 비다문화 학생인 한국 학생들에게도 교과목의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다.

교 :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는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 각자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아냐? 아무거나 좋으니까 말해볼까?

A : 윷놀이, 한복, 김치?

B : 없어요.

교 : 아무것도 없어?

B : 음식 같은 것도 돼요?

교 : 응. 그럼.

B : 떡볶이?

C : 저도 없는 것 같아요.

교 : 그럼 그런 것 말고 음...문화재? 문화재랑 관련된 건 아는 것이 없어?

B :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교 : A는 한국에 온 지 오래됐는데도 없어?

A : 네 별로 없어요.

교 : C는?

C : 많이 없어요.

교 : 중학교를 한국에서 다녔는데, 수학여행이나 이런 거 가서 본 것도 없어?

A, C : 저희 수학여행 안 갔어요.

교 : 응? 아 맞다! 세월호 사건 이후로 안산에 학교들이 수학여행을 안 갔지. 아 맞네. 수학여행을 안 갔구나

C : 네. 못 갔어요.

교 : 그럼 수학여행도 안 갔고, 개인적으로 문화재나 그런 걸 보러 다닌 적은 없겠고?

A, B, C : 네, 보러 다니지 않아요.

교 : 그럼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 없니?

A : 본 게 없어서 잘 몰라요.

C : 의식주랑 관련된 것? 의식주를 현대와 과거를 관련 지어서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B : 저는 없어요. 안 봐서 몰라

A : 옛날 문학 같은 거요?

교 : 옛날 문학? 왜?

A : 시나 이런 거, 그냥 궁금해서요.

교 : 아 그래? 한문 시간에 한시도 배우는데 2학기에 배울거야.

C : 아... 안 배우면 좋겠어요. 지금도 너무 어려워요. 외우기 힘들어.

A : 아니야. 시가 더 짧고 배우기 쉬울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다음으로는 한문 문화 교육의 측면으로 면담을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 한국 문화에 대해 아는 것을 물어보았다. 질문 할 때는 학생들이 사상과 같은 추상적인 것보다는

여러 가지 문화재처럼 구체적인 문화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예측했고, 예측이 맞다면 구체적인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자 학습과 함께 한문 문화를 학습하는 것이 어떤지 추가 질문을 해볼 생각이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답변에서 변수가 있었는데, 안산 지역에서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모든 학교 수학여행과 각종 교외 체험학습이 다른 지역에 비해 장기간동안 더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작년부터 수학여행 등이 재개되었지만, 면담을 한 학생들의 중학교 재학 기간에는 수학여행이나 장거리 체험 학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외국인 학생들이나 보니 가족들이 문화재가 있는 장소를 찾아가는 경우도 없었다. 그러나 ‘본 것이 없어서 모른다는’ A, B학생의 답변이나, ‘과거와 현대의 의식주를 비교하면서 배우는 것’ 이 괜찮을 것 같다는 C학생의 답변을 참고했을 때, 학생들이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문화재 등을 접했다면 다른 답변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문화 학생들을 교육할 때는 학생들이 처해있는 상황과 배경을 더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반면 A학생은 옛날 문학을 배우고 싶다고 했는데 아래의 면담 내용도 함께 확인하면 이를 배우고자 하는 이유는 한문을 배우거나 필요성을 느낄 때 타교과 학습을 주로 말하는 보통의 한국 학생과 같다. 이를 통해서 다문화 학생이라도 한국에 온 지 오래되어서 한국 학생과 같은 교육을 장기간 받고 학업 성적이 일정 수준 도달한 경우에는 한문 교과와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이 한국 학생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한자문화권 출신이 아닌 C학생의 경우에는 앞서 말한 한자 학습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기록에는 생략했지만, 면담 중간에도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한자문화권 다문화 학생과 비한자문화권 다문화 학생의 차이를 인지하고 한문 수업에 참고하여 반영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교 : 그러면 선생님이 한문 시간에 배울만한 문화와 관련된 걸 몇 가지 보여줄테니까 이 중에서 한문 시간에 어떤 것을 배우고 싶은지 각자 3개씩만 골라볼까?¹⁴⁾(항목별로 간단하게 설명)

A : 저는 인성교육과 관련된 덕목, 간지(干支), 동양철학?

교 : 동양 철학? 왜?

A : 인성교육 덕목은 인성을 위해서 배워야 할 것 같고, 동양 철학이나 이런 건 역사나 사회같은 학교 공부하는데 도움이 돼서요.

교 : 그렇구나. 그럼 B는 어떤 거 배우고 싶니?

B : 간지, 풍속과 명절, 절기

교 : 왜?

B : 쉬워서. 다른 건 없어.

교 : C는?

C : 인성교육과 관련된 덕목,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화, 풍속과 명절이요.

교 : 왜 배우고 싶니?

C : 인성교육과 관련된 덕목은 웬지 배워야 할 것 같고.

14) 연구자의 석사학위논문에서 분류했던 것을 참고하여 ‘인성교육과 관련된 덕목, 간지(干支), 풍속과 명절, 절기, 문화유적, 일상생활과 관련된 어휘, 동양철학, 한중일 한자문화, 역사나 문학관련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참고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국말이 서툰 B학생이 이해할 수 있게 추가로 쉬운 말로 설명했고 그래도 이해가 부족한 표현은 A학생이 중국어로 통역해주었다.

교 : 우즈베크에도 효도나 이런 개념이 있니?

C : 음, 있긴 있어요. 우즈베크에서도 학교에서 효도 수업이나 예절 수업 같은 걸 해요.

교 : 아, 그렇구나. 그런 나머지는 왜?

C : 음 일상생활 관련된 것이라 풍속과 명절 같은 건 한국 사람들이 모두 기본적으로 아는 거니까 저도 알고 싶어요.

앞서 말한대로 언어 수준이나 학업 능력과 학구열이 보통은 한국 학생과 비슷한 A 학생은 타교과, 특히 역사나 문학 등 한문전적이 많이 활용되는 교과 학습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동양철학, 역사와 문학 관련 내용 등을 배우고 싶은 한문 문화 항목으로 선택했다. 반면 한국어가 많이 서툰 편인 B학생은 간지와 절기처럼 현재 중국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한자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어서 자신이 쉽게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선정했다.

우즈베키스탄 학생으로 한자가 계속 어렵다고 반복해서 말했던 C학생의 경우는 한자를 직접적으로 학습하는 것보다는 그 내용을 주로 학습할 수 있는 인성덕목, 풍속, 명절, 일상생활 관련 문화 등을 골랐다. 동시에 ‘한국 사람들이 모두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니 자신도 알고 싶다.’ 라는 말에 주목할만하다. 비한자문화권 다문화 학생에게 한문 문화 수업을 할 때는 한자와 한문 학습 부담이 적으면서도 한문 문화를 잘 담고 있는 내용,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기본으로 알고 있어서 다문화 학생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언어 학습에 도움을 주는 내용이어야 함을 시사한다.

교 : 그렇구나. 그럼 이제 체육관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빠르게 하나만 더 물어볼게. 이런 문화나 문화재 등과 관련된 것을 한문 시간에 배운다고 할 때, 그냥 글로 설명하는 게 좋아? 아니면 사진이나 그림, 영상 같은 게 있는 게 좋아?

A : 있는 게 좋아요.

C : 저도 있는 게 좋아요. 보면 외우기 쉬워요.

B : 너무 길면 안 돼

교 : 영상이 너무 길면 안 된다는거야?

A : 네. 너무 길면 별로예요.

C : 네. 우리 중학교 때 국어 수업인가에서 3시간 정도로 나눠서 영화를 봤는데요.

교 : 수업 내용이란 관련 있는 것? 아니면 학기말에 영화 잠깐 보여준거?

C : 수업이란 관련있는 거요. 그런데 너무 기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하기도 싫어요

B : 줄려.

교 : 아, 영화나 영상 같은 것도 너무 길면 줄리기도 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구나.

A : 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한문 문화 수업에 어떤 자료를 활용하면 좋을지를 질문했다. 학생들은 모두 사진, 그림, 영상 등이 있으면 이해하기 편해서 자료들을 활용한 수업이 좋다고 했다. 그러나 영상의 경우, 너무 길면 안 된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타교과에서는 가끔 수업을 위해서 2시간 정도 영화나 긴 영상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경우 중간에 끊어지니까 다시 집중하고 몰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

다. 그리고 B학생의 ‘줄려’라는 답변과 답변할 때의 표정이나 제스처 등에서 너무 긴 영상이 지루하기도 하지만, 한국어가 많이 서툰 경우에는 아무리 흥미로운 영상이라도 내용을 이해가 어려워서 지루함이 유발될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했다.

IV. 결론

다문화 학생에게 한문 문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문과 다문화 교육의 선행 연구를 분석하고, 연구자가 근무하는 지역과 학교 학생들의 특성과 다문화 학생 3명의 면담 내용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서 세계화와 국제교류가 활발하고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문과에서도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어떻게 한문을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전염병의 유행으로 학교의 모든 일정과 수업 방식과 내용 등이 이전과 많이 상황에서 이루어진 짧고 미흡한 연구이지만, 학생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다문화 학생 한문 문화교육에 조금이나마 주는 시사점들이 있었다.

한자문화권이든 비한자문화권이든 다문화 학생들은 모두 한자 학습을 통해서 한국어 학습에 도움을 받는다는 공통점도 확인했다. 또 다문화 학생별로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배경과 한국어 능력의 차이로 인해서 한문 학습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다 다르다. 때문에 교사들은 근무지의 특성과 학교의 다문화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해야 하고, 또 이런 다양한 경우에 맞게 한문 문화 교육의 내용과 수준, 학습 자료 등이 조정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생략



자율 동아리 활동을 통한 다문화교육과 한자어휘교육

연구 목적

<한자어를 바탕으로 한 한국어 능력을 향상>

- ▶한문문화권의 문화를 익혀 인, 의, 예, 지의 인성 함양
- ▶다문화 학생들의 한자어휘교육 과정에서 다문화 학생들의 이해 수준과 특성에 알맞은 어휘 교재 개발

연구 배경

- ▶ 중등학교 한문과 목표는 한문 지식을 익혀 언어생활에 활용하고 다양한 한문 자료를 학습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는 데 있다. 이러한 중등학교 한문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한문교과 시수가 확보되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본 발표자는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율 동아리 활동 속 한자 어휘 교육을 실현하여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과 함께 한문과 교육 목표를 달성해 보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발표 논문은 한자 교육의 필요성을 높이고 다문화 교육 속 한자 교육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 대상 및 대상 분석

- ▶ 연구 대상 : 시화중학교 1학년
- ▶ 현재 시화중학교 전체 학생의 30%가 다문화 학생일 정도로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음.
- ▶ 다문화 특별학급을 운영하며 기초 한국어 교육에 힘쓰고 있으나 중국어 문화권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 일반적인 한국어 교육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많음.

메가어휘(자율동아리) 시기별 연구 계획

연구 시기	추진 내용	기대 효과
6월	메가 어휘 개설	한자어에 대한 흥미 유발
7,8월	온라인 학습	
8,9월	생활 속 한자어 익히기	한자어와 익숙해지기

메가어휘(자율동아리) 시기별 연구계획

시기	추진 내용	기대 효과
9월	한자어 실례 찾아서 의미 이해하기	국어 어휘 중 한자어의 비중이 높음을 인식 한자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지
10월,11월	나만의 한자 어휘 교재 만들기	
12월	교재 발표하기	

메가 어휘 개설 취지

다문화 학생들 및 국어 어휘력 향상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한자 어휘 이해를 통해 우리 말 활용 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함.

상세계획1

<메가어휘 온라인 학습 계획>

1. 공민정 박사님의 한문 강의 시청

- 쉽고 즐거운 한문 강의를 통해 한자어에 대한 친숙함 제고
- 한자의 기본 원리를 익힘으로써 쉽게 한자어를 수용할 수 있음.

2. 한자어 이해에 대한 피드백

- 네이버 폼 과제로 한자어에 대한 이해 점검
- 주도적 한자어 학습을 통해 스스로 익히는 한자 학습 성취

상세계획2

<생활 속 한자어 익히기 및 실생활 한자어 찾기>

▶ 대면 활동

- 1) 도서관에서 실생활 한자어 찾아 의미 찾기 활동
- 2) 한자어의 쓰임에 대한 실용 사례 찾기 활동
- 3) 한자어의 유래나 관련 일화 찾아 스토리 텔링 구성해 보기

▶ 비대면 활동

- 1) 네이버 폼- 실생활 한자어 30가지 찾아 의미 알아보기
- 2) 단체 보이스톡 활동- 실생활 한자어 관련 이야기 말하기
- 3) 줌 회의- 모둠별 한자어 스토리 텔링 구성해 보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나눌까요?



상세계획3

<나만의 한자 어휘 교재 만들기>

학생들이 조사를 통해, 실생활에서 많이 활용되는 한자어 수집



학생들에게 수집한 한자어 배분



학생들 스스로 자세한 의미와 관련 이야기 정리



학생들이 수집하고 정리한 한자어 관련 자료 정리

상세계획4

- ▶ 학생들 스스로 교재에 들어갈 디자인과 제목 등을 구상함.
- ▶ 학생들에게 역할을 분담하여 직접 교재 제작에 참여하게 함.
- ▶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줌과 카카오톡 회의를 수시로 진행함.
- ▶ 12월에 학생들이 만든 교재를 발간하여 시화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볼 수 있도록 열람.

기대 효과

한자어휘교육이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향후 한문교육의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고사성어나 한자어휘를 기반으로 한 교재 개발은 실질적인 결과물이 되어 다문화 한자교육의 보급에 보탬이 될 것이다.

상세 기대 효과

- ▶ 학생들 스스로 한자어를 찾음으로써 한자 교육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킬 수 있음
- ▶ 주도적 교재 만들기 과정 속에서 교육의 주체가 된 학생들의 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음.
- ▶ 교사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교재가 아니라 학생들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교재이기에 그 유용함과 실효성이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됨.
- ▶ 메가어휘라는 한문 자율 동아리의 적극적 활동으로 시화중 전체에 한자 교육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한문교육

공민정(두루중)

目次

- I. 시작하며
- II.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어울림 프로그램
- III. 한문교과 연계 중학교 어울림 프로그램 구안
- IV. 맺으며

I. 시작하며

2012년 2월 6일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최종 발표되었는데, 이를 통해 학교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학생·학부모 입장에서 기존의 학교폭력대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특히,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형식화된 인성교육에 대한 반성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학교에서 실천해야 할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인성교육은 학교급별 발달단계에 맞춰 구체적인 핵심목표를 세우고, 생활교육-교과교육-창의적 체험활동 등이 연계되어 학교생활 전 영역에 걸쳐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¹⁾에 제시된 ‘배움이 실천으로 연결되는 프로젝트 형 인성교육 실시’ 관련 예를 보면 한문교과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국어·도덕·사회교과의 인성 핵심 역량²⁾ 요소를 강화하고 인성교육 관련 교과 간 연계를 통한 사례·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은 강조하였지만 한문교과와 관련한 인성교육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문과 성격과 목표에는 ‘선인들의 삶과 지혜, 사상과 감정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이 있고, 한문과 핵심역량에는 ‘인성역량³⁾’이 제시되어 있다. 이에 연구자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7대 실천정책 중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에 傍點을 두고 한문교과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다.

1) 국무총리실 보도자료(2012.2.6.), 학교폭력, 이제 그만! 7대 실천 정책으로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 13-14면.

2) 인성 핵심 역량 : 공감 능력, 소통 능력, 갈등 해결 능력, 관용, 정의 등

3) 교육부 고시 교육부(2015), 한문과 교육과정 제2017-74호[별책 17], 4면.

인성 역량은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기초적 능력과 자질을 지속적으로 개발·관리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다. 또한 한문 기록에 담긴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며,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수용·실천함으로써, 공동체의 문제 해결 및 발전을 위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능력이다.

II.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어울림 프로그램

1.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추진방향과 추진과제

2020년 1월 15일 교육부는 ‘제4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학교문화 조성, 학교의 신뢰 제고,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5대 영역에 걸쳐 14개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⁴⁾.

비 전	모두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학교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중과 배려가 가득한 학교문화 ◇ 적극적 보호와 교육으로 신뢰받는 학교 ◇ 민주시민의 성장을 돕는 가정과 사회

5대 정책영역		14개 추진과제	
1	학교공동체 역량 제고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강화	1	학교·학급 단위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2	학생 참여·체험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확대
		3	학교폭력 유형·추세 대응 예방활동 강화
		4	전사회적 협력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문화 조성
2	학교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교육적인 대응 강화	5	학교폭력 조기 감지 및 대응체계 강화
		6	학교의 교육적 해결역량 제고
		7	사안처리의 공정성·전문성 확보
3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시스템 강화	8	피해학생 맞춤형 보호·지원체계 강화
		9	사후지원 강화 및 학교 안팎 협력체계 구축
4	가해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	10	가해학생 교육·선도 내실화
		11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대처
5	전사회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생태계 구축	12	가정의 교육적 역할 강화
		13	지역사회의 역할 및 책무성 강화
		14	전사회적 대응체계 강화 및 대국민 인식제고

이 같은 제4차 기본계획 추진방향에서 한문교과가 눈여겨 봐야할 영역은 1영역 ‘학교공동체 역량 제고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강화’이다. 이는 교과 교육과정과 학교폭력 예방

4) 교육부 보도자료(2020.15),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발표, 6면.

교육 연계를 확대하고 내실 있는 학생 참여형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특히, 1영역 주요 과제로 ‘교원이 교과수업 시간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수업지도안, 학생활동지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자료 개발·보급 및 프로그램 활용연수 실시’를 제시하면서 ‘(‘19) 국어·도덕·사회 既 개발 → (‘22) 영어·체육·기술·가정 → (‘24) 진로·한문’이라는 순차적인 교과 개발 단계를 보여주었는데⁵⁾, 이전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과 달리 한문교과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문 기록 속에는 우리의 정신문화가 대부분 축적되어 있어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관의 문제 등을 치유할 수 있는 자료가 많으므로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한문교과의 학습 내용을 사례·실천 중심으로 구성하여 프로젝트 수업을 실시한다면 한문교과와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이 가능하다. 이에 연구자는 한문교과를 통한 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계획하고 교과 수업 시간에 실천할 名分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2. 어울림 프로그램⁶⁾의 목적과 운영 방법

2012년 11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으로서 ‘인성교육’을 제시하고 실천과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 실천을 강화하며 특히, 인성교육 5대 중점과제⁷⁾를 실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인성교육 5대 중점과제 중 ‘어울림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는 공감·소통 능력 강화를 위한 집단 상담, 감성코칭, 학생 이해 프로그램으로, 교과와 연계한 수업을 통해 학생이 공감·소통, 감정 조절, 갈등해결 등 학교폭력 예방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7년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학교 학생대상 설문 조사 결과, 학생의 공감, 의사소통, 갈등해결, 자기 존중감, 감정조절역량이 향상되는 등 학교폭력 예방역량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한다⁸⁾. 또한, 2018년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학교 대상의 사전·사후 조사결과, 의사소통, 갈등해결, 감정조절 역량, 학교폭력 허용도(학교폭력을 허용하지 않는 태도)가 향상되는 등 이전 해와 마찬가지로 학교폭력 예방역량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한다⁹⁾. 이를 통해 교과 교육과정과 어울림 프로그램을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공감, 소통, 갈등해결, 감정조절 등 학교폭력 예방역량을 함양하게 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부에서는 2013년부터 어울림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과 수업 운영을 권고하고는 있지만 어울림 프로그램 활용에 대한 교사·학생 및 학부모의 인식이 높지 않고, 학생들의 사이버폭력 및 학교폭력이 증가 추세이나 현장 교원들이 사이버폭력 예방 방법 및 교육과정 연계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¹⁰⁾이므로 2020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교육과정 연계 11차

5) 교육부 보도자료(2020.15),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발표, 7면.

6) 어울림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개발한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7)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2.12.16.), 학교폭력을 넘어 인성교육으로, 6-8면.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학생오케스트라 확대, 바른말 고운말 쓰기 실천, 밥상머리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8) 교육부 보도자료(2018.2.2.),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이렇게 하세요, 4면.

9) 교육부 보도자료(2019.1.29.), 학교폭력 예방교육! 공감과 소통의 ‘어울림 프로그램’과 함께해요, 3면.

시 내외로 어울림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업을 운영하도록 안내¹⁰⁾하였다.

「학교폭력 예방법」 시행령 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2항에 따르면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주체는 담임교사, 교과교사이다. 따라서 학교 교육계획에 어울림 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수업시수를 편성하고 교과 진도 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어울림 프로그램 수업 시간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과정 연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방법¹¹⁾에 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급별, 수준별 어울림 프로그램을 학교 특성에 맞게 선택하여 운영하되, 중·고등학교는 교과 간 협력으로 수업시수 편성이나 수업 운영 등을 유연하게 추진하고 교과연계 어울림 프로그램 활용을 권장한다.

특히, 중등학교는 교과 전문성이 강하므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관련이 높은 교과 학습내용을 어울림 역량과 연계한다. 현재 국어, 도덕, 사회교과 연계 어울림 프로그램은 개발된 상태이고 앞으로 영어, 기술·가정, 체육, 진로, 한문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교과별 성취기준 및 학습내용에 어울림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고, 어울림 프로그램을 타 수업 내용¹²⁾과 연계할 때는 해당 영역의 수업 시수를 모두 인정¹³⁾받을 수 있다.

수업 방식은 프로젝트 수업, 거꾸로 수업, 교과 간 융합수업, PBL, 토의·토론 학습 등 학생의 적극적 참여와 자기 표현력을 기를 수 있는 협력학습, 토론수업 및 체험·실습 등 학생 참여중심 수업을 권장한다. 그리고 평가는 프로젝트평가, 자기성찰평가, 동료평가 등의 비중을 높이고 학교폭력 민감성 향상 정도¹⁴⁾ 등을 다면적으로 서술하도록 한다.

1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2020.2.17.), 2020년 사이버·학교폭력 예방[어울림+어깨동무] 운영 안내, 2면.

1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2020.2.17.), 2020년 사이버·학교폭력 예방[어울림+어깨동무] 운영 안내, 3-7면.

12) 인성교육, 안전교육, 다문화 교육, 장애이해교육, 성교육(양성평등교육), 정보윤리교육, 중학교 자유학기(학년)제 등

13) 어울림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시수 인정 범위(예시)

①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폭력 예방' 영역에 '어울림·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을 연계, '사이버 중독 예방' 영역에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연계

② 중학교 자유학기(학년) '주제선택활동' 시간에 '교과연계형'·'주제선택형' 어울림·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을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활동'에 '또래활동 프로그램' 연계

③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른 인성교육 시간에 어울림·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을 연계

④ 도덕, 실과, 정보 과목 등 정보윤리교육 시간에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을 연계

14) 타인에 대한 이해 및 정서적 공감 정도, 의사소통 기술 및 타협과 설득 능력, 갈등 상황 인식 및 합리적 대처 능력, 소속감과 자신감, 정서 인식 및 부정적 정서 조절능력 향상 정도, 언어 사용 습관 정도 등

Ⅲ. 한문교과 연계 어울림 프로그램 구안

1. 한문교과 연계 어울림 프로그램

어울림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공감, 의사소통, 갈등해결, 자기존중감, 감정조절,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등 6대 역량을 중심으로 한다. 그리고 교과연계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목표는 교과 성취기준 및 어울림 프로그램 6대 역량 달성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으로의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및 학생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 밀착형 교육 실천에 있다.

연구자는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문과 성격과 목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문과는 다양한 한문 기록 자료에 담긴 내용을 익혀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갖추도록 하는 교과라 생각한다. 그리고 한문교과 역량 중 인성역량은 어울림 프로그램의 핵심역량인 6대 역량과 밀접하다. 따라서 중학교 한문교과와 연계한 어울림 프로그램은 한문교과 성취기준 ‘[9한04-01]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지혜, 사상 등을 이해하고, 현재적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 것을 내면화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를 중심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에 한문교과 연계 어울림 프로그램은 어울림 프로그램의 핵심역량인 6대 역량을 자연스럽게 함양하고 의미 있는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문 학습내용(한문 제재)을 선정하고 관련 학습활동을 학생 참여형으로 계획하여 운영한다면 공감, 의사소통, 감정조절, 자기존중감, 갈등해결,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등의 역량과 관련하여 학생 스스로의 삶을 성찰하고 실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다음은 연구자가 설계한 한문교과 연계 어울림 프로그램 구성안이다. 총 17차시로 각 프로그램은 2~4차시로 되어 있다. 교과 수업 시수가 넉넉할 경우 모두 수업에 활용해도 좋지만 각각의 차시를 일부 선택하여 수업(도입, 전개, 마무리)에 적용해도 무방하다. 또한, 학교별·학년별·학생별 특성에 따라 한문교과 역량과 어울림역량을 통합하는 프로젝트활동 수업으로 제시한다. 이 수업은 학생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목적의식을 가지고 탐구·협업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학습활동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면, 총 4차시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삼국유사의 경문왕 이야기인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원문으로 읽고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하게 한 후(1차시), ‘내가 만일 복두장이라면 왕의 비밀을 들은 후 어떻게 행동했을까?’, ‘내가 만일 왕이라면 귀가 길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했을까?’와 관련한 각자의 생각을 발표(1차시)하게 한다. 그리고 이 한문 학습제재를 바탕으로 한 프로젝트 학습활동으로 ‘배려하는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UCC 제작하기(2차시)’를 제시하여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제 선정, 제작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토의하면서 의사소통, 감정조절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어울림 역량	한문 학습내용(제재)	프로그램명	총 차시
공감	萬德, 捐千金質米陸地.<중략> 萬德, 取十之一, 以活親族, 其 餘盡輸之官. 浮黃者聞之, 集官 庭如雲.<중략> 男若女出而頌 萬德之恩, 咸以爲活我者萬德. 《번암집》	“나눔과 기부! 아름다운 장터” -감만덕의 나눔과 봉사 정신을 공감 하고 나눔과 상생의 바자회를 기획 운영하여 기부하기	4
의사소통	國之語音, 異乎中國, 與文字, 不相流通. 故愚民有所欲言, 而 終不得伸其情者多矣. 予爲此憫 然, 新制二十八字, 欲使人人易 習, 便於日用耳. 《훈민정음》	“언어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극하기” -훈민정음에 담긴 애민 정신을 알고 언어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극 을 만들어보면서 올바른 의사소통 에 대해 이해하기	4
감정조절	感謝, 平等, 正意, 容恕, 和解, 安心, 謙遜, 配慮, 尊重, 謝過, 感動, 敬聽, 讓步, 共感, 協同, 眞心, 自負心, 希望, 努力, 實 踐, 疏通, 受容, 幸福, 誠實, 責 任...	‘회복적 정의 생활교육 실천을 위한 가치카드(에듀피스)에 나온 한자 어휘의 의미 알기’ -폭력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 로 바꾸려는 태도 갖기	2
자기존중감	吾日三省吾身 《논어》 苟日新, 日日新, 又日新 《대학》	“자기 성찰 일기” -자신의 학교생활을 도덕적으로 성 찰 하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구성 하기	2
갈등해결	此島, 高麗得之於新羅, 我朝得 之於高麗. 元非日本之地, 祖宗 疆土, 不可與之. 《목오유고》	“슬기로운 갈등 해결” -독도를 둘러싼 갈등 상황에서 평화 적 해결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슬 기롭게 갈등을 해결할 방법 탐색 하기	4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見利思義, 見危授命 《논어》 見義不爲, 無勇也 《논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없애기” -주변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 유 형을 찾아보고 해결 방안 모색 하기	2

이 같은 한문교과 연계 어울림프로그램은 각 단원의 시작 부분에서 동기 유발 차원에서
도 활용 가능하고 단원 마무리 부분에서 심화학습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2. 자유학년제 한문교과 연계 동아리 활동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

자유학기(학년)제는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 속에서 자신의 꿈

과 끼를 찾고, 창의성·인성·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등 사회에서 필요한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⁵⁾ 그리고 자유학년제 운영 중학교는 1학년 1학기과 2학기를 모두 자유학기로 설정하여 총 시수의 합이 221시간 이상¹⁶⁾이 되도록 하고, 학기별 설정 영역에 대한 제한 없이¹⁷⁾ 주제 선택 활동, 예술 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탐색 활동의 4개 영역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공격성과 적대감 등 감수성이 예민해지는 중학생의 발달 시기를 고려하여 타인에 대한 친밀감과 공감력을 높이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초점을 두되, 특히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기(학년)제 취지를 살려 자유학기(학년)제 선택 활동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¹⁸⁾. 이에 연구자는 자유학년제 한문교과 연계 동아리 활동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을 구안해보고자 한다.

연구자는 한문 고전 독서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 공감, 경청, 의사소통 능력 등 어울림 6대 역량을 기를 수 있고, 고전 독서 경험과 책 출판 경험을 통해 한문 고전 독서와 글쓰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문교과 연계 동아리 활동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는데 세부 실행 계획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월	활동 내용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엔테이션- 자기소개 및 동아리 가입 동기 발표 * 동아리의 활동 소개 및 세부 일정 협의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리 단체톡 만들기 및 활용방법 안내 * 글쓰기의 부담 없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껴 쓰기, 포스트잇 글쓰기, 5분 글쓰기 활동 - 다양한 관점, 발상의 전환과 관련한 동영상을 보고 상호 의견 나누기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문 고전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고 난 느낌 나누기 - 어울림 6대 역량 관련 주제 탐색을 통해 자신이 쓰고자 하는 글 컨셉 정하기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울림 6대 역량 관련 주제 탐색 및 자료 수집 방법 소개·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레인스토밍, 원형정리법, 육하원칙 * 주제(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상호 생각 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만의 책 쓰기’ 최종 주제 정하기 - 직접 평가, 학생, 교사의 상호 평가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 쓰기 추진계획서 만들기 - 상호 검토 및 수정 * 책 쓰기 추진계획서 발표 및 상호 의견 교환

15) 교육부(2015), 2015년 8월 7일 보도자료 1면. 참조.

16) 이는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활용하여 주제 선택, 진로 탐색, 예술·체육, 동아리 활동 운영 시간을 연간 221시간 이상 확보해야 함을 의미한다.

17) 교육부(2017), 8면. 참조.

1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2020.2.17.), 2020년 사이버·학교폭력 예방[어울림+어깨동무] 운영 안내, 7면.

	- 추진계획서 발표
	- 다른 책과의 비교 검토(길잡이 책 분석표 작성)
	* 자료 수집 및 차례 생각하기
	- 자료 수집 및 정리 - 그림, 사진, 만화 등의 시각 자료 검토 - 도서관에서 다른 책의 차례 확인 - 학생저자 책 조사 및 분석 - 각종 자료의 보완
8월	* 현재까지의 개인별 책 쓰기 진행 상황 검토 및 문제점 보완
	* 책 내용 구성 및 편집 방향 정하기
	- 자료 점검 및 상호 생각 나누기
	- 책표지와 자신 소개 및 차례 결정 - 책표지 및 작가 소개 내용 정하기
9월	* '나만의 책' 소개하기
	- PPT를 활용하여 자신의 책 개요 발표 및 질문을 통한 피드백
	* 원고 1차 제출 및 수정(원고만)
	- 원고 읽고 상호 점검(모둠간 상호 검토 및 1:1 짝 검토) - 책 표지 제작 및 작가 소개글 작성 - 본문 부분 자기 점검을 통해 수정하기 - 온라인 맞춤법 사이트와 사전을 활용하여 맞춤법 점검하기
10월	* 원고 검토 및 보완(컨셉을 살리는 다양한 표현 포함)
	- 동아리 회원 간 상호 교환하여 읽고 평가하기
	- 교내 교사(최초 독자 선정)에게 원고에 대한 감상평 받은 걸 바탕으로 원고 내용 재점검하기
	- 수정 원고 점검, 시각 자료 편집 - 매 시간 원고 및 각종 자료에 대한 검토 및 수정
11월	* 최종 원고 제출 - 지도교사와 원고 최종 점검
	* 책 완성본 만들기 (학생들 글을 합본하여 책으로 출판함)
	* 제본 내용 확인 점검하기(제본하는 책의 상태를 인쇄 전에 점검)
	* ISBN 등록하기
12월	* 책 축제 준비
	* 동아리 활동 평가 및 정리

3. 한문교과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한문과 융합교육은 학생들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지성뿐만 아니라 인격까지도 고루 갖춘 인간을 양성할 수 있다. 그리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뚜렷한 목표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학습자들에게 고취시키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능동적이고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문을 제재로 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천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가치, 덕목, 규범에 대한 이해와 도덕적 기능 및 실천 능력을 심화할 수 있다. 또한, 도덕 문제에 대한 탐구 및 삶의 이야기에 대한 성찰을 통해 도덕적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배려적인 인간관계, 정의로운 공동체,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익혀 실천하는 덕성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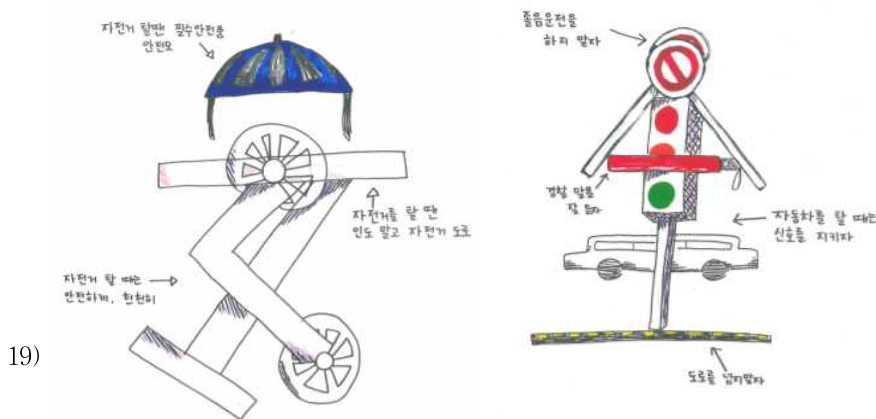
현행 교육과정 편제에 따르면 안전교육, 성교육, 양성평등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등과 같은 창의적 체험활동을 교과 수업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연구자는 한자의 3요소와 관련한 학습 활동으로 ‘문자도 만들기’를 제시하였는데 이를 창의적 체험활동 안전교육과 연계하여 ‘안전 문자도 만들기¹⁹⁾’로 변형하여 활용하였다²⁰⁾.

이처럼 한문교과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적용해 본다면, 강요에 의한 학습이 아닌 주체적으로 한문학습을 할 수 있으며 기존의 강의식 교과수업보다도 더 관심과 흥미를 갖고 수업에 참여 할 것이다. 또한 타교과목과 통합하여 학습하기 때문에 획일적이었던 교육과정을 벗어나 새로운 교육방법으로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지식을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학교교육 현장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취지에 맞게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는다. 대부분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시간에 관련 영상을 보여주고 학습지를 작성하는 활동으로 진행한다. 이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지닌 효과성을 실천 과정에서 실제로 구현하기 어려운 학교 상황 혹은 여건 때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교과별로 진행되는 학생 참여 중심의 학습활동 중 창의적 체험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선별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의 취지를 살리고 교과 학습에 대한 관심과 흥미도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찬이 필요하다.

IV. 맺으며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해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각 단위학교에서 기술·가정, 영어, 체육, 진로, 한문 등 수업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자연스럽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학생활동지 형태로 개발한 프로그램(교과연계 어울림)을 확대하기로 했다²¹⁾.



19) 공민정(2020), 자유학년제에 따른 한문과 수업 사례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85면.

21) 매일경제MBN(2020.1.15.), "축법소년 연령 하향조정 추진"...제4차 학교폭력 예방 계획,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1/47737/>

그리고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수업지도안이나 학생 활동지 같은 교육 자료를 만들어 교과 수업시간에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올해까지는 기술과 가정, 2022년까지는 영어와 체육, 2024년까지는 진로와 한문 등 교과목에 활용할 수 있는 교과연계 프로그램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²²⁾.

이를 통해서 교과와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어울림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한문교과의 성취기준과 인성역량을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교폭력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교과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행해야함을 의미한다.

학교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자존감 향상 및 배려와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여 어울림 6대 역량을 신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교육활동을 해야 한다. 이에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문교육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탐색해야 한다. 그리고 한문교육 차원에서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탐구수업 혹은 학생 체험 중심의 프로젝트 한문 수업을 실행하고 어울림 6대 역량과 같은 맥락인 인성역량을 강조하는 한문수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부 혹은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과 연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어울림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학교급별·교과별 교육과정에 적합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생활지도가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22) KBS NEWS(2020.1.15.), 교육부 “교과목에 학교폭력 예방 접목, 중대 사건 엄정 대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62588&ref=A>

고등학교에서 교실 밖 ‘한문’하기

윤세훈(상무고)

目次

1. 들어가며
2. 한문박물관과 한문의 거리
3. 다양한 교내대회 운영
4. 맺으며

1. 들어가며

아래는 2015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문 I 과목의 목표이다.

- 가. 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의 음과 뜻을 알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나.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로 이루어진 한자 어휘를 익혀 언어생활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 다.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 라. 다양한 유형의 한문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심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마.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며,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
- 바.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표1> 고등학교 한문 I 목표

위 내용은 모두 교실 내 한문 수업으로 이룰 수 있는, 이루어야 하는 목표이긴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바로 충분하지 않은 단위수이다. 두꺼운 교과서는 고등학교 3년 내 모두 배운다는 전제로 구성된 분량이지만, 실제 가능하기엔 한문교과에 배당된 단위수는 개별 학교마다 부족하다.

예를 들어 교과서에 나오는 소단원 구성에 따라 교실 수업을 지도한다고 하자. 그러면 단계는 이러하다. 새로배울한자를 익히고(가), 본문을 학습하며(다,마,바), 심화된 내용에 대해 학생들과 토의·토론하는 시간을 갖고(라), 별도 본문과 관련한 일상 한자 어휘를 학습하며(나), 형성평가로 마무리한다. 한문 I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이러한 과정을 진행한다면 과연 몇 차시의 시간이 필요할까? 또한 보통 교과서에 나오는 소단원은 대략 25~30과 정도 되는데, 이를 모두 배우기 위해선 얼마의 단위수가 필요할까?

2015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이 교육과정 재구성에 있고, 이에 따라 교과서의 내용 중 일부

만 재구성해서 지도하더라도, 교과 목표에 따른 지도를 하기 위해선 소단원별로 5~6차시의 수업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교과에 배당한 부족한 단위수가 발목을 잡는다. 고등학교에서는 한문은 교양교과군에 속해, 전체 16단위 중 학교 현실상 2~4단위를 운영한다. 최대 4단위를 확보하더라도 총 68시간의 시수인데, 소단원별을 6차시로 지도해도 대략 11~12과 정도밖에 지도할 수 없다. 충분한 학습 지도가 이루어지기에 한계가 있다.

교과서의 내용을 모두 배울 수 없더라도 최소한 한문과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데, 교실 수업의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고민한 것이 한문 수업을 꼭 교실에서만 소화할 것이 아니라 교실 밖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고등학교 한문 I 은 13종(2015개정 기준)이나 되고, 다양한 소재가 존재한다. 한문은 하나의 교과서만 선택해서 배우는 내용이 전부 아닐뿐더러, 문학, 역사, 철학적인 글이 소재가 되기에 타교과와의 연계성도 짙다. 과거에는 도구교과로서의 성격으로 활용되기도 했고, 전통문화를 담고 있는 학문으로도 인지되고 있다. 이러한 교과적 성격을 활용하여 정해진 시간이 있는 교실 수업이 아닌 외적으로 한문을 알리고, 공부할 수 있는 교실 밖 한문교과 학습활동을 개발하는 것이, 부족한 한문 시수 단위수에 대한 갈증을 나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고등학교라는 입시교육위주의 체제에서는 한문의 위상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입시과목으로서 인지되지 않고,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선택과목으로 제2외국어/한문과목이 있지만, 대학에서 이를 학생 선발에 반영하는 사례도 적은 편이다. 당연히 학생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현실이다. 더불어 중학교에서는 선택과목의 시수 부족과 다른 선택과목과의 시수 경쟁으로 교사수가 급감하고 있다. 중학교 때 한문을 배우지 않은 학생이 고등학교 와서 한문을 처음 배우기도 한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한문 I 의 학습 내용이 얼마나 공감이가겠는가?

그래서 본인은, 중학교에서 한문을 ‘배우지 않는’ 학생들이 많고, 또한 한문을 평소 ‘볼 일이 없는’ 학생들의 현실을 보면서, ‘배우게 하고’, ‘볼 일이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교실 수업의 개선에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중이지만, 교실 밖에서의 학습활동도 개발하여 이를 적용하는 고민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대한 실천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 한문박물관과 한문의 거리

가. 한문박물관

이름이 한자로 되어 있어도 쓰지 않는 현실이지만, 그나마 한문을 만나 볼 수 있는 경우는 옛 사람이 만든 전통문화유산을 만났을 때이다. 도시 외곽에 있는 사찰이나 서원을 가거나, 또는 유물박물관을 가야만 한문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옛 사람의 전통 문화유산인 고서(古書)를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연히 경기도의 한 중학교 과학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내신 ‘미니과학관 프로젝트’를 알게 되었다. 교무실 앞에다 학생용 책상을 하나 놔두고 매달 과학 실험 도구 및 전시물을 책상에 두고 만든 미니과학관을 통해 학생 참여가 가능한 학습 공간으로 구성하였다.¹⁾ 이것을 참고하여, 실제로 한문을 상시로 전시하는 공간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보이면 익숙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학교 안에 ‘미니박물관’을 기획하게 되었다.

1) 김정식 허명성의 과학사랑 홈페이지(<https://sciencelove.com/2344>)에 나오는 ‘미니과학관’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미니박물관은 2019년 4월부터 매달 1권씩 옛 책을 소개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격몽요결>을 시작으로, <중용>, <논어>, <맹자>, <도덕경>, <명심보감> 등 옛 사람의 실제 고서(古書)나, <교지>, <대동여지전도> 같은 책이 아닌 소재도 전시했다. 책상 두 개를 마련해서 한 책상에는 고서를 놓고 다른 책상에는 방명록과 필기구, 돋보기 등을 놓은 뒤, 벽에는 고서에 대한 안내 전시물을 게재했다. 상시 전시와 학생들의 이목을 끌 수 있게 복도에 전시해 놓고 가볍게 쉬는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했다.

박물관 유리벽에서만 마주했던 실제 옛 책을 보는 학생들은 신기해했다. 흰 종이책이 아닌 누런 화선지의 낡은 책을 만져보는 감촉은 남다르다는 평이다. 책의 내용은 안내한 전시물에서밖에는 알 수 없어 하지만 직접 옛 책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색다른 경험을 주는 것이라 본다. 같이 놓아둔 돋보기로 확대해서 보기도 했다. 그리고 고서 옆에는 방명록을 두어 간단한 소감을 적게 하기도 했다.

전시할 책의 선택은 되도록 유명하거나 익숙한 이름의 책으로 한다. 전문적인 책은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2020년 올해 처음 전시할 것은 <천자문>이다. 그리고 앞으로 <조선왕조실록>, <난중일기>, <죽보> 등을 기획 중이다.



<그림1> 미니박물관 구성도

방명록 명초 목록			
이름	학년반	소감	비고
이정민	2345	책이 굉장히 낡아서...	
이정민	2345	책이 굉장히 낡아서...	
이정민	2345	책이 굉장히 낡아서...	
이정민	2345	책이 굉장히 낡아서...	
이정민	2345	책이 굉장히 낡아서...	
이정민	2345	책이 굉장히 낡아서...	
이정민	2345	책이 굉장히 낡아서...	
이정민	2345	책이 굉장히 낡아서...	
이정민	2345	책이 굉장히 낡아서...	
이정민	2345	책이 굉장히 낡아서...	

<그림2> 미니박물관 방명록



<그림3,4> 미니박물관을 관람하는 학생들



① 과학실(지구 내부) 모형 전시 ② 암석 및 화석 관찰 세트 전시 ③ 학생들의 인기 만점!

<표2> 경기도 00중학교 미니과학관 전시 형태



<그림5,6,7> 미니박물관 전시 안내물

옛 책을 구하는 방법은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책이나,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구입했다. 유명한 책은 그래도 재고가 있는 편이라 비싸지 않은 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다. 물론 이것도 부담이긴 하지만 매달 책을 바꿔가며 전시하는 재미가 있다. 그렇다고 무한정 구입하기에는 어려우니, 목록을 만들고 대략 3년을 주기로 돌아가며 전시하는 것도 좋을 듯 하다. 본인은 주로 아래 사이트들을 이용했다.

코베이옥션	http://www.kobay.co.kr	★★★★	통문관	http://www.tongmunkwan.co.kr	★★★☆☆
금요고서방	https://www.kumyo.co.kr	★★★★	남문서점	http://www.ibuybook.co.kr	★★★☆☆
옛날물건	https://www.yetnal.co.kr	★★★☆☆	북아일랜드	http://www.bookisland.co.kr	★★★★☆

<표3> 교서적 구매 사이트 목록

중요한 것은 홍보이다. 학생과 교사에게 한문에 대한 인식 제고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본인은 주로 1학년을 수업하기 때문에 홍보에 신경을 써야했다. 학교홈페이지나 학교 문자메시지 전송 등으로 학생들에게 매달 전시를 할 때마다 홍보를 하고 있다. 또한 타교과 교사에게도 학교 메신저로 박물관을 안내하고 있다. 타교과 교사에게 관심을 유도하고, 학생들과 같이 전시된 고서를 보게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더불어 도덕(윤리) 교과 교사와 협의를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습 내용과 관련한 고서를 전시하여 학습의 연계성을 갖도록 하고 홍보를 부탁하기도 했다. 실제로 도덕 교과 교사는 정기고사에 고서와 관련한 내용을 시험 문제로 출제하기도 했다.

단지 책만 전시하는 것보다 참여를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전시와 더불어 이벤트를 같이 안내해서 참여할 기회를 같이 만들고 있다. 간단하고 부담없는 이벤트로 참여를 통해 추첨으로 간단한 시상(간식이나 상품)을 하기도 한다.

<중용> : 한자 ‘中庸’을 외워서 교사 앞에서 직접 써보기
<도덕경> : ‘上善若水’에서 ‘水’를 다른 한자로 바꾸어 최고의 선을 표현하기
<논어> : ‘君君臣臣父父子子’를 다른 한자로 바꾸어 정명론을 표현하기
<맹자> : ‘君子三樂’을 응용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인생에서의 세 가지 즐거움 작성하기
<교지> : <교지>에 나오는 ‘司憲府’를 한글로 써보기
<대동여지전도> : 제시한 <대동여지전도>에 나오는 지역을 직접 찾아 손으로 짚은 사진을 교사에게

전송하기

<격몽요결> : 책에 나오는 일부 문구를 교사 앞에서 읽기

<천자문> : ‘天地玄黃’을 응용하여 ‘하늘은00 땅은00’으로 00을 다른 한자로 바꾸기

<표4> 미니박물관 이벤트 문제 목록

미니박물관 전시는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한, 매달 운영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도가 독특했는지,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잡지인 ‘행복한 교육’에서, 명예 기자에게 연락이 와서 인터뷰를 요청하기도 했다.²⁾ 나를 색다른 모습을 안내하고도 싶고, 자부심이 있어 성실히 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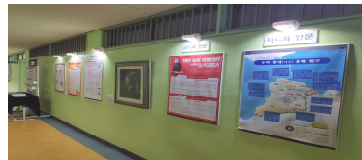
학교에서도 박물관에 공감을 얻어 예산 지원도 하고 있어, 미니박물관은 구성 형태나 방식을 조금씩 변화를 주고자 노력 중이다. 이러한 과정이 한문에 대한 인식 변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랄 뿐이다.

나. 한문의 거리

우리의 오랜 기록문화인 한문은 옛 사람의 오랜 기간 동안 역사의 문화들을 기록으로 담아왔고 고스란히 현재에 남아 있다. 국어, 수학, 과학 등의 교과 용어도 한자어휘가 많고, 우리의 땅이름도 한문의 문화적 요소로 유래한 것이 태반이며, 생활 곳곳에 우리말에 가려져 있는 수많은 한문이 있다. 그래서 한문 박물관과 더불어 본인이 근무하는 공간 사이에 비어있는 벽면을 전시물로 채워보았다. 전시물의 내용은 지리, 과학, 국어, 생활 속에 있는 한문과 관련한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를 ‘한문의 거리’로 명명하고 기획하였다.

가볍게 본다면, 비어있는 공간에 한문과 관련한 전시물을 벽에 부착해 한문박물관까지 자연스럽게 전시공간으로 연속해서 활용해보고자 했다. 물론 구경하는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평소 어려운 한문과 관련한 내용으로만 전시하면 반짝효과는 있지만 딱히 관심이 유지될 것 같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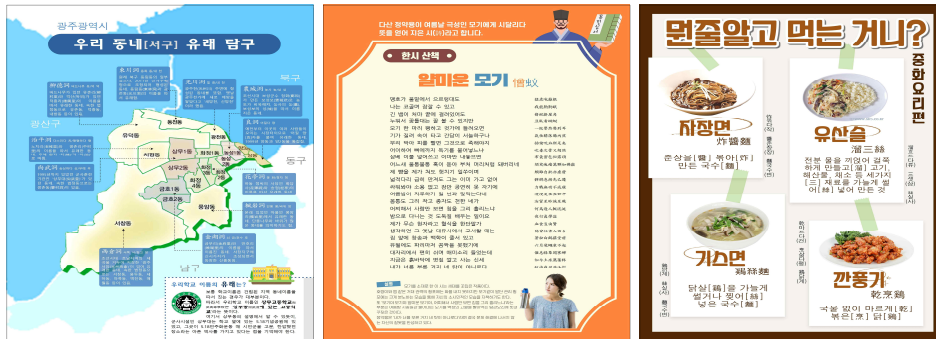
그래서 한문과 관련한 타교과와의 융합 주제로 내용을 구성하고 전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지리와 한문의 융합주제로 <우리학교가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의 동네이름 한자 풀이>, 과학(구체적으로 생명과학)과 한문의 융합주제로 <삼국사기 술거열전에서 살펴본 새의 시력>. 국어와 한문 융합 주제인 <국어에서 유래한, 한자에서 유래한 말>, 가정과 한문 융합 주제인 <중화요리 한자 이름 풀이> 등이다. 물론 융합 주제 말고도 한시(漢詩)도 전시했다. 다양한 주제로 이목을 끌고자 한다. 주제와 내용은 2~3개월을 주기로 변화를 주는 것을 고민 중이다.



<그림8,9> 한문의 거리 전경

- 2) 아래는 교육부 잡지인 ‘행복한교육’에서 미니박물관과 관련한 인터뷰 사이트이다.
‘상무고 한문 거리 고서전시, 고서에서 선인들의 지혜 배워’

http://happyedu.moe.go.kr/happy/bbs/selectBoardArticleInfo.do?nttId=10891&bbsId=BBSMSTR_000000000
231



<그림10,11,12> 한문의 거리 전시물

3. 다양한 교내대회 운영

요즘 학생들은 언어이해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한다. 실제로 대화를 나눠보면 말이 논리적 해설보다는 단답형 형태의 근거만 제시하는 식이다. 또한 세련된 어휘의 구사도 적은 편이다. 아마도 시각 위주의 미디어 정보에 익숙하고, 독서를 외면하는 풍조에 기인한 것이라 본다. 독서를 외면하다보면 지식이 풍부하지 않고, 어휘력이 부족하여 말의 표현력이 떨어진다. 이진 비단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포털사이트에 간혹 검색어 1위로 ‘○○ 뜻’이라는 것이 뜨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어휘라도 개념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꼭 10월 3일 개천절이 오면 포털사이트 검색어에는 변함없이 ‘개천절 뜻’이 검색어 상위권에 뜬다.

이것은 표의문자인 한자를 표음문자인 한글로 표기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이다. 한글은 글자 자체에 뜻이 없으니 본래 한자 어휘인 용어를 글자만으로 이해하기란 어렵다. 학생들이 이에 대한 공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어휘력의 부족은 학업 역량에 영향을 준다. 특히 각 교과별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는 대다수가 학문적 용어인 한자 어휘이다. 학생들은 용어 이해의 부족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어휘력은 자주 글을 읽고 그 의미를 따져보려는 습관에서 향상된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어휘력을 높이는 것을 학생 개인의 책무로 취급한다. 한자 어휘로 된 교과서 용어를 각 교과 선생님들은 지도하기 부담스러워 한다.

어떻게 보면 한문 교사로서 한자 어휘의 지도는 계륜(雞肋)처럼 여겨진다. 전통 한문학습의 영역으로 포함하기를 꺼려하지만, 도구교과서로서의 역할과 타 교과와의 연계, 학생들에게 외면 받지 않는 과목으로 인식을 주기 위해서라도 한자 어휘 지도를 외면하면 안 된다고 본다. 수능 국어영역에도 한자 어휘 문항이 출제되지만, 국어 교사는 한자 어휘의 의미를 세밀하게 지도하지는 않는다. 한자 어휘의 지도는 한문 교과의 필요성을 공감시키는 기회일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교내대회를 유치하여 한문 교과의 공감대를 넓히고자 했다. 여러 교과의 한자 어휘 실력을 겨루는 교내 대회와, 한문 관련 도서를 읽고 좋은 서평을 작성해보는 대회 운영을 시도하였다.

가. 교과 한자어휘 겨루기



<그림13,14> 교과한자어휘겨루기 대회 홍보 포스터

증을 받아보았다. 대회의 취지를 설명해서 교과 한자어휘 대회를 진행하겠다고 하니 교과 선생님들이 흔쾌히 도와주셨다.

이러한 준비를 꾸준히 해나가면서, 학생들에게는 학기 시작 때 대회 개최 포스터를 게재했다.³⁾ 참여 가능 대상은 고등학교 재학생 1~3학년 전체이고, 대회는 반드시 1학기에 치르는 것으로 정했다.⁴⁾

더불어 이 대회는 다른 고등학교(수원고등학교)와 연계했다. 우리 지역 교과모임에 속한 고등학교 재직 교사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대회를 진행하였다. 앞으로 확장성과 공신력을 갖춘 대회로 성장시키고자 함이다. 그리고 해당 교사와 대회 평가문제도 같이 출제하고 검토하였다.

교과 한자어휘 겨루기는 교과별로 해당하는 어휘(학습용어)를 소재로 지필평가식으로 진행하는 경시대회이다. 교과 선정은 한자 어휘가 대체로 많은 ‘국어, 사회, 역사, 과학’ 4개로 정했다. 해당 교과의 어휘를 선정하기 위해 예전에 전국한문교사모임에서 발간한 ‘한자를 알면 수능이 보인다’ 시리즈(4권)에서 한자 어휘를 교과별로 150단어 정도를 발췌하였고, 또한 각 교과 선생님들에게 어휘 빈도 및 중요도 검

- 3) 2019년부터 매년 한 번씩 진행하기로 정하고, 2019년에는 3월부터 홍보하였다. 2020년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등교개학이 늦어져 5월말에서야 홍보가 진행되었다.
- 4) 대회를 되도록 1학기에 진행하는 것으로 정한 이유는, 3학년의 경우 1학기까지 학생부 기록이 대입전형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 안에 교내상 시상 기회를 가지도록 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교과한자어휘겨루기 대회 운영 계획

I. 운영 목적

1. 기초한자의 形·音·義를 알고 언어 학습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한자로 이루어진 교과용어의 의미를 한자의 뜻과 연관 지어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3. 교과·계열별 어휘 겨루기로, 대학 진학에 필요한 학업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II. 운영 구성

1. 운영 근거 : 「○○○○학년도 상무고등학교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
2. 운영 추진
 - 가. 일시 : ○○○○년 ○월 ○일 ○요일, ○교시(50분 시험)
 - 나. 장소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다. 대상 : 1~3학년 재학생(희망자), 대회 신청 시 계열 <택1>.
 - 라. 선택 계열 : 국어 / 사회 / 과학 / 역사 계열
 - 마. 범위

계열	국어	사회	과학	역사	비고
내용	국어 교과어휘	지리/일반사회 교과어휘	물리/생명과학/ 화학/지구과학 교과어휘	한국사 교과어휘	*한자는 각 계열별 교과어휘(단어)에 속 하는 것으로만 제시 함.
어휘 수	150단어	120단어	145단어	130단어	
한자 수	251자	291자	248자	285자	

- 바. 출제 형식 : 지필평가형(객관식 및 주관식 총 40문항)
 - 1) 한자의 음과 뜻(10문항)
 - 2) 교과별 한자 어휘(30문항)
4. 평가 및 시상
 - 가. 평가
 - 1) 제한된 시간 내에 학생이 제출한 답안의 정답 총점을 기준으로 시상함.
 - 2) 수상인원 내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후보 학생들만으로 2차 대회를 실시하여 수상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나. 시상
 - 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내 교내상 운영 방침에 근거하여, 금, 은, 동상, 장려상 수상자를 포함하여 전체 참가인원의 20% 안팎 범위에서 시상함.
 - 2) 계열별 참가인원의 수에 따라 시상 내역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계열별로 4~5명 이상 신청(참가)해야 시상이 이루어질 수 있음.

<표5> 교과한자어휘겨루기 대회 요강

한자 어휘 겨루기 (과학 계열 145단어) 물리/생명과학/화학/지구과학별 순

물리		
1	가설(假說)	임시로[假] 정한 이론[說]
2	가속도(加速度)	단위 시간 동안 속도의[速度] 증가 값[加]
3	가시광선(可視光線)	눈으로 볼 수 있는[可視] 광선[光線]
4	간섭(干涉)	파동끼리 겹쳐짐[干涉]. 2개 이상의 파동이 한 점에서 만날 때, 그 점에서 파가 서로 상쇄되거나 보강되는 현상.
5	검증(檢證)	검사하여[檢] 증명함[證]
6	공명(共振)	외부 음파와 함께[共] 같은 진동수로 울림[鳴]. 물체가 진동할 때 그 물체의 고유 진동수와 같은 진동수를 가진 외력이 주기적으로 주어지면 진폭이 계속 증가하는 현상.
7	관성(慣性)	그대로 유지하려는[慣] 성질[性]

<그림 15> 교과한자어휘겨루기 대회 학습단어(과학) 인쇄물 일부

한자 어휘 겨루기 (역사 계열 130단어) 역사흐름 순

1	선사시대(先史時代)	문자로 기록된 역사 자료가 없던 역사[史] 이전의[先] 시대[時代]
2	선민사상(選民思想)	자신의 부족은 하늘로부터 뽑힌[選] 백성이라는[民] 사상[思想]
3	제정일치(祭政一致)	종교와[祭] 정치가[政] 분리되지 않고 일치함[一致]
4	홍익인간(弘益人間)	널리[弘] 인간을[人間] 이롭게[益] 함
5	사출도(四出道)	넷으로[四] 나뉘 내보내[出] 다스리는 지역[道]. 부여의 지역통치방식
6	순장(殉葬)	다른 사람도 따라 죽여[殉] 묻는 장례 방식[葬]
7	족외혼(族外婚)	같은 부족이[族] 아닌 다른 부족의[外] 사람과 결혼하는[婚] 풍습
8	과하마(果下馬)	사람을 태우고 과실나무[果] 밑으로[下]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말[馬]. 키가 몹시 작은 말로, 고구려와 동예에서 났다고 함.
9	책화(責禍)	지는 죄에[禍]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함[責]. 동예의 정책
10	천도(遷都)	도읍(서울)을[都] 옮김[遷]

<그림16> 교과한자어휘겨루기 대회 학습단어(역사) 인쇄물 일부

시상은 교과 계열별로 하였다. 대회의 목적은 학생들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 전공학과와의 연계성을 갖고 학업역량을 키워주는 것이기에,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에는 ‘교과한자어휘겨루기(국어계열) 금상’ 식으로 기재되게 했다.



<그림17,18> 대회를 진행하는 모습(상무교).



<그림19,20> 같은 시각, 대회를 진행한 타학교 모습(수완고)

아래는 대회에 활용된 평가 문항지(역사)이다.

제1회 교과 漢字 어휘 겨루기			상무고등학교
실시일	계열	응시번호	()학년 ()반 ()번 이름: _____
2019. 5. 29.(수)	역사계열		

※ 문제를 잘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총 40문항으로, 객관식, 주관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점은 모두 2.5점씩입니다(100점 만점).
 참고로 제공한 자료에 있는 내용만 답으로 인정합니다.
 답은 문제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쓰고, 답 수정 시 두 줄 곳고 옆 공간에 답을 써주세요.
 정확하게 바르게 쓰지 않은 답은 오답 처리 합니다.

1. 한자들의 음으로 올바른 것은?

館 博 殿

① 감, 막, 진 ② 관, 박, 전 ③ 성, 부, 전
 ④ 과, 작, 언 ⑤ 광, 박, 궁

2. 한자들의 뜻으로 올바른 것은?

邑 稼

① 문, 논의하다 ② 관청, 뽑다 ③ 격식, 보다
 ④ 마을, 봉급 ⑤ 시골, 예절

3. 한자들의 공통점으로 바른 것은?

敎 理 崇

① 음이 같다. ② 뜻이 같다. ③ 획수가 같다.
 ④ 부수가 같다. ⑤ 모두 행동사이다.

4.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한자는?

- 종획은 統과 같다.
- 음은 徒와/과 같다.
- 이 글자 뒤에 '房'을 결합하면 '우두머리를 지켜 주는 사람'의 속조라는 뜻이 된다.

① 度 ② 島 ③ 都
 ④ 道 ⑤ 贅

5.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한자는?

- 理問□ : 죄를 다스리고 묻는 기관.
- 留鄉□ : 각 마을에 설치한 저지 기구.

① 所 ② 生 ③ 出
 ④ 用 ⑤ 方

6. 어휘의 음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殉葬 : 순장 ② 敎宗 : 교종 ③ 賜藥 : 유약
 ④ 經筵 : 경연 ⑤ 當百錢 : 당백전

7. 어휘 중 뜻이 올바른 것은?

① 責禍 : 최고의 감독기관.
 ② 勳舊 : 선비들이 귀은 재앙.
 ③ 中樞院 : 군사 담당 최고기관.
 ④ 釋宗 : 참선을 강조한 불교 종파.
 ⑤ 科田 : 생활 능력이 없는 이에게 준 토지.

8. ㉠에 해당하는 어휘는?

① 海東 ② 年號
 ③ 遷都 ④ 先道
 ⑤ 天豪

9. 다음 내용을 모두 포함한 어휘는?

-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진 토지
- 고려 태조 때 공로를 세운 관료 및 일부 군사들에게 준 토지.

① 貢納 ② 口分田 ③ 役分田
 ④ 職田法 ⑤ 養賢庫

10. 다음 한자 카드로 만들 수 있는 어휘의 의미와 관계 있는 것은?

① 권세 있는 집안.
 ② 모든 땅은 왕의 것이어야 함.
 ③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해야 함.
 ④ 실질적인 것에서 율음을 구함.
 ⑤ 깨들은 뒤에도 꾸준히 수행해야 함.

(앞 장)

<그림21> 교과한자어휘거루기 대회 평가지(역사) 앞장

※ 밑줄 친 부분의 뜻을 한글로 쓰시오. [11~15]

〈보기〉

족이혼(族外婚)
부
족

11. 화랑도(花郎徒)

12. 경전(丁田)

13. 시적(秭秭)

14. 호패(號牌)

15. 만인소(萬人疏)

※ 한자의 뜻을 넣어 ()에 알맞은 풀이를 적으시오. [16~25]

〈보기〉

新民會(신민회) : (새로운) 백성이 되자는 (모임)

16. 祭政一致(제정일치) : 종교와 ()가 분리되지 않고 일치함.

17. 骨品制度(골품제도) : 출신성분에 따라 골과 ()으로 등급을 나누는 제도

18. 讀書三品科(독서삼품과) : 독서를 통하여 세 품으로 나누는 ()

19. 從母法(종모법) : 태어나면서부터 ()의 신분을 따르는 법

20. 紅巾賊(홍건적) : 붉은 ()을 두른 도적

21. 易姓革命(역성혁명) : ()을 바꾸고 천명을 새롭게 함.

22. 空名帖(공명첩) : ()란을 비워 놓은 임명장.

23. 禁亂廬權(금난전권) : ()을 금지하는 권리

24. 俄館播遷(아관파천) : () 공사관으로 도망하여 몸을 옮김.

25. 板屋船(판옥선) : 갑판 위에 ()이 있는 배

※ 밑줄 친 한자를 한자 어휘에 맞게 바르게 고쳐쓰시오. [26~30]

26. 문자로 기록된 역사 자료가 없던 역사[史] 이전의 [先] 시대[時代] → ()

27. 넷으로[四] 나뉜 내보내[出] 다스리는 지역[圖] → ()

28. 화합하어[稿] 모두가[白] 하나가 되는 회의[會議] → ()

29. 노략질하는[初] 도둑을 잡기 위해 따로[別] 설치한 세[三] 부대 → ()

30. 위화도에서[威化島] 군사를[軍] 돌림[會] → ()

※ 제시한 한자 어휘를 보기와 같이 작성하십시오. [31~35]
(직역으로 써서 맞으면 2.5점, 설명식으로 써서 맞으면 1점.)

〈보기〉

삼사(三司) : 세[三] 관청[司]

31. 대동법(大同法) : _____

32. 진대법(賑貸法) : _____

33. 유학(儒學) : _____

34. 승정원(承政院) : _____

35. 신문고(申聞鼓) : _____

※ 한자 어휘의 풀이에 알맞은 한자를 ()안에 한자로 바르게 쓰시오. [36~40]
(한자로 써서 맞으면 2.5점, 한글로 써서 맞으면 1점.)

〈보기〉

언전 지어 죄를 씌우는 법 → (連坐法)

36. 변두리에 있는 나라의 침입에 대비하는 관청 → ()

37. 국가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함. → ()

38. 명나라와는 친하고 금나라와는 등지자는 정책의 외교 → ()

39. 부유하고 신분이 높은 무리 → ()

40.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 ()

〈수고하셨습니다〉

(뒷 장)

<그림22> 교과한자어휘거르기 대회 평가지(역사) 뒷장

나머지 교과(국어, 사회, 과학)도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하였다. 어휘 문항은 조금씩 변화를 줄 예정이다. 되도록 어휘력에 초점을 두어 문항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겠다.

보통 한문으로 교내대회를 연다면 ‘한자’나 ‘성어’ 위주로 출제하겠지만, 이 대회는 학생들에게 직접 와 닿는 교과 한자 어휘를 주제로 운영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문항에 대한 문제점도 보완하고, 함께 대회를 진행할 다른 고등학교도 늘려가고자 한다. 최종 목적은 학생들의 한문에 대한 관심도 증폭이다.

나. 한문 고전 읽기 한마당

독서의 생활화는 어휘력 증강의 방법이 된다. ‘한 학기 한 권 읽기’라는 독서교육 방식에 동참하여, 수행평가로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지도하였다. 수행평가는 ‘한문도서 서평쓰기’를 주제로, 도서는 한문과 관련한 고전이나 내용학 중심으로 하여, 학생 수준에 맞추어 선정하여, 학교 도서관을 통해서 구입하였다. 수행평가는 모둠끼리 같은 책을 함께 읽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기에, 도서 당 4권 정도씩 구입하도록 하고 최종 30종까지 선정·신청하

고등학교에서 교실 밖 ‘한문’하기 (윤세훈) 129

였다.

1	박지원의 한문소설	16	옛 공부벌레들의 좌우명
2	금오신화	17	맹랑 언니의 명랑 고전 탐닉
3	공자, 지하철을 타다	18	청소년을 위한 토닥토닥 명언노트
4	고전문학스쿨	19	나를 찾아가는 길
5	조선풍속사	20	이덕무의 열상방언
6	한자는 즐겁다	21	한자에서 국어의 神난다
7	정민선생님이 들려주는 고전독서법	22	정민선생님이 들려주는 한시이야기
8	계축일기	23	10대에게 권하는 문자이야기
9	발해고	24	열일곱살에 읽는 맹자
10	해서암행일기	25	고1 책상 위에 동양고전
11	인현왕후전	26	책만 보는 바보
12	동도일사	27	송내관의 재미있는 궁궐 기행
13	삼국유사 이야기	28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
14	책중일록	29	한중록: 누가 사도세자를 죽였는가
15	조선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30	청소년을 위한 사기

<표6> 한문 도서 목록

대회는 역시 어휘겨루기처럼 1년에 1번만 진행하였다. 대회 방식은 우선 수행평가로 ‘서평쓰기’로 진행하며, 6차시 정도 수업 시간에 책 읽기를 하고, 매 시간 독서일지 작성하며, 7차시에 수업 시간 중 서평쓰기를 한다. 그 중 반별로 우수작만 뽑아(평가 A를 받은 학생) 해당학생에게 내용 수정을 권고한 후 최종 제출을 받은 뒤, 다시 그 중에서 전체 학생 대비 20% 인원 정도 시상하는 식이다.

‘서평쓰기’ 방식에 대해서는 수업 중 언급했고, 실제 채점 기준이 고민인데, 세부적인 나름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하여 우수작을 선정하였다.

- | | | |
|--|--------------------------|------------------|
| 1. 제목과 내용의 일치 여부 | 2. (비)속어 사용 | 3. 맞춤법(+띄어쓰기) 사용 |
| 4. 내용의 전개 상 논리의 비약 | 5. 자신의 생각 부분 분량 | 6. 전체 분량(조건의 따른) |
| 7. 한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의 일치 | 8. 문장의 마무리(~한다. ~합니다 혼용) | |
| 9. 문장의 길이 | 10. 군더더기(중복) 표현 | 11. 알아볼 수 없는 글씨체 |
| 12. 한문과 관련한 내용 포함 여부(추가점) | 13. 의도적인 빈 공간 | 14. 줄거리 위주의 서술 |
| 15. 작성한 문장의 이해 여부 | 16. 불필요 작성 여부 | |
| 17. 책이 주는 효과(의도적 혜택) 언급 자체 - 점수를 얻는다, 세특에 들어간다 등 | | |

<표7> 서평쓰기 채점 시 살펴볼 점

아래는 한문 고전 읽기한마당 대회 요강이다.

한문고전 읽기 한마당 대회 운영 계획

I. 운영 목적

1. 한문 고전을 소재로 독서활동을 통해 전통문화와 선인들의 지혜를 이해한다.
2. 학생이 교사가 권장한 고전 목록에서 직접 선정하고, 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함께 같은 고전을 읽고 토의하는 문화를 정착한다.
3. 읽기 후 독서활동에 대한 서평을 쓰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평가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II. 운영 구성

1. 운영 근거 : 「○○○○학년도 상무고등학교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
2. 운영 추진
 - 가. 학기별로 한문과 수행평가 영역 항목인 <서평 쓰기> 제출 작품을 재심사하여 등위 결정.
 - 나. 일시 : 9~10월 중 실시
 - 다. 대상 : 1학년 재학생(한문수업 학생 대상)
 - 라. 범위 : 한문 수업 시간에 제공하는 한문 고전 도서 택1
 - 마. 평가 및 시상
 - 1) 평가 영역

평가 영역	평가 기준	배점	합계
① 도서 이해력	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20	100
② 한문적 사고력	한문 관련 용어의 개념과 내용을 오류 없이 제시하고 있는가?	20	
③ 비판적 사고력	책의 내용을 그대로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서술했는가?	20	
④ 표현 능력	글의 전개 방식과 전달하려는 의미가 정확하고 명료하게 표현되었는가?	20	
	맞춤법과 띄어쓰기, 문장호응은 적절한가?	20	
총 점			100

- 2) 시상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내 교내상 운영 방침에 근거하여, 금, 은, 동상, 장려상 수상자를 포함하여, 1학년 전체 학생 수의 20% 안팎 범위에서 시상함.

<표8> 한문고전 읽기 한마당 대회 요강



<그림23,24,25> 한문 고전 읽기 한마당을 위한 고전 읽기 활동



아래는 독서일지와 서평쓰기 우수작 사례이다. 여러 차시동안 읽고 정리한 독서일지를 토대로 학생들은 각자 서평을 작성한다. 동료와 함께 책을 읽고 나눈 정보와 지식으로 좋은 서평을 만들어가는 집단 지성의 효과를 느낄 수 있다.

한 학기 한 권 읽기 [한문] 1학년 (2)반 (4)번 이름 (이바나) 상무고등학교

독서일지 (5 회)

책을 읽으면서 인상적인 문장과 그 이유, 그리고 읽으면서 궁금했거나 이해가 안 된 내용, 또한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을 자유롭게 써봅시다. 그리고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 모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눈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읽은 날짜	책 제목	저자	읽은 쪽수
2019. 5. 28. 2 교시	반지인의 탄문소설	김수업	(98) ~ (131) 쪽
인상적인 문장과 그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등 가족이 엄벌에 걸려 죽었다고 말해 주게 ↳ 독재자로 바뀌고 배변장터라 캄캄하 노니 크나나다. • 허생은 근엄하는 인신도 많이 가 버렸다 ↳ 여기서 허생의 의지와 당당함이 가장 잘 나타난 문장이니. • 이제 나의 조그만 시험이 끝났구나 ↳ 이런 큰 분노 란지만 조그만 시험이라곤 표현은 되어 정복은 죽었으니. 		
읽으면서 궁금한 점 (또는 이해가 안 되는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왜 먹판 반쯤은 돈 주머니 리게 되었을까? • 이토록 대강더 허생같은 놈이 갖는게 왜 허생을 일으키나? • 중독병이 정말 영니리의 종말인가? 		
새롭게 알게 된 내용 또는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옛날에는 사랑과 사랑사이의 밀려 강행하는것 몰랐다 • 허생의 큰 그릇을 너무 절절한 리어 그이 현명함 잘 알게되었다 • 다른 나라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중이 될 수 있다는 것 알았다 		
(모둠)친구와 대화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승준: 6월 방이 현재로써로 얼마까지 공부한다, • 이연서: 낭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유래되었을까? • 박경리: 노인이니 어떤 왜 현명에서 신색으로 바뀌었나? 		

<그림26> 수행평가 '서평쓰기' 관련 독서일지(사례)

2

"그만 두시오! 장차 나더러 도적놈이 되라는 말입니까?"

- 박지원의 한문소설을 읽고 -

3946

최승준(10225)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원의 한문소설 서평을 쓰게 된 최승준입니다.~~

이 책은 5-6개의 굵직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박지원이 쓴 소설들을 재미있게 풀어내어 정리한 책입니다. 저는 이 6개의 이야기 중 '양반전'이라는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반전은 곡식을 갖지 못해 곤경에 처한 몰락한 양반의 신분을 부자 평민이 사려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양반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이야기들 중 인지도도 제일 높고 무엇보다 지금부터 제가 하려고 하는 말과 가장 잘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저는 다른 이야기보다는 양반전을 위주로 글을 진행 해나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박지원은 풍자의 대가입니다. 6개의 이야기마다 당대 사회에 대한 풍자와 해학이 녹아있죠. 양반전에도 많은 풍자와 해학이 녹아 있습니다. 이 풍자와 해학은 단지 재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역할은 바로 소설의 주제에 접근하도록 돕는 것이죠.

실제로 양반전에서는 경제적 능력이 전무한 양반이 관가에 천 석이나 되는 빚을 졌지만 부자가 빚을 갚아주고 양반 신분을 사게 되는데요. 그러나 관가 군수가 겉으로는 부자를 칭찬하는 척 하면서 부자에게 불리한 양반 증서를 쓰게 되고, 부자는 화가 나 관가를 뛰쳐나갑니다. 그 이후로 부자는 평생 '양반'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부자는 아까운 돈 천 석만 날리고 양반은 공짜로 빚을 갚게 된 것이지요.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지 어리석은 부자만을 놀리는 것일까요? 저도 처음에는 단순히 그런 의미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집중해서 읽다보니 다른 의미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풍자와 해학이, 양반전의 핵심을 말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풍자와 해학의 의미를 분석하면서 박지원이 소설을 통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 결론을 찾아가며 글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박지원이 왜 이런 소설을 지었는지, 그리고 당시 한글이 인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의 소설은 모두 다 한문이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은 조선 후기 사람입니다. 신분질서가 무너지고 상인을 비롯한 백성들의 지위가 굉장히 높아졌죠. 이러한 사회의 변화 양상은 양반 신분을 사고팔고 한 '양반전'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글만 읽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양반을 비판하기도 하는데, "한 푼도 못되는 그놈의 양반"이라는 아내의 말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박지원이 이러한 상황에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길래 이런 글을 썼을까요? 정말로 무능한 양반을 비판하기만을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반전은 당대 몰락한 양반과 부유한 평민을 대조하며 신분제도의 붕괴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부유한 평민'입니다. 이 당시에 상인, 농사꾼 등의 평민의 지위가 많이 올라가고 몰락한 양반의 수가 늘었는데, 박지원은 이렇게 일반 평민의 지위가 세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평민의 지위가 높아지고 양반의 지위가 낮아지면서 '새로운 역사의 주인이 되는 평민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죠.

그는 양반집 자체였습니다. 비록 정치계에는 발들이지 않았으나 양반집 자체였기에 '양반은 위, 평민은 아래'의 철저한 신분 질서 아래서 돌아가는 사회를 원했습니다. 그는 점점 커지는 평민,천민의 세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백성들을 돕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일을 아니꼽게 보았죠. 이는 양반전에서 군수가 일부러 불리한 양반 증서를 작성해 신분 거래를 막아 위계질서 붕괴를 막은 것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때 부자는 "그만 두시오! 장차 나더러 도적놈이 되라는 말입니까?" 라며 양반 비판의 극치를 보여주는데, 이에 부자가 양반이 되려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신분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원하는 박지원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 박지원이 소설을 통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평민의 지위가 커지고 있다, 글만 읽고 있다가는 큰 코다치는 세상이 오고 있으니 정신 차리고 삶을 고쳐야한다." 라는, 신분제 붕괴에 대한 우려와 그에 대비

<그림27> 한문교전 읽기 한마당 대회 우수작(사예)

4. 맺으며

지금까지 교실 수업 외로 교실 밖에서 할 수 있는 한문교과 학습활동을 소개하였다. 30평 남짓의 교실 한칸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문과의 목표 수행을 보충하기 위해서라도 학습자에게 교과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주는 수업 외적인 활동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생각을 한 것은 한문교과가 당면한 현 교육과정의 모습과 무관하지 않다. 2009개정 교육과정부터 한문과의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중학교에서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의 확대는 선택과목의 시수 감소를 촉진했고, 특히 한문과의 시수 감소를 유발했다. 2011년부터 적용된 2009개정 교육과정부터 한문교과의 감소폭이 크게 늘어난 것이 그 예일 것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입시위주교육이 여전한 가운데 예술·체육 영역의 단위수 확대와 집중 이수제 실시로 한문과 제2외국어 교과 시수가 급감하였다. 또한 2009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고교선택제’는 개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서 비주요교과의 비중을 줄이도록 압박하고 있어, 현실상 입시와 관련이 적은 생활·교양교과군에 속하는 한문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어 부각되는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학 진로 진학에 필요한 교과 이수를 우선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에 반해, 한문은 대학 입시에 반영 비율이 타 교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교과로서 더욱 개별 학교나 학생들의 외면을 피할 수 없다.

2015개정 교육과정이 들어서면서 나타난 변화 중에, 4차산업혁명 기초를 명분으로하여 중학교에서 정보 교과가 선택에서 필수교과로 바뀌었다. 다만 정보 교과를 위한 별도 시수를 선택과목 시수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단서가 교육과정에 붙으면서, 중학교에서 선택교과의 시수는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개별학교에서는 한문과 제2외국어 교과 중 선택을 기로하는 설문조사에서 실용과목을 선호하는 분위기에 한문이 선택에서 외면되는 경우가 많다. 그에 따라 중학교에서 한문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한문을 처음 배우기도 하는, 학교급별 교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인의 학교에서는, 2019년까지 한문을 3단위로 운영되었다. 학기별로 1학년 전체학급을 반으로 나누어 3단위씩 지도하는 기형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결국 교육청은 우리학교 교육과정 컨설팅 과정에서 3단위 운영을 조정하라는 권고가 나왔고, 교육과정 운영 회의 결과, 예술·체육교과에서 1단위를 양보하여, 2020년부터 4단위로 운영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올바른 교육과정을 요구하는 본인의 주장과 타학교의 정상 운영 사례의 강조도 있었지만, 교실 밖 한문 활동의 이미지가 타 교과 교사에게 준 영향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전통문화를 알리고, 도구교과의 역할로 관련 교내대회를 진행하는 등의 모습으로, 아니면 위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방과후학교 한문 강좌 형태로도, 타교과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기 위해선 교과가 학교 현장에서 보여주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앞서 소개한 다양한 교실 밖 활동은 학생은 물론 타교과 교사에게도 한문 교과를 인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에서 교과의 선택을 받기 위한 학생들에게 교과 홍보를, 교육과정 수립을 계획하는 특정한 시기에만 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고교학점제’는 2025년부터 전국 고등학교에서 실시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대학 진학에 필요한 교과만 선택하여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는 방식이다. 모든 교과가 선택과목이 되는 것이다. 이에 학생들의 공감을 받는 교과만 남을 수 있는 치열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한문과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교실 내 수업을 보충하는 역할로 교실 밖 한문활동을 강조했다. 또한 고교학점제라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교실 내 수업 개선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교실 밖 교과활동도 어찌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할 것이 아닐까.

[참고문헌]

교육부(2015), 『한문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17])』

고교학점제(<https://www.hscredit.kr/>)

행복한교육(<http://happyedu.moe.go.kr/>)

김정식 허명성의 과학사랑(<https://sciencelove.com/2344/>)

류준경(2018), 「중등학교 한문과 교육의 실태-한문과 교원수 변동양상을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50, 한국한문교육학회

토론문

「한문교육과 생태교육」에 대한 토론문

안세현(강원대)

김우정 선생님의 「한문교육과 생태교육」은 생태교육의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한문교육에서의 생태교육 실천 방안을 모색해 본 것입니다. 생태문학이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에 풍미하였는데, 토론자는 이때 대학을 다니며 잠시 생태사상에 기웃했던 기억이 납니다. ‘생태주의’라고 하면 의례히 환경문제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오늘 선생님의 발표문을 통해 생태주의와 환경주의 차이, 사회생태주의·생태여성주의, 생태리터러시 등에 대해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생태주의가 “단순히 생태환경을 보호하자는 표피적인 강령이 아니라, 세계 내 모든 존재가 관계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새로운 인식론을 촉구”한, 근대 자본주의 문명을 근원적인 차원에서 반성한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문교육에서 생태교육의 실천 방안을 모색할 때, “동양의 생태사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동양의 이미지를 작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자아 오리엔탈리즘(auto-orientalism)’의 굴레에 빠질 우려가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토론자 역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토론자는 선생님의 논지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논의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두서없이 몇 가지 단견을 제시해 봅니다.

1. 학교교육에서의 생태교육 방향

생태주의는 환경주의와 다르며 인간과 자연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존재의 ‘상호연결성’을 지향합니다. 그러나 이는 다소 ‘급진적이고 근본적’인데, 학교교육에서의 생태교육은 그래도 ‘환경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생태주의 자체가 근대 산업문명이 가져온 생태적 위험에서 태동한 것이고, 그 생태적 위험은 환경문제와 깊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등학교에서의 생태교육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탐색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한문교육에서의 생태교육 실천 방안으로 ‘1. 탈인본적, 전일적 사고’, ‘2. 생태적 자연관’, ‘3. 관계의 윤리’ 등의 3가지를 제시하였는데, 2에 비중을 두고 그 인식론적 문제제기로서 1을 함께 다루는 것으로 생태교육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듯합니다.

2. 한문교육에서의 생태교육 현황

한문교육에서의 생태교육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선행 연구와 한문 교과서 등을 검토하여 한문교육에서의 생태교육 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행 연구 중에 한문교육 또는 국어교육에서 한문고전을 활용한 생태교육을 논의한 것이 더러 있습니다.(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은 많지 않으며, 대개는 부분적으로 논의한 것임.) 또한 2015 한문과 교육과정에 따른 한문 교과서를 보면, ‘선인들의 자연관’을 다룬 내용이 들어 있기도 합니다.(일례로 중학교 한문 교과서(동화사)의 ‘28. 자연의 주인은’ 소단원에 소식의 「적벽부」 일부를 본 문으로 제시하고, 학습목표 중에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자연관을 이해한다.’를 제시함. 「적벽부」는 선생님이 발표문에서 인용한 부분과는 다름. “且夫天地之間, 物各有主

…… 是造物者之無盡藏也，而吾與子之所共適.”)

3. 생태적 자연관을 보여주는 자료의 발굴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생태적 자연관은 유교적 사유보다는 장자적·불교적 세계관에 보다 맞닿아 있습니다. ‘2. 생태적 자연관’에서 李白의 「春夜宴桃李園序」, 蘇軾의 「赤壁賦」, 李奎報의 「山夕詠井中月」 등을 사례로 들었는데, 이 세 글 역시 장자적·불교적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문 교과서에는 여전히 유교 중심의 편향된 시각을 보여주는 자료가 많습니다. 특히 성어나 격언의 경우 현행 중등학교의 한문교육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한시나 한문산문에 비해 장자적·불교적 사유를 보여주는 성어나 격언은 거의 없습니다. ‘2. 생태적 자연관’의 사례로 성어나 격언을 발굴하여 논의에 보충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규보의 자연관」에 대한 토론문

김성중(계명대)

「<최척전>에 나타난 동아시아와 다문화」의 토론문

김은정(홍익대)

<최척전>은 16-7세기 초반의 격동하는 동아시아의 역사를 작품 배경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전란 속의 가족의 이산과 유랑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이른바 디아스포라의 서사를 담고 있다는 것 또한 오늘날의 시각에서 흥미로운 점입니다. 최지녀 선생님께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다문화’의 실상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의 교육적인 효과에 대해서 새롭게 조명하셨습니다. 작품에 담긴 다문화적인 요소를 다시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논문을 읽으면서 의문이 드는 점 몇 가지만 말씀드려 지정 토론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 작품에서 주인공 가족은 동아시아 전체를 배경으로 매우 극적인 삶을 살고, 저마다 다른 나라 사람과 일시적인 교류에 그치지 않은 깊은 교류를 갖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삶의 토대가 각각 중국과 일본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즉 교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비자발적이며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니다. 그 가운데 주인공 가족은 대체로 선한 인물과 조우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이국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당시 실제 동아시아의 현실을 어느 정도 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경계, 적대국 출신에 대한 적개심 등이 보다 현실적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척전>에 담긴 선한 교류가 현실과 같고 다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2언어 사용의 실태를 자세히 분석하고, 이의 교육적 활용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문화’된 한국 사회의 ‘다문화’ 가정에서 겪는 제1언어, 제2언어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 가운데 어느 한 쪽이거나, 둘 다 외국 출신일 경우 한국어와 제2언어의 동시에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게 되기까지 지난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작품에서 주인공이 2중 3중의 언어 구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논문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한자’라는 문자체계를 공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한자’가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영향력이 미미한 만큼, 현실적으로 교육적 활용을 위해서는 기초 한자 교육과 다양한 부교재 개발이 수반되어야 할 듯합니다. 이에 대해서 혹여 구상하시고 계신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념재시문초』 소재 일본사행시 창작 배경 연구』의 토론문

이효원(東京大)

이경근 선생님의 발표문은 필담창화집 소재 창화시에 대한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께서도 말하고 있듯이 필담집의 창화시는 대개 외교의 장에서 주고받는 의례적인 시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주된 연구 대상은 창화시보다는 필담에 치중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필담창화집의 대부분은 창화시로 채워져 있으며, 그것은 달리 말하면 오늘날 연구자의 인식과는 달리, 당대인들에게는 창화시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필담창화집 연구가 좀 더 깊은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창화시를 어떻게 평가하고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는 창화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면서, 동시에 조선에서 성립한 시집과 일본에서 성립한 창화집을 대조해서 검토한다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기존의 창화시 연구가 대개 시의 내용 분석을 통해 저자의 의도를 밝히는 방식을 취하는 데 비해 본 연구는 창화집과 시집의 관련성이라는 컨텍스트의 문제까지 아울러 다루고 있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자 또한 그간 창화시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었는지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발표자 선생님의 의도에 적극 동의하면서,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창작 배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창작 배경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창작이 이루어지게 된 시대적 배경이나 저자의 문학론이나 사상 같은 것들을 연상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주로 필담창화집과 시집의 관련성에 관한 내용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창작 배경이라고 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2. 1)에서 말씀하신 ‘원운시를 확인할 수 있는 차운시’는 2)의 경우에도 해당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1)에서 후지산 시를 소개하신 부분이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후지산에 대한 시는 한일 양국의 문사들이 많은 지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봉환과 같이 연작시로 쓴 것은 드문 듯합니다. 또 스이간과 이봉환의 후지산에 대한 인식 차이도 눈에 띕니다. 특별히 이 시를 소개하신 이유가 있는지 다른 시의 내용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연작시 다섯 수를 모두 소개하고 여타 후지산시와 비교해서 검토한다면 이봉환의 후지산 시의 특징이 더욱 부각되지 않을까 합니다.

2. 3)에서 필담창화집을 검토함으로써 『우념재시문초』 시의 의미가 분명해진다는 점은 시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제시하신 시 이외에, 필담창화집에 수록된 정보를 통해 『우념재시문초』 소재 시의 전후 맥락이 밝혀지거나 의미가 분명해지는 경우가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이런 사례를 좀 더 소개해주셨으면 합니다.

3. 여기서는 필담창화집을 중심으로 비교가 이루어졌고 사행록은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시가 지어진 배경이나 맥락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사행록의 정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령, 6면에서 “이키노시마에서 제대로 된 바람이 불지 않아 예정대로 항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어진 것” 이라고 하신 부분이나, 9면 「비파호의 겨울」과 같은 시를 해석할 때 사행록을 참조한다면 사행단이 봉착한 상황과 분위기, 감정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4. 시의 해석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5면에 보이는 스이간의 시 「壹岐舟中五首, 贈呈學士三記室僉榻下」는 이봉환에게 준 시임을 생각할 때 여기서 말하는 ‘부평초’는 이봉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지요? 그렇다면 2연은 몸은 멀리 이역 땅에 있으나 정신은 멀리 고향에 내달린다는 뜻으로 보는 것은 어떨지요? 만일 그렇다면 ‘스이간을 격려하기 위해서’라고 한 차운시의 해석 역시 달려져야 할 듯합니다. 또 이봉환의 차운시 「次芝林」의 1연에서 “黃錦袈裟綵帳間”라고 하여 스이간을 묘사한 것도 화운시이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달마에 빗대고 있지만 스이간을 직접 묘사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2연 “折蘆行色度銀山”에서 “度銀山”은 혹시 “銀山鐵壁”의 뜻으로 화두를 참구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5.기타

통신사원: 일반적으로 ‘통신사 일행, 통신사행원’이라고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통신사: 근래에는 통신사 혹은 일본통신사 라고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파호 -> 비와호

발자국을 -> 발자국은

「李生窺牆傳」과 「그 여자네 집」 함께 읽기를 통한 한문소설 수업 방안 모색」의 토론문

김수영(서울시립대)

1. 김시습의 「이생규장전」(李生窺牆傳)은 15세기 한국 전기소설(傳奇小說)의 명편입니다. 하지만 한문을 전공하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수업을 통해 원문 텍스트 전체를 정밀하게 지도하기 어려운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발췌독의 방식으로 원문을 선택적으로 가르치되 작품 전반의 미적 특성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좋은 방안은 없을까? 김하라 교수님의 본 발표는 이러한 물음에서 출발해 고전소설 「이생규장전」과 현대소설 「그 여자네 집」, 두 작품을 대상으로 ‘비교 읽기’를 시도한 참신한 수업 방안입니다. ‘소설 비교 읽기’의 경우, 주제의식과 서사 특성에서 주요한 공통점을 지니는 동시에 작품의 질적 성취와 수준이 어느 정도 대등한 두 작품을 선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점에서 그 비교 대상의 선정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생규장전」과 「그 여자네 집」은 ‘소설 비교 읽기’의 대상으로 삼기에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비단 한문교육과의 전공 수업에서만 아니라 국어국문학과와 여러 전공 수업(고전소설론, 고전소설사 등)에서도 앞으로 발표자께서 제안한 이 수업 방안을 유의미하게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발표자께서는 2018년 2학기에 전주대학교 한문교육과 전공수업인 ‘한문소설선독’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교육 내용을 토대로 본 수업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즉, 수강생들로 하여금 김시습의 「이생규장전」과 박완서의 「그 여자네 집」을 모두 읽게 한 뒤, 인물·사건·배경이라는 소설 구성의 3요소를 중심으로 두 작품의 ‘공통점’을 조별 논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찾아내도록 지도했습니다. 이처럼 ‘비교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방법은, 자칫 조별 논의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이끄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작품의 공통점을 다룬 발표문의 내용 중, 몇몇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먼저 ‘인물’의 공통점 부분입니다. 발표자께서 잘 분석하셨듯이, 「이생규장전」의 남녀 주인공인 이생과 최랑, 「그 여자네 집」의 남녀주인공인 만득과 곱단은 비교 대상으로 삼기에 충분한 두드러진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남자 주인공의 핵심적인 유사성을 “개천의 용 이생과 만득”으로 요약하는 것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생과 만득 모두 지금의 황해도 개성 출신의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주지하듯 14세기의 개성은 고려왕조의 수도로서 당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지리적으로 거의 인접한 장소라 할지라도 14세기의 개성과, 1940년대 개성 인근의 ‘행촌리’는 사회문화적 의미 차이가 큼니다. 또한 이생은 엘리트 양성을 위한 국가교육기관인 성균관의 학생인 데 반해, 만득은 낮은 나이에야 중학교에 입학한 시골 청년입니다. 그러므로 두 작품 속 남자 주인공 모두를 “개천의 용”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발표자께서 이미 주목하셨듯이, ‘신의’(信義)라는 내면적 가치를 중심으로 두 남자 주인공의 공통점에 대한 논의를 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또한 두 남자 주인공의 비교 과정에서 ‘문에 취향’ 및 ‘시인적 면모’에 대한 비교가 강화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만득의 경우 ‘시심’(詩心)에 대한 의미 분석이 잘 되어 있는데, 이생의 경우에 대한 분석은 소략한 편입니다. 전기소설은 그 장르 규범상 삽입시의 서사적 기능과 의미가 큰 만큼, 그러한 점이 좀더 논의되면 좋겠습니다.

2) 다음으로 ‘사건’의 공통점 부분입니다. 「이생규장전」과 「그 여자네 집」은, 사랑하는 두 남녀주인공이 불가항력적인 세계의 횡포 앞에서 비극적인 이별을 맞게 되나, 끝까지 자기대로의 방식으로 신의를 지키고자 애쓰는 서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독자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 고귀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고, 나약하고 깨지기 쉬우면서도 달리 보면 무엇보다 강인하기도 한 인간 존재에 대해 성찰하게 됩니다. 발표문 중 ‘외침, 그리고 최씨와 곽단의 희생’에 대한 서술이 이러한 두 작품의 중심사건에 대한 분석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최씨와 곽단의 희생’에 대해서만 분석이 이루어지고, 이생과 만득의 행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쉽습니다. 아마도 ‘인물’의 공통점 부분에서 이미 서술된 내용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안배가 아닐까 추정됩니다. 그렇기는 하나, 두 작품의 남녀 주인공이 함께 겪는 ‘짧은 만남과 긴 이별’이라는 중심사건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남자 주인공의 행위에 대한 분석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최량의 죽음 이후, 또 곽단의 (상징적) 죽음 같은 졸속 결혼 이후, 두 남자 주인공이 택한 신의있는 행위는 작품의 주제의식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생의 행위는 ‘죽음’조차도 뛰어넘는 절대적인 사랑의 면모를 보여주고, 만득의 행위는 개인적인 사랑을 넘어 식민지 시기를 겪은 동포 전체로 확장된 성숙한 사랑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중심사건에 대한 비교 논의가 좀더 자세하게 이루어져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3) 끝으로 ‘배경’의 공통점 부분입니다. 발표자께서는 정밀한 역사지리적 분석을 바탕으로 두 작품의 공간적 배경을 입체적으로 고찰한바, 이러한 방법을 수업에 도입하면 학생들이 느끼는 소설 읽기의 즐거움이 배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작가 김시습이 개성에서 쓴 여러 시편을 두루 검토하면서 ‘개성’이라는 공간적 배경의 ‘장소성’을 심도 있게 분석한 논의가 돋보입니다.

한편 이 부분을 읽으면서 (잠시나마 국문학도였던) 박완서 작가께서 「이생규장전」이라는 고전소설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자 하는 의식적 지향을 가지고 「그 여자네 집」을 구상하신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단언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발표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은애전』을 통해서 본 조선후기 법의식」의 토론문

백승호(한남대)

김유진 선생님의 발표문은 이덕무의 은애전, 『추관지』, 『심리록』, 성해옹의 「김은애전」, 정약용의 『흙흙신서』 등 김은애 옥사에 관한 다양한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그 차이와 의미를 분석한 점이 돋보이는 글입니다. 발표문은 읽으며 논지의 이해를 위해 궁금했던 점을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발표문의 1면에 쓰신 ‘정조의 법의식은 (…중략…) 사회 윤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초법적인 복수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관점을 보여주는’ 이라는 문장과 논문의 부제 ‘복수를 권하는 사회’로 대표되는 발표문의 관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조는 치세 기간, 통치 이념의 차원에서 주자학적인 가치관을 지배 이념으로 공고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정조가 살인 사건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러한 판결을 내리고, 이덕무에게 「은애전」을 쓰게 한 것은 통치 이념의 표방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19세기 초반 사적인 복수가 충과 효라는 가치로 포장되었던 한 세대 이후의 현실을 개탄하는 정약용의 비판적 서술은 그 말류의 폐해라는 별도의 문맥에서 읽어야 하지 않을까요? 인의를 본질적인 가치로 설정하고 예치를 추구한 군주의 통치 이념 표방 행위를 ‘윤리의식이 법의식에 앞서는 양상’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현대 국민국가의 법치를 기준으로 판단을 내렸다는 인상이 듭니다.

2.

신여척, 김은애, 김계손 사건이 일련의 관련성을 갖고 상호 호명하고 있다는 지적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애 이야기와 강상열효녀 이야기가 결합되는 양상에 주목하여 이와 같은 한문 단편이 사실에서 허구로 나아가는 소설화 단계 이전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서술도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 외 발표문 곳곳에서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언급을 하였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의미 있는 지적들이 발표문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완하는 인용, 분석, 서술이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문과에서 다문화 학생 문화 교육」의 토론문

장재익(수완고)

현재 학교 공간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다양성이 존중되는 곳으로 변모해 왔습니다. 이는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학생의 다양한 이주 배경과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 교육 사각지대 해소와도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인 광주의 다문화학생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 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2016	1,778	386	240	2,404
2017	1,987	377	245	2,609
2018	2,324	454	262	3,040
2019	2,741	511	301	3,553

(단위: 명, 매년 4.1. 교육통계)

※ 광주 초·중고 전체 학생 수: ('18)188,539명→('19)181,699명(△6,849명)

광주지역의 전체 학생은 감소하고 있지만 다문화학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가 추이는 광주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동소이하겠지만 다문화사회를 맞이한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연구자의 한문과안에서의 다문화 학생 문화 교육은 시의성 있는 주제일 것입니다. 아울러 한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소통 창구인 문화 교육을 다문화 학생의 교육내용으로 설정한 취지도 공감하는 바가 큼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연구자의 욕고를 참고하여 저의 평소 다문화학생 교육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첨언하는 것으로 토론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선 연구자께서도 언급했던 다문화학생의 특성을 세분화하여 부모 출신국별, 가족유형별(국내출생,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자녀)로 더욱 밀도 있게 학생들의 요구를 조사해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면담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통해 한문이 다문화학생들에게 필요하다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닌 문화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까지 논의를 전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한문과에서 다문화학생의 문화 교육과는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시해준다면 한문과 다문화학생 문화 교육의 실제에 틀을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율 동아리 활동을 통한 다문화교육과 한자어휘교육」의 토론문

정효영(등촌중)

발표를 통해 발표자의 사례를 생생하게 전달받고 싶다는 생각이 든 발표문입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하여 직접 발표를 들을 수 없는 점이 아쉬울 뿐입니다. 발표자의 사례는 다문화 학생에 대한 한자 어휘 교육을 동아리 활동을 통해 시도한 부분이 참신하다고 할 수 있다. 교실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학생들의 학습 차이의 극복 방안을 고민하는 현장 교사들에게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전체 학생의 30% 정도가 다문화 학생인 상황에서 특별한 수업 방법을 찾아야 하는 고충이 글을 통해 오롯이 전달됩니다. 다만, 발표문만을 통해서도 수업의 실재를 확인할 수 없어 궁금한 점 몇가지를 여쭙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국어 어휘에 한자어의 비중이 상당함을 인식시킴으로써 한자교육의 중요성을 인지시키며, 어휘 학습을 통해 다문화 학생들의 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이 달성되었는지요?

2. 한자의 기본 원리를 익힘으로써 쉽게 한자어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한자와 한자 어휘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학생들의 쉽게 한자 어휘를 수용할 수 있었다는 것인지요?

코로나로 인하여 학교 현장에서도 새로운 수업 방법이 요구됩니다. 발표자는 줌, 카카오톡 등 여러 새로운 수업 방법을 시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수업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저를 비롯한 여러 현장 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한문교육」의 토론편

이동일(청명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교과교육 활동에도 접목해서 지도하는 것이 필요도 생각합니다.

기존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 활동으로는 경찰 등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강연을 듣는 활동이 주가 되었다면 최근에는 학교폭력 예방 UCC 만들기 활동 등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활동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과 교육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 자료는 기초 및 탐구 교과 등은 어느 정도 자료가 있으나 한문 교과의 경우에는 참고할 자료가 마땅히 없었으나 이번 발표 자료를 통해 역량 중심 교육과 관련지어서 함께 고민하고 더 다양한 자료를 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청소년기에는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심리가 강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과정에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행동하는 경우 학교폭력의 양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어울림 역량 부분에서 특히 자기 존중감(자존감)을 높이는 활동이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하며 ‘자기 성찰 일지’를 통해서 반성을 통한 개선과 아울러 자신의 장점을 더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감정조절 또는 자기존중감 부분에서는 상대방의 장점을 찾고 적절한 한자 또는 한자어를 선택해서 덕담 카드를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주는 활동을 제안합니다.

갈등 해결 부분에서는 내적인 갈등보다는 타인과의 외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 중 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발표 자료의 학습 내용과 어울리는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연구자의 의견처럼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제 선정, 제작 방법 등을 의논하는 과정에서 의사 소통을 하고 공감하는 등 체득하는 교육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합니다.

중학교는 1학년 자유학기제(학년제)에 따라서 교육과정 재구성 및 평가 방법 및 내용에 관한 유연성 등이 있으나 중학교의 다른 학년과 고등학교는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제약이 있으니 학교급에 맞는 학습 내용과 활동 방안도 모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15개정교육 총론과 관련해서 교육부고시 제 2020-225호에서는 고등학교 단위의 의미 및 수업량 유연화라는 항목으로 ‘고등학교에서는 단위를 기준으로 수업량을 계산하며, 1단위는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학기당 17회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17회 중 1회의 수업은 학교가 해당 교과 또는 타교과 융합형의 프로젝트 수업, 보충 수업, 동아리 활동 연계 수업, 과제 탐구 수업 등 자율적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활동 내용 및 운영 등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어서 교육과정 재구성 등을 통한 활동을 구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각 어울림 역량에 알맞은 학습 내용과 학습자의 발달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작업의 촉매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교실 밖 ‘한문’하기」의 토론문

김은경(성사고)

이 논문은 정규 수업 시간 외에 교실 밖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한문 교과 학습 활동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고서를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도록 구성한 ‘한문 박물관’, 생활 속 한자 어휘를 소개하는 전시회인 ‘한문의 거리’, 교과에 수록된 한자 어휘 실력을 기르는 ‘교과 한자 어휘 겨루기’, 한문 도서 서평 쓰기를 통해 한문 고전 읽기 대중화를 시도한 ‘한문 고전 읽기 한마당’. 모든 사례들이 한문과 교육과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자연스럽게 ‘한문의 가치’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특히, 활동 결과를 학생 개인의 진로·진학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교과와 연계한 부분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한문 교과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활동 한 가지 한 가지 속에 담긴 선생님의 열정과 수고에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토론자로서 이 논문이 보다 많은 현장 선생님들께 공유되고 일반화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논문에 사용된 ‘교실 밖’이라는 용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교실 밖’은 ‘교실 안’의 상대적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규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수업은 ‘교실 안’이며, 정규 수업 이외에 학교 안에서 행해지는 활동은 ‘교실 밖’이라고 이해됩니다. 다만, 타 교과의 연구 결과들에서 ‘교실 밖’을 ‘(학교 밖) 체험 활동’과 동의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째, 논문의 제목 ‘한문 하기’에 담겨 있는 의미를 여쭙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한문 수업하기’나 ‘한문 활동하기’가 아닌 ‘한문 하기’라는 표현을 쓰신 특별한 이유나 의미가 있으신지요. 물론, ‘수업’의 조건인 ‘교수, 학습, 상호작용’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문 수업’이라는 용어는 피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매우 포괄적인 ‘한문 하기’라는 표현을 통해 선생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신 활동의 방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한 학교에 한 사람밖에 없는 한문 교사가, 수업 외에 교과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기에 선생님의 실천과 연구가 더욱 귀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한문 수업을 듣지 못한 학생들에게도, 한문 교과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점은 이 활동의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과 선택의 순간, 일상 속에서의 경험의 결정의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실천과 연구에 더 큰 진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韓國漢文教育學會

2020年 夏季學術大會

한문교과를 통한 융합교육의 구현

발행일: 2020年 7月 3日

발행처: 韓國漢文教育學會

<http://www.hanmunedu.or.kr>
